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2-2

ISBN 978-89-98568-01-6

#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이현주, 권지성



## 발 간 사

최근 우리 사회는 지구화와 경쟁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인한 불평등과 빈부의 양극화 현상 및 저출산과 노령화 등의 많은 문제가 산재한 위기에 당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민간기관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 문제와 시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체제 실현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복지재단은 대전시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 도시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대전 시민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서 도출된 시민들의 욕구는 향후 대전시 사회복지시책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본 조사에서 설계된 조사의 틀을 이용한 지속적인 욕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대전시 사회복지시책과 사회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타당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보고서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책임연구를 맡아 애써 주신 이현주 연구원과 공동연구자 권지성 교수, 강수경 연구보조원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조사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신 민관 관계자 여러분, 자문위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여러분과 100여명의 조사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조사에 참여하여 주셨던 총 3,800여명의 대전 시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대전복지재단은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김 화 중



# 목 차

<b>제1장 대전 시민 복지욕구조사 개관</b>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기대 효과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기대 효과 .....	1
제2절 연구 과정 .....	2
1. 전문가 자문 회의(2회) .....	2
2.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4회) .....	2
3. 중간보고회 .....	3
4. 결과보고회 .....	3
제3절 조사 과정 .....	4
1. 양적 조사 과정 .....	4
2. 질적 조사 과정 .....	5
<b>제2장 대전광역시 일반적 특성</b> .....	6
제1절 대전 일반 현황 .....	6
1. 행정구역 .....	6
2. 인구 .....	7
3. 가족 .....	19
4. 경제 .....	25
5. 노동 .....	31
6. 보건 .....	40
7. 복지 .....	54
8. 문화·여가 .....	61
9. 교육 .....	64
10. 기타 생활전반 .....	65

<b>제3장 양적 조사 결과</b> .....	<b>69</b>
제1절 대전 시민 복지욕구조사 표본설계 .....	69
1. 조사 목적 .....	69
2. 모집단 정의 .....	69
3. 표본크기와 추출단위 .....	70
4. 표본 배분 .....	70
5. 표본 추출 .....	74
6. 가중치 계산 및 모수추정 .....	75
제2절 양적 조사의 결과 .....	79
1. 소득·고용 .....	79
2. 건강·의료 .....	85
3. 평생교육·여가문화 .....	90
4. 가족·자녀교육 .....	96
5. 주거·지역사회 .....	107
6. 기타·사회복지서비스 .....	112
7. 노인 .....	117
8. 장애인 .....	125
9. 여성 .....	131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134
<b>제4장 질적 조사 결과</b> .....	<b>139</b>
제1절 질적 조사의 필요성 .....	139
제2절 조사방법 .....	141
1. 조사 참여자 .....	141
2. 자료수집 방법 .....	142
3. 자료분석 방법 .....	142
제3절 분석 결과 .....	143
1. 집단별 분석 .....	143
2. 통합 분석 .....	197
제4절 소결 .....	204

제5장 제언 .....	207
※ 부록 .....	209
<부록 1> 150개 표본 통, 반 리스트 .....	209
<부록 2> 구별, 동별로 조사된 가구 수 현황 .....	214
<부록 3> 설문지 .....	215

## 표 차례

〈표 2-1-1〉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	7
〈표 2-1-2〉 대전광역시 총 인구(외국인포함) .....	7
〈표 2-1-3〉 주요도시 인구 및 세대현황(외국인 제외) .....	8
〈표 2-1-4〉 시도별 이동자 수 .....	9
〈표 2-1-5〉 대전광역시 각 구별 이동자 수 .....	9
〈표 2-1-6〉 대전광역시 구별 인구 및 세대현황(외국인 제외) .....	10
〈표 2-1-7〉 대전광역시 6세 이상 인구의 최종학력 .....	12
〈표 2-1-8〉 대전광역시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 .....	13
〈표 2-1-9〉 대전광역시 성별 세대구성별 인구 .....	13
〈표 2-1-10〉 전국 장애인 현황(2005, 2101) .....	17
〈표 2-1-11〉 대전광역시 성별 장애인 현황(2011) .....	18
〈표 2-1-12〉 가족관계 만족도(2010) .....	22
〈표 2-1-13〉 가사분담실태(2010) .....	23
〈표 2-1-14〉 시도별 소비자물가조사 .....	26
〈표 2-1-15〉 시도별 생활물가조사 .....	27
〈표 2-1-16〉 주관적 소득수준(2011) .....	28
〈표 2-1-17〉 가구소득/부채변화(2011) .....	29
〈표 2-1-18〉 소득/소비생활 만족도(대전광역시) .....	31
〈표 2-1-19〉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	32
〈표 2-1-20〉 대전시 연령계층별 실업률 .....	33
〈표 2-1-21〉 대전광역시 고용동향 .....	34
〈표 2-1-22〉 전국 장애인고용 현황(2010) .....	35
〈표 2-1-23〉 직업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	37
〈표 2-1-24〉 고용안정성(2011) .....	38
〈표 2-1-25〉 시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	41
〈표 2-1-26〉 대전광역시 현금급여 실적(2010) .....	43
〈표 2-1-27〉 대전시 의료이용 현황 .....	44

<표 2-1-28> 대전광역시 요양기관 현황 .....	46
<표 2-1-29>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 수 및 인력 .....	47
<표 2-1-30> 시도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	48
<표 2-1-31> 시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	49
<표 2-1-32> 시도별 의료급여 적용인구 .....	50
<표 2-1-33>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	51
<표 2-1-34> 의료서비스 만족도(2010) .....	53
<표 2-1-3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	55
<표 2-1-36>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2011) .....	57
<표 2-1-37> 우선 확대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 .....	58
<표 2-1-38> 수급비 재원 .....	59
<표 2-1-39>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60
<표 2-1-40> 대전광역시 문화공간 현황 .....	61
<표 2-1-41> 여가불만족 이유 .....	64
<표 2-1-4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2010) .....	64
<표 2-1-43> 스트레스 정도(2010) .....	66
<표 2-1-44> 생활여건의 변화(2011) .....	67
<표 3-1-1> 대전시 구별 2010총조사 내국인과 2012주민등록인구 현황 .....	70
<표 3-1-2> 할당방법별 구별 할당결과 .....	71
<표 3-1-3> 구별 할당결과에 대한 기대표본오차 .....	72
<표 3-1-4> 구·동별 표본지점 할당결과 .....	72
<표 3-1-5> 구별 조사된 가구 수와 가중치 .....	75
<표 3-1-6> 구별 성별*연령대별 조사된 표본 수 .....	76
<표 3-1-7> 구별 성별 * 연령대 주민등록인구 .....	77
<표 3-1-8> 구별 성별 * 연령대 개인 가중치 .....	77
<표 3-2-1> 대전 시민의 월평균 소득액 .....	79
<표 3-2-2> 대전 시민의 월평균 지출액 .....	79
<표 3-2-3> 소득원 .....	80
<표 3-2-4> 지출처 .....	81
<표 3-2-5> 경제적 여유 .....	81

<표 3-2-6> 대전시 가구 부채 비율 및 부채의 원인 .....	82
<표 3-2-7> 지난 1년 간 휴직 경험과 이유 .....	82
<표 3-2-8> 근로 중지 후 생계방법 .....	83
<표 3-2-9> 고용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만족도 .....	83
<표 3-2-10> 일자리 구할 때의 어려움 경험 유무 .....	84
<표 3-2-11>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형태 .....	85
<표 3-2-12> 지난 1년 간 질병이나 사고 발생 경험 및 당면 어려움 .....	86
<표 3-2-13>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가 필요했음에도 치료받지 못한 가족원 유무 및 당면 어려움 .....	86
<표 3-2-14>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	87
<표 3-2-15> 우울 정도 .....	87
<표 3-2-16> 정신 건강 문제 .....	88
<표 3-2-17> 보건소 이용률 및 만족도 .....	88
<표 3-2-18> 보건소 이용 목적 .....	89
<표 3-2-19> 보건소 이용 이유 .....	89
<표 3-2-20> 보건소 미 이용 이유 .....	89
<표 3-2-21> 평생교육 여부 .....	91
<표 3-2-22> 시도별 평생 교육 이용자 현황 .....	91
<표 3-2-23> 평생교육에 대한 선호 강좌 .....	92
<표 3-2-24>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 .....	92
<표 3-2-25> 여가활동의 어려움 .....	93
<표 3-2-26> 만족스러운 여가를 위해 필요한 것 .....	93
<표 3-2-27> 확충이 시급한 여가 및 문화시설 .....	94
<표 3-2-28> 문화 시설과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94
<표 3-2-29> 배달강좌제 인지여부 및 신청 여부와 만족도 .....	95
<표 3-2-30> 가족관계 만족도 .....	96
<표 3-2-31> 가족 내 어려움 .....	97
<표 3-2-32> 가족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	98
<표 3-2-33> 영유아 자녀 보육비용의 부담 .....	98
<표 3-2-34> 유아교육기관 이용 .....	99
<표 3-2-35>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만족도 .....	99
<표 3-2-36> 보육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	100

<표 3-2-37> 영유아 복지 제도와 시설 .....	101
<표 3-2-38> 영유아 복지 제도와 시설의 구별 이용 빈도 .....	101
<표 3-2-39> 아동·청소년 자녀 보육 비용의 부담 .....	102
<표 3-2-40>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 형태 .....	102
<표 3-2-41>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 .....	102
<표 3-2-42>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만족 .....	103
<표 3-2-43>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	103
<표 3-2-44>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와 시설 .....	104
<표 3-2-45>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와 시설의 구별 이용 빈도 .....	105
<표 3-2-46> 어린이 안전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 .....	105
<표 3-2-47> 주택의 유형 .....	107
<표 3-2-48> 집의 점유 형태 .....	107
<표 3-2-49> 주거복지관련 사업 이용 경험 .....	108
<표 3-2-50> 대전 거주 기간과 거주 이유 .....	108
<표 3-2-51> 지역에 대한 만족도 .....	109
<표 3-2-52> 지역 사회 문제 심각도 .....	110
<표 3-2-53> 사회복지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	110
<표 3-2-54> 지역 사회 응집력 .....	111
<표 3-2-55> 대전 거주 기간에 따른 지역 사회 응집력 .....	111
<표 3-2-56> 지역 내 경제적 활동 여건 만족도 .....	111
<표 3-2-57> 사회복지만족도-기관(시설)기여도, 복지수준정도, 욕구반영정도, 복지정책만족도 ..	113
<표 3-2-58> 복지만두레 인지도 .....	113
<표 3-2-59> 교육만두레 인지정도 .....	114
<표 3-2-6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	114
<표 3-2-61> 바우처 이용 및 만족도 .....	115
<표 3-2-62> 바우처 제도의 인지 빈도에 비한 이용 빈도 .....	115
<표 3-2-63> 긴급지원제도의 인지도와 만족도 및 구별 인지도 .....	116
<표 3-2-64> 노인의 직업 유무 및 근로 의향 .....	117
<표 3-2-65> 노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 .....	118
<표 3-2-66> 노인이 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18
<표 3-2-67> 노인이 일 하고 싶은 이유 .....	118

<표 3-2-68>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 .....	118
<표 3-2-69> 노인의 여가를 즐기는 방법 .....	119
<표 3-2-70> 노인이 원하는 여가 활동의 종류 .....	119
<표 3-2-71>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 및 자원봉사 의향 .....	120
<표 3-2-72> 노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 봉사 분야 .....	120
<표 3-2-73> 노인의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	120
<표 3-2-74>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21
<표 3-2-75> 노인복지관련 시설·기관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	121
<표 3-2-76>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	122
<표 3-2-77>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	123
<표 3-2-7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	124
<표 3-2-79> 장애인의 직업 유무 및 근로 의향 .....	125
<표 3-2-80> 장애인이 원하는 종류의 일 .....	126
<표 3-2-81> 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26
<표 3-2-82>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필요한 것 .....	126
<표 3-2-83> 장애인을 위한 차별 제거를 위해 필요한 것 .....	127
<표 3-2-84>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 .....	127
<표 3-2-85>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기관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	128
<표 3-2-86>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희망하는 것 .....	128
<표 3-2-87> 장애인복지 서비스 .....	129
<표 3-2-88> 장애 예방을 위해 주력해야 할 사업 .....	129
<표 3-2-89> 장애인 복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사업 .....	130
<표 3-2-90> 각 구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사업 .....	130
<표 3-2-91>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 .....	132
<표 3-2-92> 산전후 휴가 제도 .....	132
<표 3-2-93> 육아휴직제도 .....	132
<표 3-2-94> 여성복지 관련 시설·기관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	133
<표 3-2-95> 여성 복지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	133
<표 3-2-9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기간과 만족도 .....	135
<표 3-2-9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의 수급을 받게 된 이유 .....	135
<표 3-2-98> 의료급여서비스 이용 어려움 .....	135

<표 3-2-99> 탈수급 욕구 .....	136
<표 3-2-100>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	136
<표 3-2-101> 원하는 직업 훈련 .....	136
<표 3-2-102> 자활사업의 참여 경험 유무 및 향후 참여 희망 유무 .....	137
<표 3-2-103>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싫은 이유 .....	137
<표 3-2-104> 저소득층 관련 복지 서비스 .....	137
<표 3-2-105> 희망키움통장 인지도 .....	138
<표 4-3-1>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욕구 .....	145
<표 4-3-2> 학령전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의 경험 .....	149
<표 4-3-3> 아동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집단의 욕구 .....	153
<표 4-3-4> 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욕구 .....	156
<표 4-3-5> 청소년기 중고생들의 욕구 .....	160
<표 4-3-6> 청년 전기 대학생들의 욕구 .....	163
<표 4-3-7> 취업 중인 청년전기 성인들의 욕구 .....	167
<표 4-3-8> 미혼자인 청년후기 성인들의 욕구 .....	171
<표 4-3-9> 기혼자인 청년후기 성인들의 욕구 .....	175
<표 4-3-10> 장년기 남성의 경험 .....	178
<표 4-3-11> 장년기 여성들의 욕구 .....	181
<표 4-3-12> 노년 전기 부부의 경험 .....	184
<표 4-3-13> 노년 전기 단독 노인들의 경험 .....	187
<표 4-3-14> 배우자가 있는 노년후기 어르신들의 욕구 .....	190
<표 4-3-15> 배우자가 없는 노년후기 어르신의 욕구 .....	194

## 그림 차례

[그림 1-2-1] 욕구조사 피라미드 유형 .....	4
[그림 2-1-1] 대전광역시 구별 면적 .....	6
[그림 2-1-2] 대전광역시 성별 인구 .....	7
[그림 2-1-3] 각 구별 이동자 수 .....	10
[그림 2-1-4] 대전광역시 연령별 인구-내국인(2010) .....	11
[그림 2-1-5] 초등학교 학력 성비 .....	12
[그림 2-1-6] 대학원(박사) 학력 성비 .....	12
[그림 2-1-7] 대전광역시 성별 노인인구 .....	14
[그림 2-1-8] 대전광역시 연령별 노인인구 .....	14
[그림 2-1-9] 대전광역시 결혼상태별 노인인구 .....	15
[그림 2-1-10] 대전광역시 가구형태별 노인인구 .....	15
[그림 2-1-11] 대전광역시 교육수준별 노인인구 .....	16
[그림 2-1-12] 대전광역시 취업상태별 노인인구 .....	17
[그림 2-1-13] 대전광역시 장애급수별 장애인 현황(2011) .....	19
[그림 2-1-14] 가구주 부모의 동거자 .....	20
[그림 2-1-15]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	21
[그림 2-1-16] 가족관계 만족도(2010) .....	22
[그림 2-1-17]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23
[그림 2-1-18] 부부별 가사분담 인식차이 .....	24
[그림 2-1-19] 가사분담 인식도(부인) .....	24
[그림 2-1-20] 여성취업 장애요인(남) .....	25
[그림 2-1-21] 여성취업 장애요인(여) .....	25
[그림 2-1-22] 주관적 소득수준(대전-2011) .....	28
[그림 2-1-23] 소득/부채 변화 체감도 .....	29
[그림 2-1-24] 소득 만족도 .....	30
[그림 2-1-25] 소비생활 만족도 .....	30
[그림 2-1-26] 대전 실업률과 고용률(남) .....	32

[그림 2-1-27]대전 실업률과 고용률(여) .....	32
[그림 2-1-28]대전시 연령계층별 실업률 .....	33
[그림 2-1-29]장애인 고용률 .....	36
[그림 2-1-30]직업별 경제활동인구 현황(2012. 10) .....	37
[그림 2-1-31]2011 영역별 근로여건 만족도(남) .....	38
[그림 2-1-32]2011 영역별 근로여건 만족도(여) .....	39
[그림 2-1-33]연도별 대전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	40
[그림 2-1-34]현금급여 내용(직장가입자) .....	42
[그림 2-1-35]현금급여 내용(지역가입자) .....	42
[그림 2-1-36]대전시 구별 의료이용 현황(근로자) .....	44
[그림 2-1-37]대전시 구별 의료이용 현황(공·교) .....	45
[그림 2-1-38]대전시 구별 의료이용 현황(지역) .....	45
[그림 2-1-39]대전 장기요양기관 수 .....	48
[그림 2-1-40]대전 장기요양기관 정원 .....	48
[그림 2-1-41]2011 주요도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 .....	49
[그림 2-1-42]대전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	50
[그림 2-1-43]대전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	51
[그림 2-1-44]대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	52
[그림 2-1-45]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및 의료서비스 종류 .....	52
[그림 2-1-46]의료서비스 만족도 .....	53
[그림 2-1-47]흡연비율 및 흡연양 .....	54
[그림 2-1-48]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	56
[그림 2-1-49]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현황 .....	56
[그림 2-1-50]사회보험료 부담 인식도(2011) .....	57
[그림 2-1-51]장애인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	58
[그림 2-1-52]향후 늘려야할 공공시설 .....	59
[그림 2-1-53]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 .....	59
[그림 2-1-54]수급자 수 .....	60
[그림 2-1-55]국민기초생활급여 재원 .....	61
[그림 2-1-56]국민기초생활급여 내용 .....	61

[그림 2-1-57]대전광역시 문화공간 현황(2006~2009) .....	62
[그림 2-1-58]문화공간 구성 .....	62
[그림 2-1-59]가족여가 제약요인(2010) .....	63
[그림 2-1-60]여가활동 만족도 .....	64
[그림 2-1-61]학교생활 만족도(2010) .....	65
[그림 2-1-62]스트레스 수준(2010) .....	66
[그림 2-1-63]생활여건 변화(남) .....	67
[그림 2-1-64]생활여건 변화(여) .....	68

## 요 약

### □ 개요

- 지방분권화의 확대에 따라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만족도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별·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욕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대전시와 각 구의 지역사회복지 전략 및 시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해 대전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 조사설계

-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 양적조사: 대전 77개동 총 150개 통반에 거주하고 있는 대전 시민 총 3,68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7가지 영역을 설문조사 하였음.
  - 질적조사: 생애주기 9단계별 2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대전 시민 총 151명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11개 영역에 대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함.

### □ 양적조사 결과

- 1영역-소득
  - 소득 창출 및 보전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사적 재단이나 비공식적 관계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안전망 확보, 고용지원프로그램의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2영역-건강/의료
  - 예기치 못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일반 가구가 취약계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공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3영역-평생교육/여가문화

- 구별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욕구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각 구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교육센터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4영역-가족/자녀교육

- 대전 시민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이용 확대,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시 사회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대전 시민의 사교육 비율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도가 낮는데, 이와 같은 시설 및 기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

■ 5영역-주거/지역사회

- 대전 시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전 시민은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의 부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통 및 주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6영역-기타/사회복지서비스

- 대전 시민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보통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전시 특성화사업인 복지만두레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와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함.
- 긴급지원제도의 예산 확충이 강구되어야 함.

■ 7영역-노인/장애인/여성/저소득

- 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전 시민의 노인복지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취약 노인에 초점 맞춰진 노인복지서비스가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 서비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식 미비, 편의시설 미비, 직업 능력 개발 관련 지원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개별화된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위한 보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의지가 약한 편이고, 자활사업 참여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탈수급을 위해 자활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함.

## □ 질적조사 결과

### ■ 대전 시민 복지욕구 관련 주제

- ‘거리두기’, ‘그럭저럭 괜찮은 생활, 약간의 불편함’, ‘저마다 다른 관심’, ‘불만은 가깝고, 개선은 멀다’, ‘그게 뭔데요?’, ‘꼭꼭 숨어있는 제도’, ‘나와는 상관없는 복지’, ‘어긋남’, ‘나는 그냥 대전에 사는 사람’.

### ■ 질적조사 결과 제언

- 보편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
- 대전의 특성화된 지역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촘촘한 맥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전 시민의 포괄적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대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홍보에 SNS 등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여가/문화 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1장 대전 시민 복지욕구조사 개관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기대 효과

### 1. 연구의 배경

- 사회복지 전반의 여건변화는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 정책의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화에 따라 대전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만족도와 현황 및 지역별·대상자별 복지관련 수급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대전시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자 한다.

- 지역별·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욕구를 조사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바탕으로 대전시 전체와 각 구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전략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책개발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조사의 틀을 설계하여 향후 복지체감도의 변화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기대 효과

- 대전 시민의 욕구분석을 통해 대전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전략 및 정책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복지체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의 기초선을 마련한다.

- 각 구별 지역적 복지욕구 및 특성 파악을 통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이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제2절 연구 과정

### 1. 전문가 자문 회의(2회)

- 일 시: 2012. 2. 16. / 2012. 6. 26.
- 장 소: 대전복지재단 10층 소회의실
- 참석자: 자문위원(김동기/목원대학교 교수, 엄명용/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서구/숭실대학교 교수,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우/백석대학교 교수, 최해경/충남대학교 교수), 연구진
- 내 용: 조사의 방향 수립 및 표집틀 크기, 표집 방법 논의

### 2.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4회)

#### 1) 시 공무원 초점집단 인터뷰

- 일 시: 2012. 4. 30.
- 장 소: 대전광역시청 복지정책과 소회의실
- 참석자: 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과/저출산노령사회과/장애인복지과/보건정책과 담당 공무원 7명, 연구진
- 내 용: 설문지 구안을 위한 내용 논의

#### 2) 구·동 공무원 초점집단 인터뷰

- 일 시: 2012. 5. 2.
- 장 소: 대전복지재단 10층 소회의실
- 참석자: 5개 구 담당 공무원 5명, 5개 동 담당 공무원 5명, 연구진
- 내 용: 설문지 구안을 위한 내용 논의

#### 3) 사회복지위원 초점집단 인터뷰

- 일 시: 2012. 5. 14.

- 장 소: 대전복지재단 10층 소회의실
- 참석자: 사회복지위원 7명, 연구진
- 내 용: 설문지 구안을 위한 내용 논의

#### 4) 시민 & 민간기관 실무자 초점집단 인터뷰

- 일 시: 2012. 5. 15.
- 장 소: 대전복지재단 10층 소회의실
- 참석자: 시민 4명, 민간기관 실무자 3명, 연구진
- 내 용: 설문지 구안을 위한 내용 논의

### 3. 중간보고회

- 일 시: 2012. 6. 28.
- 장 소: 대전복지재단 10층 소회의실
- 참석자: 민·관 유관기관 실무자, 연구진
- 내 용: 연구 과정 보고, 설문지 내용의 타당성 검증

### 4. 결과보고회

- 일 시: 2012. 11. 29.
- 장 소: 대전광역시청 3층 강당
- 참석자: 민·관 유관기관 실무자, 시민, 연구진
- 내 용: 연구결과 초안에 대한 보고회

## 제3절 조사 과정

### 1. 양적 조사 과정

#### 1) 양적 조사의 설계

본 조사의 양적 조사는 Harlow & Turner(1993)<sup>1)</sup>의 욕구조사 피라미드 모형을 기초로 하여 조사의 과정을 설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림 1-2-1] 욕구조사 피라미드 유형



- 1단계: 통계청 자료 등 행정 자료와 타지역과 타기관에서 실시된 욕구조사서를 비롯한 제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
- 2단계, 3단계: 문헌 및 기타 자료와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특성과 자원,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수준을 파악
- 4단계: 1·2·3단계를 통해 수집 및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대전 시민 복지욕구조사 설문지 구성

#### 2) 본 조사 과정

- 일 시: 2012. 8. 16.~9. 13.
- 표 집: 2012. 7. 17.~7. 25.
- 조사자: 이은경 외 42명 공개 모집 및 조사원 교육 3회 실시(2012. 7. 27/ 8.13/ 8.14)

1) Harlow & Tuner(1993). State units and convergence model; Needs assessment revisited. *The Gerontologist*, 33:190-199

- 응답자: 대전 소재 1200가구, 조사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총 3,689명

• 영 역:

▪ 가구의 일반 사항		I	소득·고용	II	건강·의료
III	평생교육·여가문화	IV	가족·재녀교육	V	주거·지역사회
VI	기타 및 사회복지서비스	VII	노인/장애인/여성/저소득		

- 코 당: 2012. 9. 14.~10. 5.
- 분 석: 2012. 10. 8.~10. 31<sup>2)</sup>.

## 2. 질적 조사 과정

- 일 시: 2012. 9. 24.~11. 30.
- 조사자: 강선주 외 59명 임의 모집 및 조사원 교육 3회 실시(2012. 9. 4/ 9.11/ 9.18)
- 응답자: 대전 소재 151가구, 조사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총 151명<sup>3)</sup>
- 영 역: - 생애주기 9단계 × 2개 하위집단 × 10명

① 영유아기		② 학령전기		③ 아동기		④ 청소년기		⑤ 청년 전기	
부모양육	비양육	부모양육	보육	전업	맞벌이	중고생	제도 외	대학진학	취업
⑥ 청년 후기		⑦ 장년기		⑧ 노년 전기		⑨ 노년 후기			
미혼	기혼	남	여	부부	단독	부부	단독		

- 일상 생활의 11개 영역

① 재정	② 고용	③ 주거	④ 건강	⑤ 교육
자산, 지출	소득, 비소득	소유, 편리	신체, 정신	제도, 평생
⑥ 사회서비스	⑦ 공공서비스	⑧ 관계	⑨ 여가문화	⑩ 지역사회
복지, 공공재	시, 구, 동	가족, 관계망	여가, 문화	정체감, 불만
⑪ 행복				
개념, 수준				

- 방 법: 비구조화된 면접 1회 2시간, 면접 시 생활환경 관찰
- 분 석: 2012. 10. 16.~ 11. 30.

2) 분석의 과정에는 데이터 클리닝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3) 조사 계획 수립 당시 18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접근이 어려운 4개의 집단에서 표집이 되지 않아 150명을 조사하였다.

# 제2장 대전광역시 일반적 특성

## 제1절 대전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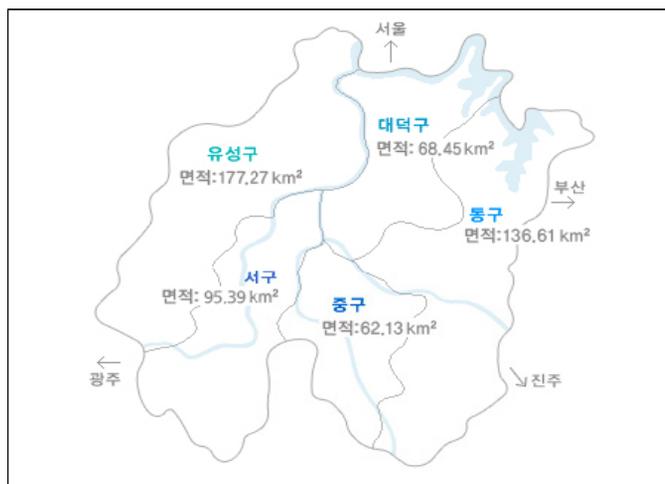
### 1. 행정구역

#### 1) 행정구역

##### (1) 면적 및 인구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은 총 5개 구 77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539.97km<sup>2</sup>이며, 5개 구 중 가장 면적이 큰 지역은 유성구로 177.27km<sup>2</sup>가 해당하며, 다음은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순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반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구는 서구로 1km<sup>2</sup>당 약 5,20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구가 4,258명, 대덕구 3,007명, 동구 1,846명 이었고, 유성구가 1,722명으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대전광역시 구별 면적



〈표 2-1-1〉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2011.06.30. 현재)

구분	면적	인구밀도	법정동	행정동	통	반
동구	136.63	1846.205	45	16	376	2,024
중구	62.13	4257.814	26	17	403	2,302
서구	95.48	5201.644	27	23	774	4,496
유성구	177.27	1722.13	53	9	501	2,789
대덕구	68.46	3006.807	26	12	345	1,804
계	539.97km <sup>2</sup>	2823.427	177동	77동	2,399통	13,415반

인구밀도: 1km<sup>2</sup>당 인구수(인구수/면적)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 2.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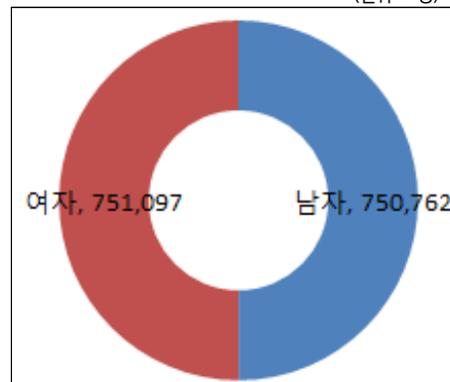
### 1) 세대 및 인구

#### (1) 총 인구

외국인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총 인구는 2010년 기준 1,501,85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남자는 750,762명, 여자는 751,097명으로 거의 동등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대전광역시 성별 인구

(단위 : 명)



〈표 2-1-2〉 대전광역시 총 인구(외국인포함)

(단위 : 명)

2010	대전광역시	
남자	750,762	(50.0)
여자	751,097	(50.0)
총 인구	1,501,859	(100)

(2) 세대 수 및 성비

도시별로 인구수와 성비를 나타낸 표를 참고하면 대전은 성비가 균등하고, 한 세대당 평균 가족 구성원은 2.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울산 다음으로 많은 가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 11월 말 현재 세대 수는 약 575.01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표 2-1-3〉 주요도시 인구 및 세대현황(외국인 제외)

2012.11.30. 기준, 단위: 명

행정기관	인 구 수			성 비	세대수	세대당인구
	계	남	여			
서울특별시	10,205,843	5,047,103	5,158,740	97.84	4,180,568	2.44
부산광역시	3,539,273	1,755,039	1,784,234	98.36	1,388,602	2.55
대구광역시	2,507,910	1,250,472	1,257,438	99.45	948,321	2.64
인천광역시	2,840,308	1,429,856	1,410,452	101.38	1,095,983	2.59
광주광역시	1,470,669	729,100	741,569	98.32	555,377	2.65
대전광역시	1,524,566	763,776	760,790	100.39	575,014	2.65
울산광역시	1,146,555	590,055	556,500	106.03	421,545	2.72

대전시의 각 구별 인구 수를 살펴보면 서구가 496,6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성구 205,846명, 중구 264,538명, 동구 252,247명, 대덕구 205,846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반면 중구와 서구의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근소하게 더 높았다. 지역별로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유성구로 한 세대당 2.75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2.48명으로 나타난 동구였다.

(3) 전입 및 전출

시도별 전입, 전출자 수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대전의 경우 시도간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으나,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인구의 증감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시도내 이동을 살펴보면 약 6,653명이 이동하였다. 시도간 인구 전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로 전입 인구에 비해 전출 인구가 약 11,349명 더 많았는데, 세종시로 정부기관이 이전하고 있으며,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았던 지역은 울산(762명), 광주(85명)로 나타났다.

〈표 2-1-4〉 시도별 이동자 수

2012. 10. 기준. (단위 :명)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전국	643,977	643,977	0	185,751	207,205	207,205
서울	139,686	151,035	-11,349	54,770	39,946	51,295
부산	39,337	40,989	-1,652	16,444	9,300	10,952
대구	29,162	30,289	-1,127	10,699	7,121	8,248
인천	43,571	40,701	2,870	13,541	15,123	12,253
광주	19,460	19,375	85	6,309	5,915	5,830
대전	19,463	19,466	-3	6,653	6,894	6,897
울산	13,293	12,531	762	4,064	4,325	3,563

출처: 통계청

대전광역시의 각 구별 이동자 수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가장 전입/전출자 수가 많은 구는 서구로 전입자가 85,832명, 전출자가 89,457명이었다.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가 가장 차이가 커 순이동자 수가 가장 많은 구는 유성구로 유성구의 전입자는 전출자보다 9,968명 더 많았다. 이는 유성이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서구의 경우는 전입자에 비해 전출자가 3,625명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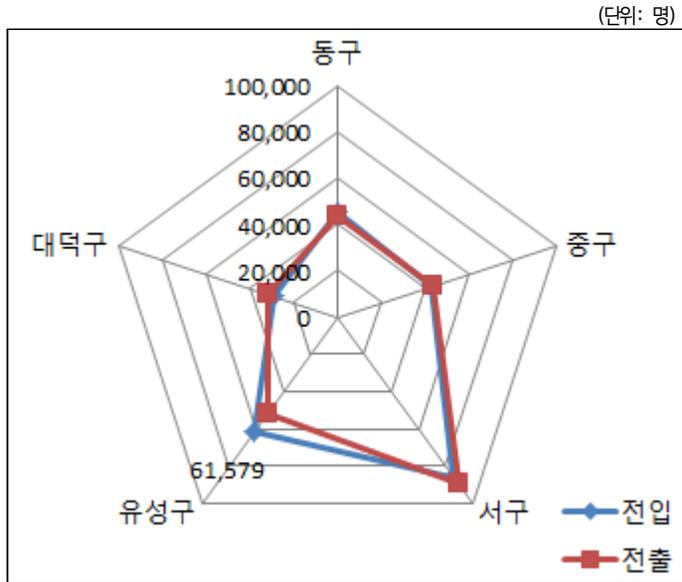
〈표 2-1-5〉 대전광역시 각 구별 이동자 수

(단위 :명)

2011	전입	전출	순이동
대전광역시	264,244	260,900	3,344
동구	45,410	43,912	1,498
중구	42,547	43,906	-1,359
서구	85,832	89,457	-3,625
유성구	61,579	51,611	9,968
대덕구	28,876	32,014	-3,138

출처: 통계청

[그림 2-1-3] 각 구별 이동자 수



<표 2-1-6> 대전광역시 구별 인구 및 세대현황(외국인 제외)

2012.11.30. 기준, 단위: 명

행정기관	인구수			성비	세대수	세대당인구
	계	남	여			
동구	252,247	127,776	124,471	102.66	101,691	2.48
중구	264,538	132,050	132,488	99.67	102,254	2.59
서구	496,653	245,116	251,537	97.45	183,089	2.71
유성구	305,282	154,161	151,121	102.01	111,035	2.75
대덕구	205,846	104,673	101,173	103.46	76,945	2.68
계	1,524,566	763,776	760,790	100.39	575,014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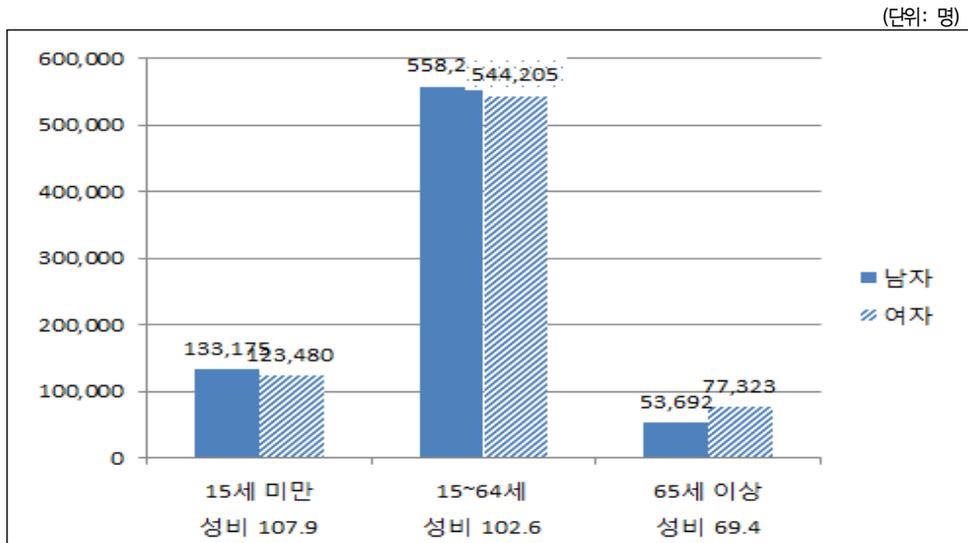
## 2) 범주별 인구

### (1) 연령별 인구

대전광역시 인구를 연령대별로 청소년, 청장년, 노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15세 미만 인구와 15~64세 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으나, 6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성비가 69.4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년층은 여초현상이 나타나는데 대전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15세 미만 인구층에서의 성비는 107.9로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는 약 108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15~64세 인구층의 성비는 102.6으로 젊은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4] 대전광역시 연령별 인구-내국인(2010)



## (2) 학력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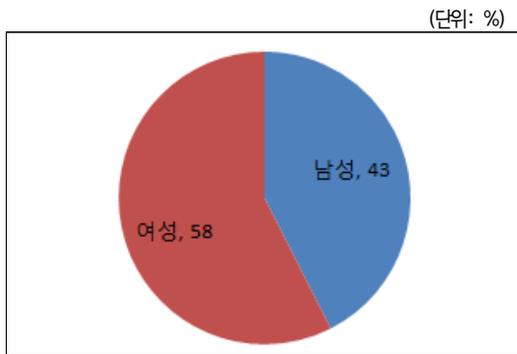
대전광역시 인구의 최종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남성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 학력의 인구는 성비가 가장 동등하나, 대학원(박사) 수준에서는 여성은 불과 19.1%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평균학력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1-7〉 대전광역시 6세 이상 인구의 최종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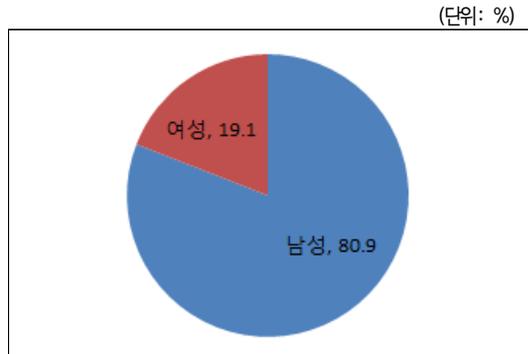
(단위 : 명, %)

2010	남성		여성	
초등학교	89,848	(42.5)	121,640	(57.5)
중학교	73,997	(46.8)	84,164	(53.2)
고등학교	185,791	(47.5)	205,323	(52.5)
전문대학	81,489	(49.3)	83,771	(50.7)
대학교	200,090	(57.3)	149,277	(42.7)
대학원(석사)	37,015	(62.4)	22,344	(37.6)
대학원(박사)	19,307	(80.9)	4,544	(19.1)
계	700,635	(49.9)	703,396	(50.1)

[그림 2-1-5] 초등학교 학력 성비



[그림 2-1-6] 대학원(박사) 학력 성비



### (3) 혼인상태별 인구

대전광역시 인구를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과반수(남성 56.4%, 여성 56.3%)로 가장 많았다. 이혼한 남녀의 경우도 약 4%가량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별의 경우는 남성(1.8%)에 비해 여성(10.3%)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혼인하지 않은 인구를 조사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대전광역시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

(단위 : 명,%)

2010	남성		여성	
미혼	234,338	(38.3)	178,037	(28.6)
배우자 있음	345,330	(56.4)	350,228	(56.3)
사별	11,046	(1.8)	64,089	(10.3)
이혼	21,261	(3.5)	29,174	(4.7)
계	611,975	(100)	621,528	(100)

대상: 15세 이상 인구

## (4) 세대구성별 인구

대전광역시의 세대 구성은 2세대가구가 약 67%로 가장 많았다. 3세대 가구는 점점 감소하고, 1세대 가구는 점점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1세대 가구의 비중이 3세대 가구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1세대 가구는 약 11% 정도 있으며, 1인 가구도 9%를 넘어섰다. 비친족으로 구성된 비친족 가구의 경우에도 약 1%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대전광역시 성별 세대구성별 인구

(단위 : 명,%)

2010	남성		여성	
1세대가구	79,389	(11.2)	82,511	(11.3)
2세대가구	480,503	(67.8)	490,468	(66.9)
3세대가구	71,490	(10.1)	84,922	(11.6)
4세대이상 가구	857	(0.1)	1,219	(0.2)
1인가구	67,763	(9.6)	67,175	(9.2)
비친족가구	8,332	(1.2)	6,473	(0.9)
계	708,334	(100)	732,7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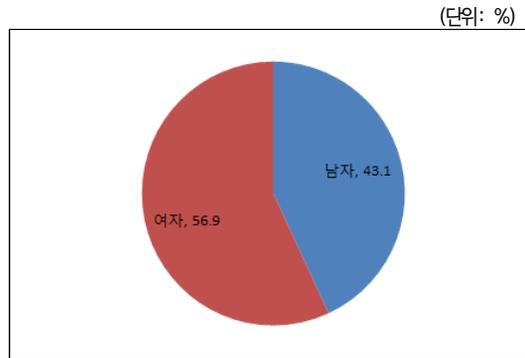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 3) 노인인구

## (1) 대전광역시 성별 노인인구

대전광역시 노인의 인구는 총 10,674명이며, 이중 남성은 43.1%에 해당하는 4,605명, 여성은 56.9%에 해당하는 6,069명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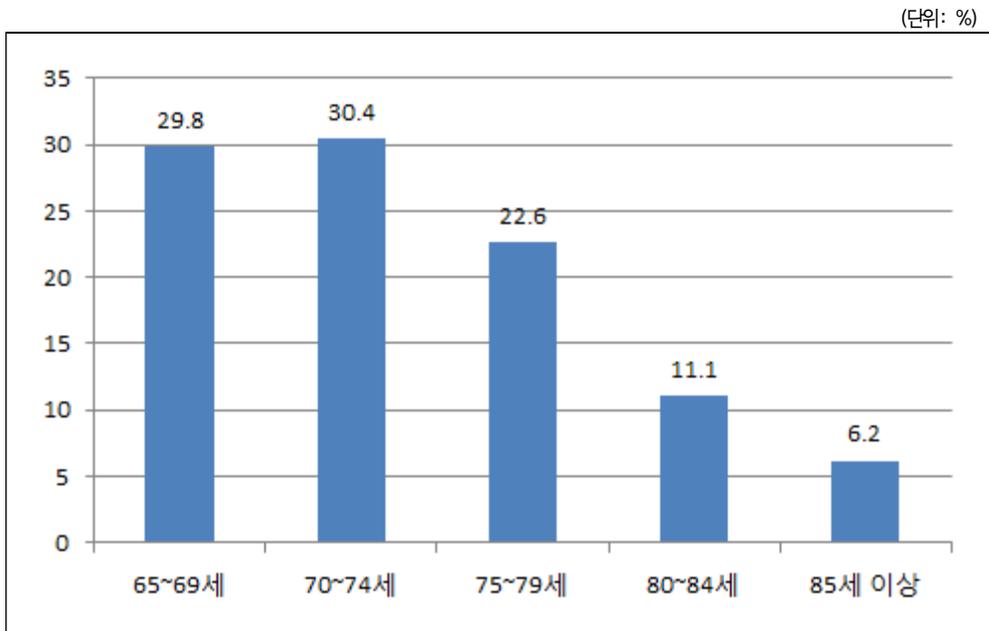
[그림 2-1-7] 대전광역시 성별 노인인구



(2) 대전광역시 연령별 노인인구

대전광역시 노인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74세 사이의 노인이 전체의 30.4%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65~69세 노인이 29.8%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노인인구는 점점 적어져 8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인구는 6.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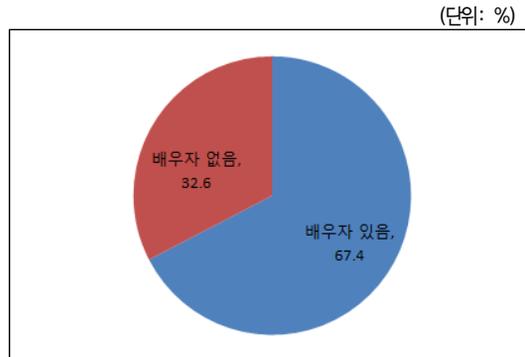
[그림 2-1-8] 대전광역시 연령별 노인인구



## (3) 대전광역시 결혼상태별 노인인구

대전광역시 노인을 혼인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67.4%(7,199명)를 차지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32.6%(3,475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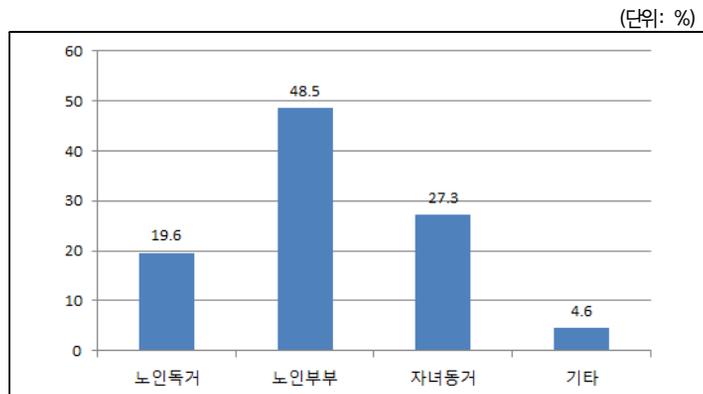
[그림 2-1-9] 대전광역시 결혼상태별 노인인구



## (4) 대전광역시 가구형태별 노인인구

대전광역시의 노인 중 48.5%는 노부부로 구성된 가구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27.5%로 조사되었으며, 노인 단독으로 거주하거나 기타 다른 가구형태를 보이는 노인인구도 각 19.6%, 4.6%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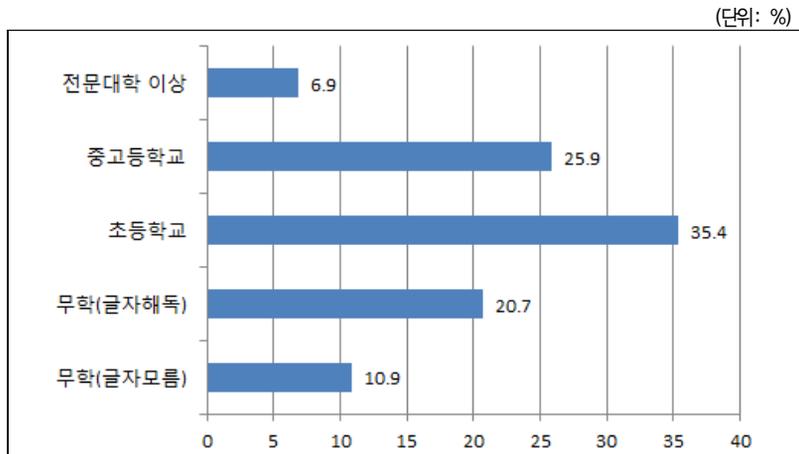
[그림 2-1-10] 대전광역시 가구형태별 노인인구



(5) 대전광역시 교육수준별 노인인구

대전광역시 노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전체 노인중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25.9%를 차지했다. 무학인 노인은 전체의 31.6%를 차지했는데, 이 중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노인과 글자를 해독할 수 없는 노인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글자 해독이 가능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7%, 그렇지 않은 노인은 전체 노인의 10.9%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6.9%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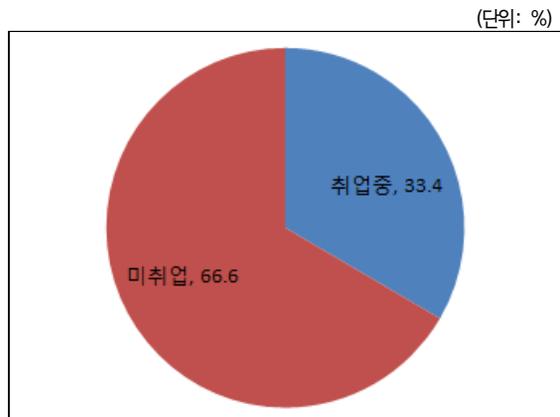
[그림 2-1-11] 대전광역시 교육수준별 노인인구



(6) 대전광역시 취업상태별 노인인구

대전광역시 노인 중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33.4%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점점 노인의 기대수명이 높아지므로 노인의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2-1-12] 대전광역시 취업상태별 노인인구



#### 4) 장애인인구

##### (1) 전국 장애인 현황(2005, 2011)

전국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수는 2,683,477명이며, 출현율은 5.61%로 나타났다. 이 중 재가장애인은 2,611,126명, 시설장애인은 72,351명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탈시설화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10〉 전국 장애인 현황(2005, 2101)

(단위: 명, %)

		2005	2011
전체	장애인 수	2,148,686	2,683,477
	출현율	4.59	5.61
재가장애인	장애인 수	2,101,057	2,611,126
	출현율	4.5	5.47
시설장애인	장애인 수	47,629	72,351
	출현율	-	-

##### (2) 대전광역시 성별 장애인 현황(2011)

대전광역시 성별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71,626명 중 남성이 41,862명으로 58.4%, 여성

이 29,764명으로 41.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1〉 대전광역시 성별 장애인 현황(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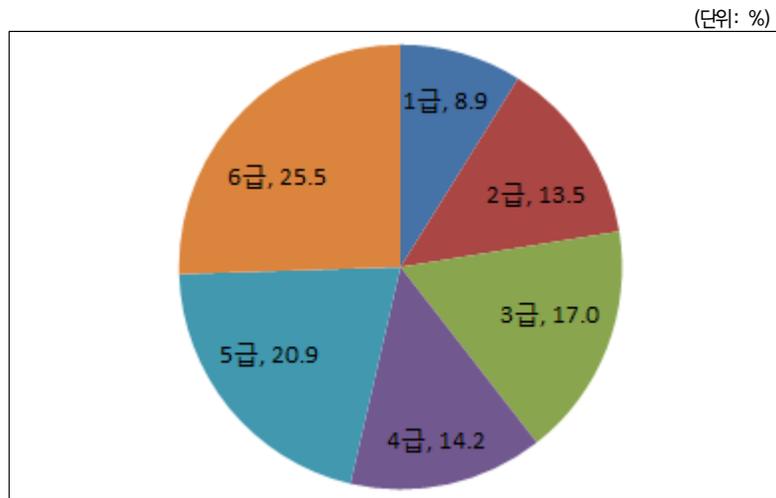
(단위: 명, %)

장애종류	남		여	
	인원	%	인원	%
총계	41,862	58.4	29,764	41.6
지 체	21,781	58.8	15,246	41.2
뇌병변	4,501	56.1	3,520	43.9
시 각	4,254	59.8	2,864	40.2
청각·언어	4,495	56.0	3,536	44.0
지적	2,818	59.9	1,883	40.1
자폐	536	84.7	97	15.3
정신	1,380	51.1	1,321	48.9
신장	1,027	57.0	775	43.0
심장	128	61.2	81	38.8
호흡기	315	75.5	102	24.5
안면	54	68.4	25	31.6
장루·요루	235	64.7	128	35.3
간질	171	57.8	125	42.2

(3) 대전광역시 장애급수별 장애인 현황(2011)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장애급수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6급 장애인이 2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급은 20.9%, 3급은 17.0%, 4급은 14.2%, 2급은 13.5%를 차지하였으며,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적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실제 심각한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급판정에서 탈락된 이유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을 통해 장애인이 적절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림 2-1-13] 대전광역시 장애급수별 장애인 현황(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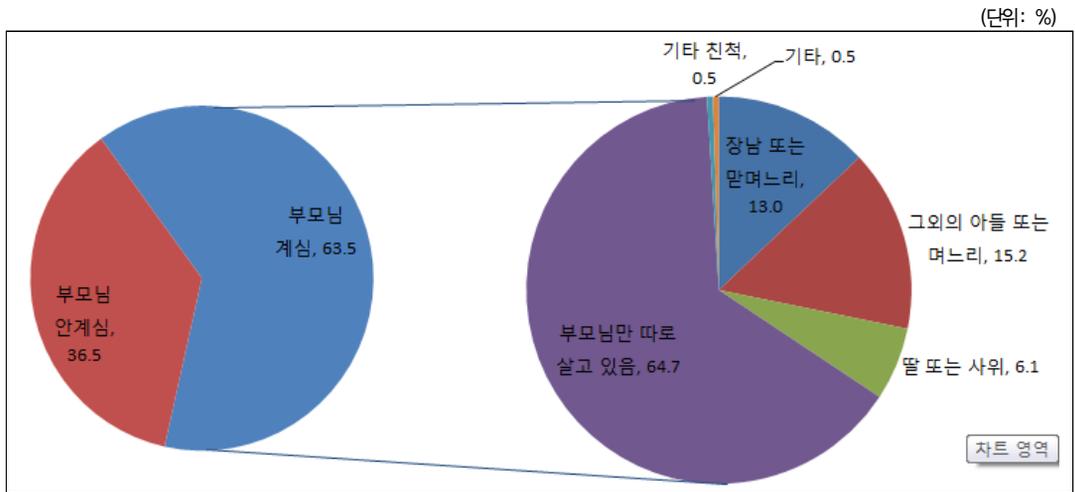
### 3. 가족

#### 1) 가족구성

##### (1) 가구주 부모의 동거자

대전시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모가 계신 63.5%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구주 부모의 동거자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남 또는 맏며느리와 살고 있는 경우가 13%, 그 외 아들 또는 며느리와 살고 있는 경우가 15.2%를 차지하였으며, 딸 또는 사위와 사는 경우가 6.1%를 차지하였다.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중에서는 아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딸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4]가주주 부모의 동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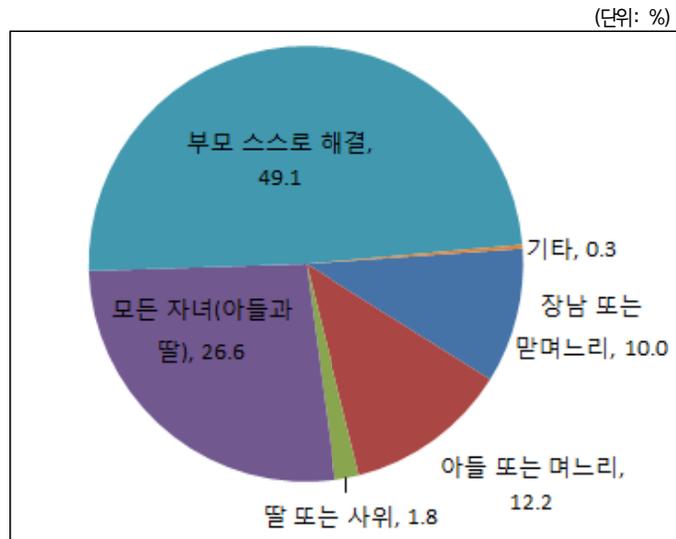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단위: %, 지역: 대전광역시(2010)

(2)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부모의 생활비를 주로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거의 절반(49.1%)은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금제도가 정착되었고, 직장은퇴 연령이 늦춰졌으며, 개인주의적 인식, 핵가족화 등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모든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가 26.6%로 아들과 딸의 구별이 과거보다 약해졌다. 다음으로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10%, 아들 또는 며느리가 12.2%를 차지했고, 딸 또는 사위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그림 2-1-15]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가구주)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0)

## 2)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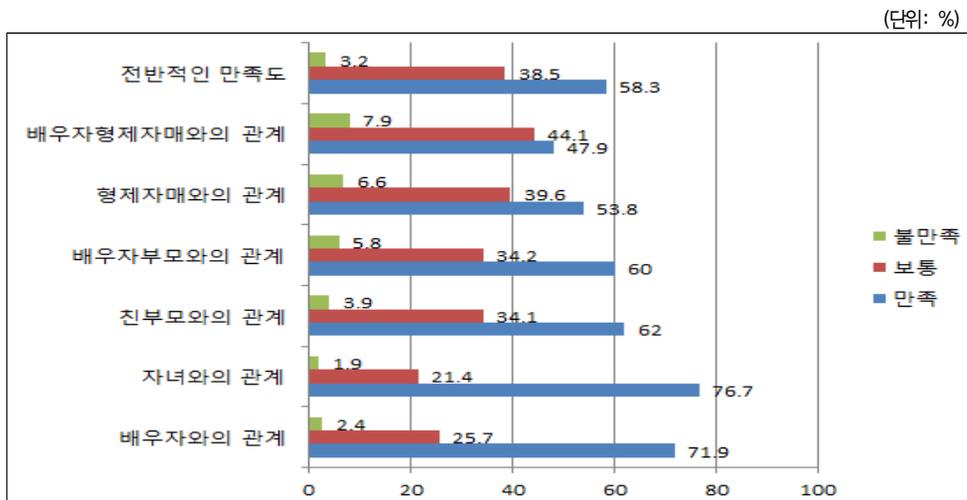
### (1)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의견이 58.3%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3.2%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은 자녀와의 관계로 7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71.9%, 친부모와의 관계가 62%,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60%를 차지했다. 반면 불만족도가 높았던 응답항목으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불만족도가 7.9%,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6.6%,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5.8%, 친부모와의 관계가 3.9%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자녀와의 관계이고,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2〉 가족관계 만족도(2010)

대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남	39.5	32.4	25.7	1.7	0.7
	여	29.5	33.8	28.7	6.3	1.7
자녀와의 관계	남	41.5	35.2	21.4	1.5	0.4
	여	38.1	36.8	21.5	2.7	0.9
친부모와의 관계	남	29.4	32.6	34.1	3.2	0.7
	여	27.9	36.0	31.2	3.9	0.9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남	24.9	35.1	34.2	4.9	0.9
	여	18.4	30.5	36.2	11.3	3.6
형제, 자매와의 관계	남	21.9	31.9	39.6	5.0	1.6
	여	21.8	33.8	38.6	4.2	1.6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의 관계	남	18.5	29.4	44.1	6.9	1.0
	여	15.9	26.0	45.2	9.0	3.8
전반적인 관계만족도	남	24.5	33.8	38.5	2.6	0.6
	여	21.1	35.4	39.7	3.4	0.5

〔그림 2-1-16〕 가족관계 만족도(2010)



## 3) 일·가정 양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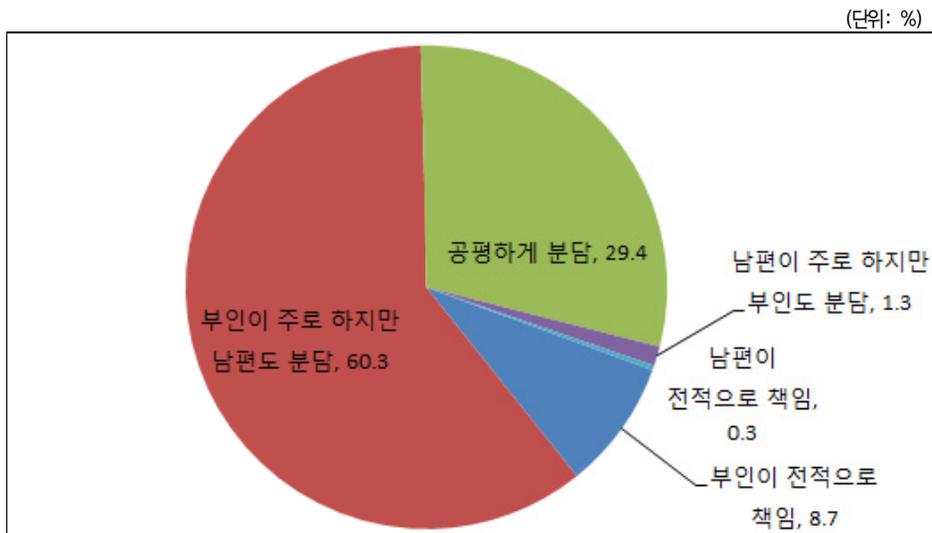
## (1) 가사분담 실태

가족의 가사분담 실태를 조사한 표를 참고하면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한다는 경우가 60.3%로 가장 많아 여전히 가사의 주 담당자는 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도 29.4%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전적으로 하거나 남편이 주로 한다는 전체 응답의 1.6%에 불과하였다.

〈표 2-1-13〉 가사분담실태(2010)

대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책임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책임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	계	33.6	53.5	11.4	1.0	0.5
	취업	29.3	55.5	13.4	1.3	0.4
	미취업	36.5	52.2	10.0	0.8	0.6
남편	계	28.2	57.7	11.5	1.9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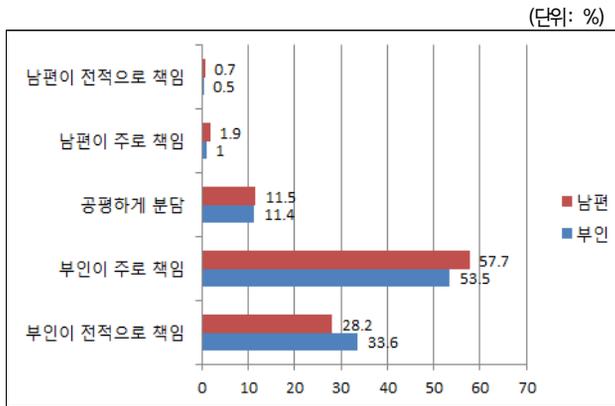
[그림 2-1-17]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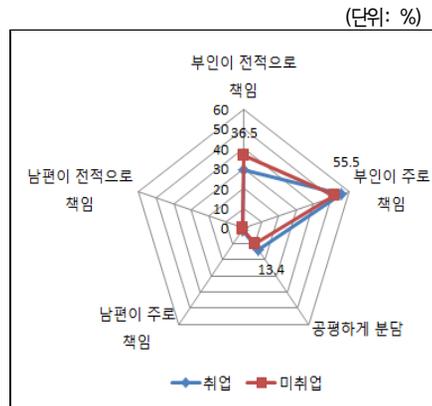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단위: %, 지역: 대전광역시(2010)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부부간으로 살펴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견에 대하여 남편이 인식하는 것보다 부인이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28.2%가 부인이 적적으로 책임진다고 응답하였고, 부인은 33.6%가 응답하였다. 또한 남편이 주로 책임진다는 응답에 대하여 남편은 1.9%, 부인은 1%만이 응답하여, 가사분담에 있어 남편과 부인이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중 취업상태인 경우와 미취업상태인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미취업한 부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견해가 더 많았고, 취업한 경우 미취업한 경우보다 가사에 대해 공정하게 분담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경제활동참여 유무에 따라 남편의 가사분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8] 부부별 가사분담 인식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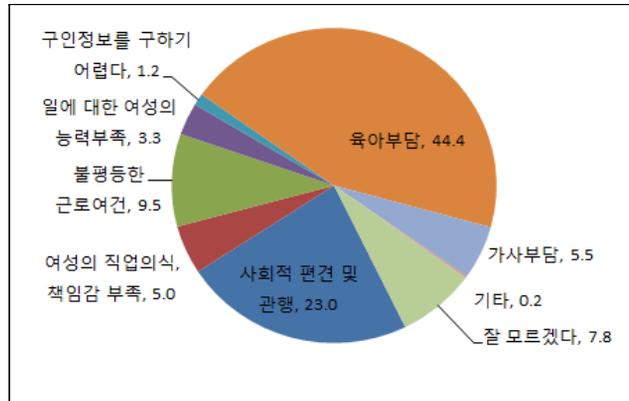
[그림 2-1-19] 가사분담 인식도(부인)



### (3) 여성 취업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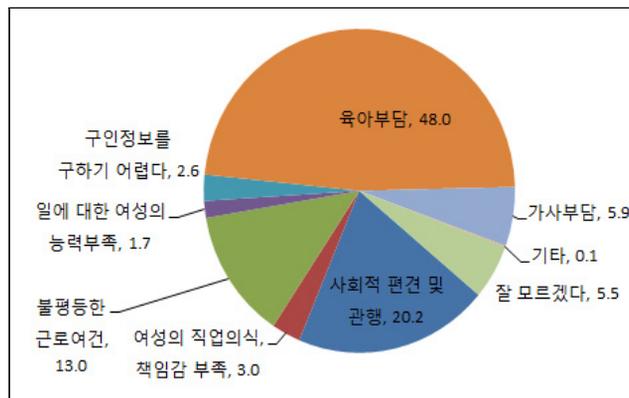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하여 남녀 모두 육아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 및 관행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의 여성의 부담과 사회적인 인식문제가 여성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불평등한 근로여건 등 성차별과 관련된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여성취업과 관련된 장애요인은 여성 개별적인 요인보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기인됨이 확인되었다.

[그림 2-1-20] 여성취업 장애요인(남)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그림 2-1-21] 여성취업 장애요인(여)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 4. 경제

### 1) 물가

#### (1) 소비자물가

2010년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2012년 11월 기준의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사한 표는 다음과 같다. 대전의 경우 가장 총 지수는 106.4였으며, 12항목 중 가장 높은 항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로 110.8을 기록했다. 식료품 등은 기호식품이나 사치품에 비하여 소비를 조절하기 힘들

고, 서민들이 가장 가깝게 물가를 체감하는 항목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10을 넘는 항목은 총 네 가지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외에도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이 해당되었다. 반면 가장 소비자물가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조사된 항목은 기타 상품 및 서비스(95.8)와 통신(9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4〉 시도별 소비자물가조사

2012. 11. 기준.

기본분류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 지수	106.7	107.3	106.9	105.7	106.1	106.4	106.4
식료품 · 비주류음료	109.8	112.4	111.5	111.6	111.4	110.8	112.5
주류 및 담배	102.6	103.2	102.5	102.9	102.6	102.5	103.2
의류 및 신발	109.9	110.2	110.1	110.5	110.3	110.3	110.8
주택 · 수도 · 전기 및 연료	110.6	112.3	110.1	109.6	110.0	110.3	110.1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108.6	104.8	105.6	106.0	107.1	107.7	106.1
보건	102.6	103.4	102.2	102.2	102.5	102.5	103.8
교통	110.4	109.6	109.1	110.4	109.5	110.2	109.0
통신	95.9	95.9	95.9	95.7	95.9	95.9	95.9
오락 및 문화	101.8	102.1	101.4	101.8	101.7	102.3	101.3
교육	104.2	105.1	105.9	100.7	104.2	103.2	101.4
음식 및 숙박	105.9	106.9	108.3	104.6	104.9	107.1	107.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99.5	102.9	100.6	99.8	98.0	95.8	100.6

2010년 기준 (2010=100)

(2) 생활물가

소비자 생활물가 조사결과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총 지수는 106.4이며, 식품과 전월세가 108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식료품비와 주거비 물가를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15〉 시도별 생활물가조사

2012. 11. 기준.

기본분류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지수	106.7	107.3	106.9	105.7	106.1	106.4	106.4
생활물가지수	105.8	107.2	107.0	105.2	105.5	105.9	106.5
식품	107.0	109.9	110.0	107.3	107.2	108.5	110.6
식품 이외	105.4	106.0	105.6	104.4	104.8	104.9	104.7
전월세	109.8	112.4	108.2	106.3	109.6	108.2	107.1
생활물가 이외	106.5	106.5	106.4	106.4	106.5	106.8	106.1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106.7	107.7	107.1	105.4	105.8	106.2	106.5

2010년 기준 (2010=100)

## 2) 소득

### (1)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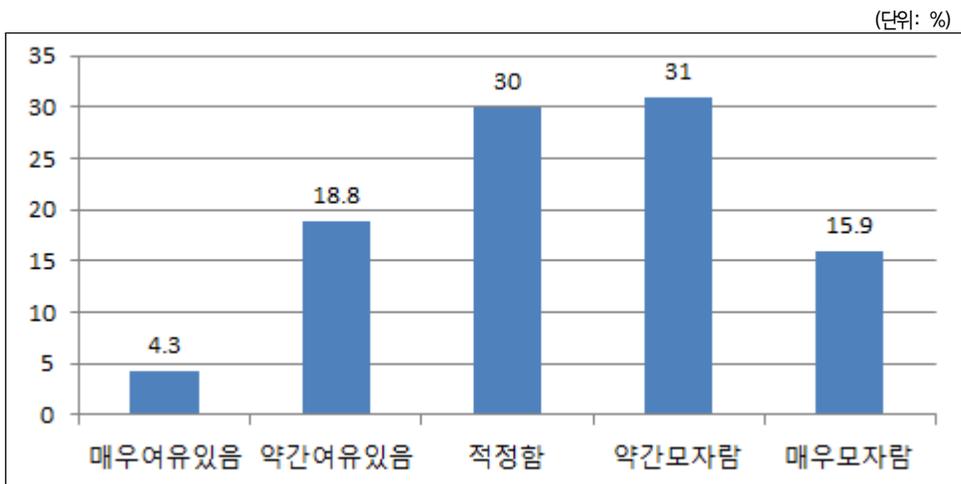
주요도시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약간 모자라다는 의견(3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소한 수치로 적정하다는 의견(30%)이 많았다. 월 평균 최소생활비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240만원으로 전국 평균 229.7만원 보다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최소생활비가 가장 근접하게 조사된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240.7만원이었는데, 울산광역시와 비교하여 대전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있다는 의견보다 모자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으로 최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에 비해 본인의 소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모자라다는 의견도 15.9%로 나타났다.

〈표 2-1-16〉 주관적 소득수준(2011)

(단위: 만원, %)

2011	월평균 최소생활비	매우여유있음	약간여유있음	적정함	약간모자람	매우모자람
전국	229.7	2.8	16.9	30.8	34.0	15.5
서울	254.2	1.8	17.9	32.3	31.6	16.5
부산	225.4	1.8	12.9	28.9	41.3	15.2
대구	215.1	3.0	16.3	33.9	31.5	15.2
인천	230.7	5.5	14.5	25.0	35.7	19.3
광주	210.4	2.9	14.8	30.2	38.3	13.8
대전	240.0	4.3	18.8	30.0	31.0	15.9
울산	240.7	6.1	22.3	29.0	29.2	13.4

〔그림 2-1-22〕 주관적 소득수준(대전-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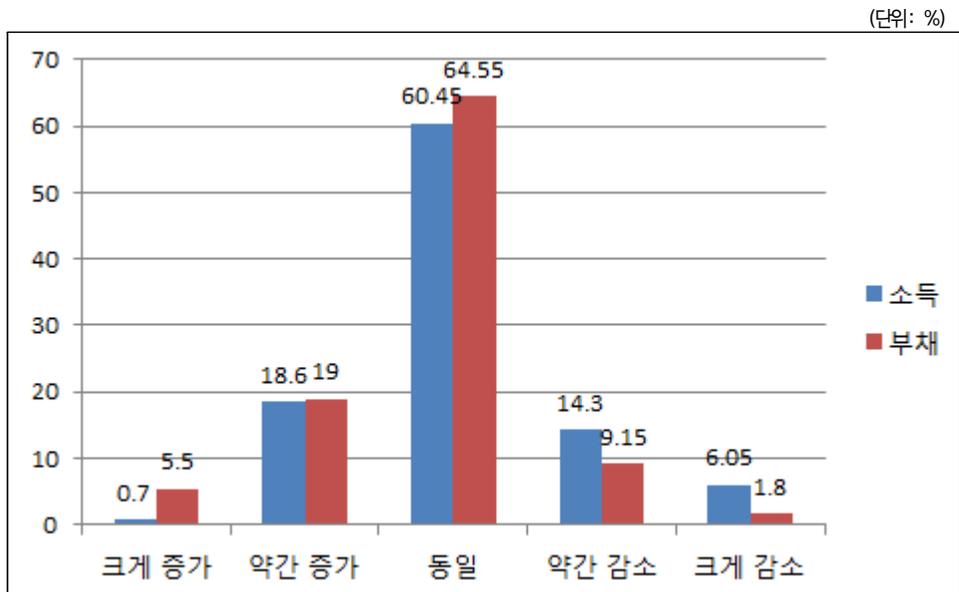
(2) 가구소득/부채 변화

가구소득 및 부채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의 경우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많았고, 부채의 경우 증가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에 대한 체감도에 관하여는 동일하다는 의견이 60.5%, 약간 증가했다는 의견이 18.6%, 약간 감소했다는 의견이 14.3%로 나타났다. 부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의견이 64.6%, 약간 증가했다는 의견이 19%, 조금 감소했다는 의견이 14.3%로 나타났는데, 소득은 6.1%가 크게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부채는 5.5%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과 부채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은 감소한 편으로 부채는 증가한 편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7〉 가구소득/부채변화(2011)

			(단위: %)				
2011			크게 증가	약간 증가	동일	약간 감소	크게 감소
대전	소득	남	0.8	23.0	54.6	15.1	6.6
		여	0.6	14.2	66.3	13.5	5.5
	부채	남	6.8	20.7	59.8	11.1	1.6
		여	4.2	17.3	69.3	7.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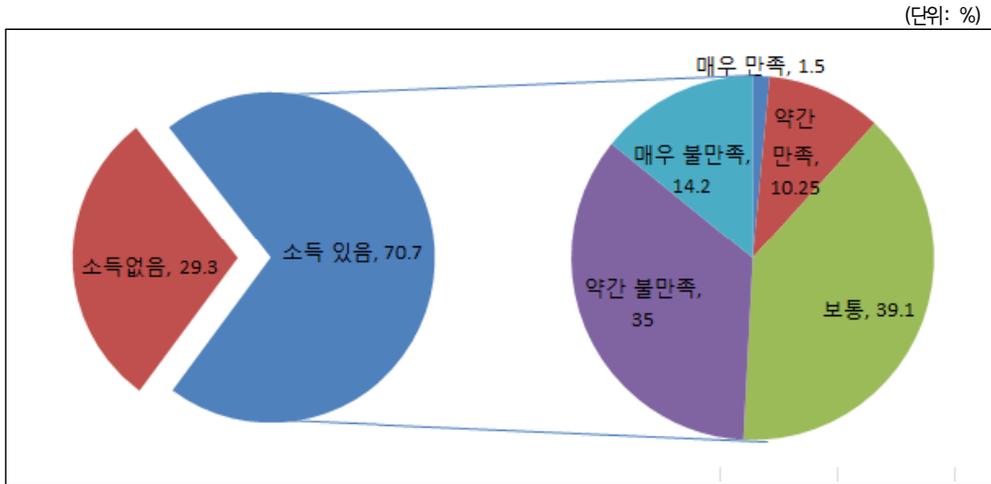
[그림 2-1-23] 소득/부채 변화 체감도



### (3) 소득만족도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응답자가 남녀평균 70.7%였고, 나머지 29.3%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소득이 있는 70.7%를 대상으로 소득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5%는 불만족하고, 14.2%는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대해 불만족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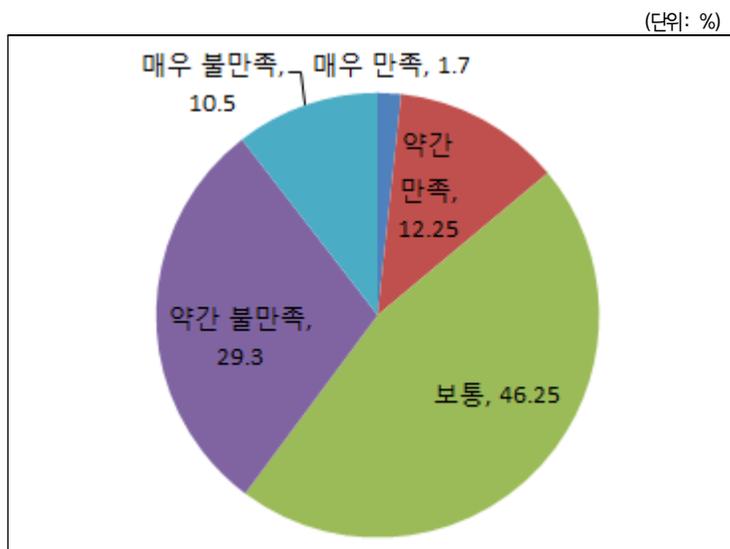
[그림 2-1-24] 소득 만족도



(4)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6.3%로 나타난 반면 약간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9.8%, 약간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14%로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5] 소비생활 만족도



〈표 2-1-18〉 소득/소비생활 만족도(대전광역시)

(단위: %)

2011		소득 있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소득	남	84.2	1.6	9.5	39.4	34.1	15.5
	여	57.2	1.4	11.0	38.8	35.9	12.9
소비	남	-	1.7	11.1	48.7	28.1	10.4
	여	-	1.7	13.4	43.8	30.5	10.6

## 5. 노동

### 1) 고용

#### (1) 경제활동현황

시도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으며, 주요 광역시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울산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전의 경우는 전국 평균 고용률에 약간 못 미쳤고, 실업률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약 72%, 여성이 약 49.5%로 전국에 비해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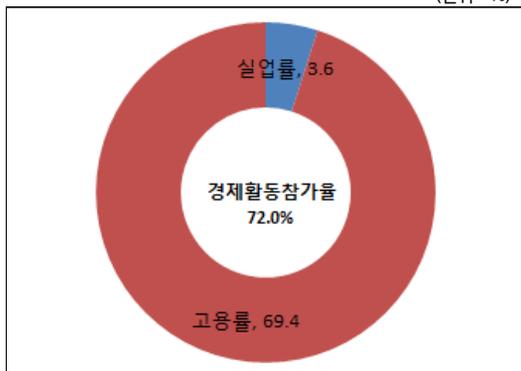
〈표 2-1-19〉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2012.10. 기준. (단위: 천명당 인구,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남	20,388	15,027	5,360	73.7	2.9	71.6
	여	21,342	10,760	10,583	50.4	2.6	49.1
서울	남	4,079	2,979	1,100	73.0	3.8	70.2
	여	4,393	2,252	2,141	51.3	3.3	49.6
부산	남	1,410	977	433	69.3	4.8	66.0
	여	1,525	721	804	47.3	3.2	45.8
대구	남	1,001	701	300	70.0	3.1	67.8
	여	1,071	537	534	50.1	2.1	49.1
인천	남	1,149	872	277	75.9	4.0	72.9
	여	1,178	626	552	53.1	3.7	51.2
광주	남	594	408	186	68.7	2.5	66.9
	여	634	298	336	47.0	0.9	46.5
대전	남	621	447	174	72.0	3.6	69.4
	여	647	321	327	49.5	2.9	48.1
울산	남	469	363	107	77.3	2.0	75.7
	여	454	201	253	44.3	2.3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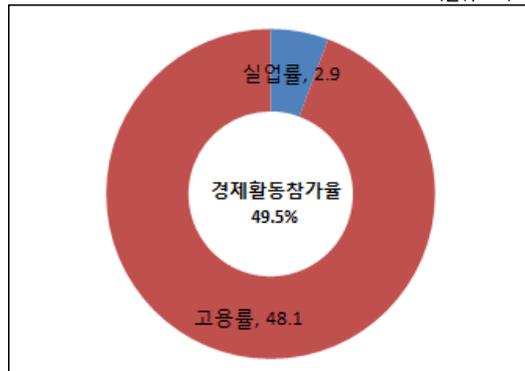
[그림 2-1-26] 대전 실업률과 고용률(남)

(단위: %)



[그림 2-1-27] 대전 실업률과 고용률(여)

(단위: %)



## (2) 연령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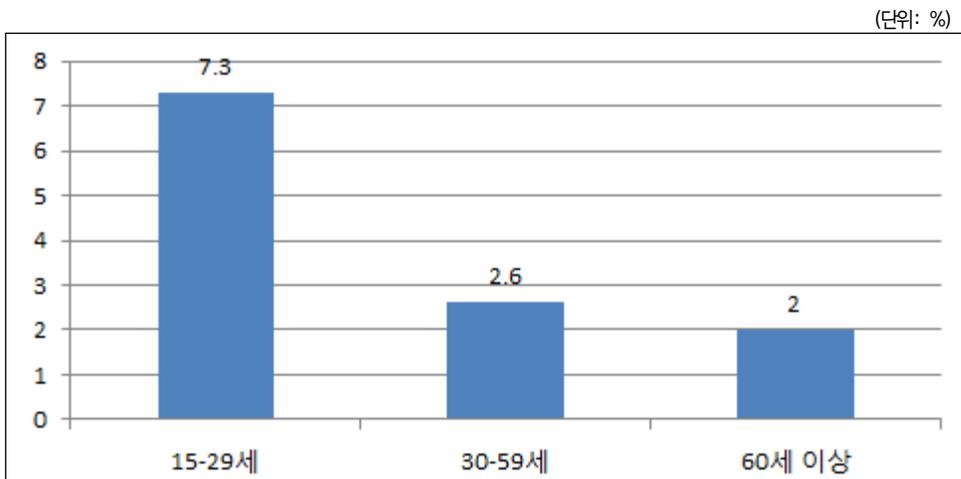
대전시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12년 3/4분기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7.3%로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이 사회문제화된 시점에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고용에서 탈락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더불어 그 외 연령계층 인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5~29세의 실업률이 더 부각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20〉 대전시 연령계층별 실업률

(단위: %)

연령계층		2011. 4/4	2012. 1/4	2012. 2/4	2012. 3/4
대전광역시	계	3.3	4.3	3.7	3.3
	15-29세	8.4	9.9	11.1	7.3
	30-59세	2.4	2.8	2.2	2.6
	60세 이상	0.9	5.8	1.8	2.0

[그림 2-1-28] 대전시 연령계층별 실업률



## (3) 고용동향

대전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노동참가율은 71.6%,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48.3%로 나타났고, 전체 취업자는 730천명으로 57.7%의 고용률을 보였다. 전년 동월대비 남성의 참가율은 0.7%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0.1% 감소하였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와 상용근로자는 약간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옴에 따른 시정 노력은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실업률은 3.4% 정도이며,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510천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1〉 대전광역시 고용동향

자료: 2012.08. 단위: 천명, %, %p

	2011.08.	2012.07.	2012.08.	전년동월대비	
				증감	증감률
<b>15세 이상 인구</b>					
계	1,246	1,265	1,266	20	1.6
남자(참가율)	434(70.9)	451(72.7)	444(71.6)	10(0.7)	2.3
여자(참가율)	307(48.4)	313(48.6)	312(48.3)	5(-0.1)	1.6
<b>취업자(고용률)</b>					
계	717(57.5)	735(58.2)	730(57.7)	13(0.2)	1.9
<b>종사자지위별</b>					
자영업주	152	149	151	-1	-0.8
무급가족종사자	20	25	24	4	20.7
상용근로자	351	371	366	15	4.2
임시근로자	138	134	137	-1	-0.7
일용근로자	57	57	54	-3	-5.8
<b>실업자(실업률)</b>					
계	24(3.2)	28(3.7)	26(3.4)	2(0.2)	7.1
<b>비경제활동인구</b>					
계	505	501	510	4	0.9

(4) 장애인 고용현황

전국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부문 중 공무원의 고용률은 2.4%, 비공무원의 고용률은 2.09%였고, 민간부문은 2.19%로 정부부문이 민간부문보다는 약간 더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였다. 상대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준수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에서 고용률이 2.6%로 가장 높았는데,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공무원 분야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이 3.01%, 헌법기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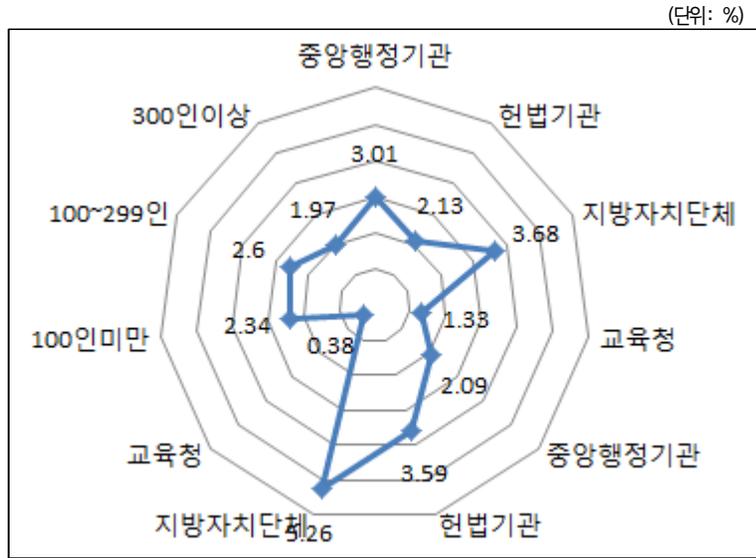
2.13%, 교육청이 1.33%로 나타났다. 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26%로 가장 높았고, 헌법기관의 경우도 3.59%, 중앙행정기관 2.09%로 나타났는데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무원에서도 교육청(0.38%)이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한편 민간부문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체가 2.23%, 100~299인의 사업체가 2.6%,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97%로 나타났다.

〈표 2-1-22〉 전국 장애인고용 현황(2010)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수	상사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정부부문	공무원	계	81	821,794	17,207	2.4
		중앙행정기관	45	171,421	4,479	3.01
		헌법기관	4	21,459	410	2.13
		지방자치단체	16	244,563	7,860	3.68
		교육청	16	384,351	4,458	1.33
	비공무원	계	292	207,281	4,196	2.36
		중앙행정기관	29	33,919	561	2.09
		헌법기관	3	668	16	3.59
		지방자치단체	244	71,963	3,297	5.26
		교육청	16	100,731	322	0.38
민간부문	계	22,616	5,188,304	98,238	2.19	
	100인미만	11,433	801,977	15,859	2.34	
	100~299인	8,431	1,378,450	30,878	2.6	
	300인이상	2,752	3,007,877	51,501	1.97	

[그림 2-1-2] 장애인 고용률



## 2) 근로

### (1) 직업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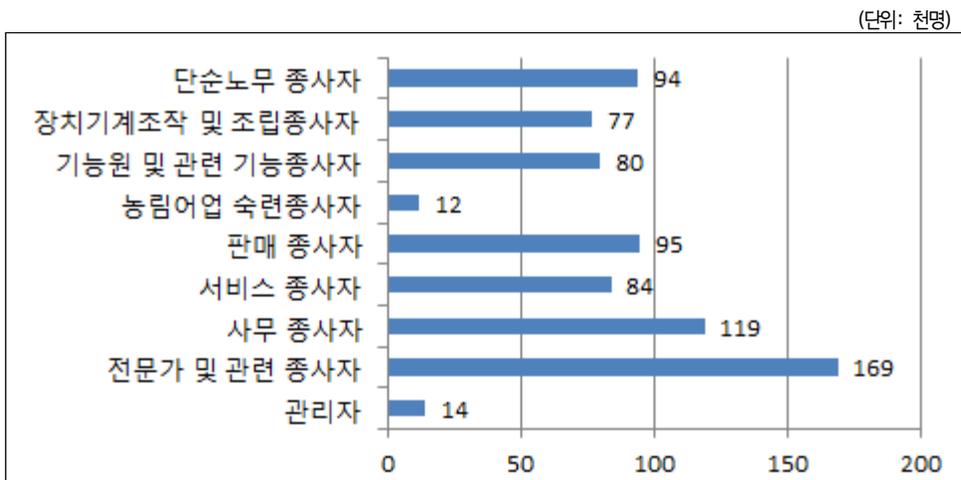
대전 경제활동인구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2012년 10월 기준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약 16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에 연구단지가 많은 영향으로 사료되며, 사무종사자가 11만9천명, 판매종사자가 9만5천명, 단순노무 종사자가 9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사자는 전년 동월부터 꾸준히 늘었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만2천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대전에 농촌 지역이 줄어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2-1-23〉 직업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천명)

직업별	2011. 10.	2012. 08.	2012. 09.	2012. 10.
관리자	15	15	14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72	176	171	169
사무 종사자	123	116	119	119
서비스 종사자	80	77	77	84
판매 종사자	88	95	95	9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	9	11	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9	76	82	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6	74	74	77
단순노무 종사자	82	92	94	94

[그림 2-1-30] 직업별 경제활동인구 현황(2012. 10)



## (2) 근로여건

근로여건 중 고용안정성에 대해 응답한 대전 시민의 64%는 고용상태에 대해 매우 많이 불안하거나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보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불안하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력에 대한 압박이 심한 사회적 영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2-1-24〉 고용안정성(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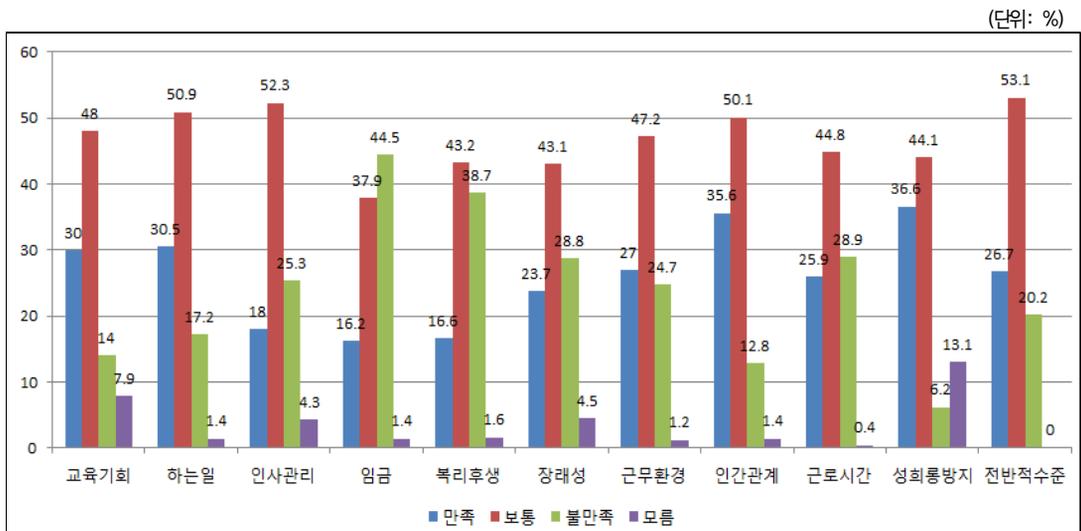
2011		매우 많이 불안	약간 불안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대전	계	21.2	42.8	30.3	5.7
	남	21.8	43.5	29.0	5.6
	여	20.2	41.7	32.3	5.8

(단위: %)

(3) 근로여건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남성의 경우 근로여건의 영역 중 매우 만족하거나 조금 만족한다고 많이 응답한 영역은 성희롱 방지노력(36.6)과 인간관계(35.6), 교육기회(30.0%) 순이었으며, 임금(16.2%), 복리후생(16.6%), 인사관리(18%) 영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시간은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영역은 전체 영역 중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 영역(13.1%)으로 근로자가 성희롱 방지 노력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2-1-31〕 2011 영역별 근로여건 만족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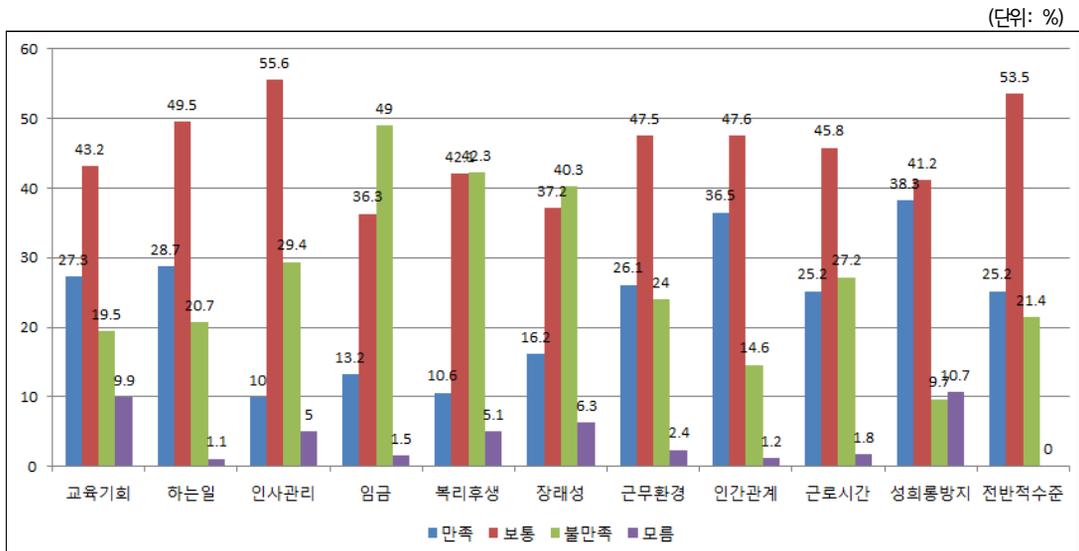


(단위: %)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여건 영역 중 성희롱 방지노력 영역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8.3%

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남성 근로자에 비하여 성희롱 방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라  
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은 이유에서도 기인한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36.5%, 교육기회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복리후생, 장래성 영역에서는 만족이나 보통이라는 응답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임금에 관하여는 4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32] 2011 영역별 근로여건 만족도(여)



남녀 공통적으로 임금, 복리후생, 인사관리, 근로시간, 장래성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  
타난 영역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더욱이 여성 근로자의 경우 더 심했는데, 임금의 절대적  
인 수준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임금의 남녀 격차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시정되어  
야 할 부분이다. 남성과 여성의 응답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근무환경 영역에 대하여 남성의 경우  
근소하게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전반적으  
로 남성보다 여성의 불만족 응답이 더 많았다. 한편 전반적인 근로여건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약간 높았으나,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6%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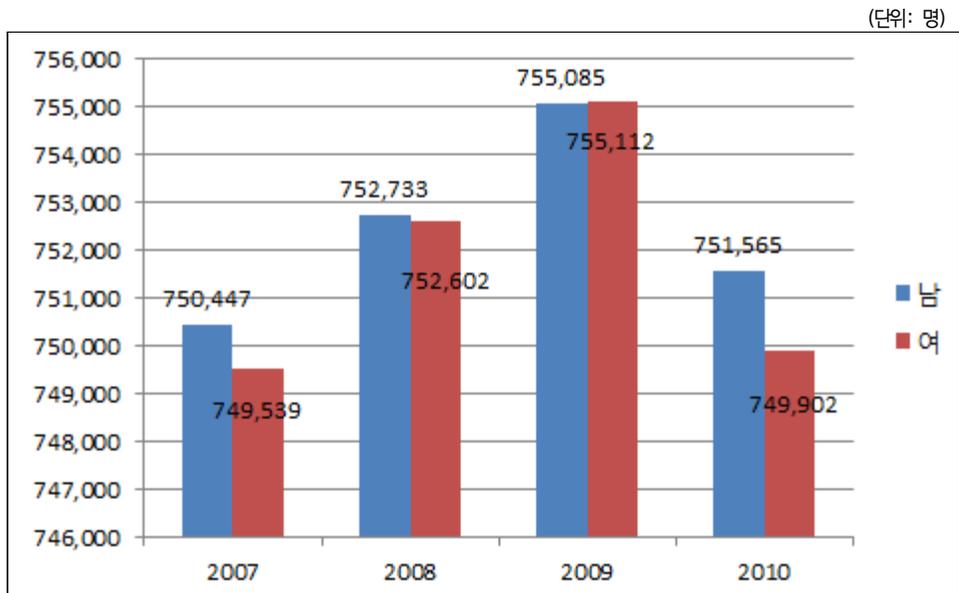
## 6. 보건

### 1) 의료보장

#### (1) 의료보장 적용인구

연도별 대전시의 의료보장 적용인구를 살펴보면 점점 증가하다가 2010년에 감소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의료보장을 적용받는 인구 중 남성이 751,565명, 여성이 749,902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3] 연도별 대전시 의료보장 적용인구



〈표 2-1-25〉 시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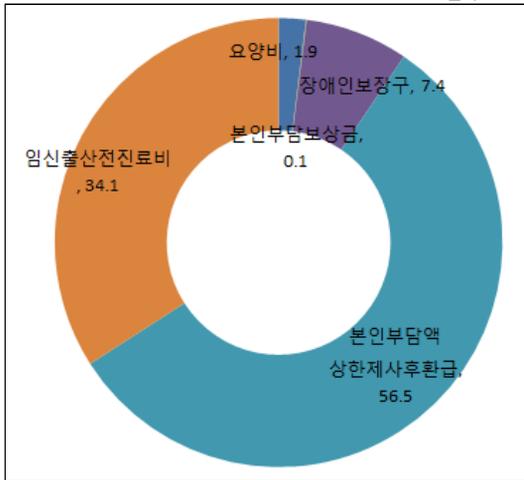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계	남	24,944,131	25,102,682	25,241,212	25,379,265
	여	24,728,257	24,898,375	25,049,559	25,201,926
서울특별시	남	5,203,739	5,209,247	5,210,585	5,098,357
	여	5,271,089	5,293,233	5,310,488	5,191,853
부산광역시	남	1,776,080	1,763,516	1,749,424	1,767,907
	여	1,776,755	1,764,813	1,752,948	1,785,106
대구광역시	남	1,245,060	1,243,588	1,240,998	1,252,582
	여	1,230,444	1,230,952	1,229,996	1,252,820
인천광역시	남	1,376,446	1,391,246	1,402,496	1,395,675
	여	1,349,855	1,366,205	1,377,919	1,367,803
광주광역시	남	699,050	703,204	708,416	722,802
	여	704,342	709,662	715,327	732,413
대전광역시	남	750,447	752,733	755,085	751,565
	여	749,539	752,602	755,112	749,902
울산광역시	남	595,339	602,925	603,757	581,269
	여	574,521	580,938	583,572	547,703

## (2) 현금급여

대전광역시 의료보장 현금급여 실적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 현금급여 건수는 전체 11,661건이고, 총 9,770,614천원이다. 이 중 56.5%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사후 환급금이고, 임신출산전진료비가 34.1%로 두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비가 7.4%를 차지하였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본인부담액 상한제사후 환급금이 6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신출산전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지원비가 각 26.3%,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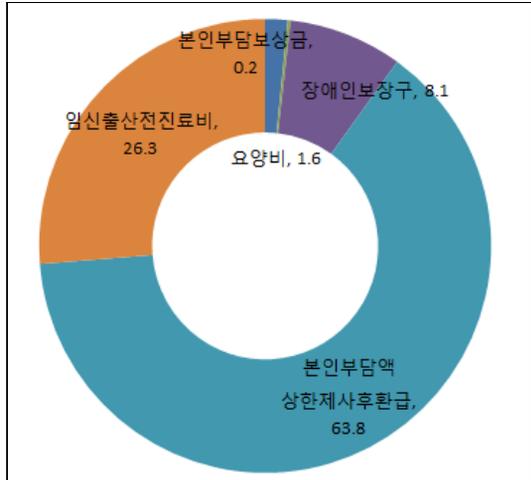
[그림 2-1-34] 현금급여 내용(직장가입자)

(단위: %)



[그림 2-1-35] 현금급여 내용(지역가입자)

(단위: %)



〈표 2-1-26〉 대전광역시 현금급여 실적(2010)

(단위: 건, 천원)

직장가입자		대전광역시
계	건수(건)	11,661
	금액(천원)	9,770,614
요양비	건수(건)	1,486
	금액(천원)	190,072
장제비	건수(건)	3
	금액(천원)	750
본인부담액보상금	건수(건)	49
	금액(천원)	5,942
장애인보장구	건수(건)	1,619
	금액(천원)	727,488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건수(건)	8,504
	금액(천원)	5,516,872
임신출산전진료비	건수(건)	3,329
	금액(천원)	491

지역가입자		대전광역시
계	건수(건)	5,419
	금액(천원)	4,417,366
요양비	건수(건)	493
	금액(천원)	70,135
장제비	건수(건)	2
	금액(천원)	500
본인부담액보상금	건수(건)	59
	금액(천원)	9,411
장애인보장구	건수(건)	722
	금액(천원)	358,604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건수(건)	4,143
	금액(천원)	2,818,349
임신출산전진료비	건수(건)	1,160
	금액(천원)	367

## (3) 의료이용 현황

대전시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의 근로자 가입자 총 사업장 수는 25,692개소, 가입자는 318,743명이었고, 서구의 적용인구가 261,6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성구의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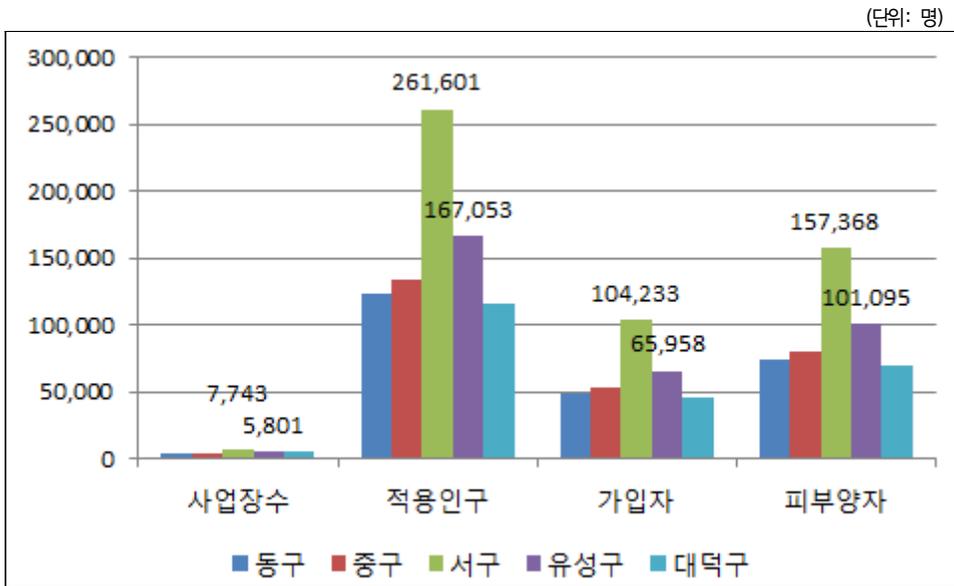
가 167,053명으로 많았다. 전체 적용인구 중 약 40%는 가입자이고, 60%는 피부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7〉 대전시 의료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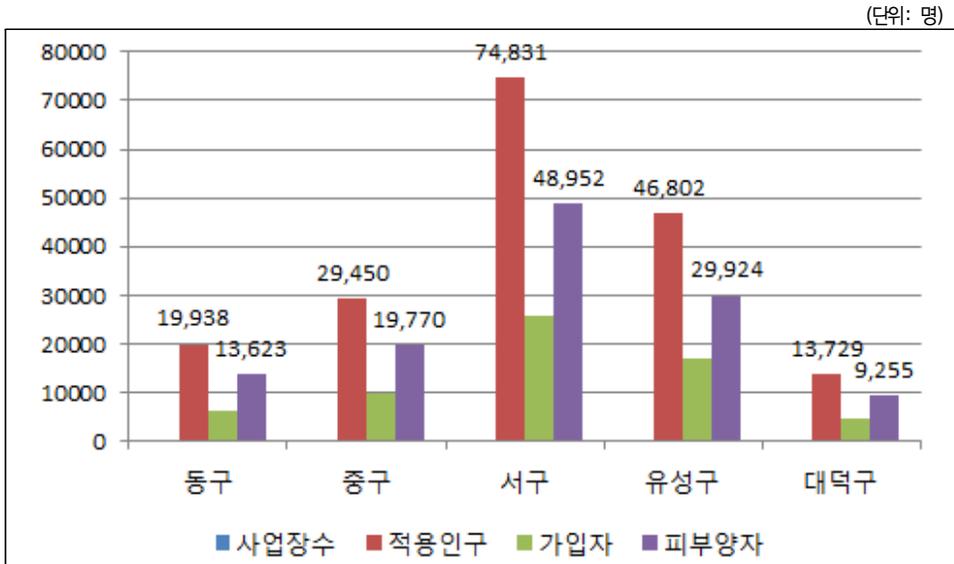
2010	근로자				공·교				지역	
	사업장 수	적용 인구	가입자	피부양자	사업장 수	적용 인구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세대수
대전	25,692	801,757	318,743	483,014	557	184,750	63,226	121,524	462,561	217,226
동구	3,302	123,851	48,883	74,968	82	19,938	6,315	13,623	89,339	42,749
중구	4,042	133,624	53,100	80,524	100	29,450	9,680	19,770	90,076	43,282
서구	7,743	261,601	104,233	157,368	173	74,831	25,879	48,952	149,528	69,046
유성구	5,801	167,053	65,958	101,095	133	46,802	16,878	29,924	64,586	30,433
대덕구	4,804	115,628	46,569	69,059	69	13,729	4,474	9,255	69,032	31,716

〔그림 2-1-36〕 대전시 구별 의료이용 현황(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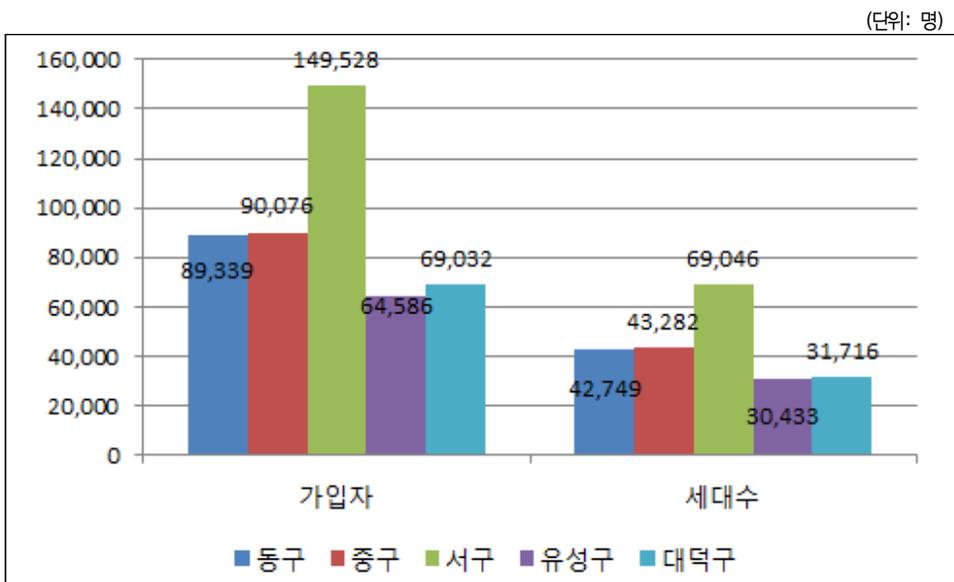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의 경우 총 사업장 수는 557 개소, 적용인구는 184,750명이었고,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적용인구가 많았다. 전체 적용인구 중 약 34%는 가입자이고, 56%는 피부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7] 대전시 구별 의료이용 현황(공·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총 사업장 수는 217,226세대, 462,561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가 69,046세대, 149,52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43,282세대, 90,076명), 동구(42,749세대, 89,339명), 대덕구(31,716세대, 69,032명), 유성구(30,433세대, 64,58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8] 대전시 구별 의료이용 현황(지역)



## 2) 의료기관

### (1) 요양기관 현황

대전 전체 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2,622개소가 있다. 가장 많은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957개소가 있으며, 다음으로 약국이 668개소, 치과의원이 447개소, 한의원이 438개소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조산원은 1개소, 상급종합병원은 2개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5개소, 종합병원은 6개소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8〉 대전광역시 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소)

	2007	2008	2009	2010
계	2,527	2,566	2,594	2,622
상급종합병원	2	2	2	2
종합병원	7	7	6	6
병원	54	62	68	72
의원	964	955	964	957
치과병원	6	6	6	5
치과의원	400	425	437	447
조산원	2	2	1	1
보건소	5	5	5	5
보건지소	8	8	8	8
보건진료소	8	8	8	8
한방병원	5	5	5	5
한의원	393	409	416	438
약국	673	672	668	668

### (2)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보호기관이 총 439개소에 정원이 645명이며, 이중 법인기관은 70개소로 정원은 446명이고, 개인기관은 420개소로 정원은 1,106명이다. 시설보호기관의 경우 총 32개소로 정원은 2,881명이며, 이 중 법인기관은 35개소 정원 1,947명, 개인기관은 52개소, 정원 9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보호기관의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이 많았다. 시설보호기관의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88개소 중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이 32개소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외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10개소, 노인요양시설이 1개소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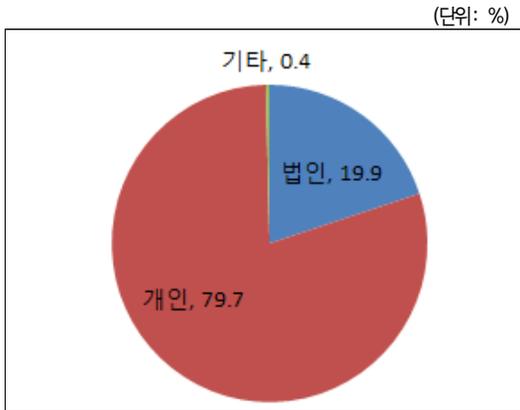
〈표 2-1-29〉 대전광역시 장기요양기관 수 및 인력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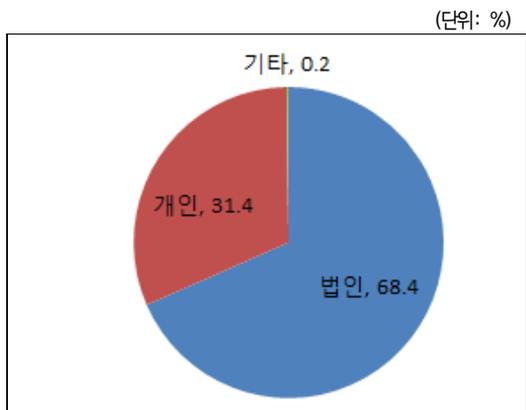
2010			대전			
			계	법인	개인	기타
계	기관	소계	527	105	420	2
	정원	소계	3,526	2,413	1,106	7
재가	계	기관	439	70	368	1
		정원	645	446	199	-
	방문요양	기관	386	50	335	1
	방문목욕	기관	331	38	292	1
	방문간호	기관	21	5	16	-
	주간보호	기관	35	21	14	-
		정원	606	411	195	-
	단기보호	기관	4	3	1	-
		정원	39	35	4	-
	복지욕구	기관	39	5	34	-
	계	기관	88	35	52	1
		시설	2,881	1,967	907	7
시설	노인요양시설	기관	32	17	15	-
		정원	1,488	1,017	471	-
	노인전문요양시설	기관	10	8	2	-
		정원	778	700	78	-
	노인요양시설 (구법)	기관	1	1	-	-
		정원	98	98	-	-
	노인요양 공동생활기정	기관	33	3	29	1
		정원	273	26	240	7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전환)	기관	12	6	6	-
		정원	244	126	118	-

기관 수는 개인기관이 약 80%정도로 많았는데, 정원 수의 경우에는 법인기관이 약 6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2-1-39]대전 장기요양기관 수



[그림 2-1-40]대전 장기요양기관 정원



### (3) 보건관련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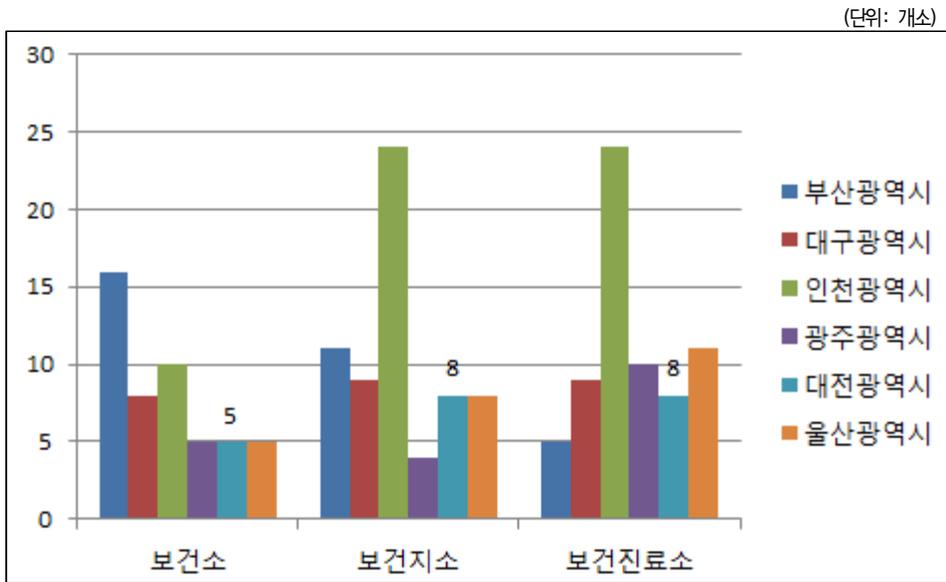
대전의 보건관련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보건소 5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로 2010년에 비하여 보건지소가 2개소 증가하였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수는 차이가 없었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2-1-30> 시도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단위: 개소)

	2010			201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계	253	1,294	1,912	253	1,305	1,908
서울특별시	25	2	-	25	3	0
부산광역시	16	11	5	16	11	5
대구광역시	8	9	9	8	9	9
인천광역시	10	23	24	10	24	24
광주광역시	5	3	10	5	4	10
대전광역시	5	6	8	5	8	8
울산광역시	5	8	11	5	8	11

[그림 2-1-41] 2011 주요도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



### 3) 의료보험

#### (1) 건강보험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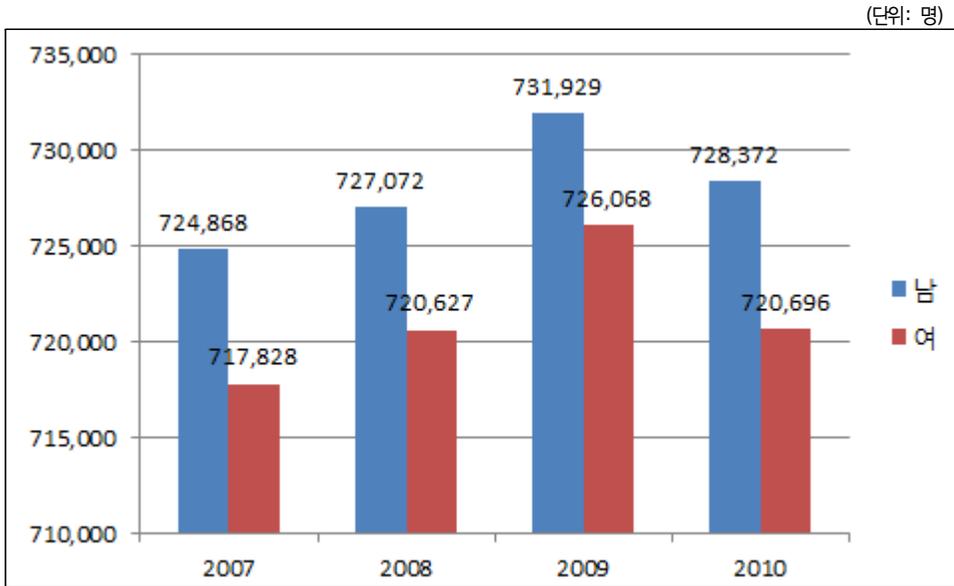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대전이 남성 728,372명, 여성이 720,695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적용인구가 남성의 적용인구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1> 시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대전광역시	남	724,868	727,072	731,929	728,372
	여	717,828	720,627	726,068	720,696

[그림 2-1-42] 대전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2) 의료급여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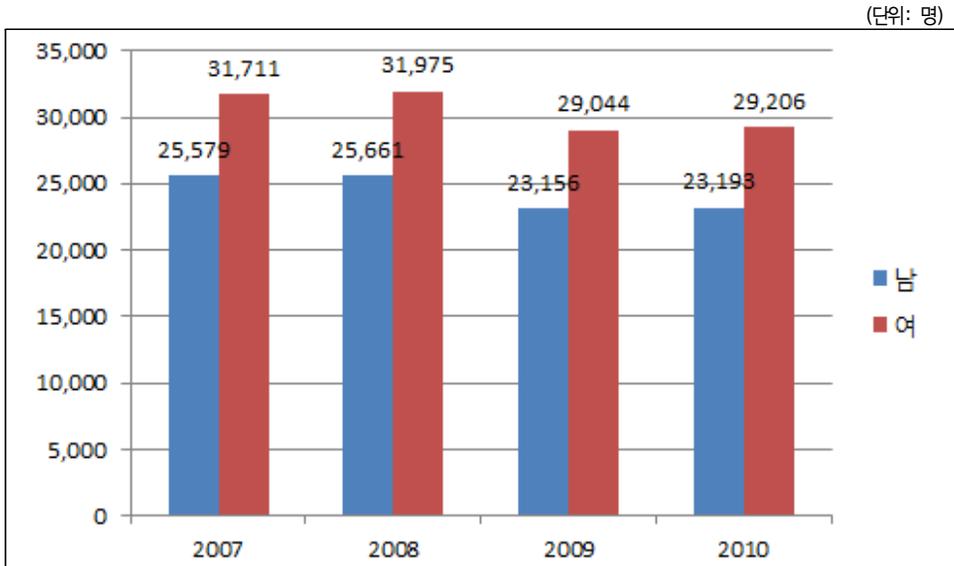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약간 감소해오고 있으며, 적용인구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남성이 23,193명, 여성이 29,206명으로 나타났다.

<표 2-1-32> 시도별 의료급여 적용인구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대전광역시	남	25,579	25,661	23,156	23,193
	여	31,711	31,975	29,044	29,206

[그림 2-1-43] 대전시 의료급여 적용인구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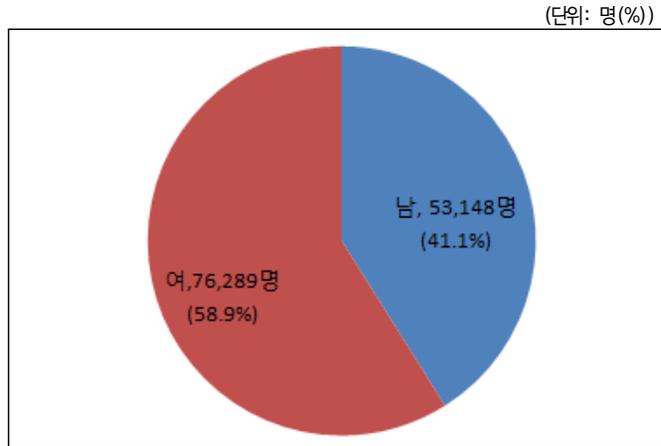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대전의 129,437명이 적용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53,148명으로 41.1%를 차지했고, 여성의 경우 76,289명으로 5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3>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단위: 명)

2010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수
대전광역시	남	53,148
	여	76,289

[그림 2-1-44] 대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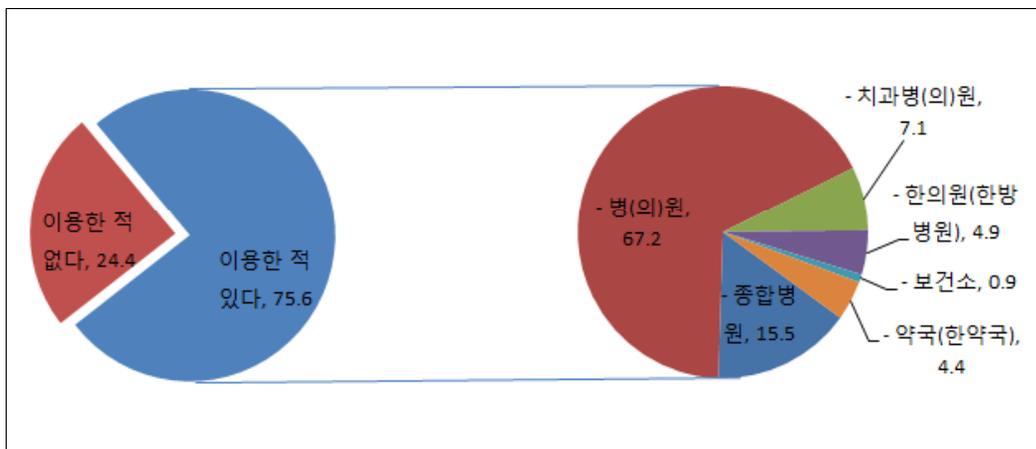


#### 4) 의료서비스

##### (1)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 물어본 결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5.6%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살펴보면 병(의)원이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합병원이 15.5%, 치과병(의)원이 7.1%, 한의원이 4.9%, 약국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5]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및 의료서비스 종류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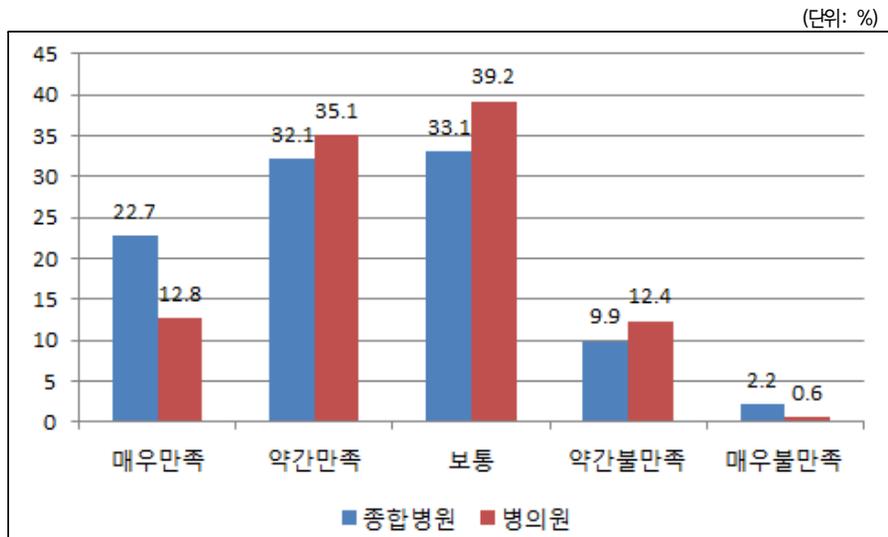
## (2) 의료서비스 만족도

대전 시민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병의원에 대한 만족도에 보다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2.7%,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32.1%를 차지했고, 병의원의 경우 매우 만족이 12.8%, 약간 만족이 35.1%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2-1-34〉 의료서비스 만족도(2010)

대전		(단위: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종합병원		22.7	32.1	33.1	9.9	2.2
병의원	남	12.5	33.6	41.6	11.4	0.8
	여	13.0	36.6	36.8	13.3	0.3

[그림 2-1-46] 의료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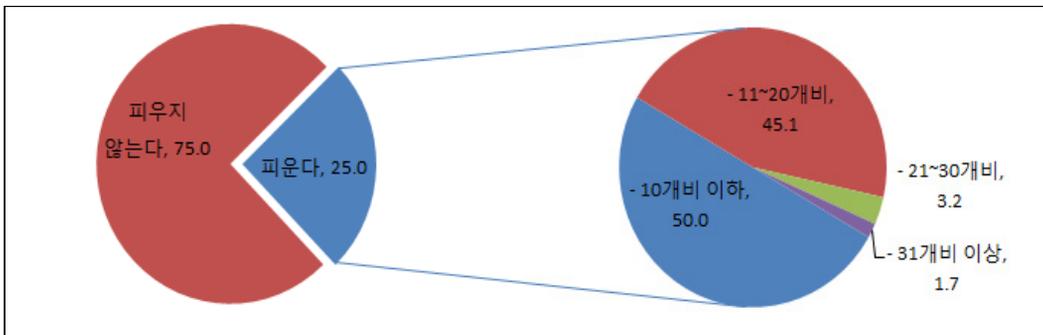


## 5) 흡연

### (2) 흡연비율 및 흡연양

대전 시민의 흡연비율과 흡연양을 살펴보면 담배를 현재 피우고 있는 경우는 25%로 확인되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흡연양을 조사한 결과 10개비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11개비에서 20개비 사이를 피운다는 응답이 45%로 20개비 이하가 약 95%를 차지하였다. 반면 31개비 이상을 피운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7] 흡연비율 및 흡연양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0)

## 7. 복지

### 1) 사회복지시설

#### (1) 사회복지시설 현황

대전의 사회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시설의 경우는 노인시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시설이 많았다. 전체 생활시설의 경우 서구에 40개소로 가장 많은 생활시설이 있고, 중구와 동구에 각 29개소, 25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시설의 경우 전체 14개소 중 서구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시설은 동구(7개소)에 가장 많았고, 부랑인시설은 한 곳으로 대덕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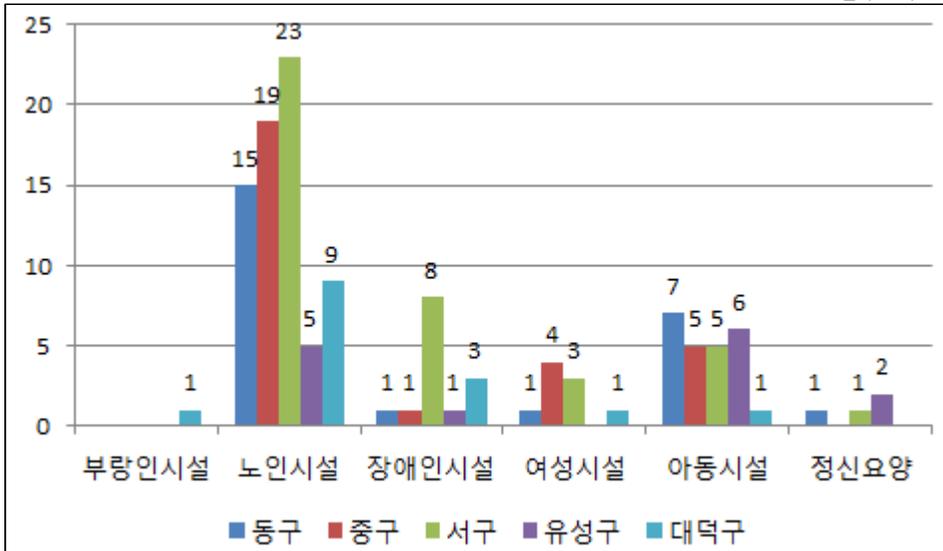
2010	계	사회 복지관	부랑인	지역자 활센터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정신 요양	사회 복귀
계	455	20	6	4	150	83	9	164	4	15
<b>생활시설</b>										
계	123	0	1	0	71	128	138	146	163	165
동구	25	-	-	-	15	1	1	7	1	-
중구	29	-	-	-	19	1	4	5	-	-
서구	40	-	-	-	23	8	3	5	1	-
유성구	14	-	-	-	5	1	-	6	2	-
대덕구	15	-	1	-	9	3	1	1	-	-
<b>이용시설</b>										
계	332	20	5	4	79	69	0	140	0	15
동구	68	5	4	1	16	12	-	28	-	2
중구	76	3	1	1	17	15	-	35	-	4
서구	84	7	-	1	26	13	-	30	-	7
유성구	40	1	-	-	6	13	-	19	-	1
대덕구	64	4	-	1	14	16	-	28	-	1

※ 기타시설 : 경로당 745 / 노인교실 34 / 노인휴양소 1 / 노인보호전문기관 1  
 보육시설 1,513개소(국공립29, 법인42, 민간439, 가정982, 부모협동1, 직장20)  
 푸드뱅크 6 / 푸드마켓 6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그림 2-1-48]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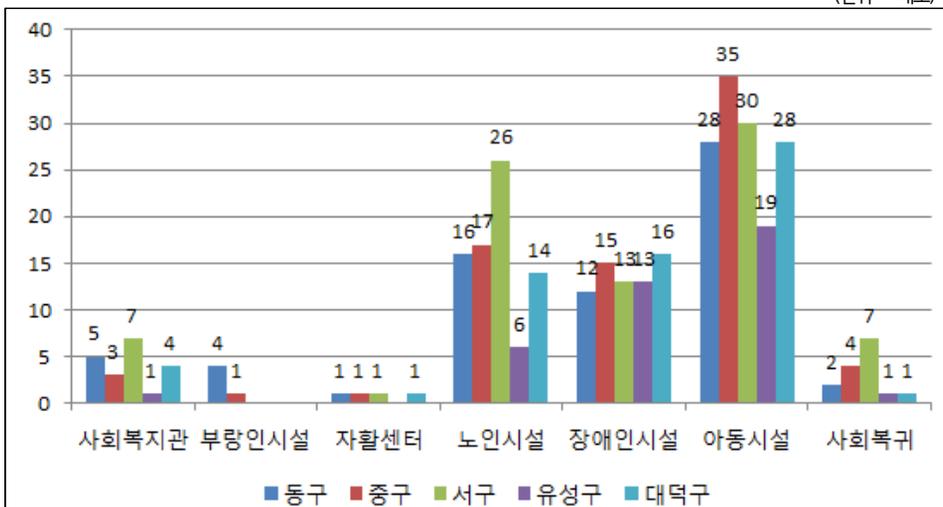
(단위 : 개소)



이용시설의 경우 전체 332개소가 있으며,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순으로 많았다. 아동시설은 중구에 35개소로 가장 많았고, 노인시설은 서구에 26개소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시설은 구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부랑인 시설은 동구에 가장 많았는데, 동구의 대전역 주변에 이용자들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2-1-49]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2) 사회복지 인식

### (1)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건강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으로 부담을 느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매우 부담되거나 부담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63%였으며, 국민연금은 약 58%, 고용보험은 약 50%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별로 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4.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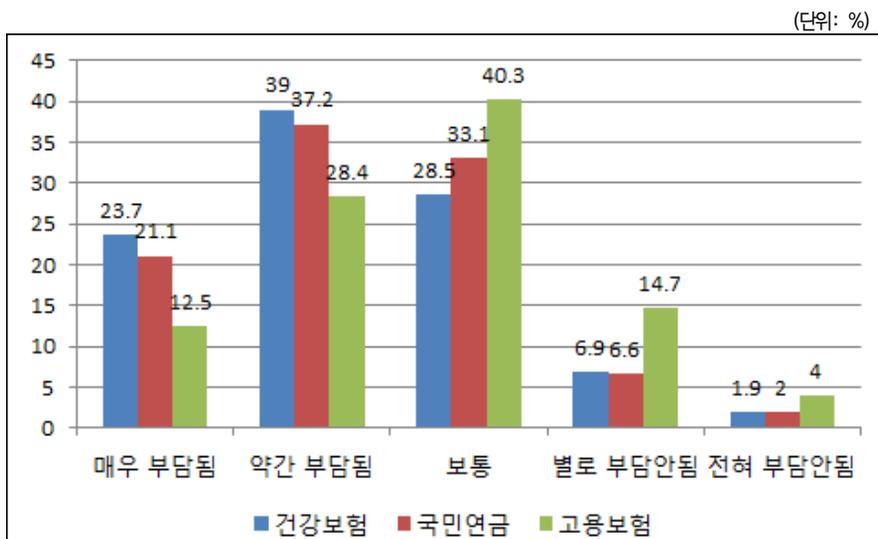
〈표 2-1-36〉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2011)

(단위: %)

대전	매우 부담됨	약간 부담됨	보통	별로 부담안됨	전혀 부담안됨
건강보험	23.7	39.0	28.5	6.9	1.9
국민연금	21.1	37.2	33.1	6.6	2.0
고용보험	12.5	28.4	40.3	14.7	4.0

응답자: 19세 이상 가구주

[그림 2-1-50] 사회보험료 부담 인식도(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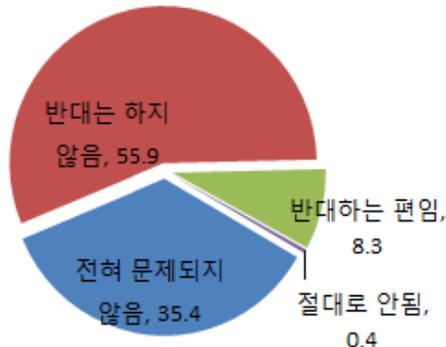
(2) 장애인시설에 대한 견해

장애인관련시설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지 조사한 결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9%,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4%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소수의 응답이지만 절대로 안된다는 응답이 0.4%로 나타났다. 우선 확대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수당지급이 25.4%,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19%)으로 현금급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촉진 및 재활사업에 대하여도 15.8%의 응답자가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1-37〉 우선 확대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

우선 확대해야할 장애인 복지사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급	25.4
의료비 지원	19.0
교육비 지원	5.3
주거비 지원	5.0
자립자금 대여	3.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15.8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복지관 확충	9.0
장애인 보조기구 배부	1.1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1.9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지원	0.3
장애인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10.1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	3.9

〔그림 2-1-51〕 장애인관련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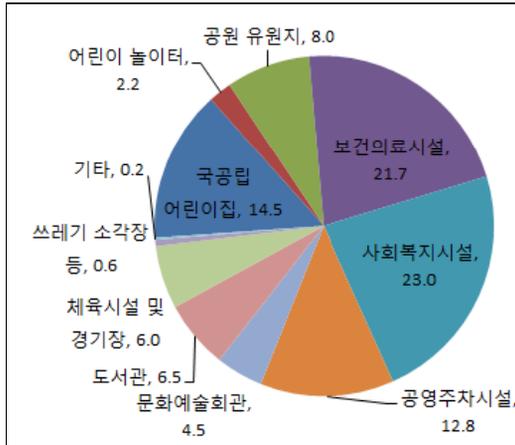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3) 필요한 시설/서비스에 대한 견해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묻은 결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23%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21.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14.5%가 늘려야하는 공공시설로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의료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증대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향후 늘려야할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고, 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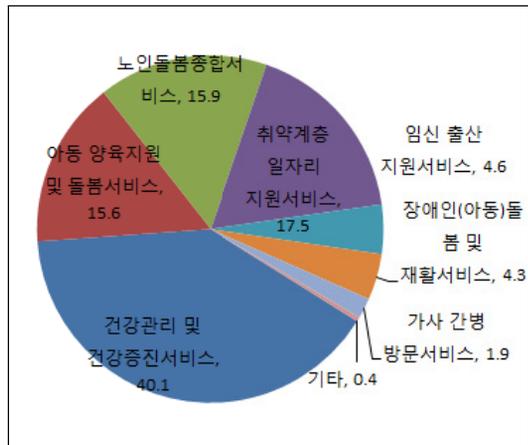
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아동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건강, 노동 및 재활관련 서비스,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52]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그림 2-1-53]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 3) 빈곤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1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 18,822명, 여성 24,717명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국비 90%, 지방비 10%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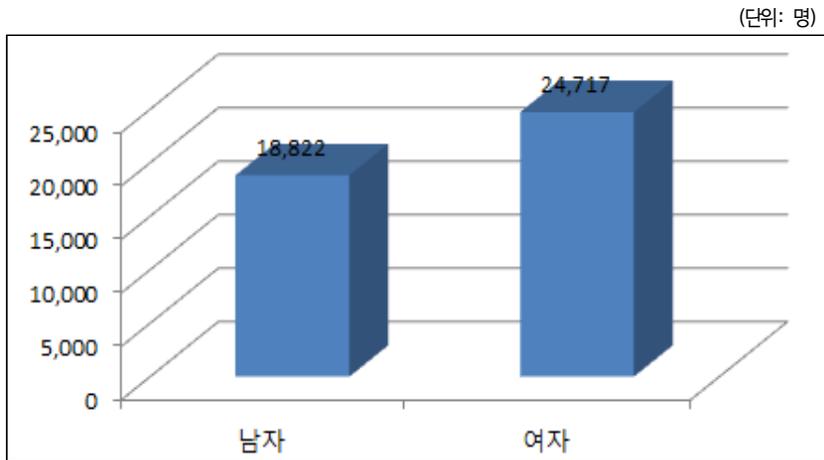
〈표 2-1-38〉 수급비 재원

(단위: 백만원)

	국비	지방비
일반 수급자	107,397 (90%)	11,933 (10%)
시설 수급자	4,641 (90%)	516 (10%)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그림 2-1-54] 수급자 수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황

2011년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생계급여가 7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거급여가 17.2%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 외 교육급여가 4.8%, 해산장제급여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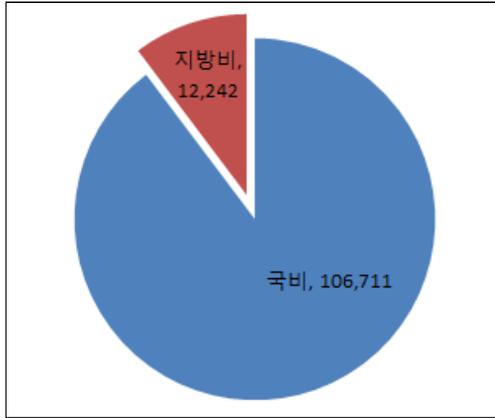
<표 2-1-39>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단위: 백만원)

2011	국비	지방비
합계	106,711	12,242
생계급여	86,915	9,657
주거급여	19,307	2,145
교육급여	5,377	597
해산장제급여	44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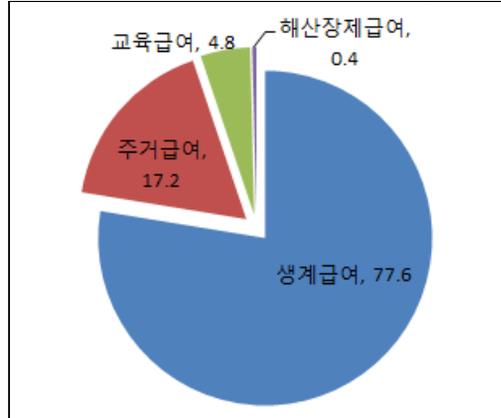
[그림 2-1-55] 국민기초생활급여 자원

(단위: 백만원)



[그림 2-1-56] 국민기초생활급여 내용

(단위: %)



## 8. 문화·여가

### 1) 문화

#### (1) 문화공간 현황

대전시 문화공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공연시설 51개소, 전시실 47개소, 청소년 수련관 9개소, 기타시설이 6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공간의 구성으로는 공연시설이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시실(41.6%)이 많았다. 청소년 수련관은 8%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시설(5.3%)에는 문화원과 국악원이 각각 5개소, 1개소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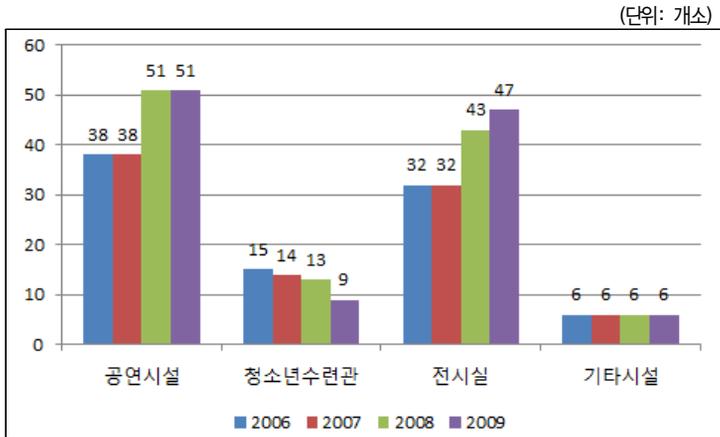
〈표 2-1-40〉 대전광역시 문화공간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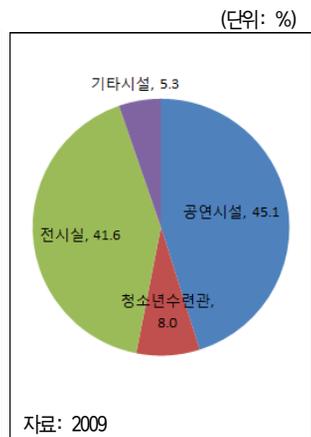
	공연시설			청소년수련관			전시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일반 공연장	영화관	문화의 집	수련관	유스 호스텔	미술관	화랑	문화원	국악원
1995	6	8	25	-	-	-	-	20	4	1
2000	5	18	14	1	3	1	2	23	5	1
2005	15	12	12	11	3	1	4	27	5	1
2006	8	17	13	11	3	1	3	29	5	1
2007	8	17	13	9	4	1	3	29	5	1
2008	24	15	12	8	4	1	5	38	5	1
2009	24	15	12	3	1	5	39	8	5	1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그림 2-1-57] 대전광역시 문화공간 현황(2006~2009)



[그림 2-1-58] 문화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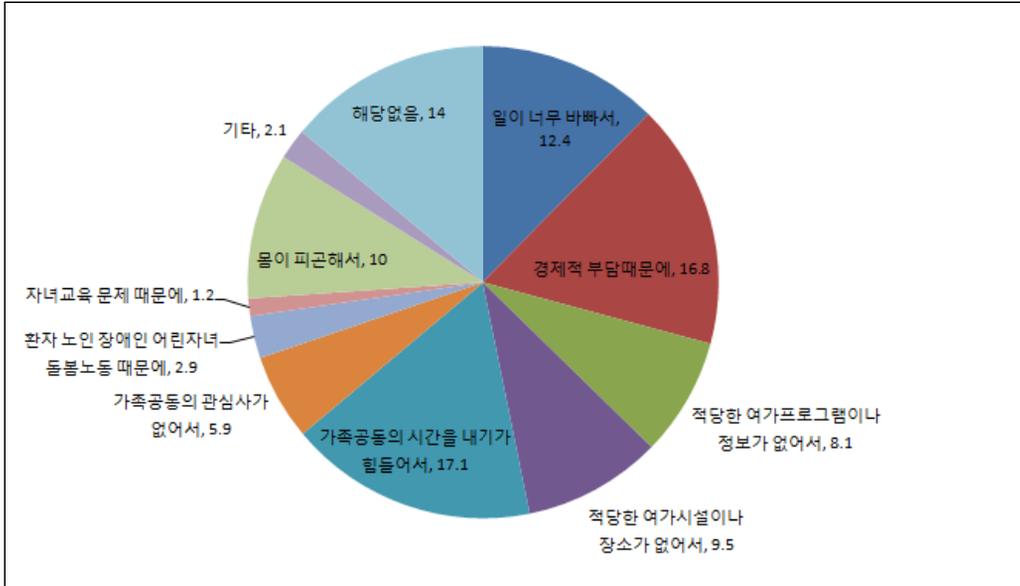
## 2) 여가

### (1) 가족여가 제약요인

여가와 관련해서 가족여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이유는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과 일이 너무 바쁜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외 외부적 이유로는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없어서, 적당한 여가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등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제반 시설과 관련된 이유로 가족의 여가를 제약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9] 가족여가 제약요인(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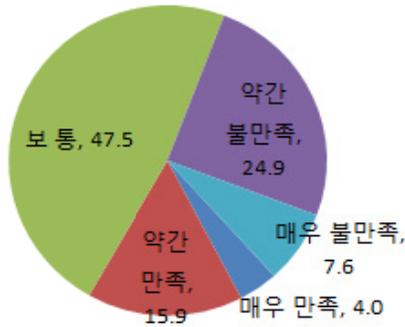


## (2)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불만족 하는 의견은 24.9%로 나타나 보통이라는 의견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32.5%,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19.9%로 나타났는데, 여가를 불만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적 부담(5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시간의 부족이라 응답한 경우가 26.7%로 나타났는데, 큰 경제적 부담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41〉 여가불만족 이유

〔그림 2-1-60〕 여가활동 만족도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여가불만족이유(%)	
경제적부담	57.5
시간부족	26.7
교통혼잡	0.6
여가시설 부족	2.2
여가정보 부족	1.3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4.5
건강, 체력부족	5.8
함께 여가 즐길 사람이 없어서	1.2
기타	0.2

자료: 통계청-대전광역시(2011)

## 9. 교육

### 1)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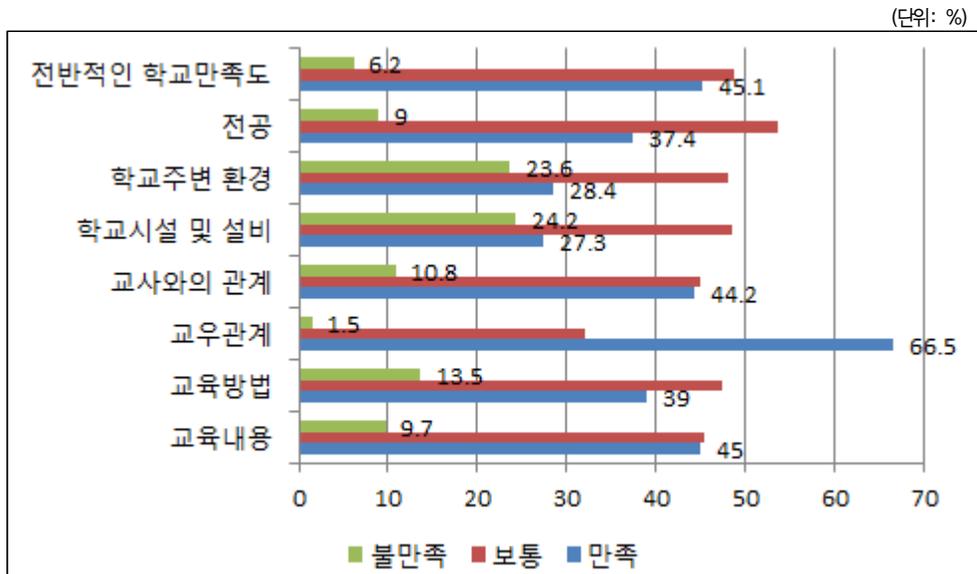
#### (1)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항목으로 교우관계(66.5%)가 꼽혔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나타났다. 교우관계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교육내용, 교사와의 관계로 나타났고, 반대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학교시설 및 설비(24.2%)와 학교주변 환경(2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2010)

대전	(단위: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교육내용	8.9	36.1	45.3	7.7	2.0
교육방법	8.3	30.7	47.4	10.8	2.7
교우관계	28.3	38.2	32.0	1.1	0.4
교사와의 관계	10.9	33.3	45.0	10.2	0.6
학교시설 및 설비	5.3	22.0	48.5	19.5	4.7
학교주변 환경	6.2	22.2	48.0	18.2	5.4
전공	8.2	29.2	53.6	6.2	2.8
전반적인 학교만족도	8.9	36.2	48.8	4.5	1.7

[그림 2-1-61] 학교생활 만족도(2010)



## 10. 기타 생활전반

### 1) 생활전반 스트레스

#### (1) 생활전반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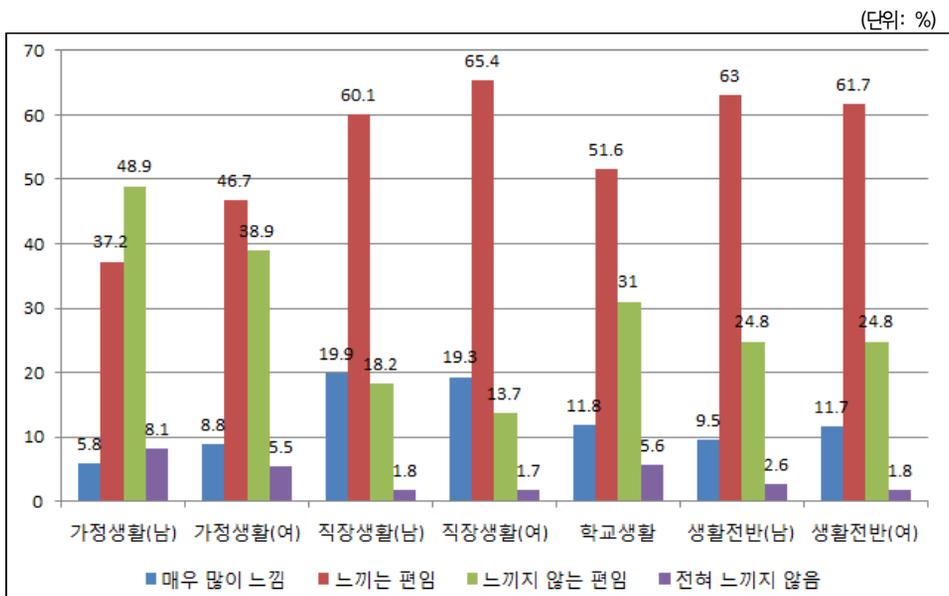
생활전반에 관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한 결과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생활전반에 걸쳐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특히 직장생활의 경우 남성과 여성 통틀어 60% 이상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생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더 많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약 20%의 응답자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생활전반에 걸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하여 남성의 경우 63%, 여성의 경우 61.7%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며, 각각 9.5%, 11.7%는 스트레스를 매우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1-43〉 스트레스 정도(2010)

(단위: %)

대전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가정생활	남	5.8	37.2	48.9	8.1
	여	8.8	46.7	38.9	5.5
직장생활	남	19.9	60.1	18.2	1.8
	여	19.3	65.4	13.7	1.7
학교생활		11.8	51.6	31.0	5.6
생활전반	남	9.5	63.0	24.8	2.6
	여	11.7	61.7	24.8	1.8

〔그림 2-1-62〕 스트레스 수준(2010)



## 2) 생활여건

### (1) 생활여건의 변화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의료나 사회보장, 문화여건에 관하여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대체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보건의료, 사회보장, 문화여건 순으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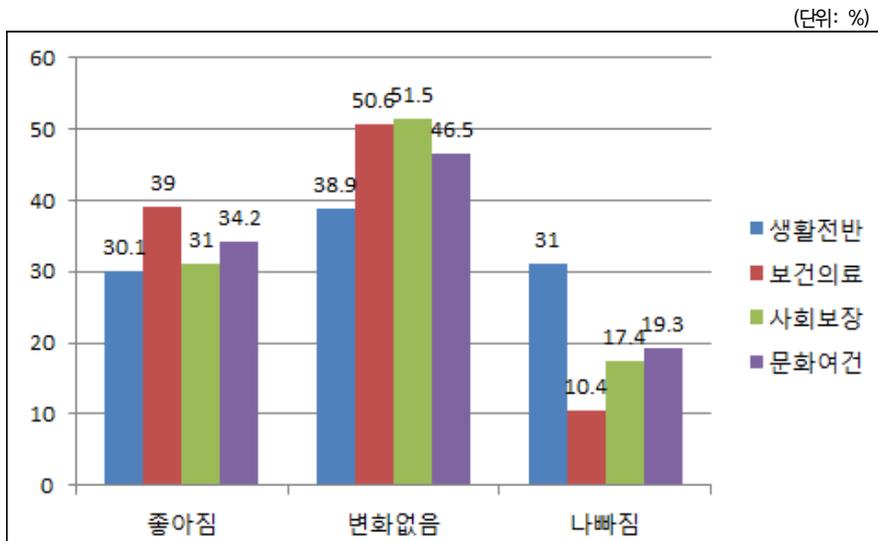
는 보건의료, 문화여건, 사회보장 순으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남녀 모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하여 여건이 **않**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관하여 **바**빠졌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남녀 모두 30% 이상이 생활여건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표 2-1-44〉 생활여건의 변화(20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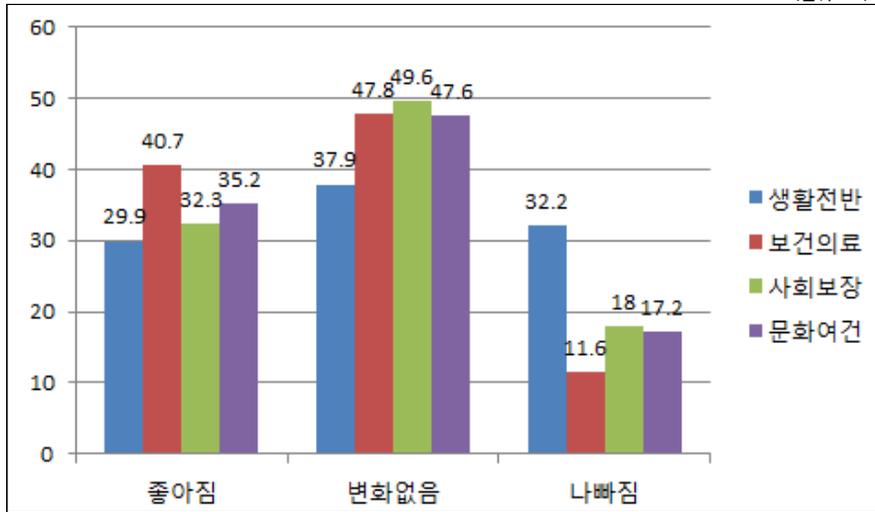
대전		많이 좋아짐	약간 좋아짐	변화없음	약간 나빠짐	많이 나빠짐
생활전반	남	5.6	24.5	38.9	21.2	9.8
	여	5.0	24.9	37.9	22.5	9.7
보건의료 서비스	남	5.6	33.4	50.6	6.7	3.7
	여	7.2	33.5	47.8	8.6	3.0
사회보장 제도	남	4.4	26.6	51.5	11.6	5.8
	여	4.7	27.6	49.6	13.5	4.5
문화여가 향유여건	남	4.3	29.9	46.5	13.1	6.2
	여	6.8	28.4	47.6	12.9	4.3

[그림 2-1-63] 생활여건 변화(남)



[그림 2-1-64] 생활여건 변화(여)

(단위: %)



## 제3장 양적 조사 결과

### 제1절 대전 시민 복지욕구조사 표본설계

#### 1. 조사 목적

대전광역시민의 구별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데 조사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설계를 연구하고 이를 근거로 표본지점을 추출하여 가구방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조사된 데이터와 모집단의 구조를 대비하여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계산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는 대전광역시민의 구별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데 조사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설계를 연구하고 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모집단 정의

2012년 7월 31일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목표모집단의 정의하지만 실제로 가구방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경우에는 가구원들 간에 상호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조사 모집단은 대전시에 소재하는 가구의 가구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기준 시점인 2012년 7월 31일의 가구 수라든지 또는 가구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가구의 규모와 연관이 있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주어진 내국인수와 일반 가구 수 및 2012년 6월 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5개 구별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3-1-1>에 주어졌다. 5개 구 중에서 서구의 인구수와 가구 수는 다른 4개 구의 2배정도로 많으므로 비례배분을 할 경우에는 서구에 할당되는 표본규모가 커져서 5개 구들간의 비교, 분석하는데 통계량들의 정도(precision)에서 큰 차이가 생기므로 분석결과의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5개 구별로 층의 크기가 불균형적인 분포 특성이 있을 경우에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별로 표본배분에 필요한 2010년 총조사의 인구수와 가구 수 및 주민등록인구의 제곱근 등을 <표 3-1-1>에 정리하였다.

〈표 3-1-1〉 대전시 구별 2010총조사 내국인과 2012주민등록인구 현황

구	2010년 총조사		2012년 주민등록인구	제공근		
	인구 수	가구 수		총조사인구	총조사가구	12주민등록
동구	244,344	93,347	252,682	494,3116	305,5274	502,6748
중구	254,577	89,902	264,855	504,5562	299,8366	514,6406
서구	498,524	178,499	497,222	706,0623	422,4914	705,1397
유성구	289,303	99,256	301,645	537,8689	315,0492	549,2222
대덕구	203,410	71,639	206,191	451,0100	267,6546	454,0826
합계	1,490,158	532,643	1,522,595	2693,8091	1610,5592	2725,7599

### 3. 표본크기와 추출단위

조사방법이 가구방문조사이고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00가구의 가구주를 표본크기로 정하였으며 표본추출단위는 통·반을 1차 표본추출단위(표본지점)로 정의한 후에 각 표본지점에서 8가구를 랜덤하게 선정하여 가구주를 조사하게 되므로 가구는 최종추출단위가 된다. 1,200가구를 1추출단위로 환산하면 150개가 되므로 5개 구별로 150개의 1차 추출 단위(통반)의 적절한 표본 배분법을 검토하겠다.

### 4. 표본 배분

〈표 3-1-1〉에 주어진바와 같이 서구는 다른 4개구의 2배 이상 크므로 정확한 구별비교분석과 각 층의 크기를 반영한 표본배분방법은 3가지 항목(2010년 총조사 인구수와 가구 수 및 2012년 주민등록인구)별로 각 구별로 10개 지점을 우선할당한 후에 나머지는 비례 배분하는 방법들과 3항목의 제공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할당을 산출한 결과가 〈표 3-1-2〉에 주어졌다.

〈표 3-1-2〉 할당방법별 구별 할당결과

구	10+비례할당			제공근비례할당		
	2010인구	2010가구	'12주민등록	2010인구	2010가구	'12주민등록
동구	26	27	27	28	28	28
중구	27	27	27	28	28	28
서구	44	44	43	39	40	39
유성구	29	29	29	30	29	30
대덕구	24	23	24	25	25	25
합계	150	150	150	150	150	150

2010년 총조사의 인구수와 가구 수를 기준으로 배분한 결과는 표본크기가 서로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제공근비례배분법에 의한 할당결과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6종의 표본할당 결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배분방법별로 95% 신뢰수준에서 아래 식을 사용하여 기대표본오차를 계산하여 비교해보자.

$$\pm z_{\alpha/2} \cdot se(\hat{p}) = 2.0 \cdot \sqrt{1/n - 1/N} \hat{p}(1 - \hat{p}) \leq \sqrt{1/n - 1/N}$$

〈표 3-1-2〉에 주어진 할당결과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기대표본오차의 계산결과를 〈표 3-3〉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서구의 표본오차가 가장 적고 대덕구의 표본오차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으며 2010년 총조사 가구수에 대해서 제공근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한 결과에서 서구의 표본오차와 대덕구의 표본오차간의 차이가 가장 작기 때문에 구들간의 비교분석에 적합한 표본배분법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표본할당결과는 구별로 동구 28지점, 중구 28지점, 서구 40지점, 유성구 29지점과 대덕구 25지점으로 한다.

〈표 3-1-3〉구별 할당결과에 대한 기대표본오차

구	10+비례할당			제공근비례할당		
	2010인구	2010가구	'12주민등록	2010인구	2010가구	'12주민등록
동구	0.0693	0.0680	0.0680	0.0668	0.0667	0.0668
중구	0.0680	0.0680	0.0680	0.0668	0.0667	0.0668
서구	0.0533	0.0532	0.0539	0.0566	0.0559	0.0566
유성구	0.0656	0.0656	0.0656	0.0645	0.0656	0.0645
대덕구	0.0721	0.0736	0.0721	0.0707	0.0706	0.0707
합계	0.0289	0.0288	0.0289	0.0289	0.0288	0.0289

구별로 할당된 결과에 대해서 구내에서 동별로 표본지점의 할당은 단순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4〉에 정리하였다.

〈표 3-1-4〉 구·동별 표본지점 할당결과

구	동	2010총조사인구	2010총조사가구	2012주민등록인구	동별할당결과(지점수)
동구	효동	25,778	8,551	26,356	2
	판암1동	11,138	3,960	11,168	1
	판암2동	11,876	5,433	11,716	2
	용운동	25,531	10,417	21,362	3
	지양동	14,515	6,409	11,889	2
	가양1동	13,513	5,231	16,293	2
	가양2동	24,658	9,107	23,044	3
	용전동	21,074	8,584	21,216	3
	홍도동	14,758	6,294	13,443	2
	대청동	2,619	975	3,021	0
	산내동	18,911	6,135	21,958	2
	중앙동	6,618	2,954	8,506	1
	신인동	13,355	4,708	14,727	1
	대동	10,397	3,913	14,210	1
	성남동	11,193	4,069	14,713	1
삼성동	18,410	6,607	19,060	2	

구	동	2010총조사인구	2010총조사가구	2012주민등록인구	동별할당결과(지점수)
중구	은행선화동	14,517	6,683	17,598	2
	목동	13,562	4,275	16,649	1
	중촌동	16,882	6,229	16,674	2
	대흥동	10,616	4,091	11,327	1
	문창동	5,389	2,207	5,606	1
	석교동	19,091	6,690	19,309	2
	대사동	6,781	2,785	6,759	1
	부사동	7,401	2,786	7,586	1
	용두동	10,719	4,092	11,185	1
	오류동	10,357	3,586	10,606	1
	태평1동	15,812	5,009	15,843	2
	태평2동	30,672	9,607	30,522	3
	유천1동	7,210	2,797	7,581	1
	유천2동	15,665	5,440	15,739	2
	문화1동	23,995	7,771	24,339	2
	문화2동	16,283	5,755	16,074	2
산성동	29,625	10,099	31,458	3	
서구	복수동	22,620	7,513	22,387	2
	도마1동	21,005	8,459	20,317	2
	도마2동	24,852	8,935	22,984	2
	정림동	19,339	6,172	19,445	1
	변동	18,843	6,775	19,241	2
	용문동	15,176	6,248	16,005	1
	탄방동	30,251	12,535	30,412	3
	둔산1동	18,017	5,612	17,962	1
	둔산2동	42,845	14,021	41,673	3
	괴정동	19,320	8,297	21,044	2
	가정동	13,922	4,635	14,045	1
	내동	27,015	8,618	27,142	2
	갈마1동	25,672	10,284	24,928	2
	갈마2동	30,641	13,134	28,568	3
	월평1동	13,795	6,571	12,701	2
	월평2동	18,850	7,295	18,664	2
	월평3동	25,429	7,617	25,581	2
만년동	16,143	5,853	15,527	1	

구	동	2010총조사인구	2010총조사가구	2012주민등록인구	동별할당결과(지점수)
서구	가수원동	16,297	5,045	20,804	1
	기성동	4,485	1,344	4,419	0
	관저1동	16,940	5,408	16,644	1
	관저2동	33,657	10,509	33,473	2
	둔산3동	23,410	7,619	23,256	2
유성구	진잠동	27,988	9,567	32,726	3
	온천1동	29,587	12,385	51,335	4
	온천2동	48,156	18,273	33,178	5
	신성동	30,114	9,714	27,571	3
	전민동	26,354	8,609	26,212	2
	노은1동	23,166	7,741	24,003	2
	노은2동	43,034	13,111	44,197	4
	구즉동	32,404	11,062	32,374	3
관평동	28,500	8,794	30,049	3	
대덕구	오정동	21,542	8,510	19,552	3
	대화동	10,013	3,641	10,097	1
	회덕동	18,096	6,449	17,961	2
	비래동	19,530	6,527	19,446	2
	중리동	23,112	9,138	24,195	3
	법1동	15,252	5,699	14,913	2
	법2동	20,728	6,919	20,437	2
	신탄진동	13,157	4,606	13,375	2
	석봉동	6,601	2,290	9,814	1
	덕암동	15,953	5,504	16,961	2
	목상동	7,090	2,474	7,208	1
	송촌동	32,336	9,882	32,232	4
합계		1,490,158	532,643	1,522,595	150

## 5. 표본 추출

<표 3-1-4>에 주어진 동별로 표본지점의 할당결과에 따른 표본지점(통반)의 추출은 통반의 가구 수 또는 주민등록세대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종의 유사 자체가중설계가 되도록 한다.

동별로 할당된 표본지점<sup>4)</sup>을 선정한 후에 조사대상가구의 선정은 통반장집을 기준으로 계통추출법으로 8가구를 랜덤하게 선정한다. 만일에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주가 조사 참여를 강력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은 가구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하며 선정된 가구에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3회 정도까지 재방문하여 조사 참여를 설득한다는 것으로, 가능한 표본가구의 교체율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 6. 가중치 계산 및 모수추정

부록에 주어진 150개 표본지점에서 조사가 종료되면 모든 조사표에 대해서 조사항목별로 응답 내용의 오류를 점검한 후에 항목무응답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재확인하거나 또는 통계적인 핫덱 대체법(hotdeck imputation)으로 완전한 데이터세트를 만든 후에 각 구별로 조사모집단 가구수와 조사된 가구수의 비로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표 3-1-5>에 정리하였다.

$$W_{ij} = \frac{N_{ij}}{n_{ij}}, \quad i \text{는 구를 나타내고 } j \text{는 가구를 나타낸다.}$$

<표 3-1-5> 구별 조사된 가구 수와 가중치

구	조사모집단 가구 수	할당된 가구 수	조사된 가구 수	가중치
동구	93,347	224	224	416.7277
중구	89,902	224	228	396.0440
서구	178,499	320	319	559.5580
유성구	99,256	232	232	427.8276
대덕구	71,639	200	199	361.8131
합계	532,643	1200	1200	443.8693

본래는 구내에서 동별로 가구 수와 조사된 표본가구수를 사용하여 동별로 가구가중치를 산출할 예정이었으나 동 분류에서 오류가 많아서 구별 가중치를 <표 3-1-5>와 같이 산출하여 가구단위

4) 선정된 150개의 표본지점 리스트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구별로 동별로 조사된 가구 수의 데이터를 부록에 포함하였다.

조사항목들의 특성이 성별\*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표본가중치를 산출하여 성별\*연령대별 특성에 의한 추정치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중치를 산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모집단의 구별 성별\*연령대별 인구수는 2011년12월31일 기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하고 특히 연령대는 10세 간격(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결과는 아래 <표 3-1-6>에 주어졌다.

<표 3-1-6> 구별 성별\*연령대별 조사된 표본 수

구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세미만	24	22	41	42	40	51	32	23	68	62
10세	49	37	49	43	72	95	49	64	31	60
20세	54	49	39	43	54	56	38	36	34	38
30세	47	45	46	57	36	75	30	47	64	63
40세	50	43	45	40	95	96	58	64	64	64
50세	56	62	47	51	54	67	42	45	38	55
60세	33	44	34	39	42	45	27	33	22	22
70세+	32	38	34	38	40	46	21	24	20	14
합 계	345	340	335	353	433	531	297	336	341	378

조사된 데이터에서는 연령대를 (0-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와 같이 구분하여 주민등록인구와 기준을 통일하였으며 구별 성별\*연령대별로 조사된 사람들의 빈도표를 산출한 결과는 <표 3-1-7>에 주어졌으며 조사된 전체 사례 수는 3,689명이다.

〈표 3-1-7〉 구별 성별 \* 연령대 주민등록인구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세미만	12,150	11,414	12,406	11,682	24,664	23,092	19,618	18,110	9,866	9,200
10세	15,584	13,886	18,265	16,468	40,987	36,729	23,654	21,651	16,266	14,358
20세	18,913	16,437	18,204	16,655	37,378	36,938	20,605	18,408	15,197	13,131
30세	22,202	19,711	21,535	20,952	39,212	41,836	27,017	27,929	16,619	15,771
40세	20,692	18,826	22,362	21,706	43,916	47,067	27,438	26,952	19,465	18,514
50세	19,270	19,807	19,824	20,738	35,340	35,463	18,663	17,511	15,372	15,040
60세	11,202	12,118	11,811	12,676	15,381	16,052	6,860	7,162	7,230	7,543
70세	7,433	11,640	8,124	12,094	9,400	15,669	4,548	8,227	4,515	7,252
합 계	127,446	123,839	132,531	132,971	246,278	252,846	148,403	145,950	104,530	100,809

개인가중치는 표본추출률과 응답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별\*연령대별로 가중치의 합계를 계산한 후 <표 3-1-8>에 주어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각 동별로 표본지점별로 가구 수와 인구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표 3-1-6>의 각 셀의 인구수를 <표 3-1-7>의 해당 각 셀의 사람 수로 나누어 개인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산출한 결과는 <표 3-1-8>에 주어졌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산출이라 한다.

〈표 3-1-8〉 구별 성별 \* 연령대 개인 가중치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세미만	506.25	518.8182	302.5854	278.1429	616.6	452.7843	288.5	292.0968	308.3125	400
10세	318.0408	375.2973	372.7551	382.9767	569.2639	386.6211	763.0323	360.85	331.9592	224.3438
20세	350.2407	335.449	466.7692	387.3256	692.1852	659.6071	606.0294	484.4211	399.9211	364.75
30세	472.383	438.0222	468.1522	367.5789	1089.222	557.8133	422.1406	443.3175	553.9667	335.5532
40세	413.84	437.814	496.9333	542.65	462.2737	490.2813	428.7188	421.125	335.6034	289.2813
50세	344.1071	319.4677	421.7872	406.6275	654.4444	529.2985	491.1316	318.3818	366	334.2222
60세	339.4545	275.4091	347.3824	325.0256	366.2143	356.7111	311.8182	325.5455	267.7778	228.5758
70세	232.2813	306.3158	238.9412	318.2632	235	340.6304	227.4	587.6429	215	302.1667

<표 3-1-5>와 <표 3-1-8>에 주어진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를 이용하여 가구단위 특성이나 개인단위 특성을 분석한다. 설문지에서 조사된 항목별 관찰값을 사용하여 모평균의 추정치를 가중표본평균으로 계산하며 추정치의 분산추정치를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hat{\mu} = \frac{\sum_{i=1}^5 \sum_{j=1}^{n_i} W_{ij} y_{ij}}{\sum_{i=1}^5 \sum_{j=1}^{n_i} W_{ij}}$$

$$\widehat{V}(\hat{\mu}) = \sum_{h=1}^5 W_h^2 \left( \frac{1}{n_h} - \frac{1}{N_h} \right) s_h^2$$

여기서  $W_h$ 는 h층(구별)의 구성비이고  $N_h$ 는 h층의 크기(가구 수)이며  $n_h$ 는 h층의 표본크기를 나타내고  $s_h^2$ 은 h층의 표본분산으로 아래 식으로 계산한다.

$$s_h^2 = \frac{1}{n_h - 1} \sum_{i=1}^{n_h} (y_{hi} - \bar{y}_h)^2$$

만일에 구별로 조사항목에 대한 모평균을 추정하고자할 경우에는 각 구내에서 동별로 할당된 표본지점을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추출하고 선정된 지점에서 8가구를 선정하여 모든 가구원을 조사 하였으므로 일종의 자체가중설계로 간주하면  $i$ 군의 모평균 추정량은 아래와 같다.

$$\hat{\mu}_i = \frac{\sum_{j=1}^{n_i} \sum_{k=1}^{n_{ij}} w_{ijk} y_{ijk}}{\sum_{j=1}^{n_i} \sum_{k=1}^{n_{ij}} w_{ijk}} \dots \dots \dots (4)$$

$$\widehat{V}(\hat{\mu}_i) = \sum_{j=1}^{n_i} W_{ij}^2 \left( \frac{1}{n_{ij}} - \frac{1}{N_{ij}} \right) s_{ij}^2$$

여기서  $i$ 는 구를 나타내고  $j$ 는 동을 나타내며  $k$ 는 가구를 나타낸다. 그리고  $W_{ij}$ 는  $i$  구에서  $j$  동의 가구 수의 구성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표본분산은  $s_{ij}^2 = \frac{1}{n_{ij} - 1} \sum_{k=1}^{n_{ij}} (y_{ijk} - \bar{y}_{ij})^2$  와 같이 나타낸다.

## 제2절 양적 조사의 결과5)

### 1. 소득·고용

2012년 3/4분기 현재 대전 시민의 월평균 소득액은 약 298만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2,775,382원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sup>6)</sup>, 같은 시기 대전 시민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약 237만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 2,467,121원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별로 분석한 결과, 유성구 시민의 월평균 소득액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동구 시민의 월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았다(유성구>서구>대덕구>중구>동구). 월평균 지출액 역시 유성구 시민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동구 시민의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낮았다(유성구>서구>중구>대덕구>동구).

〈표 3-2-1〉 대전 시민의 월평균 소득액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가구	1139	221	219	302	211	186
월평균 소득(원)	2,977,328	2,503,755	2,547,078	3,188,063	3,894,692	2,663,774

〈표 3-2-2〉 대전 시민의 월평균 지출액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가구	1158	223	223	310	211	191
월평균 지출(원)	2,365,078	1,939,641	2,201,031	2,565,323	3,078,673	1,940,000

대전 시민 소득원의 비중은 ‘가구주의 소득’이 응답자의 64.5%를 차지하며 가장 크게 나타났고, 5개 구별 분석 결과 유성구가 7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는 소

5) 결과의 제시 시, 문항의 성격에 따라 분석하였으므로 문항 당 응답자 수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6) 전국 3/4분기 월평균 소득은 4,141,159원이지만 이 소득 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근로 소득을 전제하고 응답한 결과와 상이하므로 월평균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본문에 제시하였다(자료출처 : 2012. 3/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

득원은 ‘배우자 소득(7.4%)’, ‘공적 연금(6.7%)’, ‘친지 및 이웃의 도움(5.9%)’, ‘동거가족 소득(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에 큰 차이는 없었다.

‘가구주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원의 비중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가장 높은 구는 대덕구, ‘공적연금’ 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 ‘친지 및 이웃의 도움’은 동구, ‘동거가족의 소득’은 대덕구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동구에서 11.8%로 가장 높았다.

〈표 3-2-3〉 소득원

분류	대전시(N=1195)		동구(N=221)		중구(N=226)		서구(N=318)		유성구(N=232)		대덕구(N=198)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주의 근로소득	771	64.5	125	56.6	152	67.3	207	65.1	174	75.0	113	57.1
가구주 배우자의 소득	89	7.4	13	5.9	12	5.3	29	9.1	12	5.2	23	11.6
공적 연금	80	6.7	11	5.0	19	8.4	21	6.6	19	8.2	10	5.1
친지 및 이웃의 도움	70	5.9	18	8.1	16	7.1	14	4.4	11	4.7	11	5.6
동거가족 소득	63	5.3	16	7.2	12	5.3	13	4.1	4	1.7	18	9.1
정부지원금	47	3.9	26	11.8	6	2.7	7	2.2	0	0.0	8	4.0
저축, 이자, 임대수입	38	3.2	5	2.3	4	1.8	13	4.1	9	3.9	7	3.5
기타	27	2.3	4	1.8	5	2.2	11	3.5	1	0.4	6	3.0
사적 연금	5	0.4	1	0.5	0	0.0	2	0.6	2	0.9	0	0.0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3	0.3	1	0.5	0	0.0	1	0.3	0	0.0	1	0.5
각종 후원금	2	0.2	1	0.5	0	0.0	0	0.0	0	0.0	1	0.5

한편 대전 시민의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33.2%)’, 두 번째는 ‘식료품비(22.0%)’, 세 번째는 ‘세금 및 보험료(15.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개 구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12년 3/4분기 전국 가구 대상 조사 결과는 식료품비가 월 382,848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다음으로 교육비가 월 329,874원으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보고된 순위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전 시민의 지출 패턴은 전국 가구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지출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료비’는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유성구에서는 ‘융자나 빚 등의 부채상환’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타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지출처

분류	구	대전시(N=1189)		동구(N=223)		중구(N=225)		서구(N=316)		유성구(N=231)		대덕구(N=194)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재녀양육 및 교육비		395	33.2	58	26.0	77	34.2	112	35.4	84	36.4	64	33.0
식료품비 (외식비)		262	22.0	47	21.1	38	16.9	59	18.7	70	30.3	57	29.4
세금, 보험료		183	15.4	38	17.0	37	16.4	40	12.7	35	15.2	24	12.4
의료비		111	9.3	33	14.8	30	13.3	28	8.9	5	2.2	15	7.7
주택 임대료(월세)		69	5.8	20	9.0	9	4.0	26	8.2	4	1.7	10	5.2
용자/빛 등 부채상환		59	5.0	12	5.4	8	3.6	18	5.7	16	6.9	5	2.6
생활용품 구입비		45	3.8	9	4.0	9	4.0	9	2.8	6	2.6	12	6.2
교통비/차량유지비		29	2.4	0	0.0	6	2.7	13	4.1	5	2.2	5	2.6
기타		18	1.5	1	0.4	9	4.0	5	1.6	2	0.9	1	0.5
여가활동비		15	1.3	3	1.3	2	0.9	6	1.9	4	1.7	0	0.0
정보통신비		3	0.3	2	0.9	0	0.0	0	0.0	0	0.0	1	0.5

〈표 3-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전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75.1%가 ‘부족한 편(38.0%)’ 또는 ‘보통(37.1%)’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8.4%에 그치고 92% 정도의 시민들은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이 응답을 구별로 분석한 결과 동구, 서구, 유성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구와 대덕구에서는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표 3-2-5〉 경제적 여유

구	분류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보통		여유 있는 편		매우 여유 있음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대전시(N=1183)		195	16.5	449	38.0	439	37.1	95	8.0	5	0.4
동구(N=220)		43	19.5	82	37.3	86	39.1	8	3.6	1	0.5
중구(N=226)		42	18.6	86	38.1	78	34.5	20	8.8	0	0.0
서구(N=314)		48	15.3	114	36.3	118	37.6	31	9.9	3	1.0
유성구(N=227)		16	7.0	86	37.9	97	42.7	28	12.3	0	0.0
대덕구(N=196)		46	23.5	81	41.3	60	30.6	8	4.1	1	0.5

한편 본 조사에 응답한 전체 가구의 46.6%는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부채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을 마련(52.9%)’ 하기 위함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으로는 사업자금, 생계비, 기타, 교육비, 의료비, 관혼상제비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3-2-6〉 대전시 가구 부채 비율 및 부채의 원인

(대전시 전체) 부채 있음		가구	443	유효 %	46.6
↓ 부채가 있는 사람들 중 부채 원인 ↓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주택미련비	225	52.9	5 교육비	25	5.9
2 사업자금	73	17.2	6 의료비	12	2.8
3 생계비	53	12.5	7 관혼상제비	6	1.4
4 기타	31	7.3			

전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대전 시민의 대부분은 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휴직의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10.3%를 차지였으며, 휴직의 가장 큰 이유는 건강과 고령, 계약 기간의 만료, 열악한 근무환경, 직장의 파산, 정리 해고, 퇴직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 지난 1년 간 휴직 경험과 이유

(대전시 전체) 휴직 경험 있음		가구	122	유효 %	10.3
↓ 휴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휴직 이유 ↓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건강, 고령	26	21.3	6 정리해고	9	7.4
2 계약 기간의 만료	24	19.7	7 퇴직	8	6.6
3 기타	19	15.6	8 출산, 육아	6	4.9
4 열악한 근무환경	16	13.1	9 가사 부담	3	2.5
5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11	9.0			

또한 휴직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축과 모아둔 재산(53.2%)’으로 생활하였다는 시민이 가장 많았고, ‘실업 급여(20.7%)’ ‘부모, 형제 등 친인척에게 의존(18.9%)’,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긴급지원(7.2%)’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 중지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당면했을 때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과 같은 공식적 안전망보다는 개인의 사적 재산과 비공식적 지지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8〉 근로 중지 후 생계방법

(N=111)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저축, 모아둔 재산	59	53.2	3	부모, 형제 등 친인척에게 의존	21	18.9
2	실업급여	23	20.7	4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긴급지원	8	7.2

한편 근로 중지 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민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가 중지되었던 시민들 중 평균 2.04%만이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실업자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근소한 차이지만 창업지원제도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년인턴십제도의 만족도는 2.8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는 ‘보통’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고용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만족도

(N=113)

분류	이용여부		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sup>7)</sup>	
	가구	유효 %	1순위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직장체험연수	23	2.1	공공 기관	8	53.3	3.40	.883
실업자직업훈련	49	4.4		30	93.8	3.33	.845
창업지원제도	10	0.9		7	87.5	3.67	.707
청년인턴십제도	7	0.6		2	50.0	2.83	1.169
근로자능력개발훈련	24	2.2		14	93.3	3.36	1.002

대전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족의 반대(99.3%)’, ‘성차별, 신용불량(98.4%)’, ‘외모, 가족간병(97.5%)’ 등은 구직 시 어려움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았던 요인들로 파악되었다. 반면, 구직 시 어려움으로 경험되었던 항목들은 개인 특성에서는 ‘나이(23.2%)’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 가구의 특성에서는 ‘자녀 양육(11.5%)’과 ‘가사일(9.2%)’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7)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 5점: 매우 만족)

못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는 ‘부족한 일자리(16.7%)’와 ‘낮은 임금의 수준(14.7%)’, ‘고용의 불안정(14.5%)’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3-2-10〉 일자리 구할 때의 어려움 경험 유무

특성	분류		있음		없음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개 인 특 성	1	나이	102	23.2	338	76.8
	2	경력 부족	38	8.7	398	91.3
	3	높은 기대수준	35	8.0	402	92.0
	4	기술, 기능 부족	33	7.5	405	92.5
	5	건강문제	32	7.3	405	92.7
	6	학력	22	5.0	415	95.0
	7	외모	11	2.5	426	97.5
	8	성차별	7	1.6	430	98.4
	9	산용불량	7	1.6	428	98.4
가 구 특 성	1	자녀 양육	50	11.5	384	88.5
	2	가사일	40	9.2	395	90.8
	3	가족 간병	11	2.5	421	97.5
	4	가족의 반대	3	0.7	430	99.3
노 동 시 장 특 성	1	일자리 부족	73	16.7	363	83.3
	2	낮은 임금수준	64	14.7	371	85.3
	3	고용의 불안정	63	14.5	372	85.5
	4	열악한 근로환경	57	13.0	380	87.0
	5	일자리 정보 부족	56	12.9	379	87.1

## 소결

대전 시민의 경우 근로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일반적이거나, 소득의 창출이나 보전이 어려울 경우 개인의 사적재산이나 자녀 혹은 종교 단체 등 비공식적인 관계망으로부터 받는 물품이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액과 지출액은 전국 가구 평균액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출 비중이 큰 항목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식료품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전 5개 구별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대전시 전체 가구의 약 절반 정도는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 마련과 사업자금, 생계비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는 전국 가계부채 보유가구 비율(64.6%)보다는 낮지만 전국 가구의 부채원인 중 ‘부동산관련’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점에서 유사한 결과이다<sup>8)</sup>.

또한 많은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휴직경험에 있어서 건강과 고령, 계약 기간의 만료, 직장의 파산, 정리해고 등 대부분 비자발적 원인에 의한 휴직인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일자리부족, 낮은 임금수준, 고용 불안정 등이 지적되었다.

대전 시민의 안정적 경제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안전망의 확보와 이용이 저조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의 확대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전 시민의 사회양극화 방지를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근로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구별 희망복지지원단의 공공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구별로 적정 수준의 경제 및 근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건강·의료

조사 대상자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응답자 중 약 94%, 의료급여를 받는 응답자는 약 6%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대전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수치와 유사한 결과이다. 2010년 말 대전 시민(외국인 제외) 1,518,540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민은 1,449,068명으로 전체 시민의 약 95%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급여를 받는 시민은 46,549명으로 전체 시민의 약 3.1%, 국가보훈대상자는 9,929명으로 약 0.6%였다.

〈표 3-2-11〉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형태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건강보험 가입		1,123	93.9	건강보험 미가입		73	6.1
1	직장가입자	735	68.2	1	의료급여 1종	41	74.5
2	지역가입자	342	31.8	2	의료급여 2종	14	25.5

8) 출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 통계청.

한편 조사에 응답한 시민 중 지난 1년 간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경험하거나 질병이 발병했던 경우는 16.7%였고, 응답결과는 5개 구별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 동구가 가장 높고 유성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그러한 경우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치료비의 부담(64.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구성원 중 질병이나 사고 발생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199 가구 중 치료를 못 받은 가족원이 있었다고 보고된 것이 28.6%로 매우 높았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66.7%)'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나 가족구성원에게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수는 의료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12〉 지난 1년 간 질병이나 사고 발생 경험 및 당면 어려움

분류		가구	유효 %	⇒ 당 시 단 면 어 려 움 ⇒	분류		가구	유효 %
질병, 사고 발생 경험		199	16.7		당시에 당면한 어려움			
1	동구	43	19.3	1	치료비 부담	123	64.7	
2	서구	58	18.3	2	간병인 부족	32	16.8	
3	대덕구	34	17.3	3	기타	30	15.8	
4	중구	35	15.4	4	치료 가능성 희박	5	2.6	
5	유성구	29	12.6					

〈표 3-2-13〉 지난 1년간 의료서비스가 필요했음에도 치료받지 못한 가족원 유무 및 당면 어려움

치료받지 못한 가족원 발생 경험이 있음		가구	57	유효 %	4.8		
↓ 치료받지 못한 가족원 발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가장 큰 어려움 ↓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경제적 어려움	38	66.7	4	간병인 부족	3	5.3
2	근로를 할 수 없었음	8	14.0	5	치료 가능성 희박	2	3.5
3	적합한 의료기관 부족	4	7.0	5	기타	2	3.5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의료서비스로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사업(30.2%)'을 들었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25.0%)'를 두 번째로, '노인보건서비스 확대(21.6%)'를 세 번째로 응답하였다. 이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동구, 서구, 유성구에서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중구 시민들은 근소한 차이로 '노인보건 서비스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대덕구 시민들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2-14〉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분류	구		대전시(N=1194)		동구(N=221)		중구(N=227)		서구(N=318)		유성구(N=231)		대덕구(N=197)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사업	361	30.2	70	31.7	64	28.2	100	31.4	75	32.5	52	26.4		
저소득층의료서비스 확대	298	25.0	56	25.3	59	26.0	59	18.6	54	23.4	70	35.5		
노인보건서비스 확대	258	21.6	52	23.5	65	28.6	80	25.2	31	13.4	30	15.2		
건강생활실천사업	131	11.0	18	8.1	14	6.2	38	11.9	37	16.0	24	12.2		
방문보건 서비스 확대	57	4.8	13	5.9	7	3.1	15	4.7	15	6.5	7	3.6		
모자보건 서비스 확대	49	4.1	2	0.9	11	4.8	15	4.7	14	6.1	7	3.6		
기 타	40	3.4	10	4.5	7	3.1	11	3.5	5	2.2	7	3.6		

정신 건강은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우울 증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본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우울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전 시민들의 우울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중구 시민들의 우울 정도가 5개 구 중 가장 높았고 대덕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5〉 우울 정도

우울 정도	19.35	표준편차	4.185	최소값	8	최대값	40
구에 따른 분산분석	F	2.689*	구별 평균 순위	중구>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			

\* p&lt;0.05

또한 알코올이나 니코틴,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파악한 결과, 알코올, 게임, 도박, 니코틴, 정신장애 문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사항이 있는 가구는 대전시 전체 가구 중 8.9%로 확인되었다. 그 중 ‘니코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44.8%로 가장 많았고 ‘알코올’이 두 번째로 높게 응답되었다.

〈표 3-2-16〉 정신 건강 문제

알코올, 게임, 도박, 니코틴, 정산장애 문제 있음		가구	105	유효 %	8.9					
↓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 ↓										
	니코틴		알코올		도박		게임		정산장애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대전시	47	44.8	31	29.5	8	7.6	9	8.6	10	9.5

대전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 여부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5.3%가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별로 분석한 결과, 유성구에서 가장 이용 비율이 높고 동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sup>9)</sup> 이용률은 약 10%의 차이(최대-최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유성구의 만족도 순위는 세 번째로 나타났고, 이용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중구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이용률이 가장 낮았던 동구는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3-2-17〉 보건소 이용률 및 만족도

이용률		가구	유효 %	⇒ 보 건 소 이 용 만 족 도	만족도		표준편차
대전시		663	55.3		대전시	3.48	.973
1	유성구	140	60.3	1	대덕구	3.74	1.049
2	중구	129	56.8	2	동구	3.55	1.008
3	대덕구	109	55.1	3	유성구	3.46	.943
4	서구	173	54.2	4	서구	3.39	.946
5	동구	112	50.0	5	중구	3.28	.867
				구에 따른 분산분석		F	2.852*
구별 이용 순위		유성구>중구>대덕구>서구>동구		구별 이용 만족도 순위		대덕구>동구>유성구>서구>중구	

\* p<0.05

9) ▣ 동구 보건소: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위치, ▣ 중구 보건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위치, ▣ 서구 보건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위치, ▣ 유성구 보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위치, ▣ 대덕구 보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위치

한편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시민의 대다수는 ‘예방 접종(76.9%)’을 위해 보건소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였고, 보건소를 이용한 가장 주된 이유는 ‘저렴한 비용(79.1%)’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대부분 보건소에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가 없어서(46.1%)’, ‘불편한 교통(23.4%)’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5개 구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2-18〉 보건소 이용 목적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예방 접종	505	76.9	7	방문 보건	8	1.2
2	건강 검진	50	7.6	8	물리 치료	4	0.6
3	1차 진료	32	4.9	8	정신 보건	4	0.6
4	기타	31	4.7	9	영양 관리	1	0.2
5	건강 교실	11	1.7	9	한방 진료	1	0.2
6	산전후 관리	9	1.4	9	치과 진료	1	0.2

〈표 3-2-19〉 보건소 이용 이유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저렴한 비용	521	79.1	4	기타	40	6.1
2	높은 신뢰성	47	7.1	5	친절한 직원	5	0.8
3	근접성	43	6.5	6	좋은 시설	3	0.5

〈표 3-2-20〉 보건소 미 이용 이유

구 \ 분류	대전시(N=534)		동구(N=109)		중구(N=98)		서구(N=146)		유성구(N=92)		대덕구(N=89)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필요한서비스 없음	246	46.1	54	49.5	40	40.8	70	47.9	44	47.8	38	42.7
불편한 교통	125	23.4	27	24.8	26	26.5	28	19.2	18	19.6	26	29.2
낮은 서비스 질	48	9.0	7	6.4	7	7.1	12	8.2	14	15.2	8	9.0
기타	46	8.6	10	9.2	17	17.3	10	6.8	4	4.3	5	5.6
위치정보부족	33	6.2	4	3.7	4	4.1	13	8.9	6	6.5	6	6.7
서비스정보부족	22	4.1	4	3.7	3	3.1	9	6.2	3	3.3	3	3.4
특수한 사람이 이용 하는 곳이라는 생각	13	2.4	3	2.8	1	1.0	4	2.7	3	3.3	2	2.2
불친절한 직원	1	0.2	0	0.0	0	0.0	0	0.0	0	0.0	1	1.1

## 소결

대전 시민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료 급여도 제공받고 있으나, 지난 1년 간 약 17%의 가구에서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고 이들 중 약 29%는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근무 등의 이유로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알코올이나 니코틴, 정신장애 등 정신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응답한 가구의 약 9%로 파악되었는데, 정신건강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필요한 서비스의 부재’와 ‘불편한 교통’ 등의 문제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적되었다.

대전시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의료서비스로는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사업’과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났는데, 대전시의 예방접종지원은 타시도에 비해서 그 지원수준이 낮다는 문제제기<sup>10)</sup>가 수차례 제기되어왔음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최소한 아동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평생교육·여가문화

대전 시민들 중 평생 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전체 응답자의 15.2%에 이르며, 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생 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시민 중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 시민 35.5%로 나타났다.

---

10) 출처 : 2012-03-06일자 중도일보 기사

〈표 3-2-21〉 평생교육 여부

이용 경험 있음	가구	182	유효 %	15.2	만족도	3.65
↓ 평생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 중 향후 평생교육 이용 의향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앞으로 이용 의향 있음	356	35.5	앞으로 이용 의향 없음	646	64.5	

〈표 3-2-22〉 시도별 평생 교육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시도별	2011	2012	총 인구수에 비례하여 살펴 본 평생 교육 이용자
계	29,675,252	18,328,664	37%
서울특별시	25,228,786	14,058,282	140% <sup>11)</sup>
부산광역시	483,523	600,283	17%
대구광역시	851,821	698,332	29%
인천광역시	342,028	288,284	10%
광주광역시	129,164	173,108	12%
대전광역시	152,337	152,780	10%
울산광역시	164,357	130,843	12%
경기도	1,124,735	1,047,643	9%
강원도	78,623	79,498	5%
충청북도	122,631	142,240	9%
충청남도	191,674	192,672	9%
전라북도	121,061	121,389	7%
전라남도	123,028	151,631	9%
경상북도	247,525	178,323	7%
경상남도	262,724	267,060	8%
제주특별자치도	51,235	46,296	8%

자료: 2012. 평생교육 지역별 학생·학습자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교육을 선호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정보화과정(16.6%)’이 근소한 차이로 1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요리과정(16.0%)’, ‘건강과정(15.4%)’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구별로 살펴보면 비율이나 순위는 각 구별로 조금씩 다른데, 동구와 중구, 서구의 경우 대전시 전체의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유성구와 대덕구의 경우 ‘정보화과정’

11) 시도별 평생교육 이용자 현황에서 서울시 이용율이 타시도에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에 위치한 평생교육 일부제공기관에서 원격서비스(사이버강의)를 제공하고 있어 거주지와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는 ‘요리과정’과 ‘어학과정’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경우 다른 구와 차별적으로 ‘직업능력’ 강좌를 두 번째로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23〉 평생교육에 대한 선호 강좌

분류	대전시(N=350)		동구(N=64)		중구(N=68)		서구(N=96)		유성구(N=76)		대덕구(N=46)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정보화과정	58	16.6	14	21.9	20	29.4	16	16.7	6	7.9	2	4.3
요리과정	56	16.0	8	12.5	14	20.6	10	10.4	15	19.7	9	19.6
건강과정	54	15.4	13	20.3	10	14.7	14	14.6	12	15.8	5	10.9
예술교양	40	11.4	9	14.1	6	8.8	9	9.4	7	9.2	9	19.6
어학과정	40	11.4	5	7.8	2	2.9	11	11.5	14	18.4	8	17.4
생활공예	36	10.3	5	7.8	8	11.8	12	12.5	7	9.2	4	8.7
직업능력	33	9.4	4	6.3	1	1.5	15	15.6	8	10.5	5	10.9
생활법률	12	3.4	3	4.7	2	2.9	2	2.1	4	5.3	1	2.2
학력보완	12	3.4	0	0.0	4	5.9	4	4.2	1	1.3	3	6.5
기타	5	1.4	3	4.7	0	0.0	1	1.0	1	1.3	0	0.0
기초문예	4	1.1	0	0.0	1	1.5	2	2.1	1	1.3	0	0.0

한편 대전 시민은 어떠한 여가를 즐기고 있으며 문화시설과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여가활동을 즐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주로 즐기는 여가 활동은 ‘TV시청(37.2%)’이라고 응답하였고 ‘산책 및 운동(26.6%)’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 활동에 방해가 되는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35.0%)’과 ‘시간의 부족(32.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행사/프로그램부족(10.1%)’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이었다. 구별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유성구 시민들은 여가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간의 부족’을 더 많은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2-24〉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TV 시청	444	37.2	6 기타	59	4.9
2 산책 및 운동	317	26.6	7 자원 봉사	31	2.6
3 영화 및 연극관람	144	12.1	8 교육프로그램 수강	15	1.3
4 취미 생활	107	9.0	9 음악회 및 전시회 관람	13	1.1
5 여행	62	5.2			

〈표 3-2-25〉 여가활동의 어려움

분류	구	대전시(N=1189)		동구(N=220)		중구(N=226)		서구(N=315)		유성구(N=232)		대덕구(N=196)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경제적 부담		416	35.0	87	39.5	80	35.4	109	34.6	65	28.0	75	38.3
시간의 부족		391	32.9	59	26.8	71	31.4	101	32.1	90	38.8	70	35.7
행사/프로그램부족		120	10.1	16	7.3	17	7.5	43	13.7	31	13.4	13	6.6
기타		115	9.7	22	10.0	34	15.0	31	9.8	15	6.5	13	6.6
시설의 낙후		80	6.7	22	10.0	14	6.2	14	4.4	15	6.5	15	7.7
불편한 교통		67	5.6	14	6.4	10	4.4	17	5.4	16	6.9	10	5.1

한편 대전 시민이 보다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 ‘비용의 할인(30.9%)’과 ‘시설의 확충(25.4%)’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구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선호도를 보였다. 다만, 유성구 시민들은 ‘프로그램의 확대’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 시민들은 ‘문화교육센터(35.2%)’와 ‘체육시설(28.3%)’을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구별 분석결과도 대부분 유사하였으나 유성구 시민들은 ‘공연장 확충<sup>12)</sup>’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2-26〉 만족스러운 여가를 위해 필요한 것

분류	구	대전시(N=1184)		동구(N=219)		중구(N=227)		서구(N=314)		유성구(N=231)		대덕구(N=193)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비용 할인		366	30.9	79	36.1	73	32.2	113	36.0	50	21.6	51	26.4
시설 확충		301	25.4	65	29.7	63	27.8	62	19.7	67	29.0	44	22.8
프로그램 확대		280	23.6	30	13.7	47	20.7	73	23.2	85	36.8	45	23.3
교통/편의시설증진		181	15.3	30	13.7	35	15.4	48	15.3	25	10.8	43	22.3
기타		56	4.7	15	6.8	9	4.0	18	5.7	4	1.7	10	5.2

12) 대전시 5개구 공연장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동구 공연장 : 우송 예술회관(민간), 꽃님이 공연장(민간), ▪ 중구 공연장 :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공공), ▪ 서구 공연장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양상블홀(공공),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대극장(공공), 대전서구 문화원 아트홀(공공), 타임월드 공연장(민간), ▪ 유성구 공연장 : CMB엑스포아트홀(민간), 컨퍼런스홀(민간), 송강공연장(민간)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유성구에도 공연장이 적지 않으나 모두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다. 따라서 유성구 시민들의 ‘공연장확충’ 요구는 기존 공연장 시설에 대한 인지부족이나 공공시설로써의 공연장 확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27〉 확충이 시급한 여가 및 문화시설

분류	대전시(N=290)		동구(N=63)		중구(N=62)		서구(N=60)		유성구(N=65)		대덕구(N=40)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문화교육센터	102	35.2	22	34.9	36	58.1	18	30.0	17	26.2	9	22.5
체육시설	82	28.3	19	30.2	14	22.6	21	35.0	14	21.5	14	35.0
공연장	37	12.8	3	4.8	2	3.2	3	5.0	19	29.2	10	25.0
놀이공원	21	7.2	13	20.6	3	4.8	2	3.3	2	3.1	1	2.5
기타	18	6.2	4	6.3	4	6.5	7	11.7	0	0.0	3	7.5
극장	12	4.1	0	0.0	1	1.6	3	5.0	8	12.3	0	0.0
전시장	7	2.4	0	0.0	0	0.0	3	5.0	3	4.6	1	2.5
캠핑장	6	2.1	2	3.2	2	3.2	0	0.0	1	1.5	1	2.5
박물관	5	1.7	0	0.0	0	0.0	3	5.0	1	1.5	1	2.5

뿐만 아니라 대전의 문화시설과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만족도는 ‘보통’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구와 유성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나, 동구와 중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28〉 문화 시설과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문화시설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행사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대전시(N=1182)		2.65	1.009	대전시(N=1168)		2.64	.994
구에 따른 분산분석	F	6.115***		구에 따른 분산분석	F	6.266***	
구별 평균 순위	서구>유성구>대덕구>동구>중구			구별 평균 순위	유성구>서구>대덕구>동구>중구		

\*\*\* p<0.001

한편 대전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달강좌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신청 여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한 대전 시민의 약 15.7%만이 배달강좌제를 알고 있었고 큰 소한 차이로 유성구민이 가장 많이, 서구민이 가장 적게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강좌제 신청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만이 신청해 본 경험이 있고, 만족도는 3.41점으로 ‘보통’ 수준을 조금 상회하였다.

〈표 3-2-29〉 배달강좌제 인지여부 및 신청 여부와 만족도

구	분류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안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잘 안다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대전시(N=1186)		812	68.5	187	15.8	118	9.9	69	5.8
동구(N=217)		137	63.1	42	19.4	19	8.8	19	8.8
중구(N=227)		169	74.4	21	9.3	24	10.6	13	5.7
서구(N=314)		235	74.8	43	13.7	22	7.0	14	4.5
유성구(N=231)		156	67.5	33	14.3	33	14.3	9	3.9
대덕구(N=197)		115	58.4	48	24.4	20	10.2	14	7.1
↓ 배달강좌제 신청 여부와 만족도 ↓									
배달강좌제 신청 경험 있음		가구	42	유효 %	3.6	만족도	3.41	표준편차	1.251

## 소결

대전 시민가운데 약 15%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시도별 평생교육 이용자 현황에서 대전시 전체 주민 가운데 평생교육 이용자가 약 10%로 보고된 것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대체로 정보화 과정에 관심의 수준이 높았으며 요리나 건강, 예술, 어학과정 등에 대한 욕구도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욕구는 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 구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성구의 경우 정보화 과정보다 요리나 어학과정을, 대덕구 역시 정보화 과정보다 요리와 예술교양과 어학과정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 서구의 경우 정보화과정, 직업능력과 건강과정을, 동구는 정보화과정과 더불어 건강과정과 예술교양을, 중구는 정보화과정과 요리, 건강과정 외에 생활 공예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 시민은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이 ‘TV시청’과 ‘산책 및 운동’으로 조사되었고, 문화 시설과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활발한 여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sup>. 보다 만족스러운 여가

13)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관광체육부, 2010)에서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비율을 살펴본 결과 역시 TV시청, 산책 등 ‘휴식’을 취한다는 비율이 36.2%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쇼핑 및 외식, 인터넷 검색 및 채팅 등과 같은 ‘취미오락 활동’, 종교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 및 기타활동’, 영화보기 및 전시회관람 등과 같은

활동을 위해 비용의 할인과 여가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 할인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여가 및 문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이용률은 전체 광역시 가운데 대전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구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이나 저소득가구 구성원 등 교육 빈곤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4. 가족·자녀교육

대전 시민의 가족관계 만족도<sup>14)</sup>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와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보통’ 이상이거나 ‘만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였고, 두 번째로 배우자와의 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형제와의 관계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구별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0〉 가족관계 만족도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에 따른 분산분석(F)
부모와의 관계 (N=712)	3.89	.863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배우자와의 관계 (N=942)	3.94	.823	1	5	
자녀와의 관계 (N=1029)	4.02	.773	1	5	
형제와의 관계 (N=934)	3.80	.858	1	5	

대전 시민의 가족 내 어려움<sup>15)</sup>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력, 알코올·약물, 취업·실업, 가족 내 폭

‘문화예술 관람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간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 대전 시민들의 욕구조사내용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4)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 5점: 매우 만족)

15)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5점: 매우 심각)

력, 자녀 교육, 가족구성원 건강의 어려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력은 가족 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어려움 정도를 각 구별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곳은 동구로 나타났고 반면 유성구는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보고된 대전 시민의 월평균 소득액에 관한 조사결과, 즉 대전시민의 월평균 소득액에 대한 구별 비교에서 유성구가 가장 높고 동구가 가장 낮게 파악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월평균 소득액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1참조).

경제력 다음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역은 취업 및 실업, 가족의 건강, 자녀교육, 알코올 및 약물, 가족 내 폭력 순으로 확인되었다. 취업 및 실업, 자녀교육, 알코올 및 약물 부분은 구별 분석에 있어서 어려움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대전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나, 가족의 건강과 가족 내 폭력 부분은 구별로 다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건강에 대한 어려움은 동구에서 가장 높고 유성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은 대덕구에서 가장 높고 유성구와 서구에서 가장 낮았다.

〈표 3-2-31〉 가족 내 어려움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에 따른 분산분석(F)	구별 평균 순위
1 경제력(N=1165)	2.78	1.203	1	5	11.793***	동구>중구>대덕구>서구>유성구
2 취업 및 실업(N=1159)	2.06	1.149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3 가족의 건강(N=1162)	2.05	1.242	1	5	6.706***	동구>서구>대덕구>중구>유성구
4 자녀 교육(N=1155)	2.00	1.131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5 알코올 및 약물(N=1162)	1.26	.662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6 가족 내 폭력(N=1160)	1.14	.429	1	5	8.393***	대덕구>중구>동구>서구=유성구

\*\*\* p<0.001

가족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대전 시민들은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이용확대(33.4%)’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생계비 지원(16.8%)’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대전 시민의 응답 결과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동구 시민들의 응답은 대전시 전체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생계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다른 4개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구 시민들의 결과에서는 다른 구 시민들에 비해 ‘가족 부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구 시민들의 결과는 대전 전체 시민들의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성구가 다른 구와 상이한 응답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이용 확대’에 대한 욕구와 ‘가족상담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덕구는 ‘청소년 지도, 비행청소년 선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시 전체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2-32〉 가족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구	대전시(N=1156)		동구(N=217)		중구(N=218)		서구(N=304)		유성구(N=229)		대덕구(N=188)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족복지시설지원/이용확대	386	33.4	71	32.7	65	29.8	94	30.9	92	40.2	64	34.0
생계비 지원	194	16.8	56	25.8	47	21.6	49	16.1	4	1.7	38	20.2
기타	176	15.2	26	12.0	37	17.0	49	16.1	38	16.6	26	13.8
가족상담/치료, 교육	111	9.6	15	6.9	12	5.5	32	10.5	32	14.0	20	10.6
가족부양지원서비스	100	8.7	13	6.0	21	9.6	36	11.8	20	8.7	10	5.3
청소년지도/비행청소년 선도, 교육	86	7.4	14	6.5	18	8.3	24	7.9	19	8.3	11	5.9
가사 지원 서비스	77	6.7	18	8.3	16	7.3	15	4.9	18	7.9	10	5.3
가정 내 폭력관련 교육/상담, 치료	26	2.2	4	1.8	2	0.9	5	1.6	6	2.6	9	4.8

영유아 자녀 보육비의 부담 정도<sup>16)</sup>를 조사한 결과, ‘보통’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보육비용 부담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2-33〉 영유아 자녀 보육비용의 부담

(N=159)

부담 정도	3.60	표준편차	1.268	최소값	1	최대값	5
구에 따른 분산분석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16)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부담 안됨, 5점: 매우 부담)

영유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어떠한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49.5%)’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31.7%)’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서구의 경우, ‘유치원(39.5%)’ 이용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어린이집(34.9%)’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유치원(17.4%)’ 이용 비율이 낮고 ‘놀이방(8.7%)’과 ‘학원(13.0%)’의 이용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34〉 유아교육기관 이용

(N=169)

구	분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놀이방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대전시(N=169)		94	49.5	60	31.7	8	4.2	7	3.7
동구(N=22)		13	56.5	4	17.4	3	13.0	2	8.7
중구(N=34)		21	51.2	12	29.3	1	2.4	0	0.0
서구(N=36)		15	34.9	17	39.5	2	4.7	2	4.5
유성구(N=55)		30	49.2	21	34.4	1	1.6	3	4.9
대덕구(N=22)		15	68.2	6	28.6	1	4.8	0	0.0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17)를 ‘교사의 자질’, ‘급식 및 간식의 질’, ‘교육의 질’, ‘시설, 설비 등 환경’ 네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부분에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2-35〉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만족도

(N=156)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에 따른 분산분석(F)
교사의 자질 (N=156)	3.85	.886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급식 및 간식의 질 (N=156)	3.76	.820	2	5	
교육의 질 (N=156)	3.81	.812	1	5	
시설, 설비 등 환경 (N=156)	3.76	.883	2	5	

17)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더 나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대전 시민들은 ‘보육 비용 지원(37.6%)’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29.6%)’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동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동구에서는 ‘보육비용 지원’보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구별 요구사항을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동구의 경우 ‘근로시간/근로형태의 유연화’와 ‘보육시설 확충’을, 중구에서는 ‘근로시간/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유성구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연장/제도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을 그 다음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대덕구는 ‘보육시설확충’과 ‘직장보육시설확대’를 요구하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구의 경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크지 않았다.

〈표 3-2-36〉 보육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구	대전시(N=189)		동구(N=23)		중구(N=42)		서구(N=43)		유성구(N=59)		대덕구(N=22)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보육비용 지원	71	37.6	5	21.7	14	33.3	20	46.5	25	42.4	7	31.8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56	29.6	8	34.8	11	26.2	16	37.2	15	25.4	6	27.3
육아휴직기간연장/제도 확대	17	9.0	2	8.7	3	7.1	1	2.3	9	15.3	2	9.1
근로시간/근로형태 유연화	16	8.5	3	13.0	8	19.0	3	7.0	1	1.7	1	4.5
보육시설 확충	15	7.9	3	13.0	2	4.8	1	2.3	6	10.2	3	13.6
직장보육시설 확대	9	4.8	0	0.0	3	7.1	1	2.3	2	3.4	3	13.6
산전후 휴가 확대	5	2.6	2	8.7	1	2.4	1	2.3	1	1.7	0	0.0

대전시의 영유아 복지 제도와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만족도<sup>18)</sup>를 파악한 결과, 먼저 영유아 복지 제도와 시설의 인지도에 있어서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83.3%)’ 제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77.8%)’ 제도와 ‘아이 돌보미 지원(63.6%)’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대전어린이회관(59.7%)’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용률은 ‘대전어린이회관(52.3%)’이 가장 높았고 ‘만5세아 보육료 지원(50.0%)’ 제도의 이용률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 외의 제도들은 이용률이 저조하였다. 특히 ‘셋째아 보육료 지원’ 제도, ‘아이돌보미 지원’ 제도, ‘영유아보육지원센터’는 인지도는 높으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비교적 높으나

18)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이용률은 낮은 ‘아이 돌보미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유아보육지원센터’와 ‘셋째아 보육료 지원’ 제도가 그 뒤를 이었으나 대부분 ‘보통’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한편 ‘맞춤형 특수 어린이집’과 ‘남편역할 변화교육’은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7〉 영유아 복지 제도와 시설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만5세아 보육료 지원	155	83.3	76	50.0	3.01	1.249
셋째아 보육료 지원	144	77.8	27	19.4	3.15	1.099
아이 돌보미 지원	117	63.6	8	7.1	3.29	1.113
대전어린이회관	111	59.7	57	52.3	2.89	1.107
영유아보육지원센터	77	41.6	10	13.5	3.25	1.165
맞춤형 특수 어린이집	42	23.1	1	2.5	2.00	.000
아빠 가사육아 참여 프로그램	36	19.4	3	9.1	3.00	.000
남편역할 변화교육	34	18.4	2	6.3	2.00	.000

추가적으로 영유아 복지 제도와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구별로 확인한 결과, 9가지 조사영역 중에서 ‘영유아보육지원센터’, ‘맞춤형 특수 어린이집’, ‘아빠 가사 육아 프로그램’, ‘남편 역할 변화교육’에 대한 이용률에서는 중구가 가장 높았고, ‘아이 돌보미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서구, ‘대전어린이회관’은 유성구,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대덕구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3-2-38〉 영유아 복지 제도와 시설의 구별 이용 빈도

분류	이용 빈도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대덕구(73.3) > 서구(67.7) > 중구(51.4) > 유성구(40.0) > 동구(26.3)
셋째아 보육료 지원	서구(23.3) > 대덕구(23.1) > 중구(21.2) > 동구(17.6) > 유성구(15.2)
아이 돌보미 지원	서구(11.1) > 대덕구(10.0) > 동구(7.7) > 유성구(5.3) > 중구(4.0)
대전어린이회관	유성구(60.0) > 중구(57.1) > 대덕구(54.5) > 서구(44.0) > 동구(33.3)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중구(29.4) > 유성구(14.3) > 서구(10.5) > 동구=대덕구(0.0)
맞춤형 특수 어린이집	중구(12.5) >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0.0)
아빠 가사육아 참여 프로그램	중구(25.0) > 유성구(18.2) > 동구=서구=대덕구(0.0)
남편역할 변화교육	중구(20.0) > 유성구(7.7) > 동구=서구=대덕구(0.0)

아동·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대전 시민들에게 교육비 및 양육비의 부담 정도<sup>19)</sup>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많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대전시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3-2-39〉 아동·청소년 자녀 보육 비용의 부담 (N=322)

부담 정도	4.08	표준편차	1.003	최소값	1	최대값	5
구에 따른 분산분석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아동·청소년 자녀의 방과 후 보육형태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73.4%)’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모와 함께(20.0%)’ 지내는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사교육 중에서는 ‘교과 학원(61.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예체능 학원(29.5%)’과 ‘과외(14.8%)’ 등이 뒤를 이었다.

〈표 3-2-40〉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 형태 (N=430)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사교육	271	73.4	6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용	7	1.9
2 부모와 함께 지냄	74	20.0	6 친구들과 함께 지냄	7	1.9
3 학교의 방과 후 특기수업	40	10.8	7 기타	4	1.1
4 아이 혼자 방과후 보냄	14	3.8	8 가사도우미, 이웃 등 비혈연과 보냄	3	0.8
5 (외)조부모, 친인척과 보냄	9	2.4	9 종합복지관 방과후교실 이용	1	0.3

〈표 3-2-41〉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 (N=298)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교과 학원	163	61.7	4 소규모 공부방	16	6.1
2 예체능 학원	78	29.5	5 기타	2	0.8
3 과외	39	14.8			

19)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부담 안됨, 5점: 매우 부담)

아동·청소년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sup>20)</sup>를 ‘교사의 자질’, ‘급식 및 간식의 질’, ‘교육의 질’, ‘시설, 설비 등 환경’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3-2-4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모든 영역에서 각 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대전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2-42>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만족도**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사의 자질 (N=373)	3.39	.853	1	5
급식 및 간식의 질 (N=370)	3.32	.893	1	5
교육의 질 (N=372)	3.35	.765	1	5
시설, 설비 등 환경 (N=373)	3.37	.818	1	5
<b>구에 따른 분산분석</b>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조사에서<sup>21)</sup>, 조사 항목 모두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 중 ‘성폭력 예방사업’,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및 치료’, ‘아동학대 예방사업’, ‘문제아동·청소년 지도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3>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분류	필요도	표준편차	분류	필요도	표준편차
1 성폭력 예방사업(N=371)	4.60	.676	5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N=371)	4.31	.798
2 학교폭력 예방·교육/치료(N=371)	4.58	.682	5 학업 및 진로 지도(N=371)	4.31	.787
3 아동학대 예방사업(N=372)	4.40	.755	6 성/이성교제에 대한 상담(N=371)	4.28	.807
3 문제아동·청소년 지도/교육(N=370)	4.40	.784	7 방과 후 보호사업(N=371)	4.27	.799
4 저소득층 교육/보육비 지원(N=373)	4.34	.730	8 자녀양육 지원(N=370)	4.22	.821

대전시의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와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만족도<sup>22)</sup>를 조사한 결과, 먼저 복지 제도와 시설의 인지도에 있어서는 ‘어린이도서관(82.5%)’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지

20)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21)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불필요, 5점: 매우 필요)

22) 1-4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 4점: 매우 만족)

역아동센터·공부방(68.4%)’, ‘급식지원(62.2%)’, ‘청소년상담지원센터(56.4%)’, ‘어린이 체험학습장(53.9%)’, ‘대전 어린이회관(53.1%)’, ‘어린이복지관(50.7%)’ 순으로 과반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용률에서도 ‘어린이도서관(3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어린이 체험 학습장(25.8%)’, ‘대전 어린이회관(23.0%)’, ‘급식지원(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지하는 것에 비해 이용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용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고, 이러한 만족도에 대한 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2-44〉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와 시설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어린이도서관(N=361)	298	82.5	111	39.1	3.04	.463
지역아동센터·공부방(N=361)	247	68.4	20	8.5	2.75	.775
급식지원(N=352)	219	62.2	45	22.2	3.33	.764
청소년상담지원센터(N=360)	203	56.4	10	5.2	3.22	.441
어린이 체험학습장(N=360)	194	53.9	48	25.8	3.02	.494
대전 어린이회관(N=360)	191	53.1	42	23.0	2.95	.647
어린이복지관(N=359)	182	50.7	14	8.2	2.90	.316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N=358)	147	41.1	16	11.5	2.81	.655
청소년활동진흥센터(N=359)	120	33.4	3	2.6	3.33	.577
드림스타트 사업(N=351)	69	19.7	4	6.3	3.33	.577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구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45>와 같다. ‘급식 지원’, ‘어린이 체험 학습장’의 이용 빈도는 중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공부방)’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이용 빈도도 중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어린이도서관’과 ‘대전어린이회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이용 빈도는 유성구에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3-2-45〉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와 시설의 구별 이용 빈도

분류	이용 빈도
어린이도서관	유성구(50.8) > 서구(45.5) > 동구(45.2) > 중구(34.0) > 대덕구(12.5)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중구(17.4) > 서구(9.2) > 동구(5.4) > 유성구(4.9) > 대덕구(4.4)
급식 지원	중구(40.5) > 유성구(23.3) > 대덕구(22.6) > 서구(15.1) > 동구(12.8)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구(14.3) > 유성구(6.5) > 동구(6.3) > 서구(3.5) > 대덕구(0.0)
어린이 체험 학습장	중구(34.4) > 서구(32.1) > 유성구(27.0) > 동구(22.2) > 대덕구(8.8)
대전어린이회관	유성구(44.1) > 중구(24.1) > 서구(23.3) > 동구(19.2) > 대덕구(2.9)
어린이복지관	유성구(14.3) > 동구(13.0) > 서구(7.8) > 중구(6.5) > 대덕구(2.6)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유성구(13.6) > 동구(12.5) > 대덕구(11.8) > 서구(10.3) > 중구(10.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구(14.3) > 유성구(6.7) > 동구=서구=대덕구(0.0)
드림스타트 사업	유성구(25.0) > 서구(10.5) > 동구(5.3) > 중구=대덕구(0.0)

한편 어린이 안전 환경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항목 모두에서 ‘보통’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항목에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구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놀이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대덕구에서 가장 높고 중구와 동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어린이 안전 구역 표지’와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는 유성구에서 가장 높고 이 역시 중구와 동구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6〉 어린이 안전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에 따른 분산분석(F)	구별 평균 순위
자전거 전용도로(N=373)	3.08	.925	1	5	10.483 <sup>***</sup>	대덕구 > 서구 > 유성구 > 동구 > 중구
어린이 안전구역 표지(N=372)	3.25	.875	1	5	2.782 <sup>*</sup>	유성구 > 대덕구 > 서구 > 동구 > 중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N=372)	3.39	.920	1	5	3.987 <sup>**</sup>	유성구 > 대덕구 > 서구 > 동구 > 중구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놀이시설(N=372)	3.04	.973	1	5	2.460 <sup>*</sup>	대덕구 > 서구 > 유성구 > 동구 > 중구

\* p<0.05, \*\* p<0.01, \*\*\* p<0.001

## 소결

대전 시민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전국 가구

를 대상<sup>23)</sup>으로 살펴 본 가족관계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 내 어려움에 대해서는 경제력, 취업 및 실업,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건강 등을 문제로 꼽았다.

대전 시민들은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이용확대, 생계비 지원 등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구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성구의 경우 생계비 지원보다는 가족상담 및 치료, 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자녀 보육비의 부담정도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났고 아동·청소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의 부담정도 역시 대체로 많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보육비용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 밖에도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연한 근로조건이나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직장문화의 변화와 사회제도적 환경조성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자녀의 사교육 이용비율(73.4%)은 매우 높고 교육비 및 양육비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4.08점<sup>24)</sup>)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즉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이 되며(73.0%), 교육비 가운데 학원비 등의 보충교육비(64.5%)가 가장 큰 부담요인이었다고 조사된 것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대전시의 아동·청소년 복지제도와 시설에 대해서는 인지도에 비해 이용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평균 정도의 만족감을 보였다. 어린이 안전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대체로 평균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아동 학대 예방사업, 문제아동·청소년 지도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었다.

영유아자녀의 보육 및 아동·청소년자녀의 양육문제는 대전 시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들은 그 사회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어 결국 사회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생애주기별 자녀양육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23) 출처 : 2012.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24)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부담 안됨, 5점: 매우 부담)

## 5. 주거·지역사회

조사에 참여한 대전 시민들의 주택 유형과 집의 점유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아파트 (55.4%)’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집의 점유 형태는 ‘자가(65.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47〉 주택의 유형

(N=1194)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일반아파트	662	55.4	7	영구임대아파트	34	2.8
2	일반단독주택	192	16.1	8	공공임대주택	25	2.1
3	연립주택	116	9.7	9	오피스텔	6	0.5
4	점포 주택 등 복합용 주택	70	5.9	1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5	0.4
5	다가구용 단독주택	43	3.6	10	기타	5	0.4
6	다세대주택	35	2.9	11	임시 가건물	1	0.1

〈표 3-2-48〉 집의 점유 형태

(N=1197)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자가	780	65.2	4	기타	33	2.8
2	전세	219	18.3	5	사글세	20	1.7
3	보증부월세	145	12.1				

주거복지관련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만족도<sup>25)</sup>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절반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이용률 측면에서는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12.9%)’이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에서는 ‘공공(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사업들보다 다소 높게 ‘조금 만족’ 하는 수준에 가까웠고 나머지는 ‘보통’ 수준이었다.

25)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 5점: 매우 만족)

〈표 3-2-49〉 주거복지관련 사업 이용 경험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영구임대주택 (N=1130)	916	81.1	54	6.0	3.40	1.178
공공(국민)임대주택 (N=1130)	834	73.8	40	4.9	3.73	1.097
전세자금(용자)지원 (N=1128)	813	72.1	48	6.0	3.47	.968
저소득층 월세지원 (N=1126)	572	50.8	5	0.9	3.00	.000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N=1133)	780	68.8	99	12.9	2.97	.983

본 조사에 참여한 대전 시민들은 평균 23년 6개월을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전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28.4%)’과 ‘직장 또는 사업 때문(25.6%)’, ‘집값이 저렴해서’가 전체응답의 67% 정도를 차지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를 구별로 확인하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는 대전시 전체결과와 유사한 순위를 보이거나, 유성구는 ‘직장/사업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 ‘자연환경이 쾌적해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0〉 대전 거주 기간과 거주 이유

대전 거주 기간	283개월 / 23년 6개월	표준편차	202.9	최소값	0	최대값	1080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												
구	대전시(N=1171)		동구(N=217)		중구(N=222)		서구(N=317)		유성구(N=222)		대덕구(N=193)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오래살았기 때문에	332	28.4	92	42.4	92	41.4	55	17.4	36	16.2	57	29.5
직장/사업 때문에	300	25.6	40	18.4	35	15.8	105	33.1	78	35.1	42	21.8
집값이 저렴해서	158	13.5	38	17.5	26	11.7	38	12.0	17	7.7	39	20.2
자연환경이 쾌적해서	94	8.0	16	7.4	2	0.9	22	6.9	40	18.0	14	7.3
자녀 교육 때문에	75	6.4	5	2.3	9	4.1	30	9.5	24	10.8	7	3.6
교통이 편리해서	70	6.0	5	2.3	17	7.7	26	8.2	8	3.6	14	7.3
친인척이 가까워서	66	5.6	8	3.7	26	11.7	18	5.7	7	3.2	7	3.6
생활편의시설이 편리함	50	4.3	2	0.9	12	5.4	18	5.7	11	5.0	7	3.6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26	2.2	11	5.1	3	1.4	5	1.6	1	0.5	6	3.1

대전 시민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51>에 제시되었다. 먼저 시에 대한 만족도가 구나 동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시·구·동 모두 대략 ‘보통’ 이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에 대한 만족도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덕구 시민들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 구와 동에 대한 만족도는 서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동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1> 지역에 대한 만족도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에 따른 분산분석(F)	구별 평균 순위
1 시(N=196)	3.64	.905	1	5	7.198***	서구>중구>동구>유성구>대덕구
2 구(N=195)	3.44	.969	1	5	20.994***	서구>유성구>중구>대덕구>동구
3 동(N=195)	3.39	1.019	1	5	12.363***	서구>유성구>중구>대덕구>동구

\*\*\* p<0.001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심각도<sup>26)</sup>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52>에 제시되었다. 대전 시민들은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지역 사회 문제의 심각도를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중 ‘여가 시설 및 문화 시설 부족’의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 ‘사회복지기관의 부족’, ‘교통 문제’, ‘주택 부족 및 집값 문제’, ‘빈곤 및 소득 불평등’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사회 문제의 심각도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여가 시설 및 문화시설’, ‘사회복지기관의 부족’, ‘빈곤 및 소득 불평등’, ‘범죄 등 치안 문제’, ‘보건 의료 시설 부족’, ‘미비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동구 구민들이, ‘교통 문제’, ‘주택 부족 및 집값 문제’, ‘청소년 비행 및 탈선’에 대해서는 대덕구 구민들이 지역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높게 지적하였다.

26)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 5점: 매우 심각)

〈표 3-2-52〉 지역 사회 문제 심각도

분류		평균	표준편차	구에 따른 분산분석(F)	구별 평균 순위
1	여가시설/문화시설 부족(N=1195)	3.30	1.145	8.501***	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서구
2	사회복지기관의 부족(N=1192)	3.10	1.037	5.329***	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서구
3	교통 문제(N=1193)	3.06	1.117	7.478***	대덕구>유성구>서구>중구>동구
4	주택 부족/집값 문제(N=1193)	3.06	.920	3.482**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5	빈곤 및 소득 불평등(N=1192)	3.06	.941	30.459***	동구>대덕구>중구>서구>유성구
6	범죄 등 치안 문제(N=1194)	3.03	.930	6.135***	동구>대덕구>서구>중구>유성구
7	보건 의료 시설 부족(N=1193)	3.01	1.100	8.604***	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서구
8	청소년 비행 및 탈선(N=1188)	2.98	.934	7.186***	대덕구>서구>동구>중구>유성구
9	미비한 교육환경(N=1189)	2.93	1.015	26.939***	동구>대덕구>중구>서구>유성구
10	환경 문제(N=1196)	2.78	1.076	.539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p<0.01, \*\*\* p<0.001

더 살기 좋은 대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25.5%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20.2%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에 ‘보건·의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도 전체 응답자의 15.2%에 달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구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구, 서구, 유성구는 대전시 전체와 동일한 응답순위를 보였고, 동구와 대덕구는 ‘노인복지사업’을 1순위로, ‘보건·의료복지사업’을 2순위로 꼽았다.

〈표 3-2-53〉 사회복지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분류	구		대전시(N=1182)		동구(N=221)		중구(N=224)		서구(N=317)		유성구(N=228)		대덕구(N=192)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노인복지사업	302	25.5	53	24.0	69	30.8	87	27.4	45	19.7	48	25.0		
아동·청소년복지사업	239	20.2	40	18.1	36	16.1	76	24.0	64	28.1	23	12.0		
보건·의료복지사업	180	15.2	45	20.4	34	15.2	39	12.3	26	11.4	36	18.8		
영유아 보육사업	130	11.0	18	8.1	28	12.5	34	10.7	32	14.0	18	9.4		
가족복지사업	93	7.9	17	7.7	13	5.8	30	9.5	17	7.5	16	8.3		
빈곤 지원사업	90	7.6	30	13.6	17	7.6	12	3.8	13	5.7	18	9.4		
여성복지사업	60	5.1	10	4.5	15	6.7	14	4.4	11	4.8	10	5.2		
장애인복지사업	53	4.5	6	2.7	10	4.5	17	5.4	7	3.1	13	6.8		
다문화복지사업	23	1.9	1	0.5	2	0.9	2	0.6	9	3.9	9	4.7		
기타	12	1.0	1	0.5	0	0.0	6	1.9	4	1.8	1	0.5		

대전 시민의 지역사회 응집력을 조사한 결과 ‘보통’ 수준(변환평균<sup>27</sup>)=3.17)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래의 <표 3-2-5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응집력은 대전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높게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다.

&lt;표 3-2-54&gt; 지역 사회 응집력

(N=1199)

분류	변환 평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 사회 응집력	3.17	50.50	9.96788	2	80
구에 따른 분산분석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lt;표 3-2-55&gt; 대전 거주 기간에 따른 지역 사회 응집력

	B	beta	t	유의확률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F
(상수)	3.059		103.742	.000			
대전 거주 기간	.000	.135	4.684	.000	.018	.017	21.936***

\*\*\* p&lt;0.001

이와 함께 대전 시민들은 지역 내 경제적 활동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변환평균<sup>28</sup>)=2.85)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구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서구 시민들이 지역 내 경제적 활동 여건에 가장 만족하고, 동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t;표 3-2-56&gt; 지역 내 경제적 활동 여건 만족도

(N=1196)

분류	변환 평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 내 경제적 활동 여건 만족도	2.85	25.56	5.01105	2	45
구에 따른 분산분석	F	11.291***	구별 평균 순위	서구>대덕구>유성구>중구>동구	

\*\*\* p&lt;0.001

27) 값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점 척도(최소값1~최대값5)로의 변환 점수를 제시.

28) 값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점 척도(최소값1~최대값5)로의 변환 점수를 제시.

## 소결

대전 시민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기가 소유(65.2%)한 일반아파트(55.4%)에 거주하고 있으며<sup>29)</sup>, 대전에 거주한 평균기간은 23년 6개월로 이처럼 장기간 거주하는 주된 이유로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서 혹은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집값이 저렴해서 등을 꼽았다. 해당 거주 지역 시·구·동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이상으로 응답되었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구별로 보았을 때 서구 주민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의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그 뒤를 이어 사회복지기관의 부족이나 교통 및 주거,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대전시가 가장 주력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복지사업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 전체의 공통관심사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노령 인구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더욱 더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실효성을 갖는 조례 제정이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대전시만의 특화된 노인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 6. 기타·사회복지서비스

대전시 사회복지시책 및 기관, 욕구의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복지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기관(시설)의 기여정도<sup>30)</sup>’, ‘사회복지 수준<sup>31)</sup>’, ‘복지욕구 반영정도<sup>32)</sup>’,

29) 2012 주거실태조사(통계청)에서 전국 시민들의 주택 유형과 집의 점유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7%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집의 점유 형태는 ‘자가(54%)’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 시민들의 주택 유형과 집의 점유 형태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일반아파트(53%)’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집의 점유 형태도 ‘자가’의 비율이 51%로 파악되었다.

30)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기여하지 못함, 5점: 매우 기여함)

31)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낮음, 5점: 매우 높음)

32)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반영하지 않음, 5점: 적극적으로 반영)

‘복지정책 만족도<sup>33)</sup>’ 모든 항목에서 ‘보통’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모든 항목을 구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기관(시설)의 기여도에서는 동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대덕구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외에 대전시의 사회복지수준과 복지욕구 반영정도는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대전시 전체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3-2-57〉 사회복지만족도-기관(시설)기여도, 복지수준정도, 욕구반영정도, 복지정책만족도

분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에 따른 분산분석(F)	구별 평균 순위
사회복지기관(시설)의 기여정도(N=1198)	2.87	.971	1	5	6.754***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대전시 사회복지수준 정도(N=1197)	2.93	.704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복지욕구 반영정도(N=1197)	2.87	.807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복지정책 만족도(N=1193)	2.89	.726	1	5	각 구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p<0.001

대전시의 특화사업인 복지만두레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8%가 복지만두레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문항을 구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 동구에서 가장 높았고 유성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구>중구>서구>대덕구>유성구).

〈표 3-2-58〉 복지만두레 인지도

구	분류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안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잘 안다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대전시 (N=1198)	563	47.0	345	28.8	177	14.8	113	9.4		
동구 (N=223)	83	37.2	54	24.2	47	21.1	39	17.5		
중구 (N=227)	91	40.1	68	30.0	42	18.5	26	11.5		
서구 (N=319)	141	44.2	103	32.3	47	14.7	28	8.8		
유성구 (N=232)	139	59.9	65	28.0	22	9.5	6	2.6		
대덕구 (N=197)	109	55.3	55	27.9	19	9.6	14	7.1		

33)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이와 함께 교육만두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8%가 교육만두레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문항을 구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 인지도는 동구에서 가장 높았고 유성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구>대덕구>중구>서구>유성구).

〈표 3-2-59〉 교육만두레 인지정도

구	분류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안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잘 안다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대전시 (N=1198)	946	79.0	153	12.8	63	5.3	36
동구 (N=224)	156	69.6	32	14.3	22	9.8	14	6.2	
중구 (N=226)	192	85.0	17	7.5	11	4.9	6	2.7	
서구 (N=319)	255	79.9	44	13.8	11	3.4	9	2.8	
유성구 (N=232)	188	81.0	36	15.5	8	3.4	0	0.0	
대덕구 (N=197)	155	78.7	24	12.2	11	5.6	7	3.6	

대전시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2-60>과 같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의 만족도는 모두 ‘보통’ 수준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서비스의 구별 만족도 차이는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의 만족도는 유성구에서 가장 높았고 대덕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유성구>서구>중구>동구>대덕구).

〈표 3-2-60〉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분류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N=1191)	49	4.1	3.27	1.065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N=1191)	29	2.4	3.52	.846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N=1191)	25	2.1	3.25	.910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N=1190)	18	1.5	3.13	1.18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N=1189)	17	1.4	3.87	.990
약탈(알코올) 상담 (N=1189)	4	0.3	3.33	1.528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N=1190)	2	0.2	5.00	.000

대전 시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54.1%)’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51.4%)’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인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바우처 사업들도 평균 35%정도의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률은 평균 7.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I(아이) 사랑 보육서비스(19.0%)’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16.4%)’의 이용률은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이용한 시민들의 평균 만족도는 3.8점으로 ‘조금 만족’하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1〉 바우처 이용 및 만족도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N=1177)	637	54.1	24	3.9	4.00	.926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N=1175)	604	51.4	15	2.6	3.54	1.198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N=1176)	551	46.9	89	16.4	3.48	.847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N=1171)	444	37.9	4	0.9	3.67	1.155
I 사랑 보육서비스 (N=1178)	393	33.4	74	19.0	3.80	.904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N=1175)	371	31.6	32	8.8	3.91	.963
언어발달지원사업 (N=1175)	287	24.4	2	0.7	4.00	-

추가적으로 바우처 제도의 인지 빈도에 대한 이용 빈도를 각 구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동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과 ‘I(아이) 사랑 보육서비스’는 유성구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중구에서,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서구에서 각각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2〉 바우처 제도의 인지 빈도에 비한 이용 빈도

분류	인지 빈도에 비한 이용 빈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동구(5.5) > 서구(4.9) > 대덕구(3.5) > 유성구(3.0) > 중구(2.3)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동구(4.5) > 서구(3.7) > 대덕구(2.7) > 중구(0.9) > 유성구(0.8)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유성구(22.4) > 중구(19.8) > 서구(14.7) > 대덕구(13.2) > 동구(10.3)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동구(2.4) > 대덕구(1.6) > 서구(0.9) > 중구=유성구(0.0)
I 사랑 보육서비스	유성구(32.8) > 서구(23.5) > 중구(17.7) > 동구(11.0) > 대덕구(5.9)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중구(20.3) > 서구(9.0) > 유성구(7.5) > 대덕구(5.3) > 동구(1.5)
언어발달지원사업	서구(2.6) > 동구=중구=유성구=대덕구(0.0)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긴급지원제도는 전체 응답자의 7%만이 인지하고 있었고 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별 인지도 분석에서는 동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유성구에서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족도에 대한 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2-63〉 긴급지원제도의 인지도와 만족도 및 구별 인지도

분류		인지		만족도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긴급지원제도	대전시	82	7.0	3.19	.951
	구	동구(10.6%)>서구(9.3%)>대덕구(6.8%)>중구(4.5%)>유성구(3.1%)			

### 소결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의 사회복지에 평균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대전시의 특성화사업인 복지만두레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용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역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 ‘노인돌봄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이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 혹은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특화된 서비스개발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할 때 이를 대처하는데 필요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7%) 또한 매우 낮았는데, 긴급지원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책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별 긴급지원제도의 유연한 기준 적용이 가능토록 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지제도의 수혜를 경험한 경우 복지국가의 지지기반이 보다 탄탄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sup>34)</sup>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시민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 내 사회복지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복지의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대전 시민의 복지체감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전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확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7. 노인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의 유무와 근로 의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2.1%였고 직업이 없는 노인 중 근로 의향이 있는 노인은 2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4〉 노인의 직업 유무 및 근로 의향

직업 유무	무직	258 명	77.9 %	유직	73 명	22.1 %
↓ 직업이 없는 노인 중 근로 의향 여부 ↓						
분류	명	유효 %	분류	명	유효 %	
근로 의향 있음	69	26.8	근로 의향 없음	188	73.2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자영업(29.2%)’, ‘경비·관리(12.5%)’, ‘서비스직(9.7%)’이나 ‘청소·파출부(9.7%)’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업이 없는 노인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거나(62.4%)’ ‘적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1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근로 의향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위해(33.3%)’,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29.0%)’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건강을 유지(15.9%)’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14.5%)’ 그리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7.2%)’ 근로를 하고 싶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의 37.6%를 차지하였다.

34) 2009. 안상훈.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163-192.

2007. 주은선·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표 3-2-65〉 노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 (N=72)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21	29.2	5	농업	4	5.6
2	14	19.4	5	생산직	4	5.6
3	9	12.5	6	사무직	3	4.2
4	7	9.7	7	폐지 및 고물수집	2	2.8
4	7	9.7	8	지활사업	1	1.4

〈표 3-2-66〉 노인이 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N=186)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116	62.4	5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름	7	3.8
2	23	12.4	6	가족들이 반대함	4	2.2
3	18	9.7	7	경제적으로 넉넉함	1	0.5
4	17	9.1				

〈표 3-2-67〉 노인이 일 하고 싶은 이유 (N=69)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23	33.3	4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10	14.5
2	20	29.0	5	시간을 보내기 위해	5	7.2
3	11	15.9				

만약 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거리환경지킴이나 불법주차단속 등의 ‘공익형(47.1%)’을 선택한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공원관리원·매표원 등의 ‘인력 파견(17.6%)’, 문화해설사·교육강사 등의 ‘교육형(13.2%)’과 독거노인·장애인 보조 등의 ‘복지형(7.4%)’, 간병인 사업단·택배사업단 등의 ‘시장형(1.5%)’을 선택한 노인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68〉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 (N=68)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32	47.1	3	기타	9	13.2
2	12	17.6	4	복지형	5	7.4
3	9	13.2	5	시장형	1	1.5

대전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미활동이나 운동을 하면서(25.4%)’ 혹은 ‘이웃 노인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22.9%)’ 여가를 즐긴다는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이고, 사실상 여가라고 할 수 없는 ‘집안일이나 손자녀 양육(16.5%)’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노인도 전체 응답자의 1/5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은 어떠한 여가 활동을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과 함께(25.5%)’하거나 ‘사교활동 및 동호회 활동(21.2%)’ 등 가까운 사람과 어울리면서 즐기는 활동을 선택한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로 파악되었고, ‘스포츠 활동(16.3%)’이나 ‘학습활동(5.5%)’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5.5%)’을 선택한 노인도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9〉 노인의 여가를 즐기는 방법

(N=327)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취미활동이나 운동	83	25.4	5	종교활동	35	10.7
2	이웃 노인이나 친구들과 보냄	75	22.9	6	경로당에 나감	30	9.2
3	집안일이나 손자녀들을 돌봄	54	16.5	7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이용	13	4.0
4	기타	37	11.3				

〈표 3-2-70〉 노인이 원하는 여가 활동의 종류

(N=325)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83	25.5	5	학습 활동	18	5.5
2	기타	78	24.0	5	사회봉사 활동	18	5.5
3	사교활동 및 동호회 활동	69	21.2	6	시민단체 활동	6	1.8
4	스포츠 활동	53	16.3				

여가 활동과 함께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응답자의 18.1% 였고, 대부분은 ‘지역사회봉사활동(90.2%)’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1〉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 및 자원봉사 의향

자원봉사 활동 경험	없음	271 명	81.9 %	있음	60 명	18.1 %
↓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없는 노인 중 자원봉사 의향 여부 ↓						
분류	명	유효 %	분류	명	유효 %	
자원봉사 의향 없음	243	90.0	자원봉사 의향 있음	27	10.0	

〈표 3-2-72〉 노인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 봉사 분야

(N=51)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지역사회봉사활동	46	90.2	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2	3.9
2 교육 및 문화예술	2	3.9	4 기타	1	2.0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없는 노인 중 약 10%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떠한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1%는 ‘지역사회봉사활동’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는 ‘교통정리 및 환경정리’ 분야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외에도 동구에서는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 중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서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3-2-73〉 노인의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N=27)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지역사회 봉사활동	13	48.1	4 보건 의료 분야	2	7.4
2 교통정리 및 환경정리	7	25.9	5 교육 및 문화예술	1	3.7
3 기타	3	11.1	5 국제협력 분야	1	3.7

반면,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없는 노인 중 90%는 자원봉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거나(50.4%)’ ‘시간이 없기 때문(20.7%)’ 이 대부분이다.

〈표 3-2-74〉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N=242)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건강이 좋지 않음	122	50.4	5	적성에 맞는 활동이 없어서	11	4.5
2	시간이 없음	50	20.7	6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8	3.3
3	봉사할 곳을 몰라서	16	6.6	7	급여가 적거나 주지 않아서	4	1.7
3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6	6.6	8	봉사할 곳이 너무 멀어서	1	0.4
4	기타	14	5.8				

대전시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한 결과, 시설과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60% 가까이 되었고 경로당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한 시설과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평균 13% 정도로 저조하였고 만족도 역시 3.68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관련 시설 이용률을 구별로 분석한 결과, 동구의 노인들은 경로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의 노인들 역시 경로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두 번째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서구의 노인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경로당을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5〉 노인복지관련 시설·기관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경로당 (N=331)	318	96.1	113	36.0	3.58	.942
종합사회복지관 (N=331)	242	73.1	59	24.6	3.70	.829
노인전문병원 (N=330)	223	67.6	11	5.0	3.09	1.136
노인복지관 (N=329)	222	67.5	37	16.9	3.72	.914
노인(단기, 주간)보호시설 (N=328)	156	47.6	0	0.0	-	-
노인자원봉사센터 (N=329)	143	43.5	10	7.1	3.75	.886
경로식당 (N=329)	141	42.9	13	9.4	4.08	.954
치매상담센터 (N=330)	125	37.9	6	4.9	3.83	.983

대전시가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지원(30.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원하는 노인들도 전체 노인의 2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인 ‘치매 예방 및 치료 관리(11.4%)’나 ‘취업 및 부업알선(10.2%)’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결과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동구의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 확충(40.2%)’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경제적 지원(36.6%)’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구의 노인들에게서는 대전시 전체의 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 지원(34.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25.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구의 노인들에게서는 대전시 전체의 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 지원(28.8%)’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두 번째로는 ‘치매 예방 및 치료 관리 강화(17.5%)’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성구의 결과는 다른 구와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구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세 번째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27.8%)’에 대한 욕구가 첫 번째, ‘여가활동 지원(16.7%)’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덕구의 노인들 역시 대전시 전체의 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 지원(28.6%)’에 대한 욕구와 ‘노인복지시설 확충(22.4%)’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 ‘취업 및 부업 알선(18.4%)’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6〉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분류	구		대전시(N=325)		동구(N=82)		중구(N=78)		서구(N=80)		유성구(N=36)		대덕구(N=49)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경제적 지원	99	30.5	30	36.6	27	34.6	23	28.8	5	13.9	14	28.6		
노인복지시설 확충	88	27.1	33	40.2	20	25.6	14	17.5	10	27.8	11	22.4		
치매예방/치료관리강화	37	11.4	3	3.7	13	16.7	14	17.5	5	13.9	2	4.1		
취업 및 부업 알선	33	10.2	5	6.1	10	12.8	7	8.8	2	5.6	9	18.4		
경로당환경개선/지원	23	7.1	5	6.1	6	7.7	7	8.8	1	2.8	4	8.2		
여가활동 지원	23	7.1	5	6.1	2	2.6	9	11.2	6	16.7	1	2.0		
노인학대예방/지원	15	4.6	1	1.2	0	0.0	5	6.2	3	8.3	6	12.2		
노인교육 확대	7	2.2	0	0.0	0	0.0	1	1.2	4	11.1	2	4.1		

노인들에게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sup>35)</sup>, 총 16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균 인지도는 약 45%였고 이용률은 약 14%, 만족도는 3.85점으로 조사되었다. 인지도와 이용률은 앞서 조사한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 인지도 보다는 낮은 편이며, 만족도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초노령연금지원(92.1%)’이며, 다음으로 ‘노인일자리사업(62.5%)’, ‘방문가정간호/간병/목욕서비스(57.8%)’, ‘노인무료급식(56.3%)’, ‘의료비지원(56.0%)’의 순이었다.

노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이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물품지원(78.8%)’, ‘기초노령연금지원(60.0%)’, ‘의료비지원(23.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sup>36)</sup>.

〈표 3-2-77〉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기초노령연금지원 (N=329)	303	92.1	180	60.0	3.09	1.007
노인 일자리사업 (N=328)	205	62.5	18	9.0	3.67	.976
방문가정간호/간병/목욕서비스 (N=327)	189	57.8	10	5.5	3.89	.601
노인 무료 급식 (N=327)	184	56.3	14	7.8	3.83	.937
의료비 지원 (N=325)	182	56.0	41	23.0	3.68	.859
식사 배달 서비스 (N=326)	151	46.3	6	4.1	3.20	.447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N=325)	146	44.9	4	2.8	4.00	1.000
사회교육서비스 (N=327)	145	44.3	8	5.7	3.83	.983
가정봉사 서비스 (N=327)	144	44.0	6	4.3	4.20	.447
이동편의서비스 (N=326)	128	39.3	2	1.6	4.00	.000
방문건강관리사업 (N=326)	126	38.7	8	6.6	4.14	.900
물품지원 (N=327)	113	34.6	89	78.8	4.00	.000
경로 목욕권 지원 (N=326)	99	30.4	4	4.2	4.00	1.0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N=326)	98	30.1	3	3.2	3.50	.707
노인구강보건사업 (N=326)	90	27.6	3	3.5	4.50	.707
유산균 음료 배달 (N=326)	75	23.0	4	5.6	4.00	1.000

35) 본 문항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률과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문에 제시한 문항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기관을 이용한 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지만 응답률이 낮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36) 노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지원(59.6%)’, ‘의료비지원(22.3%)’, ‘노인일자리사업(9.0%)’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품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은 4.5%로 16개 서비스 중에 9번째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용하는 경우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비스 이용 비율 순위와는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7% 정도의 인지도를 보였지만 이용률은 평균 2.4%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족도는 ‘시설 급여’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방문요양 (N=325)	207	63.7	11	5.4	4.09	.701
방문목욕 (N=323)	192	59.4	2	1.1	4.50	.707
방문간호 (N=324)	192	59.3	5	2.7	3.60	1.517
주야간 보호 (N=324)	139	42.9	1	0.7	4.00	.000
기타재가급여 (N=325)	129	39.7	7	5.6	3.57	1.813
시설급여 (N=325)	128	39.4	1	0.8	1.00	.000
단기보호 (N=324)	123	38.0	0	0.0	-	-
특별현금급여 (N=325)	96	29.5	3	3.2	3.67	.577

## 소결

대전시 노인들 가운데 약 22% 정도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자영업’이나 ‘경비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들 4명 중 3명 정도는 근로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와 적당한 일자리 부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에 근로 의향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생활비나 용돈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약 62%)로 근로를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유지(약 16%)를 위해 일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 취업알선 등에 대한 욕구도 그 다음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sup>37)</sup>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약 41%)’과 ‘건강문제(약38%)’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조사결과 노인들은 건강유지를 위해 근로를 희망하기도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근로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노인들은 취미활동이나 운동(약 25%), 혹은 지인들과 함께 시간보내기(약 23%) 등으

37) 출처 : 2012.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로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과 ‘스포츠 등 사교활동’ 그리고 ‘동호회활동’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집중되어 왔으나 본 조사결과를 통해 대전의 상당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전시 일반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 건강, 여가, 평생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복지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을 볼 때 노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의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8. 장애인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이 없다면 근로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0.3%였고 직업이 없는 장애인 중 근로 의향이 있는 장애인은 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8)</sup>. 또한 이들에게 또한 어떠한 종류의 일을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와 ‘출근근무’에 대한 욕구가 각각 35.7%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79〉 장애인의 직업 유무 및 근로 의향

직업 유무	무직	76 명	69.7 %	유직	33 명	30.3 %
↓ 직업이 없는 장애인 중 근로 의향 여부 ↓						
분류	명	유효 %	분류	명	유효 %	
근로 의향 있음	15	20.0	근로 의향 없음	60	80.0	

38) 본 문항에서는 본문에 제시한 문항 뿐 아니라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도 조사하였지만 응답률이 낮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3-2-80〉 장애인인 원하는 종류의 일

(N=14)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재택근무	5	35.7	2	보호고용	3	21.4
1	출근근무	5	35.7	3	기타	1	7.1

근로 의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근로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표 3-2-81〉 장애인인 근로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N=55)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건강이 좋지 않음	46	83.6	3	가족들의 반대	2	3.6
2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	3	5.5	4	일지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름	1	1.8
2	기타	3	5.5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업능력개발, 직업 적응훈련(29.6%)’이라 응답하였고,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16.7%)’, ‘취업상담, 평가, 알선(11.1%)’ 등이 뒤를 이었다.

〈표 3-2-82〉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필요한 것

(N=108)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직업능력개발, 직업적응훈련	32	29.6	6	취업정보제공	9	8.3
2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18	16.7	7	사후지도	7	6.5
3	취업 상담, 평가, 알선	12	11.1	8	기타	6	5.6
4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임금보장	11	10.2	9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3	2.8
5	직장 내 편의시설 확충	10	9.3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의 분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장애인을 보는 일반인의 인식 개선(55.0%)’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고, 직업 재활 문항에

서와 같이 ‘고용에서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학교에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3〉 장애인을 위한 차별 제거를 위해 필요한 것 (N=111)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일반국민의 인식개선	61	55.0	4	장애인 문화장벽 제거 운동	8	7.2
2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11	9.9	5	기타	6	5.4
2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11	9.9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4	3.6
3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10	9.0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29.7%)’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외출 시 도우미 지원(27.9%)’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확대(14.4%)’와 ‘보행환경 개선(11.7%)’에 대한 욕구도 전체 응답자의 1/4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3-2-84〉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 (N=111)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	33	29.7	5	기타	6	5.4
2	외출 시 도우미 지원	31	27.9	6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확대보급	4	3.6
3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확대	16	14.4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4	3.6
4	보행환경 개선	13	11.7	6	교통도우미 확대	4	3.6

대전시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한 결과<sup>39)</sup>, 조사한 모든 시설과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44%, 그 중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지도가 70.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이용률은 5% 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이었으며 만족도는 2.96점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39) 해당시설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률과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표 3-2-85〉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기관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복지관 (N=108)	76	70.4	12	15.8	3.82	1.168
평생교육원 (N=107)	53	49.5	2	3.8	3.50	.707
장애인거주시설 (N=107)	47	43.9	0	0.0	-	-
장애인공동작업장 (N=107)	40	37.4	1	2.6	3.00	-
장애인단기/주간보호시설 (N=107)	39	36.4	0	0.0	-	-
정신보건센터 (N=107)	30	28.0	2	6.7	1.50	.707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희망사항을 조사한 결과,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22.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21.8%)’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자의 의견 반영’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각각 17.8%,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0)</sup>.

〈표 3-2-86〉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희망하는 것 (N=101)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23	22.8	6 이용료 인하	6	5.9
2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	22	21.8	6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6	5.9
3 편의시설 확충	18	17.8	7 이용시간 및 회수의 보강	4	4.0
4 이용자의 의견 반영	13	12.9	8 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	2	2.0
5 기타	7	6.9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도와 이용률,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14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균 이용률은 약 6%였으며 만족도는 3.28점으로, 앞서 조사한 사회복지관련 시설·기관의 이용률과 만족도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이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구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와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서비스가 다른 구에 월등히 많이 이용되었고, 나머지 서비스는 대덕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40) 본 문항에서는 본문에 제시한 문항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이용하였지만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지만 응답률이 낮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에 참여했던 유성구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7〉 장애인복지 서비스

(N=107)

분류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2	20.6	2.85	1.182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12	11.2	3.10	1.101
의료 재활서비스	11	10.3	3.30	1.059
장애인연금	10	9.3	2.89	1.537
가정봉사서비스	8	7.5	3.00	1.225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8	7.5	3.00	1.000
주택관련 서비스	4	3.7	4.00	.000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3	2.8	3.50	.707
이동편의서비스	3	2.8	4.00	.000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	2	1.9	4.00	1.414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2	1.9	5.00	.000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2	1.9	2.00	.000
장애아동 보육비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2	1.9	2.00	.000
복지연계형 일자리지원	1	0.9	-	-

장애 예방을 위해 대전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및 확대(37.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성 질환의 철저한 관리(22.5%)’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8〉 장애 예방을 위해 주력해야 할 사업

(N=102)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및 확대	38	37.3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4	3.9
2 노인성 질환의 철저한 관리	23	22.5	6 기타	4	3.9
3 치매 전문 의료 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11	10.8	7 응급의료체계 확충	3	2.9
4 선천성 기형 진단 초음파 검사 실시	9	8.8	7 재해발생 고위험 직종의 특별관리	3	2.9
5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5	4.9	8 임신육아지원서비스의 발간 및 보급	2	2.0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전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는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의 확충(25.2%)’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소한 차이로 ‘장애수당 확대지원(23.3%)’

과 ‘장애인 취업 지원 확충(20.4%)’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동구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취업 지원 확충’을, 중구의 장애인들은 ‘장애수당 확대 지원’을, 서구와 대덕구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의 확충’을, 유성구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을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 응답하였다.

〈표 3-2-89〉 장애인 복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사업 (N=103)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의 확충	26	25.2	4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확대	13	12.6
2	장애수당 확대 지원	24	23.3	5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교육	3	2.9
3	장애인 취업 지원 확충	21	20.4	6	장애인 가정 상담 및 지원	2	1.9
4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3	12.6	7	여가·문화 지원 활성화	1	1.0

〈표 3-2-90〉 각 구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사업

구 분류	대전시(N=103)		동구(N=29)		중구(N=17)		서구(N=29)		유성구(N=5)		대덕구(N=23)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가구	유효%
재활/치료시설확충	26	25.2	7	24.1	4	23.5	7	24.1	1	20.0	7	30.4
장애수당 확대지원	24	23.3	7	24.1	5	29.4	6	20.7	0	0.0	6	26.1
취업 지원 확충	21	20.4	8	27.6	3	17.6	4	13.8	1	20.0	5	21.7
편의시설 확충	13	12.6	3	10.3	1	5.9	3	10.3	3	60.0	3	13.0
일상생활 지원 확대	13	12.6	2	6.9	3	17.6	6	20.7	0	0.0	2	8.7
차별금지 인식교육	3	2.9	1	3.4	0	0.0	2	6.9	0	0.0	0	0.0
가정 상담 및 지원	2	1.9	1	3.4	1	5.9	0	0.0	0	0.0	0	0.0
여가/문화지원활성화	1	1.0	0	0.0	0	0.0	1	3.4	0	0.0	0	0.0

## 소결

대전 장애인의 약 30%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 35.5%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sup>41)</sup> 직업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대한 욕구(20%)는 크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적응훈련을 위한 지원의 부족,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1) 2011. 장애인 실태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5%이고, 이 가운데 남성장애인이 44.8%, 여성장애인이 22.7%였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국민의 인식개선과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의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인데,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외출 시 도우미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복지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하여는 인지도에 비해 전반적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의 확충’과 ‘장애수당 확대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확충’ 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복지사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장애인연금 및 장애 수당지급’, ‘의료비 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복지관 확충’ 등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유지와 악화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수당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수당 등이 근로능력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해 보다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 연금이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대상자선정 기준과 급여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빈곤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부가급여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실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이 요구된다.

## 9. 여성

기혼 여성 중, 직장을 다니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 양육의 부담(34.4%)’과 ‘육체적인 피로(29.9%)’, ‘가사의 부담(21.8%)’에 대한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1〉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

(N=331)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자녀 양육의 부담	114	34.4	5	기타	7	2.1
2	육체적인 피로	99	29.9	6	노부모의 부양 부담	3	0.9
3	가사의 부담	72	21.8	6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3	0.9
4	재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24	7.3	7	성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근로조건	2	0.6
5	부부간의 공유시간 부족	7	2.1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 산전·산후 휴가제도의 시행 여부와 이용의 자유로움에 대하여, 응답자의 45%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서 산전·산후 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72% 정도는 이용도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전·산후 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회사 중 28% 정도는 시행은 되고 있으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sup>42)</sup>.

〈표 3-2-92〉 산전후 휴가 제도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시행되지 않고 있음	176	55.2	시행되고 있음	143	44.8
↓ 시행되고 있는 직장의 경우 ↓					
이용이 자유로움	100	71.9	이용이 자유롭지 않음	39	28.1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도 시행여부와 이용의 자유로움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응답자의 41%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 중 72% 정도는 이용도 자유로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회사 중 28% 정도는 시행은 되고 있으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3-2-93〉 육아휴직제도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시행되지 않고 있음	185	59.1	시행되고 있음	128	40.9
↓ 시행되고 있는 직장의 경우 ↓					
이용이 자유로움	91	72.2	이용이 자유롭지 않음	35	27.8

42) 본 문항에서는 본문에 제시한 문항 뿐 아니라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의 가장 큰 장애도 조사하였지만 응답률이 낮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여성들이 대전시의 여성복지 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이용률과 만족도는 어떤지 조사한 결과<sup>43)</sup>, 조사한 시설과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62%, 특히 사회복지관의 인지도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률은 평균 4%로 저조한 편이었다. 반면, 만족도는 평균 3.93점으로 만족스러운 편으로 조사되었다.

〈표 3-2-94〉 여성복지 관련 시설·기관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분류	인지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관 (N=980)	784	80.0	58	7.5	3.93	.988
주부교실, 문화/여가프로그램 (N=982)	747	76.1	92	12.4	3.83	.851
여성회관 (N=981)	698	71.2	79	11.4	3.72	.894
가정상담센터 (N=984)	677	68.8	8	1.2	3.00	1.73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N=981)	623	63.5	2	0.3	5.00	.00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N=981)	616	62.8	2	0.3	4.00	.000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N=980)	592	60.4	15	2.6	3.71	.469
모자보호시설 (N=982)	572	58.2	3	0.5	4.00	1.414
건강가정지원센터 (N=980)	372	38.0	8	2.2	3.83	1.16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N=980)	360	36.7	5	1.4	4.25	.957

마지막으로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전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 대전의 여성들은 ‘자녀 양육 및 보육 지원(28.8%)’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19.1%)’과 ‘취업교육 및 취업처 알선(15.6%)’, ‘노부모 부양지원(14.5%)’의 순이었다.

〈표 3-2-95〉 여성 복지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

(N=890)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자녀 양육 및 보육 지원	256	28.8	6 가족갈등 예방 및 치료, 상담	53	6.0
2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170	19.1	7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지원	46	5.2
3 취업교육 및 취업처 알선	139	15.6	8 여성 권익 신장	34	3.8
4 노부모 부양지원	129	14.5	9 기타	6	0.7
5 여성 범죄 예방	57	6.4			

43) 해당시설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률과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본 문항에서는 본문에 제시한 문항 뿐 아니라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와 이용하였지만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지만 응답률이 낮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 소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와 자녀의 양육 및 가사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전·산 후 휴가제도는 절반 이하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약 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고되었는데, 직장의 41%가 제도를 시행중이나, 이들 중 28%는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제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과 동시에, 원활한 대체인력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을 위한 남성의 휴가·휴직 제도가 활성화 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 보육시스템의 확충과 동시에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여건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대전의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자녀 양육 및 보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무엇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육비의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 만 0-3세 미만 영아전담보육시설, 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시설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 1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 조사에 참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평균 6년(72개월)동안 수급을 받아왔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대한 만족도<sup>44)</sup>는 1.7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들에게 급여를 받게 된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25.0%)’,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12.5)’, ‘소득이 있는 가족과 이별해서(10.4%)’ 등이 근로 소득 중지 사유였다.

44) 1-5점 척도로 측정(1점: 매우 부족, 5점: 매우 충분)

〈표 3-2-9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기간과 만족도

(N=49)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급기간	71.96	47.074	3	180
만족도	1.67	.801	1	4

〈표 3-2-9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게 된 이유

(N=48)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기타	14	29.2	6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2	4.2
2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12	25.0	6	소득이 있는 가족이 사망해서	2	4.2
3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6	12.5	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2	4.2
4	소득이 있는 가족과 이별해서	5	10.4	7	소득은 동일하나 가족이 증가해서	1	2.1
5	친인척의 도움이 끊겨서	4	8.3				

본 조사에 참여한 수급권자들 중 74.5%(41명)는 의료급여 1종, 25.5%(14명)는 의료급여 2종 이었는데 이들이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하였던 문제에 대해 파악한 결과<sup>45)</sup>,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74.5%로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이 많다’는 응답이 12.8%로 뒤를 이었다.

〈표 3-2-98〉 의료급여서비스 이용 어려움

(N=47)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특별한 문제가 없음	35	74.5	3	적용기간의 제한	2	4.3
2	본인 부담금이 많음	6	12.8	3	기타	2	4.3
3	의료기관에서 차별대우를 함	2	4.3				

탈수급에 대한 욕구<sup>46)</sup>는 2.22점으로 ‘조금 꺼려짐’으로 응답되었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조사한 결과, ‘생계비 지원 확대’에 대한 욕구가 55.3%로 가장 높았고 ‘방문 간호나 간병’이 19.1%,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욕구가 10.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5) 본 문항에서는 본문에 제시한 하위 범주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차별대우를 함, 적용 기간의 제한과 기타도 하위 범주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지만 빈도가 낮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46) 1-5점 척도로 측정(1점: 전혀 원치 않음, 5점: 매우 원함)

〈표 3-2-99〉 탈수급 욕구

(N=49)

분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탈수급을 원하는 정도	2.22	1.476	1	5

〈표 3-2-100〉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N=47)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생계비 지원 확대	26	55.3	5	직업훈련	2	4.3
2	방문 간호나 간병	9	19.1	6	자녀의 교육 지원	1	2.1
3	일자리 제공	5	10.6	6	기타	1	2.1
4	창업지원을 위한 저리융자	3	6.4				

또한 직업 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하는 직업 훈련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훈련(22.2%)’의 욕구가 가장 컸고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17.8%)’이 두 번째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근로와 병행이 가능한 훈련(13.3%)’,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훈련(11.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2-101〉 원하는 직업 훈련

(N=45)

분류			분류				
	가구	유효 %		가구	유효 %		
1	기타	16	35.6	4	근로와 병행이 가능한 훈련	6	13.3
2	취업 가능성이 높은 훈련	10	22.2	5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훈련	5	11.1
3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8	17.8				

이들 중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수급권자는 6.1%에 그쳤고,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은 없으나 향후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19.6%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80.4%를 차지하였는데, 자활참여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를 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62.2%)’,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자활사업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16.2%)’ 때문이었다.

〈표 3-2-102〉 자활사업의 참여 경험 유무 및 향후 참여 희망 유무

참여 경험	있음	3	6.1	없음	46	93.9
↓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수급권자 중 향후 참여 희망 유무 ↓						
분류	명	유효 %	분류	명	유효 %	
참여 의향 있음	9	19.6	참여 의향 없음	37	80.4	

〈표 3-2-103〉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싫은 이유

(N=37)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근로를 하기 어려운 질병·장애 때문	23	62.2	4 기타	3	8.1
2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음	6	16.2	5 자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1	2.7
3 원하는 종류의 사업이 없음	4	10.8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적 일자리’와 ‘희망근로’를 제외한 9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균 이용률은 약 25.6%였으며 만족도는 평균 3.23점으로 조사되었다.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의 이용률은 매우 높았으나 여타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었으며 만족도는 ‘조금 불만족’하는 정도부터 ‘매우 만족’하는 정도까지 광범위하였다.

〈표 3-2-104〉 저소득층 관련 복지 서비스

(N=49)

분류	이용		만족도	
	가구	유효 %	평균	표준편차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N=49)	37	75.5	2.53	1.183
의료비 지원 (N=49)	37	75.5	3.42	1.180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N=49)	12	24.5	3.36	.809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N=49)	11	22.4	3.09	1.136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N=49)	7	14.3	3.14	1.069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N=49)	4	8.2	3.50	1.915
공공근로 (N=49)	2	4.1	3.00	1.414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N=49)	2	4.1	5.00	.000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N=49)	1	2.0	2.00	.000
사회적 일자리 (N=49)	0	0.0	-	-
희망근로 (N=49)	0	0.0	-	-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인지도와 신청 여부, 수급자격 유지 여부<sup>47)</sup>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 조사에 응답한 전체 수급권자의 87.8%가 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3-2-105〉 희망키움통장 인지도

(N=49)

분류		가구	유효 %	분류		가구	유효 %
1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38	77.6	3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안다	4	8.2
2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5	10.2	4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잘 안다	2	4.1

## 소결

대전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평균 6년 정도 수급을 받아왔으나 탈수급에 대한 의지는 다소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업 훈련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낮아 서비스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수급권자는 매우 적었으나, 향후 자활참여 의향이 있는 수급권자는 약 20% 정도로 나타나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 자활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따라 탈수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적 건강회복을 돕고, 동시에 자활을 통해 수급자로서의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근로를 포기하고 탈수급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낮은 노동 임금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동일한 급여체계를 지양하고, 개인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다양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는 현 정부의 개선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7) 본 문항에서는 본문에 제시한 하위 범주 뿐 아니라 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을 유지(적립)하고 있다, 중도에 탈수급하였으나 희망키움통장을 여전히 유지(적립)하고 있다, 중도에 탈수급하면서 희망키움통장을 포기(해지)하였다,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은 중도에 포기(해지)하였다도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 제4장 질적 조사 결과

### 제1절 질적 조사의 필요성

이 조사의 목적은 대전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사에서는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범주화 분석방법을 통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서 이러한 질적 조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전 시민 복지욕구 양적 조사를 포함한 양적 조사방법론은 미리 정해진 구조화된 자료수집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조사결과를 전체 인구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고, 전반적인 실태를 몇 가지 요인들로 요약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미리 정해진 대안들 중에서 한두 가지 답변을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에 없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답변이 정형화되며,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표준화된 틀을 사용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할 수 있지만, 응답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경험과 그 맥락을 포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대전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양적 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1년에 몇 번의 음악회가 개최되었고, 좌석점유율이 몇 %나 되었으며,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개최하는 몇 번의 음악회에 참여했고, 참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음악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정도다. 그 이유라는 것도 조사자가 제시한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복수 응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대전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다면, 조금 더 다양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요인과 조건들의 상호영향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이는 직장에서 보통 평일 7시 정도에 퇴근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음악회는 7시에 시작한다고 하자. 물론 중요한 일이라면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7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고 음악회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음악회 참석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전혀 다른 이유도 있다. 대전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시민은, 그렇다면 대전에서 개최되는 뮤지컬 공연은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같은 공연이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서울에 가서 봐야겠다는 더 비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조건들을 밝혀내려면 기존의 양적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관적인 경험과 그 맥락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질적 조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질적 조사방법론에서는 심층면접이나 관찰, 기록물 등을 활용하여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특정 이론에서 가설을 끄집어내어 이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보다는 현실에서 엄밀한 관찰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내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과 드러나지 않았던 현상의 맥락적 구조를 파악하는 접근을 활용해 왔다. 이 질적 조사에서도 그러한 접근을 시도하려 한 것이다.

즉, 이번 대전 시민복지욕구 질적 조사에서는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미리 정해진 응답지를 제시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부영역들만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에 기초하여 현실을 탐색해가는 귀납적인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실태가 아니라 대전 시민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중범위적-미시적 조건들과 그것들 간의 맥락 구조를 밝혀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의 상세한 복지욕구를 발견하고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절 조사방법

### 1. 조사 참여자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전 시민들이다. 원래 계획으로는 생애주기를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를 주요 특성에 따라 2개 집단씩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10명씩, 총 18개 집단, 18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수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개 집단은 해당하는 참여자 집단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접근하기 어려우며, 접근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2개 집단은 10명의 참여자를 채우지 못하고 각각 9명과 7명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전 시민은 생애주기와 특성이 조합된 15개 집단, 146명이었다.

생애주기 9단계와 단계별 주요 특성을 조합하여 구성된 15개 집단은 다음과 같다.

- 1) 영유아기-부모양육 : 영유아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부
- 2) 학령전기-보육 : 학령전기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부
- 3) 아동기-전업: 학령기 아동을 둔 전업주부
- 4) 아동기-맞벌이 : 학령기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
- 5) 청소년기-중고생 : 청소년기 중고생
- 6) 청년전기(20-30) 대학생 : 20-30세 사이의 청년 대학생
- 7) 청년전기(20-30) 취업 : 20-30세 사이의 취업한 청년
- 8) 청년후기(31-40) 미혼 : 31-40세 사이의 미혼자
- 9) 청년후기(30-40) 기혼 : 31-40세 사이의 기혼자
- 10) 장년기(41-65) 남 : 41-65세 사이의 장년기 남성
- 11) 장년기(41-65) 여 : 41-65세 사이의 장년기 여성
- 12) 노년전기(65-80) 부부 :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65-80세 어르신
- 13) 노년전기(65-80) 단독 : 배우자가 없는 65-80세 어르신
- 14) 노년후기(81- ) 부부 :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81세 이상의 어르신
- 15) 노년후기(81- ) 단독 : 배우자가 없는 81세 이상의 어르신

## 2. 자료수집 방법

이번 조사에서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은 면접이었다. 원래 계획에서는 18개 집단별로 3인 1조로 구성된 18개의 조사팀을 구성하였으나, 3개 집단의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15개의 조사팀이 15개 집단별로 조사참여자를 찾아 접촉하고, 면접을 수행하였다. 모든 면접은 원칙적으로 조사원과 조사참여자 사이의 1대 1 또는 2-3대 1의 대면면접으로 이루어졌으나 5사례 정도는 만남이 불가능하여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고 답장 형식으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자의 경우에도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로 다시 연락을 하였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조사원은 총 60명이었다.

각 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모든 조사자들은 11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숙지하고 가서 조사참여자들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 영역은 재정(자산/지출), 고용(소득활동/비소득활동), 주거(소유 여부/편리성), 건강(신체건강/정신건강), 교육(제도교육/평생교육),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공공재), 공공서비스(시/구/동), 관계(가족관계/사회관계망), 여가문화(여가/문화), 지역사회(정체감/불만), 행복(행복의 개념/행복수준) 등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분석 방법

이 질적 조사에서 활용한 자료분석 방법은 귀납적 범주화 분석방법이었다. 귀납적이라는 것은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의미의 구성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범주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는 분석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조사원들이 면접을 진행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조사팀별로 기초적인 수준에서 의미를 찾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에 3명으로 구성된 분석팀이 기초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의미단위-개념-영역으로 이어지는 재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하의 분석결과는 그 결과물이다.

## 제3절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먼저 15개의 생애주기별 하위집단별로 욕구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어서 전체 집단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통합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1. 집단별 분석

#### 1) 영유아기 - 부모 양육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영역을 크게 나누면 현재 상태와 그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앞으로 바라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정 측면에서 다수의 부모들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식비, 대출금, 자녀 양육비, 저축과 보험 등으로 대부분의 소득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수입을 남김없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는 재정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만족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둘째, 고용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래서 양육하는 중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어느 정도 자녀가 자란 후에는 일자리를 빨리 얻고 싶어 하였다. 일부 사례는 일하는 패턴이 일정치 않으며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다고 하였고, 남편이 육체노동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는 사례도 있었다. 어떤 사례는 현재 이혼한 상태였으며,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나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 영역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가 7명이었으며, 나머지 사례들은 일반주택에 살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의 편의시설, 생활시설, 환경에 모두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한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례는 집에 습기도 많고, 추우며, 편의시설과 생활시설 모두에 불만족하고, 놀이터도 멀어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였다.

넷째, 건강 영역을 보면, 다수의 부모들이 자신보다는 자녀들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고 있었으

며, 아이를 낳고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건강이 안좋아졌다는 이도 있었다. 소수의 사례로 환절기 때 병원을 자주 찾는다든 이와 허리디스크가 있지만 일 때문에 병원을 다니지 못한다는 이도 있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다. 아이를 낳은 후 뺏기는 것들이 많아서, 또는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술치료를 받은 이도 있었고, 어떤 사례는 적절히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푸는 경로는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인들과 만나 대화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이중 다수는 사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만, 나머지 소수는 건강보험 이외에 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 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들의 학력은 9명이 대졸, 1명이 대학 중퇴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학력수준이 자녀 교육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있었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 놀이방에 아이들을 맡기는데, 늦게까지 있다 보니 오전 프로그램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 아이들이 쓸쓸하고 무료하게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태권도와 발레를 저렴한 가격에 교육받는다든 사례도 있었다. 아이들에게 많은 양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시선과 말로 인해 사교육과 방과후 학습을 시킬 예정이라고도 하였다.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례들도 있다. 엄마들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며, 정부 지원으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은 필요한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유아기에는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도 있으며, 아이가 자유롭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아이들에게 확고한 꿈이 없을까봐 걱정이라고 한 사례도 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부의 교육지원 정책으로는 바우처 정도가 언급되었다.

여섯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받는 사회서비스로는 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여가서비스, 놀이시설서비스, 무상교육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이 지원, 옷과 사워물품 후원, 방과후 돌봄미 서비스 지원, 문화센터 등이 있었다. 또한 이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개선점으로는 예방접종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선택접종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들을 오래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까이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이들 간식 값 지원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일곱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 참여자들은 도서관, 버스, 지하철, 우체국,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불만과 개선점으로는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항상 같다,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떼거나 할 때 돈을 내야 한다, 아파트 안 놀이기구가 녹슬어 있다, 집 근처에 놀만한 놀이시설이 없다, 놀이터가 밤이 되면 무섭고 아이들이 놀 수 없게 변해버린다, 유료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어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타슈의 이용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지하철 노선이 별로 없어서 사용하기 어렵다 등 다양한 경험들이 나타났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사례도 있었다.

여덟째, 관계 영역에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가족 간 관계가 좋다고 하였다. 다만 자녀 양육 때문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례가 있었고, 주변의 영유아 양육 부모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도 있었다.

아홉째,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많은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답이 많았으며, 주로 아이들과 함께 여가생활을 보낸다고 하였다. 불만족 사항으로는 문화생활 비용, 아이들을 위한 영화나 뮤지컬이 너무 비싼 가격대에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열 번째,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가진 경우가 소수에 불과했다. 소통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동네에서 축제를 진행하지도 않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대전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좋았다. 대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가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였다. 유성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협소하며, 공부방, 도서관, 체험시설, 실내운동시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나 축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열한 번째, 행복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평가한 행복점수는 평균 7.3점이었다. 행복의 조건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면 기준도 바뀐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향상되면 행복 수준도 향상될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며, 아이가 커가고 사회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을 빼면 행복에 대한 점수를 아예 줄 수 없다고 응답한 이도 있었다.

〈표 4-3-1〉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현재	다수가 집에서 아이들 양육 중(8)
	대부분의 지출	식비, 대출금, 자녀 양육비, 보험, 교육, 연금, 주택차약, 저축.
	수입에 대한 불만족	수입을 남김없이 씀. 다수가 현재 자선에 만족하지 못함. 욕심으로 인한 불만족.
고용	직업에 대한 현재 상황과 욕구	다수가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둠. 다수가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 중 파트타임 또는 양육이 끝난 후 일자리를 빨리 얻고 싶어 함.

영역	개념	의미단위
	고용에 대한 어려움	이혼한 상태이며, 원래 양육비 80만원을 받아야 하나 못 받고 있음. 일하는 패턴이 일정치 않으며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힘듦. 남편의 육체노동에 대한 걱정이 큼. 경제적인 문제로 일자리에 대한 욕구 큼.
주거	거주	아파트에 거주(7), 빌라, 원룸도 투룸도 아닌 1.5, 개인주택.
	거주지의 만족/불만족	다수가 편의시설 생활시설 환경에 모두 다 만족함. 더 큰 평수로 이사 원함. 습기도 많고 추움, 편의시설 생활시설에 모두 불만족, 가깝지 않은 놀이터, 이사 가고 싶어 함.
건강	현재 건강상태	허리디스크가 있지만 일 때문에 병원을 다니지 못함. 다수의 부모들이 아이들로 인해 병원을 많이 찾음. 아이를 낳고부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짐. 아이를 낳고 건강악화. 환절기 때 병원을 자주 찾음.
	부모님의 스트레스	아이를 낳은 후 뺏기는 것들(언어 문화생활 식생활)이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음.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는 하지 못함. 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해 스트레스 받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미술치료 받은 적 있음.
	건강보험 가입여부	다수의 부모들이 건강보험 있다고 대답. 소수는 건강보험 이외의 보험이 없다고 대답.
	스트레스 푸는 경로	집사님들과 대화.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 친구들과 전화. 만나서 수다.
교육	부모님 학력	대학교 졸업(9). 대학교 중퇴(1).
	아들 교육	어린이집 시설에 만족. 맞벌이로 인해 아파트 놀이방에 아이들 맡김. 늦게까지 아이들을 맡기는데 오전 프로그램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 아이들이 쓸쓸하고 무료하게 있게 됨.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태권도, 발레를 저렴한 가격에 교육받음. 아이들에게 많은 양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시선과 말로 인해 사교육과 방과 후 학습을 시킬 예정.
	교실 밖 교육의 중요성	엄마들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함.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필요한 시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 아직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너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아이가 자유롭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유치원과 학교의 교육제도에 만족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함.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이 확고한 꿈이 없을까봐 걱정함.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	바우처, 교육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받는 사회서비스	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여가서비스. 아이들 놀이시설서비스. 무상교육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이 지원, 옷과 사워물품 후원받음. 방과 후 돌봄이 서비스 지원. 문화센터.
	불만과 개선점	예방접종하는데 돈이 많이 듦. 선택접종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음. 바우처 서비스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들을 오래 맡길 수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 필요. 가까이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음. 아이들 간식 값 지원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음.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이용	도서관 버스 지하철 우체국 복지관 이용
	불만과 개선점	도서관 비치되어있는 도서가 항상 같음. 동사무소 가서 증명서 떼거나 할 때 세 금 낸 걸로 운영이 되는 곳에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불만.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 기구가 녹슬었음. 집 근처에 놀만한 놀이시설이 마땅치

영역	개념	의미단위
		않아 불만족. 밤이 되면 무섭고 아이들이 놀 수 없게 변해버리는 놀이터. 유료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가격이 너무 비쌌. 놀이터 시설 관리 부족. 어른들 이용 복지관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음. 타슈의 이용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음. 사회서비스와 중복된다는 생각. 도서관의 거리가 애매하여 가까이 세워졌으면 함. 지하철 노선이 별로 없어 대체로 사용 안함. 버스 지하철을 거의 타지 않으며 공공서비스 이용해 본 경험이 없음.
관계	가족, 이웃 관계	다수가 가족 간 관계 좋다고 대답. 아이들 양육으로 부부간의 시간이 부족. 주변의 영유아 양육 부모들과 원활한 관계 유지.
여가생활	여가생활	아이들이 아직 여러 많은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못함. 아이들과 함께 여가생활 보냄.
	불만족	문화비용에 만족하지 못함. 아이들을 위한 영화나 뮤지컬이 너무 높은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지역사회	소속감	소속감이 없음(8).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및 불만	소통이 거의 없는 편. 지역선거에는 참여함. 동네에서 축제를 진행하지도 않고 상당히 낙후 되어 있음. 대전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좋음. 도시치고는 한기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함. 유성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협소하며 공부방 도서관 체험시설 실내운동시설이 더욱 많아 졌으면 좋겠음.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이 없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나 축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음.
행복	행복 점수	평균 7.3점
	행복 조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면 기준도 바뀐다고 생각함. 경제적인 것이 상승하면 행복점수도 상승할 것 같음.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 아이가 커가고 사회서비스가 높아지면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음. 아이들을 빼면 행복에 대한 점수를 아예 줄 수 없음.

## 2) 학령전기 - 보육

학령전기 자녀를 두고 있고, 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은 지출 순위와 지원받는 부분의 두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지출 순위는 전체 가계 지출에서 비율이 높은 지출 항목을 응답한 것인데, 식비, 보험료, 경조사비, 보육료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지원받는 부분으로는 아이사랑카드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어린이집에만 치중되므로 생활비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 영역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불만족 요소, 고용상태 등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다. 응답자 중에서는 1-2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만족 요소는 일주일에 2-3번 당직이 있고, 퇴근시간이 늦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예전에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거 영역은 주거환경에서 불편한 점과 주거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 구성되었다. 불편한 점으로는 놀이터가 흙바닥이라 고무판으로 바꾸자고 건의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거절당했던 경험,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관계가 좋지 않은 점, 비싼 집값, 버스정류장이 멀고 초등학교가 멀다는 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점, 집안 내부의 콘센트 위치가 낮아서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들었다. 주거에 대해 바라는 것은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발전되지 않길 바란다는 응답과 집이 협소함 정도였다.

건강 영역은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묻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호한 건강상태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 영역은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과 바람, 가정교육, 현재 교육제도에 대한 생각과 불만족, 바람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으로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없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있었다. 가정교육은 학습보다 체험이나 인성 교육을 위주로 한다고 하였다. 보육시설의 교육에 대해서는 체험할 때 교사 위주가 아니라 어린이의 직접 체험 위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공부 위주의 교육제도이며, 학습 내용이 광범위하고, 경쟁적인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력에만 의존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는 세속적 인본주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이 높아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교육제도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는 방과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체험활동을 늘렸으면 하는 것과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를 이용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돈으로 본다는 생각을 가진 이도 있었다. 바라는 점으로는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집까지 배려해주었으면 한다, 토탈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매달 육아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버스 기사가 사람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쳐 간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는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며, 인근지역에 놀이터가 없고, 동 주민센터가 멀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반면에 공공기관의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공공서비스에 바라는 점으로는 공원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어른 위주의 환경을 변화시켰으면 한다는 의견,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그것을 더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관계는 크게 가족관계와 이웃관계로 구분되었는데, 가족관계는 대체로 원만한 편으로 응답하였으나 시대와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웃과 관계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멀리 있어서

이웃과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례가 있었으며, 층간소음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도 있었다.

여가문화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점들만 언급되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여가시설이 없다는 점,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음주가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은 불만족 요인과 바라는 점, 소속감으로 구성되었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너무 비싼 집값, 지나친 소통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심한 학구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안전문제, 출산은 장려하면서 정작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함, 연령대별로 지원금이 달라서 다자녀 가정은 재정 부담을 느끼는 점 등이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것으로는 가까운 곳에 지하철 노선이 도입되는 것,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서비스들이 더 대중적인 서비스로 발전되는 것 등을 들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은 대부분이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사례만이 특정 이익단체에 회비를 냄으로써 얻는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행복이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 사랑 안에 있는 것, 종교활동으로 인한 행복감,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는 만족, 마음이 편안한 삶 등이었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나눔에 대한 경험을 물었는데, 일부 사례에서 의향은 있지만 당장은 어렵고 사정이 더 나아지면 그때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표 4-3-2〉 학령전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의 경험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지출 순위	식비, 보험료, 경조사비, 보육료
	지원받는 부분	아이사랑카드 지원 받지만 어린이집에만 치중함. 생활비로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임. 일부러 어린이집 보내지 않아도 됨.
고용	현재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1~2명
	고용에 대한 불만족	1주일에 2~3번 당직 있음. 늦은 퇴근시간.
	현재 고용상태	예전에 일했던 경험 있어 근로의욕 있음
주거	주거에 대해 바라는 점	더 발달되지 않길 원함. 집이 협소함
	주거환경 불편한 점	놀이터가 흙바닥이라 고무판으로 바꾸자고 건의했는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거절함. 층간소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좋지 않음. 집값 비쌌. 버스정류장이 멀고 초등학교가 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빈약. 집안 내부 콘센트 낮아서 아이들에게 위험.
건강	현재 건강상태	양호
교육	어린이집 교육에 대한 불만족	여러 가지 체험 없어 불만족
	가정교육 상황	학습적인 것보다 체험이나 체험, 인성 교육 위주

영역	개념	의미단위
	어린이집 교육에 대해 바라는 점	체험 할 때 선생님 위주가 아닌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위주로 했으면 함
	현재 교육제도에 대한 생각	공부 위주의 교육 제도 광범위한 공부단원 경쟁 상황 불필요한 선행학습 검정 고시 학력에만 의존함
	교육제도에 대해 바라는 점	방과 후 시간 활용. 체험활동 증가. 입시위주 교육에서 전인적인 교육 필요. 사립학교의 국가지원 필요.
	현 교육제도에 불만족스러운 점	세속적 인본주의에 노출. 사교육비 부담. 선생님 한 명 당 학생 할당량 높아 질 높은 교육 기대할 수 없음.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 및 평가	바우처 이용했지만 부족함.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돈으로 봄.
	바라는 점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으면 함. 토달 복지 서비스 필요. 매달 육아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음. 저소득층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힘들. 버스가사가 사람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쳐감.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점	출산서비스 부족. 갑종 늘어 없음. 덕명동 등사무소가 온천2등으로 되어있음, 생활권인 노은동이라면 더 편리할 것.
	공공서비스에 만족스러운 점	모유 수유 교육 프로그램 만족함
	공공서비스에 바라는 점	공원에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함. 어른 위주의 환경 변화. 출산 서비스 부족함.
관계	가족 관계	원만함. 시댁과의 문제 있음.
	이웃 관계	아이 어린이집이 멀리 있어 이웃과의 관계 거의 없음.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관계 좋지 않음.
여가문화	여가문화 중 불만족스러운 점	가까운 곳에 여가시설 없음. 정보가 부족함(미국에서 살 때는 어떤 한 기관을 갔다 오면 그후 여러 가지 정보 제공됨). 음주기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없음.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족	너무 비싼 집값. 고한 소통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심한 학구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안전문제. 출산장려하면서 정작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함. 연령대별로 지원금 다름. 쌀 이다 보면 다져져 가정은 재정부분에서 부담을 느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가까운 곳에 지하철 노선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서비스들이 더 대중적인 서비스로 발전되길 바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협회에 회비를 냈으므로 얻는 정도의 소속감
행복	행복이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 사랑 안에 있는 것. 종교 활동.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는 만족. 마음이 편안한 삶.
	더 나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시간. 물질. 시설.
나눔	원조·자원봉사에 대한 생각	의향 있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사정이 더 나아지면 그 때 할 의향 있음

### 3) 아동기 - 전업

세 번째 집단은 아동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이다. 이들의 경험에 기반한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은 지출 유형, 소득, 자산, 지출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 중 9명은 자녀 사교육비로 많은 지출이 나간다고 한 반면에, 한 사례는 자녀가 1명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출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보험료, 식비, 관리비, 세금 등이 사교육비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지

출항목이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였다. 소득수준은 연봉으로 말한 사람들과 월급으로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최저 월급 250에서 최고 연봉 1억원 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개인 자산으로는 4명이 현금, 집, 차, 땅 등을 들었으며, 자산이 없다는 사례가 1명 있었고, 절반인 5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수준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은 지출과 비례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고용에 대해서는 10사례 모두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직업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9명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자녀의 사교육을 직접 하겠다든가 지출을 줄이고 돈을 구해보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주거 영역은 주거에 대한 만족, 거주지 주변 환경에 대한 경험, 개선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거형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집에는 만족하지만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1명은 주위 환경이 좋지 않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인 9명이 주위 환경도 좋다고 하였으며, 주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1명의 경우 놀이터에 쓰레기가 많고, 주위에 비행청소년이 많으며, 자동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차도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횡단보도가 적다는 등의 불만족 경험들을 나열하였다.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을 만들어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점, 아파트 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점, 대중교통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점, 주차할 곳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건강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녀의 건강에 대해 답변하였다. 8명은 자녀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으며, 2명은 아토피와 비염 등의 병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등산 등을 하면서 자연을 보여줌, 게임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냄, 매년 정기검진을 받게 함, 주기적으로 치과를 보냄, 가족들과 운동을 함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 영역은 현재 교육방법,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교육방법으로는 집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4명이 있었고,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거나 예체능 교육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다.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강요만 하는 강제성 교육이 문제라고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고, 음악시간에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킨다는 등의 불만족 요인들이 있었다. 교육제도에 바라는 점들로는 방과후 활동의 다양화, 주입식이 아닌 체험활동식의 교육이 필요함, 특기교육, 인성교육 강화 등이 있었고, 과목당 배당 시간을 늘려야 한다거나 방과후 활동도 여러 과목을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보면, 4명은 사회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다양해졌다고 인식하였으며, 직접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명 있었다. 2명은 무료로 받는 것보다 조

금 더 돈을 내서라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1명은 여전히 소수계층 사람들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중장년 새 일자리 찾기는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인복지관 체험프로그램을 언급한 참여자들이 있었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보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홍보와 혜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가 중심이 된 것 같아 오히려 만족한다는 응답과 동네 복지관과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 만족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은 만족한다는 의견과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갈렸다. 불편사항으로는 주차문제, 접근성, 홍보 부족, 도서관의 공간 용도, 교통 불편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산책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주차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 지역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의 문화 행사 홍보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측면에서는 응답자들 모두가 가족이나 친인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반면에, 이웃과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1명은 이웃과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1명은 관계가 좋다고 한 반면에, 4명은 어색하거나 교류가 없다고 하였다.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녀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가장이 술을 많이 마셔서 걱정스럽다는 응답도 있었다.

여가문화 영역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즐기는 여가생활은 주로 자녀들과 놀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이었으며, 혼자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과 시간이 없어 즐기지 못한다는 소수의 경험도 있었다.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지역 간 편차가 있다는 점, 가족단위 공연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등의 응답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들이 보는 연극인데 잘 보지도 않는 어른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소속감이 있다고 하는 경우보다 없거나 적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지역사회의 문제로는 지역축제가 적다고 한 사례들이 있었고, 공원과 놀이터 환경, 물리적 환경, 주차공간, 신호체계 등의 문제를 제시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공원 및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에 대한 통제, 주부도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 지역사회 환경 개선, 주차공간 확대, 정부의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행복 점수는 평균 7점 정도였으며, 행복한 이유는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 감사하는 마음, 현재 상황에 만족함 등이었다. 행복의 요인으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경제적 안정, 삶을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 등이 언급되었다. 현재 생활에 대해서는 대

부분이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1명은 만족하지 못하며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표 4-3-3〉 아동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집단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지출 유형	자녀 사교육비로 많은 지출이 나감(9명). 자녀가 한명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출이 많지 않음(1명). 보험료, 식비, 관리비, 세금은 사교육비 다음으로 나가는 지출 그렇게 많지 않음.
	일정 소득	연봉(3명: 1억 원, 4500만원). 월급(7명: 250~300만원, 400~500만원).
	개인 자산	자산이 있음(4명: 6억, 집, 차, 땅). 자산이 없음(1명). 자산에 대한 응답이 없음(5명).
	개인 자산과 소득이 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에 따라서 생활수준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 및 소득은 지출과 비례함.
고용	직업 유무	자신 혹은 남편(부인)이 직업이 있음(10명).
	직업이 없을 경우 (비소득일 경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임(9명 : 전공을 살릴 것이다,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할 것이다.). 이에 관련 된 질문 안함(1명). 자녀의 사교육을 자신이 하겠다. 지출을 줄이고, 돈을 구해볼 것임.
주거	주거 형태에 대한 만족도	대체로 만족함(9명: 집은 만족 하지만 교통편이 불편함(1명)). 만족을 못함(1명: 주위 환경이 안 좋음).
	거주지 주변 환경	주위 환경이 좋음(9명). 주위 환경에 만족 못함(1명: 놀이터에 쓰레기가 많음, 주위에 비행청소년이 많음, 자동차 주차할 곳이 없음, 차도는 많지만 그에 비해 횡단보도가 적음).
	개선점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이 생겨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아파트 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음(2명). 대중교통이 많아졌으면 함. 주차를 할 곳이 없음.
건강	자녀들의 건강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함(8명). 신체적으로 병이 있음(2명: 아토피 2명, 비염 1명).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하는 것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 있음(정신적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고 자연을 보여줌, 게임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냄, 매년 정기 검진을 받게 함(2명). 주기적으로 치과를 보냄, 가족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함).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는 것 없음(1명).
교육	교육 방법	집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음(4명). 과외를 보냄. 도서관에 데리고 다님. 예체능 교육을 시킴(2명).
	현 교육제도에 불만스러운 점	강요만 하는 강제성 교육이 문제임(2명). 음악시간에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킴(동요 대신에 대중가요를 가르침).
	현 교육제도에 비라는 점	방과 후 활동이 다양해 져야 함(3명).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활동이 필요함(3명). 아이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2명). 인성교육을 시켜야 함(2명). 과목당 배당 시간을 늘려야 함. 방과 후 활동도 여러 과목을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됨.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한 생각	사회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다양해졌음(4명). 여전히 소수계층 사람들만 서비스를 받고 있음(1명). 직접적으로 받는 사회서비스는 없어 보임(3명). 무료로 받는 사회서비스 보다는 조금 더 돈을 내어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것임(2명).
	이용 경험이 있는 사회서비스	“중장년 새 일자리 찾기” 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음(1명). 유성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함(1명).

영역	개념	의미단위
	사회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점	사회서비스가 보편화가 되어야 함(4명). 사회서비스가 평준화가 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함(2명). 형식적인 사회서비스보다는 혜택의 폭이 넓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함(2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함.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많아져야 함.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음(보편화, 평준화가 되지 않은 이유).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서비스가 중심이 된 것 같아 만족함(1명). 동네 복지관과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 만족함(1명). 노인 복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함.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함(6명; 이유는 모르겠음. 그냥 질문이 만족하냐는 것과 만족한다는 것임).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만족 못함(4명).
	불편한 공공서비스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자동차 주차가 불편함. 동사무소가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불편함.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 이용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함(3명). 지역 도서관이 불편함(도서관이 책 읽는 곳이 아닌 자리를 차지해 공부하는 독서실로 변하였음). 교통편이 불편함(2명; 버스가 한 대밖에 안 다녀 아동이 불편함).
	개선되길 바라는 공공서비스	산책로가 많아 졌으면 좋겠음. 주차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함. 지역 도서관이 자리 차지하고 공부하는 곳이 아닌 책을 읽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음. 도서관의 문화 행사 홍보가 필요함(2명).
관계	가족과 친인척 관계	관계가 원만함(10명).
	이웃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음(1명; 이웃들과 관계 형성에 많은 노력을 했음).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교류가 없음(4명; 이웃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이웃들과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1명).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노력	부모와 자녀들 간에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2명).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노력함(3명).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위험한 점	가장이 술을 많이 마셔서 걱정이 됨.
여가문화	즐거는 여가생활	아이들과 놀거나 여행을 가면서 여가시간을 보냄(8명 개인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음 (1가정: 남편 트럼펫, 아내 한식 조리)). 즐기고 싶은 여가 생활은 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 못 즐김(2명).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다양한 문화시설이 만들어져야 함(3명; 동구의 경우 문화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함). 가족단위의 공연을 보러 갈 때 비용을 낮춰야 함(2명; 어린이들이 보는 연극인데 잘 보지도 않는 어른들이 돈을 더 많이 냄).
	개인적으로 즐기고 싶은 여가문화	요리를 배우고 싶음.
지역사회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느끼는 소속감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 있음(3명).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 없거나 적음(7명;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음, 지역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음).
	지역사회 문제	지역축제가 적음(2명). 공원 및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없음.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음(2명).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2명). 아이들에게 신호등이 없는 게 위험함(용운동).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공원 및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나 제제가 있어야함(2명). 주부도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가 있어야함(3명).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2명).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함(2명).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역사회에 지원을 해줬으면 함.

영역	개념	의미단위
행복	행복 점수	평균 7점.
	행복한 이유	가족이 건강함. 경제적으로 안정적임. 감사하는 마음가짐. 현재 상황에 그냥 만족함.
	행복의 요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4명).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함(3명). 삶을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3명).
	만족도	만족 못함(1명: 지금보다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더 잘 살기를 원함). 대부분 만족함.

#### 4) 아동기 - 맞벌이

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경험에 따른 욕구는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출이 자녀교육비와 식비, 대출금 등으로 나간다고 하였으며, 소득과 관련해서는 수입이 더 늘거나 물가가 낮아졌으면 한다고 하였다. 경조사비를 줄여야겠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 영역은 현재 직업과 만족도, 근무일수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직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근무한다고 하였다.

주거 영역에는 주거 형태와 아쉬운 점, 바라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참여자 가구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거환경에서 아쉬운 점은 집이 좁고, 주변에 공원이 없으며, 중고등학생들로 인한 피해와 통학길 위험, 주차 공간, 공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고속도로 소음 공해, 인근 대학생들의 소음과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 중고등학교가 없어 다른 구로 진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바라는 것으로는 방범시스템의 증가와 버스 노선의 증가를 언급했다.

건강 영역의 개념들로는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이유와 해소방법, 의료서비스의 불편한 점과 바라는 점 등이 있었다. 건강 상태에서는 8명이 양호하다고 한 반면에, 2명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해소방법으로는 이웃과 대화, 휴일에 가까운 동네 공원이나 산으로 운동을 다녀온다고 하였다. 의료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으로는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바라는 점으로는 장애자녀 국가지원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자마자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 가족끼리 외출이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 영역은 자녀교육 상태와 불만족, 좋은 점, 바라는 점, 해결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녀교육은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자녀는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는 주입식 교육 위주, 인성교육 부족, 교육과정이 자주 바뀌어 힘

들, 교사의 인성과 자질, 부모가 학교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음, 학교 내에 외부인의 출입이 잦음, 아이들 안전 문제 등을 들었다.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서비스에 바라는 점으로는 방과후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사교육비 절감, 자치구간 복지혜택의 형평성 등이 제시되었으며, 해결책으로 현장학습과 봉사활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예체능 수업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노인과 희망근로자들의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서비스 이용현황과 바라는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바우처 사업과 여행 프로그램, 보건소 비만클리닉, 다자녀 혜택, 영양 플러스 등의 서비스를 언급하였다. 일부 자치구 거주자들은 다른 구에 비해 복지수준이 미약하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는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와도 정해진 보건소에서만 서비스 제공을 받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공서비스 영역도 서비스 이용현황과 불편한 점, 바라는 서비스로 구분하였는데, 응답자들은 건강검진과 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불편한 점으로는 시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과 일부 자치구에 지하철 역이 없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들었다. 바라는 서비스로는 일부 자치구에 학교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하였다.

관계 영역은 가족, 이웃, 종교, 가족내 가사 분담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많으며 사이가 양호하지만, 자녀와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웃관계는 대부분 인사만 하고 교류는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은 대부분 여성들이 도맡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영역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직장 때문에 여가활동을 자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일과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등산, 운동 등을 한다고 하였다. 바라는 것으로는 공원, 영화관, 다목적 체육관 등을 들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부분이 이웃과의 교류도 없고, 시설의 불편함 등을 경험하면서 소속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소속감 점수는 평균 6점 정도였다. 소속감 증진을 위해서는 반사회 등 이웃과 교류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행복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4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가장 큰 행복요소는 가족과의 행복이라고 하였다.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수입과 지출을 언급하였다.

〈표 4-3-4〉 아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대부분의 지출	자녀교육비, 식비, 대출금.
	현재 수입에 대한 생각	수입이 더 늘거나 물가가 낮아졌으면 함
	현재 부족한 수입에 대한 대안	경조사비 줄임
고용	현재 직업	체력 단련장-임웨이 토크 사업/서비스업-공부방 운영/보험회사-생산직/자영업/프로그래머-부업/부동산-공인중개사/초등학교 돌봄이 교사/핸드폰 판매업/알바/부동산-회사원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는 만족하지만 수입은 아쉬움
	근무 일수	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근무
주거	주거 형태	다수가 자가 주택 없음
	주거환경 아쉬운 점	집이 좁음. 서구 주변에 공원이 없음. 중고등학생으로 인한 피해. 통학길 위험. 주차 공간 불편. 대덕구 집 주변 공단으로 인해 소음과 악취로 기분과 건강에 좋지 않음. 철도,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공해. 동구 대학생들의 소음과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피해입음. 중·고등학교 없어 다른 구로 진학해야함
	주거환경 바라는 점	가로등 방범시스템의 증가. 버스 노선의 증가
건강	건강 상태	양호(8명). 정신과 상담(2명)
	스트레스의 이유	맞벌이
	스트레스 해소방법	이웃과의 대화. 휴일에 건강을 위해 가까운 동네 공원이나 산으로 운동
	의료서비스 불편한 점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비용이 너무 비쌈
	의료서비스 바라는 점	장애 자녀 국가 지원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마자 서비스 중단. 가족끼리 외출이 불가능.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필요
교육	자녀 교육 상태와 환경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 모든 응답자의 자녀 학교 다님
	자녀 교육 환경 불만족	주입식 교육 위주, 인성교육 부족. 자주 바뀌는 교육 과정 힘들. 선생님의 인성 자질. 부모가 학교 일을 자세히 알 수 없음. 학교 내에 외부인의 출입이 잦음. 아이들 안전 문제.
	교육 서비스 좋은 점	문자 알림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바라는 점	방과 후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사교육비 절감. 서구는 비교적 복지 혜택이 좋으니 다른 구에 도움을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 환경 해결책	현장학습·봉사활동 빈도수 증가. 예체능 수업시간 증가. 노인·희망근로자(봉사자)의 외부인 출입 통제
사회 서비스	서비스 이용 현황	대부분 직장 생활로 거의 이용 안함, 자녀들 저녁 제공. 바우처 사업. 오감 특특 여행. 보건소 비만 클리닉. 다자녀 혜택. 영양플러스로 빈혈 호전
	바라는 서비스	서구 물리치료 서비스, 동구·대덕구 다른 구에 비해 복지 미약함, 자녀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원함 (돌봄이 서비스, 놀이방, 교육시설, 운동시설)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자신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도 정해진 보건소에서만 서비스 제공을 받는 한계

영역	개념	의미단위
공공서비스	서비스 이용 현황	건강 검진 이용. 도서관. 보건소. 등사무소.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시간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받지 못함. 동구·대덕구 지하철이 없어 불편함
	바라는 서비스	동구 학교가 많이 생기길 바람
관계	가족 관계	부부사이 대화 많음. 사이 양호. 재녀와는 부족함.
	이웃 관계	대부분 인사만 하고 교류는 적음
	종교 관계	기독교 4. 불교 1. 무교 1.
	가족 내 가사 분담	대부분 여성들이 도맡아 함
여가문화	현재 하는 여가활동	직장 때문에 자주 못함. 휴일·주말에 영화, 등산, 운동
	바라는 점	공원(3명). 영화관. 다목적 체육관이 생기길 바람.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대부분 이웃과의 교류도 없고 시설의 불편함 등 소속감 못 느낌.
	지역사회에 대한 점수	평균 6점
	소속감 증진을 위한 해결책	이웃과의 교류를 넓힐 반상회
행복	가장 큰 행복	가족과의 행복
	행복 점수	평균 4점
	불행 요인	수입·지출

### 5) 청소년기 - 중고생

청소년기 중고생들의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에서는 다수가 수입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가정이 안정적이고 중층 이상의 수준이라고 답변하였다. 지출의 대부분은 교통비와 군것질로 나가고 있으며,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출한다고 하였다. 소수인 3명은 손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하라고 답변하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가정 내에 불화가 있다고 하였다.

주거 영역을 살펴보면, 다수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거주자와 빌라 거주자가 소수 있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소음공해가 심하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고, 교통편이 좋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분위기가 좋다 등의 다양한 경험이 포함되었다. 치안이 잘 되며 이웃들과 관계도 좋다는 사례도 있었다. 다수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중고생이다보니 소음공해에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보였다.

건강 영역을 보면 다수가 건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스트레스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소수는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한 사례는 어린 시절 당한 왕따 경험으로

불안하며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 두렵다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는 게임, 피아노 치기, 잠자기, 친구들과 만남, 운동, 교회에서 찬양, 영화감상, 카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수는 상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보편적이지 않으며, 조언과 충고보다는 얘기를 들어주는 수준이고, 공감되지 않으며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담을 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교육 영역에서는 자율화에 대한 욕구와 불만족 요인들이 나타났다. 먼저 다수가 학교제도가 강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두발자유와 야간자율학습의 자율화를 원했다. 학교가 사육장 같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으며, 항상 똑같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예술적인 측면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적다고 하였고, 개인의 재량을 키웠으면 한다고 하였다. 한 사례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였다. 다른 소수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는 현재의 복지수준이 좋다고 하였으며, 특히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다수는 복지와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다른 소수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원하는 복지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학비지원과 치한에 대한 대처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만족과 불만족으로 갈렸는데, 만족하는 이들은 공공서비스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무료라서 좋으며, 교통시설이 편리하다고 답변하였다. 반면에 불만족하는 이들은 차편이 너무 적고 버스비가 비싸며 버스가 비좁고, 다자녀를 위한 혜택이 필요하며 도서관이 시끄럽고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관계 영역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에 대해 주로 답변하였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 대화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다수는 가족들과 대화가 많으며 관계가 원만하다고 답변하였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수가 원만하다고 하였으며, 한 사례의 경우 교회친구와는 관계가 좋으나 학교 친구와는 어렵다고 하였다.

여가생활 영역은 현재 하고 있는 여가생활과 부족한 점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배드민턴, 게임, 노래듣기,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언급하였다. 부족한 점으로는 지출 비용이 커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이 별로 없고, 체육활동 시간이 외국처럼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대학진학 때문에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변들이 제시되었다.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떠돌이 개가 무섭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필요, 지역 특생이 없다, 지하철 버스 노선이 많았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범위와 수준의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소수는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으며,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휴식처가 없음, 삶에 만족하지 않음, 행복 자체는 좋으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 학업 스트레스, 학교 친구들과 틀어진 사이, 비교의식으로 눈치를 봄, 대학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언급되었다.

〈표 4-3-5〉 청소년기 중고생들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만족	다수가 수입에 대해 만족함(7). 다수가 가정이 안정적이며 가정 수준이 중이라고 대답(7).
	대부분의 지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은 교통비와 군것질.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지출.
	부족함	수입에 대해 불만족(3). 소수가 가정 수준이 중하라고 대답(3). 가정의 불화 문제가 있음.
주거	거주 형태	다수가 주택에서 거주. 아파트 거주 1명, 빌라에 거주 1명
	거주지 환경	소음공해. 여름에 더운 공기 들어옴. 교통편이 좋음. 주차 공간 부족. 분위기 좋음. 치안이 잘되며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음.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다수가 만족. 소음공해에 대한 불편함이 있음(5).
건강	건강함	다수가 건강하다고 답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대답.
	불안함과 두려움	소수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 어린 시절 왕따 당한 경험으로 불안함,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 두려움.
	스트레스 푸는 방법	게임. 피아노 치기. 잡자기. 친구들과 만남. 운동. 교회에서 찬양. 영화. 카페.
	소수의 상담소에 대한 생각	보편적이지 않음. 조언과 충고보다 얘기를 들어주는 정도. 공감되지 않으며 힘이 되지 않음. 상담하기 창피함.
교육	자율화에 대한 욕구	다수가 강압적이라고 생각. 두발자유. 아간자율학습 자율화. 학교가 사육장 같음. 항상 똑같은 공부
	불만족	예술 쪽으로 학교 지원이 적음. 재작년부터 바뀌어 복잡함. 개개인의 재량을 카웠으면 함. 선생님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답.
	교육?	소수가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
사회서비스	현 복지 수준	소수가 현 복지 수준이 좋다고 대답. 의료복지가 잘 돼 있다고 대답.
	복지가 무엇인가요.	다수가 복지와 서비스에 대해 잘 모름. 소수가 관심이 없다고 대답.
	원하는 복지정책	복지정책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현 복지정책 제대로 실행 필요. 보안과 홍보 필요. 재능을 키울 수 있는 복지. 학비지원. 치환에 대한 대처제도 필요. 학생들을 위한 복지 필요.

영역	개념	의미단위
공공서비스	만족	많이 배치되어 있고 무료. 교통시설 편리.
	불만족	차편 너무 적고 버스비 비쌌. 버스가 비좁음. 다자녀를 위한 혜택 필요. 도서관이 시끄럽고 자리 잡기 어려움.
관계	가족들과 관계	고등학생이 된 이후 대화 시간 줄었음. 다수가 가족들과 대화가 많으며 원만하다고 대답.
	친구와 관계	다수가 원만. 교회친구와는 관계 좋으나 학교 친구와는 어려움(1).
여가생활	즐기고 있는 여가 생활	배드민턴. 게임. 노래듣기. 자전거 타기. 춤추기. 영화. TV보기. 쇼핑. 영화. 잠자기.
	부족함	지출비용이 커서 재정적 지원필요. 시설이 별로 없음. 체육활동 시간이 외국처럼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 예전처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단합적인 운동이 있었으면 함. 자주 못해 아쉬움. 대학이 문제라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음.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과 바라는 점	대책 시스템이 없음. 취직자리가 늘어났으면 함. 지역적으로 평등하지 못함. 주차 공간 부족. 떠돌이 개 무서움. 성폭행범 강화. 정부가 좀 더 평등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음.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관 필요. 지역특색이 없음. 지하철 버스 노선 범위가 많았으면 좋겠음.
	관심 없음	소수가 관심이 없다고 대답.
행복	행복 점수	평균 6.4점
	감점 요인	휴식처가 없음. 삶에 만족하지 않음. 행복 자체는 좋으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듦. 학업스트레스. 학교친구들과 틀어진 사이. 비교의식으로 다른 사람 눈치 봄. 대학 스트레스.
	행복에 대한 조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것. 춤을 추며 행복을 찾음.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게임과 돈이 있으면 됨. 자신이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만족감. 돈이 많아야 함.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 간섭 안 받고 혼자 사는 것.

## 6) 청년전기(20-30) - 대학생

청년 전기에 해당하는 20-30세 사이 대학생들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재정 영역에서는 평균 50만원의 수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항목은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 등이었다.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다수가 만족하고 있지만, 종종 부족할 때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주거 영역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만족하는 이들은 모두 통학하고 있었으며, 문화시설도 집과 가까운 청년들이었다. 불만족하는 이들은 주차문제, 통학의 어려움, 술집이 많은 주변 환경, 가족이 많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움 등의 문제를 토로하였다.

건강 영역은 건강 상태와 건강보험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된다. 건강 상태는 대부분인 9명이 건

강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소수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거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일부는 크게 받은 혜택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갈 때 재정적으로 건강보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할 때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제도에 알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한 사례의 경우 허리를 다치고 나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에 대해 아플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고, 치료비가 싸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만사항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시대는 변하는데 교육제도는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며, 대화식으로 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고, 획일화된 수업이나 강의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학생들을 위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청년도 있었다. 특별히 등록금과 기성회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라는 이도 있고 국가장학금의 기준을 알고 싶어하는 이도 있었다. 주입식 교육에 대해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만족 등의 개념이 나타났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서비스로는 와이파이, 도서관, 쓰레기통, 타슈, 국가장학금, 공원의 운동기구, 헬스장 등이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도서관 부족, 쓰레기통 배치의 불균형, 타슈의 유료화와 미성년자 결제 문제, 버스 이용 문제, 저장버스의 실용성, 버스 알림 서비스가 모든 정류장에 설치되지 않은 불편함, 와이파이존의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와 달리 공원에 쓰레기통이 설치된 후 깨끗해져서 좋다거나 도서관을 불편 없이 다니고 있고, 집 주변에 운동기구가 있어 좋으며, 거리 조성이 잘 되어 좋다는 등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례들도 있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경험과 불만 및 개선사항, 만족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공공시설로는 헬스장, 보건소, 문화센터, 대중교통, 예술의 전당, 엑스포, 미술관, 도서관, 갑천 등이 있었다. 불만 및 개선사항으로는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형평성 있게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 깨끗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 노선 확장, 배차시간이 긴 버스의 추가 배치, 도서관의 접근성, 타슈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몰려 있음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반응과는 달리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존이 되어 있고 기술 발달로 편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도서관이 개방되어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해 좋다는 반응, 그리고 갑천의 편의시설이 많아지고 깨끗해져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다.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관계가 좋으며 원만한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대학생인 청년들이 하고 있는 여가생활은 음악감상, 악기연주, 영화, TV, 컴퓨터, 게임, 전시 관람, 카페 등이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대전의 여가시설로는 무료 공연, 미술관,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한밭수목원, 뮤지컬 등이 있었다. 여가생활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안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항상 되풀이되는 연극공연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센터가 한 곳에만 있어 다니기가 애매하다, 놀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서울과 다르게 규모가 작다, 대전에서 보고 싶은 작품들을 많이 보지 못한다,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에 비해 놀 수 있는 곳이 적다 등의 불만사항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확대, 차별화된 문화활동, 자개개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 술 문화나 밤 문화 말고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필요, 대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건전한 볼거리 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과 개선점, 만족 등이 나타났다.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으로는 갑천이 4대강 사업 이후 깨끗해졌지만 오히려 취사가 가능했던 옛날이 그리움, 지하철 노선 확장 필요, 애완견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함, 아파트 주변 유흥업소 증가로 무섭고 시끄러움 등에 제기되었다. 개선사항으로는 대중교통에 만차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음,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음,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배차간격 조정, 배차시간을 일정하게 조정, 버스 노선 조정, 외곽지역에 대한 투자 등이 제시되었다. 만족스러운 점을 언급한 이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수목원과 나무가 많아져서 좋음, 공기가 맑아 좋음, 아파트 도색이 밝은 색으로 변하고 있음, 주차시설 확장, 인근지역 여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청년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행복 점수는 평균 7.2점이었다. 행복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대학생들과 친구 관계는 좋지만 항상 똑같다는 게 아쉽고 변화가 필요하다. 시험공부나 과제는 힘들다. 서울과 같은 큰 무대로 가지 못해 아쉽다. 혼자만의 여가생활이 필요하다. 여자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다. 몸과 마음이 모두 피곤하고 힘들다. 이들에게 행복이란 지금 상황이 즐겁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 마음이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편하게 지내는 것, 소소한 것,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느끼기에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표 4-3-6〉 청년 전기 대학생들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일정한 수입	평균 50만원. 다수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7).
	대부분의 지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은 식대, 차비, 문화생활.
	만족감	다수가 만족하고 있지만 부족할 때가 있다고 말함.
주거	거주지에 대한 만족	모두 통학. 다수가 만족. 문화시설이 집과 가까움.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	주차문제(2). 학교와 집 거리가 멀어 통학 어려움(9). 주변에 술집이 많아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많음(1). 가족이 많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움(1).
건강	건강 상태	다수가 건강한 편(9).
	건강보험의 존재	소수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혜택을 받았던 적이 없음. 크게 받은 혜택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병원에 갈 때 재정적으로 건강보험 존재를 느낄 수 있음. 어렸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 할 때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제도에 대해 알게 됨. 허리를 다칠 때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음.
	건강보험에 대해 만족	아플 때 지원이 나갈 수 있어서 건강보험 좋다고 생각. 병원비가 싸서 좋음.
교육	학력	현재 모두 대학교 재학 중
	불만 및 개선	시대는 변하는데 교육제도는 매년 같다고 느낌. 대화하며 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음. 획일화된 수업. 강의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쌌. 학생들을 위해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음. 아간자율학습에 대한 문제. 등록금과 기성회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투명한 절차를 봤으면 좋겠음. 정확한 국가장학금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음. 소수의 교수님들이 강의에서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함. 서술형 문제도 교수님의 성향에 맞게 써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음. 무작정 교육열만 높여 등록금이 아까움. 주입식 교육.
사회서비스	실생활에 받고 있는 서비스	와이파이, 도서관, 쓰레기통, 타슈, 국가장학금, 공원의 운동기구, 헬스장.
	겉으로만 서비스	도서관이 너무 없음, 지역마다 쓰레기통 형평성 있게 분배 필요. 타슈가 유료화 되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로 불편함이 큼. 버스가 만원이 되어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버스정류장에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음. 장애우를 위한 저상 버스가 있는데 의도는 알겠으나 실용성이 떨어지며 실행이 똑바로 되지 않고 있음. 버스 알림 서비스가 모든 정류장에 해당되지 않아 불편.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와이파이존이 가게나 개인적 부분 말고 공공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음.
	만족	공원에 쓰레기통 설치 후 깨끗해져서 좋음. 도서관 불편 없이 다니고 있음. 집주변에 운동기구가 있어 좋음, 거리조성이 잘 되어 좋음.
공공서비스	공공 시설	헬스장, 보건소, 문화센터, 대중교통, 예술의 전당, 엑스포, 미술관, 도서관, 갑천.
	불만과 개선	형평성 있게 배치 필요. 깨끗하게 사용 필요. 지하철 노선 확장. 배차시간이 긴 버스는 몇 대 더 늘려줬으면 좋겠음. 도서관의 위치가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외곽 쪽에 있어 찾아가기에 불편함. 이용하는 곳에만 타슈가 몰려있음.
	만족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존이 되어있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편하게 생활하고 있음. 고등학교 도서관 개방 잘해놔서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해 좋음. 갑천이 편의시설도 많아지고 깨끗해져서 만족함.

영역	개념	의미단위
관계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모두가 좋으며 원만한 편이라고 대답.
여가생활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	음악. 기타. 피아노. 영화. TV 시청. 컴퓨터. 게임. 시립미술관 전시관. 디자인 어워드 구경. 영화. 카페
	대전 여가시설	무료 공연. 미술관. 대전 예술의 전당. 한밭수목원. 뮤지컬
	문제점과 개선	항상 되풀이되는 연극 다양성 필요. 한곳에만 센터가 있어 다니기 애매함. 놀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음. 보통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문화 필요. 서울과 다르게 규모가 작음. 대전에서 보고 싶은 작품들을 많이 보지 못함.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에 비해 놀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음. 문화시설 확대. 차별화된 문화 활동 필요. 자기개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 필요. 술 문화 밤 문화 말고는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한정. 대학생들에 초점을 맞춘 건전한 볼거리 제공. 교통편 불편.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과 개선점	갑천이 사대강 사업 이후 예뻐지고 청결해졌지만 취사가 가능했던 옛날이 그리움. 지하철 노선 확장. 애완건을 데리고 교통 이용하기 불편. 딱히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 같지 않음. 아파트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이 생기면서 술 취한 사람이 많이 다녀 무섭고 시끄러움. 대중교통에 만족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음.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음. 아침 저녁 시간 인구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는 버스를 좀 더 많이 운행해서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음. 배차시간 불규칙. 버스시간 너무 많이 걸림. 버스 노선 짧은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음. 버스비용 부담. 외곽지역 투자.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수목원과 나무가 많아져서 좋음. 공기가 좋아 좋음(원내동). 아파트가 많이 변하고 있음. 도색이 예전에 비해 밝은 색으로 변하고 있고 주차시설도 넓히고 목원대 근처 여가 시설이 생겨 좋음.
행복	행복 점수	평균 7.2점
	행복에서 한발짝 뒤	대학생활과 친구와의 관계도 좋지만 항상 똑같은 게 아쉬움. 변화 필요. 시험공부나 과제 힘들. 서울과 같은 큰 무대로 나가지 못해 아쉬움. 혼자만의 여가생활 필요. 여자 친구와 관계 좋지 않음. 몸과 마음 모두 피곤하고 힘들.
	행복이란	지금 상황이 즐겁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내 마음이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편하게 지내는 것 소소한 것.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으로 느끼기에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 자기만족.

## 7) 청년전기(20-30) - 취업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하여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을 탐색해 보았다. 재정 영역에서부터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다. 응답자 중 5명이 급여에 대해 답변하였는데,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3명은 만족한다고 하였고, 1명은 불만족하다고 하였으며, 1명은 만족할 때

있고,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다고 하였다. 소득의 대부분은 방값, 음식비, 여가생활비, 적금 등으로 지출된다.

고령 영역에서는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고용형태, 일하는 시간, 불만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취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안의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번 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을 선택했다는 경우들도 있었다. 5명 모두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쉬는 시간이 적어 힘들다고 하였으며,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용어를 외워야 해서 힘들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주거 영역은 주거형태와 만족도, 불편한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거형태는 3명이 부모와 살고 있었으며, 1명은 자취, 1명은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거형태에 대해 3명은 만족, 2명은 불만족하고 있었다. 불편한 점으로는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 이동하기 힘든 점, 집이 철도 근처라 소음이 심함,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과 떨어져 있어 여가생활을 하기 불편함 등이 있었다.

건강 영역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신체 건강에서는 3명은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였으며, 1명은 아토피, 1명은 허리통증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였다. 정신 건강에서는 1명이 직장 친구의 자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하는 일로는 대부분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들었지만,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육 영역에는 직장 내 교육과 교육 욕구, 교육제도의 문제점 등이 포함되었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는 3명이 취업을 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언급하였으며, 1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교육에 대한 욕구는 응답자 모두가 욕구가 없다고 하였으며, 1명은 굳이 배워야 한다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대학 진학은 소득이 안정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경우 가겠다고 하였다.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고등학교의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과 대학 등록금을 언급하였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 경험, 개선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직장에서 받는 서비스 정도만 알고 있었다. 이들이 직장에서 받는 사회서비스로 언급한 것은 복지 및 의료비, 놀이동산 할인 정도였다. 개선점으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 정도가 제시되었다.

공공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불편사항,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용 중인 공공서비스로는 대중교통, 직장에서 지원하는 헬스장, 타슈 등이 언급되었으며 관심과 시간이 없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었다. 불편한 서비스로는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과 공원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늘리고 공원 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제시되었다. 가족 관계에서는 1명이 원만하다고 한 반면에, 3명은 가족 관계에서 마찰이 있다고 하였다. 친구 관계에서는 대부분이 원만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에 직장 동료들과 관계는 대부분이 원만한 편이라고 하였으며, 같이 취업한 동기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도 원만하다고 하였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대화하기 힘든 점과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여가생활 영역은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과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평일에는 여가생활을 하기 힘들어 했으며, 주로 주말에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즐긴다고 하였으며, 종교생활을 언급한 경우들도 있었다. 응답자 중 4명은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1명은 우리나라 여가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다수인 4명이 소속감이 없다고 하였다. 좋은 점으로는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을 들었다. 개선점으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친해지기 위해 지역행사를 늘리고,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며, 여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 주변에 모텔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행복 점수는 평균 9.2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 기준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였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표 4-3-7〉 취업 중인 청년전기 성인들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일정한 수입	일정한 수입이 있음(5명: 월급 100~150만원).
	일정한 수입에 대한 만족도	일정한 수입에 대하여서 만족함(3명: 일정한 수입에 비하여서 불편한 점이 없음). 일정한 수입에 대하여서 불만족함(1명: 월급이 적음). 일정한 수입에 대하여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불만족하기도 함(1명).
	대부분의 지출	방값, 음식비(2명). 여가 생활비(3명). 적금.
고용	학업 대신 취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2명). 집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업을 선택함. 돈을 번 후 공부를 하기위해서 취업을 선택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을 선택함.

영역	개념	의미단위
	고용 형태	정규직(5명).
	일을 하는 날짜 및 시간	주 5일 근무제임.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함(2교대로 나누어서 함).
	직장에서 불편한 점 및 힘든 점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에 비하여 쉬는 시간이 적어 힘들.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약에 대한 용어를 빨리 외워야 돼서 힘들.
주거	주거 형태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음(1명). 직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음(1명).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3명).
	주거 형태에 대한 만족도	주거 형태에 대하여 만족함(3명). 주거 형태에 대해 불만족함(2명).
	주거 형태에 불편한 점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 이동하기 불편함. 집 주변이 철도근처라 소음이 심함.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불편함.
건강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음(1명). 허리가 자주 아프고 식사를 빨리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자주 일어남(1명).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 없음(3명).
	정신적인 스트레스	직장 친구의 자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음(1명).
	건강을 위해 하는 일	대부분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함(직장에서 지원을 하지만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음).
교육	직장에서의 교육	취업을 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받음(3명: 입사교육, 사전교육, 안전교육). 특별한 교육 받지 않음(1명).
	교육에 대한 욕구	교육에 대한 욕구 없음(5명: 굳이 배워야 한다면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함(1명)). 대학 진학은 소득이 안정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경우 가겠다고 함.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고등학교의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됨(2명). 대학 등록금이 대학 교육에 가장 큰 문제점임(1명).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식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적음. 직장에서 지원 받는 서비스만 알고 있음.
	지원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직장에서 받는 사회서비스가 있음(복지 및 의료비, 놀이동산 할인 등 직장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받고 있음). 직장에서 받는 서비스 빼고 받는 사회서비스는 없음.
	개선되어야 할 점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함. 의료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함.
공공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출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함. 직장에서 지원하는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1명). 타슈를 이용하고 있음. 관심과 시간이 없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1명).
	불편한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막차 시간이 너무 짧음(2명).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기 불편함.
	개선되어야 할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의 막차시간을 늘려야 함. 공원 화장실 개선.
관계	가족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함(1명).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음(3명).
	친구 관계	대부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
	직장 동료 관계	대부분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함. 자신과 같이 취업한 친구들과는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가 원만함.

영역	개념	의미단위
	관계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서 가족과 대화하기가 힘들(평일에는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 집에서는 계속 쉬기 때문). 피곤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짜증을 냄.
여가생활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	평일에는 여가생활을 즐기기가 힘들고, 친구들과 주말에 노는 것으로 여가생활을 즐김(5명). 주말에 종교생활을 함(2명).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현재 자신이 즐기는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함(4명: 직장에서 놀이동산 할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좋음). 우리나라 여가문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1명).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음(4명).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음(1명).
	지역사회의 좋은 점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이 좋음.
	지역사회가 개선해야 할 점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지역 행사를 늘리고,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함.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함. 학생들이 다니는 곳 주변에 모텔이 너무 많다고 함.
행복	행복 점수	평균 9.2점
	행복에 대한 기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2명).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 행복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
	기준에 대한 만족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기준에 만족하고 있음.

## 8) 청년후기(31-40) - 미혼

미혼 상태인 청년 후기 성인들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에서는 다수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소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또한 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고용 영역은 현재 직업 유무와 불만족, 만족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에 대한 불만족 요소로는 비정규직이라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 두어야 함, 먹고 살기 위한 직업임, 일 자체가 힘들, 일이 너무 고되고 돈도 많이 되지 않음 등이 있었다. 만족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만족하며 상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없음,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음, 공부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음 등의 요인들이 거론되었다.

주거 영역은 거주형태와 만족/불만족 요인으로 이루어졌다. 거주형태를 보면, 3명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1명은 기숙사형 생활관, 1명은 회사에서 주거비를 지불해준다고 하였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냉난방 문제, 교통과 편의시설 부족, 낙후된 지역, 자유가 없음, 안전 미흡 등이 제시되었으며, 집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 등의 이유로 만족하는 이들도 있었다.

건강 상태는 대부분이 몸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례가 하나 있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지만 해소도 잘 하고 있다는 이, 결혼과 다이어트 때문에 참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이가 있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건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지만 의료서비스의 친절과 품질 개선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모든 병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도 있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경로로는 운동, 수영과 등산 등이 언급되었다.

교육 영역에 대해서는 불만족,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만족 경험 등이 제시되었다. 불만족 요소로는 어렸을 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예전 교권하락과 교사들에 대한 불만, 대학 등록금, 체벌, 지나친 교육열, 틀에 갇힌 교육 등이 있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거나 자녀가 생긴다면 사교육을 시키고 싶거나 자녀가 원하는 것이 공부보다 지원해 줄 생각이 있다는 응답들이 나왔다. 만족 요인으로는 무상교육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들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수가 모르고 있고 체감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소수는 직접 받는 서비스는 없지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으로는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고, 노후 복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이용해 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이 있는 시설로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정도가 언급되었으며, 역시 다수가 공공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이용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차장 확보가 잘 안돼서 불법주차가 심하다는 의견과 인터넷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불친절하다는 의견도 거론되었다.

관계 영역은 다양한 영역의 관계들이 거론되었는데, 다수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일부는 관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가족, 친구, 직장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웃관계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이 크고, 가족과의 믿음이 중요하며, 모든 관계에서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 직장 내부에 경쟁이 있으며 비공식 하위집단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사례, 부모님이 아이 취급하는 데 대한 불만을 지적한 사례, 종교적인 이슈로 인한 갈등을 지적한 사례 등이 있었다.

여가생활 영역은 불만족, 원하는 여가생활, 현재 여가생활 등으로 구성되었다. 불만족 요소로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음, 아르바이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함 등이 있었다. 원하는 여가생활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여가생활을 하고 싶고, 스마트폰에 시간이 빼앗겨 답답하며, 남는 시간이 끼워맞추는 것 같은 느낌 등이 언급되었다.

현재 여가생활로는 등산, 수영, 사진, 친구들과 만남, 영화보기 등이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는 소수가 답변하였는데, 1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다고 하였고, 1명은 노동자 연대모임에서 소속감이 조금 있다고 하였으며, 2명은 소속감이 없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족요인으로는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음, 참여할 기회도 없고, 참여를 시켜주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지 않음,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고 반복됨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전통적인 문화가 필요하며, 체육 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사례의 경우 백화점 무료셔틀 버스가 운행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행복 영역에 대해서는 다수가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였고, 행복의 조건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일의 만족도, 긍정적 마인드, 비움, 관계와 사랑, 좋은 배우자와 좋은 가정 등이 언급되었다.

〈표 4-3-8〉 미혼자인 청년후기 성인들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돈에 집힌 노예	다수가 수입에 대해 불만족(7). 소수가 부채가 있음(3).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고용	현재 직업의 유무	다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7).
	직업에 대한 불만족	4). 비정규직이라 그만두라고 할 때 그만 뒤야함. 살기 위한 직업. 부모님을 상대하거나 청소하는 일이 힘들. 일이 너무 고되고 돈도 많이 되지 않음.
	직업에 대한 만족	(3). 만족하며 상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없음.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음. 못했던 공부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음. 현 직업 만족도는 높으나 자신이 가진 스펙과 직장에서 원하는 스펙이 맞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느낌.
주거	거주	부모님과 함께 거주(3). 기숙사형 생활관(1). 회사에서 주거비 지불(1).
	거주지의 만족/불만족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움. 지하철이 멀어 불편. 편의시설이 부족. 집이 부채이지만 집장만 하기 힘든 요즘 집이 있다는 것과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 낙후된 지역이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치열하다고 생각함. 부모님과 함께 살아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안전미흡 독립하고 싶음.
건강	현재 건강 상태	다수가 큰 이상이 없다고 응답(6). 비만. 잔병 외에는 건강.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세 군데 있음.
	스트레스	스트레스 잘 받지만 해소도 잘 하고 있음. 결혼생활 다이어트 참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
	의료서비스에 대한 생각	특별히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지만 의료 서비스의 친절과 품질 개선 필요하다고 느낌. 모든 병이 전부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스트레스 푸는 경로	운동, 수영과 등산.

영역	개념	의미단위
교육	불만족	어렸을 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옛날에 비해 교권하락과 사명감 없는 교사들이 많아 불만. 대학도 학비를 줄여 무상교육을 했으면 좋겠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음. 학비와 체벌 문제. 과거에 비해 지나친 교육열. 사람은 다양한데 똑같은 틀에 맞춰 가두고 성공 지향적 자본주의적 틀 안에 맞게 만든다고 생각이듬. 교권은 선생님들의 인성교육부터 받은 후에 교육을 받으면 교권이 올라간다고 생각.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현 교육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음. 자녀가 생기면 사교육 시키고 싶음. 자녀가 원하는 것이 공부만 아니어도 지원해 줄 생각 있음.
	만족	아이들 무상교육제도가 생겨 어린이집 운영도 좋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졌다고 생각. 자신이 배움의 의무가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좋음.
사회서비스	체감 할 수 없는 서비스	다수가 사회서비스에 대해 모르며 체감할 수 없다고 대답(5). 직접 받는 서비스는 없지만 사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음.
	불만	사회 서비스 홍보가 안 돼 있어 불만. 노후에 대한 복지가 잘됐으면 좋겠음. 이용해 본 빈도도 낮고 관심도 없음.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이용	체육시설. 공영 주차장.
	불만	다수가 공공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이용도 잘 안함.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값이 싸나 많은 개선 필요. 분명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잘 알지 못해 불만.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돼서 불법주차 심함. 공공서비스에 대해 알려면 인터넷을 이용해야 알 수 있어 홍보가 필요. 불친절함.
관계	가족 이웃 친구 직장 관계	다수가 만족하는 편(8).
	관계의 중요성	가족 친구 직장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웃관계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음(2).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 가족과의 믿음 중요. 모든 관계에서 소통과 배려가 중요함.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직장 내부에 경쟁이 있으며 개인적인 면에서 무리 짓는 경향이 있음. 부모님이 아이취급 하는데 불만이 있음. 기독교 집안이라서 가족 구성원 중 주일 성수 예배를 잘 지키지 않아 문제 일어날 때가 있음.
여가생활	불만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음. 아르바이트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함. 여가시간을 즐기에는 근무시간에 너무 방해가 됨.
	내가 원하는 여가 생활	자신이 하고 싶고 배우는 여가생활을 하고 싶음. 스마트 폰에 시간을 거의 뺏기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낌.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끼워 맞추는 것 같음.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고 싶음.
	여가 생활	등산 수영 사진공부. 친구들 만남. 영화보기.
지역사회	소속감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음(1). 노동자 연대모임에서 활동 소속감이 조금 있음(1). 소속감이 없음(2).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과 불만	다양한 서비스 기구 필요. 문화적인 것이 많이 발달했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음. 대전에 전통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음. 참여할 기회도 없고 참여를 시켜주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음. 체육시설을 늘려 스트레스를 풀고 싶음.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지만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은 아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지내고 있음.

영역	개념	의미단위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백화점 무료셔틀 버스가 운행됐으면 좋겠음.
행복	행복 점수	다수가 만족. 행복하다고 느낌.
	행복 조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의 만족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야함. 비위내는 것이 필요. 행복의 기준을 물질이 아니며 관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 9) 청년후기(31-40) - 기혼

청년 후기에 있는 기혼자들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에서는 대부분 재산이 없었으나 1명은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교육비, 의료비, 월세, 보험료, 대출비, 공과금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물가가 비싸다는 점을 불만족스러워했으며, 3명은 주택 마련으로 인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고용 영역을 보면, 응답자 모두가 서로 다른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수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이용해 보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주거 영역은 만족스러운 점, 불편한 점,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문화공간이 충분하다는 점과 수목원, 엑스포, 교통편리, 흉악범죄가 없음 등이 언급되었다. 불편한 점으로는 층간소음과 지하철 노선이 적다는 것, 정보가 늦음, 편의시설 부족, 교육시설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중상위층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마련 서비스 이용시 이자가 낮아 좋았지만 맞벌이 후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쉽다고 하였으며,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상태와 서비스, 바라는 점, 불만족, 보건소에 대한 인식 등이 나타났다. 현재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사례의 경우 당뇨병이 있지만 국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의료서비스에 바라는 점으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 산재보험이 단기간만 적용되며, 2인 직장이라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점을 들었고,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길 바란다는 답변도 있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며, 접수 예약시에도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을 들었고, 국가 차원의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일반

병원보다 질이 좋지 않은 약을 쓸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편견도 있었다.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나타났다.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지적인 수준만 높이는 교육이며, 지역마다 교육 서비스의 질 차이가 나고, 국가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저소득층에만 교육 서비스가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소그룹 무상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최종학력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현재 교육제도의 해결책으로는 대기업과 고용주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제도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으로는, 들어본 적은 있으며, 단순 일회성으로 비용이 적은 대신 비전문적이고 고급화 과정으로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하였고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대전의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 불만족, 이용현황, 바라는 점 등이 다루어졌다. 먼저 대전의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서비스 차이를 느낌, 시민이 현실과 괴리를 느낌, 현장을 직접 살펴봐야 함 등의 진술이 언급되었다. 불만족 요소로는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의 부족, 사회복지사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부족,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가정은 필요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함,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음, 중산층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음, 공무원이 불친절함 등이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대중교통,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공원, 다자녀카드 등을 사회서비스로 이해하고 있었다. 대전의 사회서비스에 바라는 점으로는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힐 것, 보건소와 의료 정책, 교육복지 확대, 무상교육, 보건서 방역 시스템 강화 등이 있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우선 소속감이 없다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소속감 증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그저 먹고 노는 식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과 이웃 관계가 언급되었는데, 가족과의 관계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웃과 관계는 거의 없으며, 만약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하려면 늦은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사랑, 관심, 대화, 돈 등이 언급되었다.

여가생활 영역에서는 서울에서 한달에 한번씩 영화관을 개방하여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대전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시간, 물질, 시설 등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 점수는 평균 8.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자족, 소통, 대화, 신뢰, 종교, 꿈, 작은 기쁨, 물질, 마음가짐, 관계 등을 들었다.

〈표 4-3-9〉 기혼자인 청년후기 성인들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고용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목회자/초등학교 행정직-연구원/연구원/아동센터조리사/인테리어-사회복지사/프로그래머/유통업-은행/사회복지사-부동산 회사원/건설업/직장인-보육교사
	고용 프로그램 인식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해 보지 못함. 이용할 의향 있음
재정	재산	1억(1명). 대부분 재산 없음.
	지출 순위	교육비 의료비 월세 보험 대출비 공과금
	재정에 대한 불만족	물가가 비쌌
	부채의 유/무	자가 주택 마련으로 인한 부채(3명)
주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스러운 점	문화 공간 충분(2명). 수목원. 엑스포. 교통편리. 흉악범죄 없음
	주거환경 불편한 점	층간소음. 지하철 노선 적음. 정보 늦음. 편의시설 부족. 서구-교육시설 부족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들어본 적 있으나 서류상으로만 체크하여 정착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지원범위를 확대시켜 중상위층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서비스 이용 시 이자가 낮아 좋았지만 맞벌이 후 대상에서 제외됨. 홍보가 미흡함.
건강	현재 건강상태와 받고 있는 서비스	당뇨병 있지만 국가 지원 전혀 못 받고 있음
	의료서비스에 바라는 점	피부과, 성형외과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 산재보험 단기간만 적용. 2인 직장이라 자리를 비우지 못함.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치료비 총당 비람.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의사의 설명 불충분, 접수·예약시에도 대기 시간이 김. 간병인 서비스 소득 있어서 해당되지 않았음 시설을 이용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움. 국가 차원의 부모 교육 필요(주부 우울증 환자).
	보건소에 대한 인식	일반 병원보다 약을 안 좋은 것 쓸 것이라는 편견. 어려운 사람들만 간다는 편견.
교육	현 교육제도의 불만족	지적인 수준만 높이는 교육. 지역마다 교육 서비스의 질 차이가 남. 국가관 교육 부족. 사교육비 부담. 저소득층에만 편중된 교육 서비스의 제공.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받을 권리 있음
	교육서비스에 대해 바라는 점	세부적인 소그룹 무상 교육. 다양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최종학력이 현재 삶에 끼치는 영향	거의 없음

영역	개념	의미단위
	현재 교육제도의 해결책	대기업·고용주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제도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함
	지역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들어본 적은 있음. 단순 일회성으로 비용이 적은 대신 비전문적이고 고급화 과정으로 올라가기가 힘들.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이 다름.
서비스	대전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	유성구 출산율이 다른 구보다 높아서 받는 서비스의 차이를 느낌. 수준이 너무 높아서 현실 직시하지 못함. 시민이 현실과의 괴리감 느낌. 현장을 직접 살펴봐야함
	대전 사회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점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시설부족. 무상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돈이 다 들어감. 사회복지사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부족. 서류 상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가정은 필요해도 서비스 받지 못함(2명).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음. 중산층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없음. 공무원 불친절함
	대전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대중교통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공원 다자녀 카드
	대전 사회서비스에 바라는 점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폭 넓힘. 보건소. 의료 정책. 교육 복지. 예체능. 무상 교육. 보건소 방역 시스템.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소속감 있음(2명). 소속감 없음(6명)
	지역사회 소속감 증진을 위한 해결책	주민들 모임 활성화 홍보
	지역사회축제에 대한 인식	먹고 놀고 술 마시고 담배피고 그저 흥청망청함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족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접근성 떨어짐
관계	가족 관계	양호
	가족기능강화서비스에 대한 평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제공해야 함
	이웃 관계	거의 없음. 이웃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하려면 늦은 저녁에 했으면 좋겠음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	사랑, 관심, 대화, 돈.
여가생활	여가생활에 대해 대전시에 바라는 점	서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관 개방해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있음. 대전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함.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	시간, 물질, 시설.
행복	행복에 필요한 요인	가족, 소통, 대화, 신뢰, 종교, 꿈, 작은 기쁨, 물질, 마음가짐, 관계
	행복 점수	평균 8.5점

### 10) 장년기(41-65) - 남성

장년기 남성들의 경험과 그에 관련된 욕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 영역에서, 주거형태는 자가 대부분이며, 아파트와 주택으로 나누어졌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좋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대중교통, 자치구 재정 부족 등의 불만족 요소들

이 제기되었다. 한 사례의 경우 갑작스러운 전세난으로 자금이 부족해져서 부채가 생겼다는 언급도 있었다.

고용 영역과 관련한 불만족 요인들로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구매 활성화로 자영업자 수입이 거의 없으며, 구직자들이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려는 자세가 없으며, 근무시간에 비해 소득이 적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 영역을 살펴보면, 현재 재정상태는 일부 사례에서 5억, 3억, 1억 등 큰 차이로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문화비, 보험료, 통신비, 유흥비, 공과금 등이 제시되었으며, 다수는 부채가 없는 반면에 전세자금 대출로 부채가 있는 소수 사례도 있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이 별 볼일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

관계 영역에서는 대체로 가족관계는 원만하다고 하였으며, 자녀 혼사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경우가 있었다. 가족복지와 관련해서는 노후생활에 신경을 써야 하며, 각 가정에 상담사 연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강 영역의 경우, MRI 등 비싼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장 내 의사소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은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교육제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나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적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학벌주의 교육제도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서히 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교육은 상업화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교육제도에 바라는 점으로는 엘리트 교육을 지양하고 평균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해마다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탄탄한 체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면 책값을 포함한 학비가 완전히 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정치, 골프, 댄스 등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였다.

여가문화 영역에서는 현재의 문제와 불만족, 자원봉사 등에 대한 개념이 나타났다. 현재의 여가문화 문제로는 계층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급작스러운 성문화 개방과 인터넷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만족 요소로는 장소와 시설 부족, 근무시간이 길어서 여가시간이 없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일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만족, 수련, 심신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다양한 경험들이 제시되었다. 사회문제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는 분위기, 물질만능주의, 부모의 지나친 간섭, 과시적인 결혼식 문화

등이 거론되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는 지원이 적으며, 따라서 지방정부를 통해 기초적인 수준의 보완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입장이 소수 있었으며, 후원자들의 뜻에 맞게 기부금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복지에 대한 태도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0원도 줄 수 없으며, 무조건적인 복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어야 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겐 삶을 살아갈 재미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바라는 점으로는 건강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공서비스 영역에는 이용현황과 바라는 점, 불만스러운 점 등이 포함되었다. 이용현황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개선사항이나 불만족이 없다는 답변과 보건소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다는 소수 답변이 있었다. 바라는 점으로는 도서관 활성화만 언급되었다. 불만족스러운 점으로는 공무원 잉여 인력이 너무 많으며,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역사회 영역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활동, 소속감, 바라는 점 등이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는 정체감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관심이 없다는 이들이 있었다. 소속감 측면에서는 2명이 있음, 3명은 없음으로 답변하였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지역이 특화되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과 빈부격차 감소, 물가안정, 재정부문 확충, CCTV 확충으로 방범 강화, 구도심 발전, 주차문제 해결 등을 들었다.

장년기 남성들이 경험하는 행복이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몸의 건강, 빛이 없이 만족하며 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즐기는 것, 손질이 증가하는 것, 삶의 여유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부모-자식 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자기 만족 등이었다.

〈표 4-3-10〉 장년기 남성의 경험

영역	개념	의미단위
주거	주거형태	자가 아파트 주택
	주거환경 중 만족하는 점	좋은 공기와 환경 깨끗함
	주거환경 중 불만족스러운 점	대중교통이 너무 멈. 대덕구 재정 부족 지역이라 자금 순환 저조함.
	주거복지사업 이용과 평가	주거복지사업에서 갑작스러운 전세난으로 자금 부족 부채 생김.
고용	고용에 관해 불만족스러운 점	대형마트, 인터넷 구매 활성화로 자영업자 수입 거의 없음. 구직자들이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려는 자세 거의 없음. 직장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자영업자에게 직장복지는 다른 나라 얘기임. 근무시간에 비해 소득 적음.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고용프로그램 인식과 이용	알고는 있지만 이용해본 적 없음
	현재 재정상태	5억 3억 1억
	지출 순위	생활비 교육비 문화비 보험 통신비 유희비 공과금
	부채 유/무	부채 있음(1명-전세자금대출금). 부채 없음(3명)
관계	노인연금에 대한 인식	연금 별 불일 없음.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없음.
	가족관계	양호. 원만.
	가족문제	자녀 혼사 문제
건강	가족복지	노후 신경 써줘야 함(2명). 각 가정에 상담사 연결(이혼가정).
	의료복지	MRI 등 비싼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
	현재 건강 상태	양호
교육	스트레스	직장 내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생각	인성교육 중요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성적임.
	현 교육제도에 대한 생각	학벌주의 교육제도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생각. 서서히 변해야함. 급해지면 그것은 변화가 아닌 혁명임. 사교육은 상업화임.
	교육제도에 대해 바라는 점	엘리트 교육 지양, 평범한 수준 향상. 해마다 바뀌는 교육제도가 아닌 탄탄한 체계의 제도 필요(2명). 중학교 의무교육이라면 책값, 학비 완전히 무상이어야 함.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생활 적용. 남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
여가문화	받아보고 싶은 평생교육과목	정치 골프 댄스
	여가문화 문제	계층간 격차 커지고 이동 불가능하게 된 통합 불가능 사회. 급작스러운 성문화 개방. 인터넷 문제.
	여가문화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점	장소 시설 부족. 근무 시간 과해 여가시간 없음.
	자원봉사 기대효과	자기만족. 수련. 심신 건강해짐.
사회서비스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 보완	서로 공생하면서 부족한 점 보완해야함.
	사회문제	성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는 분위기. 물질 만능. 부모의 지나친 간섭. 과사적인 결혼식 문화
	사회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점	지원 적음. 지방 정부 통해 기초보완 필요. 사회 곳곳 청결 유지.
	복지에 대한 서비스 평가	부정적. 후원자들의 뜻에 맞게 기부금 써야함.
	복지에 대한 태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10원도 줄 수 없음. 무조건적 복지 반대. 말만하는 복지 반대.
	복지에 대한 생각	어느 한 쪽만 치우친 것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에겐 실질적 경제적 도움이 되어야하고 여유로운 사람에겐 삶을 살아가갈 재미를 제공해야함.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해 바라는 점	건강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 홍보
	이용현황	관심이 없어 개선·불만족 없음. 보건소 등 기본서비스만 이용(2명).
	바라는 점	도서관 활성화
공공서비스	불만족스러운 점	공무원 잉여 인력이 너무 많음. 연중 국가 행사 중 국기 게양할 때 국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함. 낮에 전등을 켜놓는 등 에너지 소모가 심함.

영역	개념	의미단위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정체감 불만. 관심 없어 불만, 개선점 없음.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	방위협회. 기관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속감	있음(2명). 없음(3명).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지역 특화되어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함. 빈부격차 감소. 물가안정. 재정부분 확충. CCTV 확충으로 방범 강화. 구도심 발전. 주차 문제 해결.
행복	행복이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몸 건강. 빚 없이 만족하며 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즐기는 것. 수입이 증가하는 것. 삶의 여유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부모 자식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자기 만족.

### 11) 장년기(41-65) - 여성

장년기 여성들의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에서는 현재 재정상황과 과거 재정상황이 나타났다. 현재 재정상황을 보면, 수입의 대부분을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부업 등으로 생계를 돕고 있다고 하였다. 과거 재정상황에 대해 언급한 사례도 있었는데, 자녀 교육비로 지출이 많았지만 자녀가 독립한 뒤에는 생활이 편하다고 하였다.

고용 영역은 현재 고용상태와 근로 의욕으로 구성되었다. 10명의 참여자 중 4명은 직장인이었으며, 6명은 전업주부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들 중 2명은 일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주거 영역은 주거지 유형과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거지는 대부분 아파트였으며, 불만족 요소로는 화장실의 수, 쓰레기 분리수거, 빌라 사생활 침해, 집 주변 유흥업소 등이 있었다.

건강 영역은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치료비용 처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질병으로는 저혈압, 불면증, 결핵, 공황장애 등이 거론되었다. 치료비용 처리방법은 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교육 영역은 최종학력,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체벌에 대한 생각, 자살과 집단따돌림에 대한 생각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8명, 대졸이 2명이었다. 현재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으로는 지나친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과 인문/이공 계열로만 나누지 말고 다양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체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자살이나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인식 정도, 불만족, 바라는 점 등으로 구분되었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사회서비스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불만족 요소로는 전산시스템 투명도가 오히려 자영업에 피해를 줌, 홍보 부족과 직접 받는 서비스 부족,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휠체어 경사로 부족, 많이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함, 문화적 혜택 부족함, 국립과학관이 20년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개발 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등이 있었다. 사회서비스에 바라는 것으로는 대중교통 노선 증가,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 해결, 노인복지 확대 등이 언급되었다.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가 이웃관계가 탐색되었다. 가족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이웃관계의 경우 직장인들은 이웃과 관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가생활 영역은 현재 여가활동과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장년기 여성들은 직장과 살림 등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과 영화감상 등이 언급되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가로등 순찰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거론되었으며, 지역사회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녀회 참석이나 봉사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족 요소로는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주차문제, 낮은 시민의식 등이 있었다.

주관적인 행복 수준은 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행복의 요인은 가족이었다. 또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순간이라고 하였다.

〈표 4-3-11〉 장년기 여성들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현재 재정 상황	수입의 대부분을 그대로 지출함. 현재 생활비 부족하다 느껴 부인이 생계 도움(2명).
	과거 재정 상황	자녀 교육비 지출 상당했지만 자녀 독립 후 생활 편함.
고용	현재 직업 상태	전업주부(6명). 직장인(4명)
	근로 의욕	있음(2명)
주거	주거지 유형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	화장실 1개. 쓰레기 분리수거. 빌라 사생활 보호. 유흥업소 많음.
건강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저혈압 불면증(일본 사이비 종교를 접한 후 발병함) 결핵 공황장애
	치료비용 처리 방법	보험에 의존. 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부담이 큼.
교육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8명). 대학교 졸업(2명)
	현재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	지나친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줌. 인문/이공으로만 나누지 말고 다양한 배움 필요.
	체벌에 대한 생각	체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살·왕따에 대한 생각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함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인식 정도	정확한 의미 잘 모름

영역	개념	의미단위
	사회서비스 불만족	전산시스템 투명도가 오히려 지영업 사업에 피해를 줌. 홍보와 직접 받는 서비스 부족함. 다양한 서비스 부족함. 휠체어 경사로가 부족함. 많이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함, 실제 파악해야함. 문화적 혜택 부족함. 국립과학관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개발프로그램의 홍보 부족.
	사회서비스에 바라는 점	대중교통 노선 증가.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노인복지
관계	가족관계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함
	이웃관계	직장인들은 이웃과의 관계없음
여가생활	현재 여가활동	직장·살림 등으로 여가생활 즐기지 못함
	하고 싶은 여가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영화감상.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가로등 순찰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소속감 증진을 위한 노력	부녀회 참석. 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 높임.
	지역사회 불만족	교통체증.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낮은 시민의식.
행복	가장 큰 행복의 요인	가족
	가장 행복한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행복 점수	상

## 12) 노년전기(65-80) - 부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노년 전기 어르신들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은 수입과 지출, 수입에 대한 만족도로 살펴보았다. 응답자 다수는 수입이 없었으며, 3명은 노인 도우미로 매달 20만원의 수입이 있고, 자녀들에게 받거나 노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다. 소수 사례는 14-50만원 정도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은 식비, 병원비, 의류구입비, 생활비 등이었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다수가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고용 영역에서는 다수가 직업이 없었으며, 3명이 지하철에서 노인 도우미를 하고 있었고, 1명은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 다수는 늙고 힘들어서 고용에 대한 욕구는 없다고 하였으며, 늙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주거 영역을 보면, 거주지는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다양했다. 거주지 환경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갑천 때문에 공기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한 사례도 있고,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인근에 노인정이 없어 불편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고 답변하였다.

건강 상태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한 군데 이상 불편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 무릎, 치아, 잔병치레, 눈의 통증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안좋아 붙안하고 애가 탄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의료비용의 문제도 있다. 의료비가 많이 든다고 경험하는 사례들도 있고, 수급자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며, 복지관에서 매달 무료 의료서비스를 해준다는 경험을 말한 사례도 있다. 다만 외과에서 치과까지 한 명의 의사가 다 진료를 하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수영을 한다는 어르신도 있었으며, 도우미 활동을 하는 이들은 일을 하면서 걷고 많이 움직인다고 하였다.

교육 영역은 학력, 평생교육에 대한 불만, 평생교육 경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도 있었지만 복지관을 통해 노인대학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아본 경험, 봉사단 활동 경험, 배제 경험을 가진 이도 있었다. 평생교육에 대한 불만으로는 전문화된 교육을 시킨다고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데 노인들에게 도움이 안되며 어려움, 많은 노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 외래어를 쓰지 않고 쉽게 홍보를 해야 함, 구체화되어야 함, 평생교육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위를 보고 함 등이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년 전기 어르신들이 경험한 서비스로는 지하철 우대권, 의료혜택, 무료급식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어르신들은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옛날에 비해 노인에게 주는 서비스와 복지가 많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따로 원하는 서비스는 없고 연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구체적,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서비스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와 이웃관계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응답자들은 모두 원만하다고 답변하였다.

여가생활 영역은 현재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과 여가시설, 문제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여가생활로는 복지관의 요가, 노래교실, 노인도우미 봉사활동, 책 읽기, 게이트볼, 여행 등이 언급되었다. 여가시설로는 다수의 응답자가 복지관에서 여가생활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손자를 돌봐야 하고, 눈이 어둡고 배우지 못해 활동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점, 병원 다니느라 여가생활을 할 수 없음, 하고 싶은 것이 없음 등이 언급되었다.

지역사회 영역은 소속감, 만족, 불만, 바라는 점 등으로 개념화되었다. 다른 집단들과는 달리

이 집단에 속한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높았다. 만족하는 어르신들은 대전을 사랑하고 소속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하였으며,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고도 하였다. 대전이 살기 좋고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다. 복지관이나 여가생활을 같이 하는 집단에서만 느낄 뿐 다른 곳과 지역사회에서는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몸이 아파 소속감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고, 일자리 창출, 가정이 편안한 집은 복지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정작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지원이 저들에게까지 미쳤으면 좋겠다는 바람 등이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년 전기 어르신들의 행복 점수는 평균 6.3점이었다. 이들의 경험하는 행복의 의미는 건강, 욕심 안 부리고 생이 다할 때까지 더 많이 아프지 않고 신세 안지고 살다가 가는 것, 남을 위해 베풀고 사는 삶, 근심이 없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가 없고 신경 안쓰는 것 등이었다.

〈표 4-3-12〉 노년 전기 부부의 경험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수입	다수가 수입이 없음. 노인 도우미 매달 20만원(3), 자녀들에게 받음. 노인연금 매달 9만원. 퇴직 연금 2~300만원(2), 14~50만 원 정도 일을 하고 받고 있음.
	가장 큰 지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은 식대, 병원비, 의료, 생활비.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다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고용	직업의 유무	다수가 직업이 없음. 3명이 지하철에서 노인 도우미를 하고 있음. 1명은 베이비시터.
	고용에 대한 욕구	다수가 늙고 힘들어 고용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함. 늙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대답.
주거	거주지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거주지 환경	주변에 갑천이 있는데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음. 지역에 대한 개발 필요. 노인정이 없어 불편.
	거주지 만족도	다수가 그러저러 괜찮다고 말씀하심.
건강	건강상태	허리랑 무릎, 치아. 잔병이 많음, 눈. 응답자 중 절반 정도 불편한 곳이 있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몸이 안 좋아 불안하고 애가 탐.
	의료비용	의료비가 많이 듦. 수급자로 나라에서 지원. 복지관에 매달 무료 의료서비스를 해줌. 그러나 외과 치아까지 한 의사가 다 진료함.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왔으면 좋겠음.
	운동	아침마다 수영. 도우미 활동을 하며 걷고 많이 움직임.

영역	개념	의미단위
교육	학력	중학교졸업(2). 초등학교졸업(1). 고등학교졸업(1). 대학교 졸업(3). 전혀 교육 받지 못함(2).
	평생 교육에 대한 불만족	전문화된 교육을 시킨다고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데 노인들에겐 도움이 안 되며 어려움. 많은 노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 외래어를 쓰지 않고 쉽게 보도가 되어야 함. 구체화 되어야 함. 평생교육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위를 보고 함.
	평생교육	복지관을 통해 노인대학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아봄. 들어본 적 없음. 대전 평생교육 금빛봉사단에서 매일 활동하고 듣고 있음. 복지관을 통해 전문교육을 받으려 했으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함.
사회/공공 서비스	지원 받는 서비스	지하철 우대권, 의료혜택. 무료 급식.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서비스	다수가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용해 본 적이 없음. 옛날에 비해 노인에게 주는 서비스와 복지가 많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대답.
	원하는 사회/공공서비스	따로 원하는 사회서비스는 없고 연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함. 구체적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음. 너무 형식적임.
관계	가족/이웃 관계	모두 관계 원만.
여가생활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	복지관에서 요가. 노래교실. 복지관에서 노인 도우미(봉사활동). 책읽기. 게이 트볼. 여행.
	여가시설	다수가 복지관을 통해 여가생활을 많이 보냄.
	문제점	손자들을 돌봐야 하고 어둡고 배우지 못해 활동하는 것을 잘 못해서 여가생활을 하지 못함. 병원 쫓아다니느라 여가생활 할 수 없음, 하고 싶은 것도 없음.
지역사회	소속감	절반 이상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음(6).
	만족	대전을 사랑하고 소속되어 있다고 느낌.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함. 살기 좋고 환경 좋고 공기도 좋음,
	불만	별로 소속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음. 복지관이나 여가생활에 속해있는 곳에서 느낄 뿐 다른 곳에서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음. 몸이 아파 소속감에 대한 생각이 없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음. 일자리 창출 필요. 가정이 편안한 집은 복지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정작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함. 지원이 그 분들에게 미쳤으면 좋겠음.
행복	행복 점수	평균 6.3점
	행복으로 한 걸음	건강. 욕심 안 부리고 생이 다할 때까지 더 많이 아프지 않고 신세 안지고 살다가 가는 것. 남을 위해 베풀고 사는 삶. 근심 없고 깊숙히 생각하지 않는 것. 스트레스 없고 신경 안 쓰는 것.

### 13) 노년 전기(65-80) - 단독

배우자가 없는 노년 전기 어르신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은 수입과 재정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수입에 대해서는 4명이 노인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2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1명은 일정한 수입이 없다고 하였다. 재정 수준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은 직업 유무와 직업 욕구로 구성되었다. 직업 유무에 대해서는 2명이 직업이 없다고 하였으며, 몸이 건강하지 않아 일을 못한다고 하는 이도 있었고, 1명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 직업 욕구에 대해서는 1명이 직업을 가지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였다.

주거 영역은 거주형태와 불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거주형태는 전셋집이 1명, 아파트 1명, 개인 주택 2명이었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비싼 난방비, 혼자 살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움 등이 제시되었다.

건강 영역은 건강상태, 건강을 위한 활동, 정신건강 등으로 이루어졌다. 건강상태를 보면 2명이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 중풍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한 이도 있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는 복지관의 물리치료와 운동 프로그램, 다른 운동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가족이 보고 싶어서 힘들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만 제시되었다. 한 사례가 복지관에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생각, 필요한 서비스 등의 개념이 나타났다. 만족도의 경우 복지국가라면서 자신이 받는 서비스가 없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현재 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사회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고,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해준다는 답변도 많았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필요한 서비스로는 재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을 위한 서비스 지원, 노인들을 직업지원 서비스, 재정적, 물질적인 직접적 서비스, 단독 노인들을 겨울철 난방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와 공공시설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복지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도 높고, 복지관의 수준이 높고 청결상태가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복지관만큼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계 영역은 지역주민들과 관계, 즐기는 모임생활, 복지관 직원들과 관계로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고 하였으며, 동창회나 동문회 등 여러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였고, 복지관 직원들과도 관계가 좋다고 하였다. 여가생활 영역에는 즐기는 여가생활과 즐기고 싶은 여가생활로 구성되었다. 즐기는 여가생활로는 복지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1명은 즐기고 싶은 여가생활이 없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5명이 복지관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도 복지관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답변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해 특별히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건강, 자기 일에 만족,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이었다.

〈표 4-3-13〉 노년 전기 단독 노인들의 경험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일정한 수입	일정한 수입이 없음(1명). 노인연금을 받음(4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음(2명).
	재정 수준	재정 수준이 낮지만, 먹고 살만함(1명). 재정이 많이 부족함(1명).
고용	직업의 유무	직업이 없음(2명). 몸이 건강하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음. 직업이 있었음(1명 : 초등학교 교사).
	직업욕구	직업을 가지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일을 못함(1명).
주거	거주 형태	전셋집에 거주함(1명). 아파트에 거주함(1명). 개인주택에서 거주함(2명).
	거주 지역에 대한 불만	보일러 같은 난방비가 비싸서 잘 사용 못함. 혼자살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점(가전제품 등이 고장 났을 때)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어려움.
건강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2명). 증풍을 앓은 적이 있음. 몸이 건강함(1명).
	건강을 위해 하는 활동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음.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음(3명).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함(2명).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좋음. 가족이 보고 싶어서 힘들.
교육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받는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음(1명 : 일본어).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복지국가라면서 자신에게 오는 서비스가 없음.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음. 연금의 금액에 대해 만족함.
	서비스에 대한 생각	한국의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함. 국가에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잘해줌(4명). 2개월에 한 번씩 쌀이 지원됨.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함(1명).
	필요한 서비스	재정지원 서비스가 필요함(5명). 노년기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아동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야함. 노인들을 위한 직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재정적, 물질적인 직접적인 서비스가 부족함(2명). 겨울에 단독 노인들을 위한 난방 서비스가 필요함(3명).
공공서비스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가 높음(3명). 복지관의 수준이 높고 청결상태가 좋음(2명).
	공공시설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복지관만큼 수준이 높지 않음.
관계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복지관에서의 친구들과 사이가 좋음.
	즐기는 모임생활	동창회, 동문회 등 여러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남.
	복지관의 직원들과의 관계	노인들과 복지관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음.
여가생활	즐기는 여가생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음(아침체조, 요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여가생활을 즐김.
	즐기고 싶은 여가생활	즐기고 싶은 여가생활이 없음(1명).
지역사회	소속감	복지관에서는 소속감이 있음(5명).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복지관에서 만족도가 높음(2명).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한 불만점이 없음.
행복	행복의 조건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함.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임. 자신의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행복임.

#### 14) 노년 후기(81세 이상) - 부부

배우자가 있는 81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은 자산과 수입, 만족도, 지출 유형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 중 5명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수입 면에서는 6명이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연금의 형태였으며,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사례는 저소득층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이 벌어들인 돈으로 생활한다는 이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5명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3명은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지출 유형으로는 의식주에서 많은 지출이 나갔으며, 의료비는 지원을 많이 받아 상대적으로 적게 나간다고 하였다. 관리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제비, 교회 헌금 등도 언급되었다.

고용 영역은 직업 유무, 직업에 대한 욕구, 직업 경험, 노인을 위한 직업에 대한 배려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직업이 있는 사람은 2명이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4명이었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직업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건강과 나이에 대한 문제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며, 교직원 생활을 하다가 청소부 같은 일을 하려니 꺼려진다는 경우들이 있었다. 시니어 클럽을 통해 일을 한 경험을 가진 이도 있었다. 또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 영역은 주거형태와 주거에 대한 만족도, 거주 환경 등을 포함한다. 연구참여자들 중에서 6명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다는 이가 2명 있었다.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들은 아파트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편하다고 하였으며, 노인 둘이서 살기에는 아파트가 크지만 명절 때 친척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비닐하우스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외곽 지역이라 교통편도 멀고, 시장과 병원도 멀어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하였다. 주거지역의 환경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변에 자연환경이 좋아 운동을 하기가 좋다는 답변과 아파트가 오래되어 수리할 것이 많다는 답변이 있었다.

건강 영역은 건강 상태, 운동, 병원 방문, 의료시설 등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다는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소화불량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불편함 정도를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3명은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하였으며, 4명은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3명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 병원을 안다닌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전의 의료시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적재적소마다 병원이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교육 영역의 경우 최종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육의 영향

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이 나타났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글을 모르니 불편한 것이 많다는 이, 글을 아는 것이 사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 목회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 대학원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 승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이 등이 있었다.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들도 있었으며,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이도 있었으나, 교육 욕구가 없다는 이도 많이 있었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받는 서비스와 원하는 서비스, 불편한 서비스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지원받는 사회서비스로는 국민연금, 복지관 서비스, 청소와 반찬배달 서비스, 난방비 지원 등이 있었다. 원하는 사회서비스로는 거주지 주변에 복지관이 생겼으면 하는 것과 목회자를 위한 복지관, 노인들을 위한 목욕탕, 지하철 노선 확대 등이 있었다. 불편한 점으로는 지하철에서 우대권 발급을 할 때 주민등록증 분실 위험이 있다고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여부와 종류에 대한 언급들을 분류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6명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명은 구청에서 주부식, 보건소에서 약품 제공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관계 영역은 가족 관계와 이웃 및 친구 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 관계에서는 6명이 자녀와 떨어져서 지낸다고 하였으며, 1명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6명의 경우에도 4명은 자녀들과 관계가 원만하다고 한 반면에, 1명은 만나기가 힘들다고 하였고, 1명은 자주 집에 왕래한다고 하였으며, 1명은 자녀가 없다고 하였다. 이웃 및 친구 관계에서는 4명이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1명은 거주지역이 외곽지역이라 주변에 이웃이 없어 외롭다고 하였다.

여가문화 영역에서 어르신들은 집에서 TV 보기, 친구 만나기, 등산,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한 소통, 복지관 활동 등의 여가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여가시설로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음악회나 영화관 등이 제시되었으며, 노인들에게 맞춰진 여가시설이 적다고 하였다.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로는 비용문제와 불편한 몸을 들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으로는 우선 소속감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대전이 고향이거나 고향 같아서, 편안하고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쓰레기 관리, 대중교통 이용시 노인들을 위한 배려(서행운전과 노약자석 안내방송), 성폭행이나 범죄로부터 안전, 건물 이용시 배려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노년 후기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9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행복의 조건으로는 서로를 위한 양보, 평안함, 재산, 건강, 관계 등이 제시되었다.

〈표 4-3-14〉 배우자가 있는 노년후기 어르신들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개인 자산	개인 자산을 보유함(5명: 아파트, 집, 동산, 부동산, 4~10억).
	일정한 수입	일정한 수입이 있음(6명, 노인연금: 1명, 국민연금: 4명, 교직원연금: 2명, 자녀용돈: 2명, 약150만원: 1명, 약200만원: 2명, 약 300만원: 1명). 영세민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일정한 수입이 없음(1명 50만원). 일정한 수입이 없음(1명: 벌어놓은 돈(자산)으로 생활함).
	수입에 대한 만족도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3명). 한 달에 약 200~300만원이 필요함. 부족함 없음(5명).
	지출 유형	관리비, 의식주에서 많은 지출이 나감. 의료비는 지원을 많이 받아 적게 나감. 부수적으로는 교제비, 교회헌금비가 있음. 관리비에서 겨울에 보일러를 사용해서 더욱 부담이 됨.
고용	직업 유무	직업이 있음(2명: 남편이 수위 일을 함, 군부대나 학교에서 효에 대한 강의를 하고 수고비를 받음). 직업이 없음(5명).
	직업에 대한 욕구	직업에 대한 욕구가 있음(4명). 직업에 대한 욕구가 없음(1명: 하던 일을 그만 둔 뒤로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없음). 건강과 나이에 대한 문제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음. 교직원 생활을 하다가 청소부 같은 일을 하려니 꺼려짐.
	직업을 가진 경험	시니어 클럽이라는 것으로 일을 한 적이 있음(1명).
	노인을 위한 직업에 대한 배려	젊은 사람들은 힘이 드는 어려운 일을 해도 되지만 노인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게이트에서 돈을 받는 것처럼 쉬운 일을 소개해 주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음.
주거	주거 형태	아파트에서 거주함(6명).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함(2명).
	주거 형태에 대한 만족도	아파트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아파트가 편함. 아파트 주변에 마트와 천변이 있고, 교통편이 편함. 비닐하우스 근처에는 외곽 지역이라 교통편도 멀고, 시장과 병원도 멀어서 불편함,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움(1명). 노인 두 명에서 살기에는 아파트가 크지만 명절 때 친척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1명).
	거주 지역의 환경	아파트 주변에 자연환경이 좋아 운동을 하기가 좋음. 아파트가 오래 되어 수리할 것이 많음(1명).
건강	건강상태	소화가 안 되어서 불편한 점이 많음(1명).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많이 불편함(1명). 특별히 불편한 점 없음(5명).
	건강을 위한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함(7명). 걷기, 자전거, 등산을 함.
	병원 방문	병원에 자주 다님(3명). 소화문제와 혀에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자주 방문함(1명).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함(1명). 병원에 자주 방문을 안함(4명). 한 달에 한번 약을 사러 병원에 감(1명).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 병원을 안다님(3명).
	의료시설	대전 의료시설에 대해서 만족함. 적재적소마다 병원이 있음.
교육	최종학력	학력이 없음(1명). 초등학교 졸업(1명). 대학교 졸업(2명). 대학원 졸업(3명).

영역	개념	의미단위
	교육의 영향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글을 모르니 불편한 것이 많음(1명). 글을 아는 것이 사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됨(1명). 목회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1명). 대학원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음(1명). 승진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음(1명).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줌(1명).
	교육에 대한 욕구	교육에 대한 욕구 있음(2명). 시대에 늦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함. 교육에 대한 욕구 없음(5명).
	교육의 필요성	노인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함. 시대에 늦춰지지 않으려면 교육이 필요함.
사회서비스	지원받는 사회서비스	국민연금을 받음(2명). 복지관에 나가 서비스를 받음(1명).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와 반찬 서비스를 제공,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 서비스를 제공, 겨울에 난방비로 드럼통 하나 제공함(1명).
	원하는 사회서비스	거주 지역 주변에 복지관이 생겼으면 함. 목회자를 위한 복지관이 생기를 원함. 노인들을 위한 목욕탕이 생기를 원함. 지하철 노선이 더 많아 자기를 원함.
	불편한 사회서비스	지하철에서 우대권발급을 할 때에 주민등록증 분실 위험이 있음.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이용여부	사용 안함(6명), 공공서비스를 받음(1명: 구청에서 반찬과 쌀을 제공, 보건소에서 파스와 약품 제공).
	공공서비스 종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음. 구청에서 반찬과 쌀 제공, 보건소에서 파스와 약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음.
관계	가족 관계	자녀 없이 떨어져서 지냄(6명: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함(4명), 자녀들과 만나기가 힘들(1명), 자녀가 많이 부모 집에 자주 왕래 함(1명), 자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함(전화, 화상전화, 인터넷 등), 자녀가 없음(1명)). 자녀와 함께 생활함(1명).
	이웃, 친구 관계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함(4명). 거주지역이 외곽지역이라 주변에 이웃이 없음(1명: 외로움).
여가문화	즐기는 여가생활	집에서 TV보기, 친구 만나기, 등산 가기(5명).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함(1명). 복지관을 다님(1명).
	원하는 여가시설 및 생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음악회나 영화관. 노인들에게 맞춰진 여가시설이 적음.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	영화나 음악회를 즐기고 싶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함. 몸이 불편하여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를 못함.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자기의 고향 같음. 대전이 편안하고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소속감	대전이 고향이거나 고향 같아서 소속감이 높음.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쓰레기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함.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노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많았으면 함(노인이 탔을 때 서행 운전, 노인들을 위한 노약자석 안내 방송). 성폭행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이었으면 좋겠음. 아직 많은 건물들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함.
행복	행복 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 92점.

영역	개념	의미단위
	행복에 대한 조건	행복은 서로를 위해 양보하는 것(남편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 행복은 평안한 것(2명: 이웃과 자신의 평안,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짐). 행복은 재산(사람은 재산이 많으면 좋고, 행복한 시간만큼이 행복). 행복은 건강한 것(배우자가 지금까지 같이 살아 준 것이 행복). 만날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가족과 이웃,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함). 행복은 몸이 건강한 것.

### 15) 노년 후기(81세 이상) - 단독

배우자가 없는 노년 후기 어르신들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 영역은 수입, 지출, 만족, 자산 등에 대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수입으로는 노인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외에 자녀들의 용돈이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수입에 대한 만족감은 낮은 편이었다. 단독 노인이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100-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은 식비, 약값, 병원비 등이라고 했다. 특이한 것은 동창회, 예식장, 교회 헌금 등으로도 많은 지출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 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8명, 있다는 응답이 2명이었다.

고용 영역은 직업 유무와 고용 욕구, 직업교육 프로그램, 직업 경험으로 이루어졌다. 직업 유무를 보면 9명이 직업이 없었으며, 1명은 발전기 엔진 수리사 일을 하고 있었다. 현재 직업이 없는 9명 중 6명은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은 고용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고용 욕구가 없는 이들은 나이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고용 욕구를 가진 이들은 사무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 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소개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소개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명은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직업을 가졌던 어르신들은 고학력자들이었다.

주거 영역에는 주거형태, 거주지역 환경,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주거형태는 8명이 아파트였으며, 1명은 반지하, 1명은 개인주택이라고 답변하였다. 거주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교통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베란다에 매연 냄새가 남, 공원이 잘 갖춰져 있어 산책하기 편함 등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7명이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1명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원하는 주거형태는 없다고 하였다.

건강 영역에는 건강상태, 정신적 스트레스, 무료 시설과 서비스, 의료비용, 운동 등이 포함되

었다. 건강상태에서는 3명이 질병을 갖고 있었으며, 3명은 질병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4명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살펴보면, 전립선 암 때문에 2시간마다 소변을 봐야 해서 잠자리 스트레스, 의료비로 인한 스트레스, 노인정 회장직이나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언급되었다. 무료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으로는 보건소가 멀어 가기가 힘들, 건강 프로그램이 거의 진행되지 않음, 노인복지관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음, 병원비 할인, 병원이 가까이에 있음 등이 있었다.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에서 질병이 있거나 있었던 이들은 대체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걷기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력, 학력으로 인해 불편했던 점, 교육에 대한 욕구, 교육 프로그램, 신체적인 문제 등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대적 환경이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학력으로 인해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4명은 불편했던 점이 없다고 하였으며, 4명은 불편이 많았다고 하였다.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한글을 읽고 쓰기가 불편했다는 이도 있었다. 교육 욕구로는 한글, 영어, 컴퓨터 교육 등이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아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어 노인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이 어려워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의 문제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식, 원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 등의 개념이 나타났다. 지원받는 사회서비스로는 6·25 참전용사 연금, 노인연금, 명절 쌀 지원, 공무원연금 등이 언급되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사회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사회서비스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원하는 사회서비스로는 연금의 금액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역축제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 식사 지원, 의료비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한다는 답과 만족한다는 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영역은 만족도와 원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욕구로 구성되었다.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복지관의 크기가 더 커졌으면 한다는 의견과 노인정에 대한 불편이 많다고 하였다. 특별히 원하는 공공시설은 없다고 하였으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관계 영역은 가족관계, 친구와 이웃관계, 다른 관계망에 대한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6명의 연구참여자가 혼자 살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고 하였다. 자녀들과 연락은 많지만 명절 같은 날들을 빼고는 만남이 적다고 하였다. 1명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고도 하였다. 친구와 이웃들과 관계는 복지관, 노인정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이

가 있었고 친구 관계가 원활하다는 답도 있었다. 이사를 오기 전에는 이웃들과 친했는데 이사한 뒤로는 적응이 잘 안되어 친구가 거의 없다는 이도 있었으며, 모임과 종교 활동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다는 이도 있었다. 한 사례의 경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을 잘 대우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여가생활 영역은 현재 여가생활과 여가시설, 문제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여가생활로는 노인정과 복지관에서 하는 당구, 사교댄스, 게이트볼, 화투 등이 제시되었으며, 여가생활을 즐길 만한 곳이 복지관 밖에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여가시설로는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무료 문화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가생활의 문제로는 건강문제와 같은 연령대의 노인이 이웃에 없는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지역사회 영역은 소속감, 만족과 불만족, 바라는 점 등이 나타났다. 소속감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더욱 충당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보건소와 같은 무료시설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배우자가 없는 노년 후기 어르신들의 행복 점수는 평균 7.4점이었다. 행복에 대한 조건으로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 건강, 부부가 함께 사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직분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표 4-3-15〉 배우자가 없는 노년후기 어르신의 욕구

영역	개념	의미단위
재정	일정한 수입	노인연금, 공무원 연금, 6.25참전 용사 연금을 받음.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음(5명). 일정한 수입이 없음.
	대부분의 지출	가장 많이 나가는 지출은 식대, 약값, 병원비임. 주로 병원비가 가장 많이 나감. 동창회, 예식장, 교회 헌금 등에서도 많은 지출이 나감.
	일정한 수입에 대한 만족감	일정한 수입에 대하여서 만족감이 부족함(5명). 단독 노인이 살기 위해선 한 달에 약 100~200만원이 필요함. 현재의 수입에 만족함(5명).
	개인 자산 보유	개인 자산이 없음(8명). 개인 자산이 있음(2명: 1억 5~6천만원, 집, 땅 2000평)
고용	직업의 유무	직업이 없음(9명). 직업이 있음(발전기 엔진 수리사를 함(1명).
	고용에 대한 욕구	고용에 대한 욕구가 없음(6명). 고용에 대한 욕구가 있음(4명). 나이 때문에 직업을 가지는 데에 있어서 힘들다고 함. 고용의 욕구를 가진 분들은 사무직을 선호함.
	직업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의 노인 복지관에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노인 분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음.

영역	개념	의미단위
	직업 소개	노인 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소개 못해줌. 직업 소개를 해준 적이 거의 없음.
	직업을 가진 경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음(3명). 직업을 가졌던 노인 분들은 고학력자임.
주거	주거형태	아파트에 거주함(8명). 반 지하에 거주함(1명), 개인 주택에 거주함(1명).
	거주지역의 환경	거주지역 주변에 교통 환경이 잘 되어 있음.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 베란다에 매연 냄새가 남. 주변 공원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책하기 편함. 거주 지역 환경에 관심이 없음(1명). 아파트 주변이 허함.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거주지역에 대하여 만족함(아파트 거주자 7명). 거주 지역에 대해 만족을 못함(반지하 거주자 1명). 따로 원하는 주거 형태는 없음. 아파트 안에 목욕탕이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함.
	가전제품 배치 상태	모든 집마다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가전제품이 배치되어 있음.
건강	건강 상태	질병을 앓고 있음(3명). 몸에 질병은 없지만 문제가 있음(3명). 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음(4명).
	정신적인 스트레스	전립선 암에 걸리신 분은 2시간 마다 소변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잠자리 스트레스가 있다고 함. 의료비로 인하여서 스트레스가 있다고 함. 노인정 회장직, 노래방 운영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음(2명).
	무료 의료 시설 및 무료 건강 서비스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멀어 가기가 힘들. 건강 프로그램이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함(1명). 노인복지관에서 운동 할 수 있는 기구가 어렵다고 함. 보훈 병원에 다녀서 병원비가 할인이 됨(2명). 모든 노인 분들 거주지 주변에는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병원이 가까이 있음.
	의료비용	병원비, 약값이 많이 나가 부담스러워 함.
	건강을 위한 운동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질병이 있었던 분들이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임(5명). 운동을 하는 분들은 걷기 운동이나 복지관에서 운동을 함.
교육	학력	학교를 못 나왔음(2명). 초등학교를 졸업함(4명). 중학교를 졸업함(2명). 고등학교를 졸업함(1명) 대학교를 졸업함(1명). 시대적인 환경이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함.
	학력으로 인해 불편했던 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력으로 인해 불편했던 점들이 없음(4명). 학력으로 인해 살아오는 데에 불편함이 많았음(4명).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한글을 읽고 쓰기가 불편함.
	교육에 대한 욕구	글을 읽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함. 영어, 컴퓨터와 같이 요즘 사회에서 사용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기를 원함. 나이가 많아 교육을 받는 데에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없음(2명).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함.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 노인 분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이 어려워 따라가기 어렵다고 함.
	신체적인 문제	청각적인 문제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움.
사회서비스	지원 받는 사회서비스	6.25 참전 용사는 참전 용사 연금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노인연금을 받고 있음. 명절 때 쌀을 지원 받음(1명).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고 함. 그에 대한 만족도는 적음.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식	사회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함(5명). 사회서비스로 인해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름.

영역	개념	의미단위
	원하는 사회서비스	연금의 금액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음. 지역축제가 많이 열렸으면 함.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야 함. 한 끼 식사를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함. 의료비 혜택이 늘어나야 함.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회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못함(2명). 사회서비스에 대해 만족함(2명).
공공서비스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	복지관의 크기가 더 커졌으면 함. 노인정에 대한 불편이 많음(난방, 크기)
	원하는 공공시설	특별히 원하는 공공시설은 없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졌으면 하겠다고 함.
관계	가족 관계	혼자 살며 가족들과 떨어져 자냄(6명). 자녀들과의 연락은 많지만. 만남이 명절 때 같은 날 빼고는 적음.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다고 함(1명).
	친구, 이웃 관계	복지관, 노인정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임.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활함. 이사를 오기 전에는 이웃들과 친했는데 이사 한 뒤로는 적응이 잘 안되어 거주지 주변에는 친구 분들이 거의 없음(1명). 모임과 종교 활동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밖에 없음.
	사회복지사와 복지관에 다니는 노인들과 관계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에 있는 노인 분들에게 잘 대우를 해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음.
여가생활	즐기고 있는 여가생활	즐기는 여가 및 취미 생활을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노는 것임(당구, 사교댄스, 게이트 볼, 화투).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 복지관 밖에 없다고 함.
	여가시설	복지관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많다고 함.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무료 문화시설들도 많아졌으면 함(2명).
	여가생활의 문제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건강문제 때문에 못 즐김(1명). 복지관을 안다 니시는 분은 주위에 같은 연령대에 이웃이 없어 같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음.
지역사회	소속감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의 소속감이 있음. 소속감 뿐만 아니라 애착 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도 있음.
	지역 사회에 대한 만족 및 불만	지역사회에 대하여서 대부분 만족을 함. 복지관 안에서 가끔씩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만족을 함.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	지역사회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더욱 충당시켰으면 좋겠음. 보건소와 같은 무료 진단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함.
행복	행복 점수	평균 7.4점
	행복에 대한 조건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임. 행복은 건강임. 행복은 자녀뿐만 아닌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임.
	미래에 행복의 조건	자신의 직분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 미래에 행복의 조건임.

## 2. 통합 분석

통합분석은 지금까지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들을 읽고 검토하면서 모든 집단들의 분석결과를 관통하면서 전체 조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주제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9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각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거리 두기

이 주제는 면접 내용에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 질적 조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하게 부각된 이슈다. 원래 계획된 18개 집단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3개 집단을 포기하게 된 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15개 집단별로 10명의 참여자들을 찾아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고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 전체가 매우 힘들었다. 이것은 사실 질적 조사만의 경험은 아니며 양적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나타났지만, 1시간 안팎의 면접을 진행해야 했던 질적 조사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지인을 통해 조사자들을 찾는 과정은 비교적 수월했지만 실제로 연락하여 협조를 부탁했을 때는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고,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 조사에 대해 설명했을 때는 성공률이 10% 미만에 머물 정도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점차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자기방어적 태도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아웃이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내의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대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사회복지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는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조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는 점점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모르는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멀리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들은 문을 점점 굳게 닫아걸고 있다.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을까? 벽을 낮출 수 있을까?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

## 2) 그러저럭 괜찮은 생활, 약간의 불편함

이번 질적 조사는 일반적인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 고용, 주거, 건강, 교육 등의 다양한 조사영역에서 특별히 심각한 사회문제나 생활의 어려움 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행복 점수에서도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7점 이상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일반적인 대전 시민들은 그러저럭 괜찮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재정이나 고용, 주거, 건강, 교육의 영역에서 조금씩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은 사회복지제도와 연결되기에는 다소 약한 수준이어서 이후에 나올 사회서비스의 체감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전이 몇 가지 불편사항이나 불만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쉬운 접근성(전국적인 교통망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물리적 환경도 깨끗한 편이며, 공기도 맑은 편이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불편사항이나 불만거리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전지역 내 교통망이다. 그동안 대전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욕구도 있으며,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운송정보 안내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고 시내를 벗어난 곳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무작정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QR 코드를 인식하는 앱을 활용하여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오염까지 고려한 대안이 공중자전거 대여체계인 '타슈'인데, 타슈의 경우 인지도도 높고 활용도 많이 되고 있지만 역시 지역간 편차가 크고 이용에 불편한 점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은 차차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많이 제기된 사항으로 놀이터와 도서관이 있다. 동네 놀이터는 밤에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가 많아서 치안과 관련하여 민원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낮에도 놀이터의 놀이기구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 파손 등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경우 그동안 근린지역별로 많이 설치가 되었지만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고 용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반면에, 인근 학교의 도서관이 개방되어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 기관들과 공공도서관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대전지역 도서관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저마다 다른 관심

이번 질적 조사에서 조사참여자들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고 다시 주요 특성을 교차하여 세부적인 집단들로 구성한 것은 생애주기별로 대전 시민들의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었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 생애단계에 따라 참여자들의 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상생활의 관심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고생들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다. 청장년기 남녀들은 일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어르신들은 건강과 여가생활에 일차적인 초점을 둔다. 여가에 대해 말하자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서비스를 원하고,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원하며, 장년기 성인들은 쉬기를 원하고, 어르신들은 또래 노인들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바란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여가/문화 시설과 서비스들이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애주기별로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을 구분하고, 대전 전체와 권역별로 여가시설들을 생애단계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가/문화 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영역들도 대전이라는 권역 내에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4) 불만은 가깝고, 개선은 멀다

이번 질적 조사에서 조사결과에서가 아니라 조사과정 중에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많은 대전 시민들이 각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으며,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양적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였다. 마지못해 조사에 응하기는 하지만, 조사결과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사는 조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다. 그래서 불만은 있지만 그것을 제도를 향해 던지지는 않고 보통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결과적으로 불만은 많지만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불만사항들을 응집하려는 노력이 사회조사지만, 많은 시민들은 사회조사 결과가 대전시의 제도개선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요구한 개선사항들을 집약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를 다시 홍보하는 선순환적인 환류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민원'의 형태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에 접수되고, 최근에는 이들 기관이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노력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인식되지는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일정 기간에 접수된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의지를 천명하며, 실제로 해결 노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 5) 그게 뭔데요?

이 주제는 조사에 참여한 대전 시민들이 대전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여가/문화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조사참여자들이 '그게 뭔데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론적으로도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정의는 그리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런 개념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많은 조사참여자들이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여가/문화시설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고, 면접 과정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여가/문화시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는 교통, 통신, 공중보건, 환경, 문화, 치안 등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조사에 참여한 대전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수의 대전 시민들은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그러저럭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고, 불만은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만큼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그것을 경험할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가 선별주의적으로 제공되거나 소극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될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 6) 꼭꼭 숨어있는 제도

이 주제는 위의 ‘그게 뭔데요?’와 짝을 이루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치안이나 교통, 통신, 공중보건, 환경, 문화, 치안 등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공중보건 영역에 해당하는 보건소다. 조사참여자들의 면접 자료에서도 일부 드러난 것처럼 보건소를 일부 저소득층이나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질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통신, 환경, 문화 등에 대해서도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전 전체의 포괄적인 서비스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공공서비스보다 더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회서비스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개별 시민이 사회적 위험에 처하거나 사회문제를 경험할 때만 접하게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평소에 사회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갑자기 사회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어떠한 사회서비스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또는 가족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유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서비스 체계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꼭꼭 숨어 있다가 어려움에 처한 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만나게 되는 어떤 것이다.

## 7) 나와는 상관없는 복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평소에는 꼭꼭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인식된다. 또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정의는 대체로 선별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지도가 높은 사회서비스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은 보육서비스인데, 특히 영유아기와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부분 이 서비스를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는 복지가 ‘나

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지도가 낮은 것, 다시 말해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가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체감도가 낮게 되면 많은 시민들은 자신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이고 있고,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납세에 저항하거나 복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수준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별주의와 함께 보편주의적인 서비스를 함께 확대해가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 8) 어긋남

이 주제는 대전 시민들의 욕구와 대전의 서비스나 자원이 어긋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볼 때 대전 시민들은 그러저럭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고, 대전의 사회 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여가/문화 시설과 서비스는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조사참여자들이 불편사항을 언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다양한 서비스 욕구들을 표출하였음을 고려할 때, 욕구와 자원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된다. 이것은 앞서 나온 '저마다 다른 관심'과 연결된다. 생애주기와 개인/가구의 특성에 따라 대전 시민들은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원과 서비스는 제한된 형태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민간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9) 나는 그냥 대전에 사는 사람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질적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 중의 하나는 조사에 참여한 대전 시민들이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속감, 대전 시민이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대전 시민들의 지역사회 정체성은 '대전 시민'이라기보다는 '대전에 사는 사람'에 가까워보인다. 사실 공간적 이동성이 높은 오늘날에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나 연대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낯선 사람에게 선뜻 내어주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소속감이나 정체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대전이라는 지역사회 구성원이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 조사참여자들이 언급한 지역축제다. 대전시나 자치구, 또는 근린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축제가 벌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축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시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흥미를 끌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큰 비용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잔치가 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수년 전에 호주 브리즈번 지역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브리즈번은 인구가 200만명쯤 되는 대도시이면서도 도시 전체가 녹지로 조성된 녹색도시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장식 콘테스트 형식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집을 각종 크리스마스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식하고 콘테스트에 참여하면, 시 의회가 순위를 매겨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그러면 그 시즌 동안 시민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집을 찾으러 다니며 구경하고 그 과정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단일 아이템으로 도시 전체가 들쭉이는 것이다. 대전에는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있고, 더욱 풍부한 아이템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 중에서 많은 시민들의 흥미를 끌만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하면, 점차 분위기를 확산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 제4절 소결

대전 시민복지욕구 질적 조사는 양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조사의 특성인 조사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그 맥락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생애주기 단계와 단계별 주요 특성을 교차하여 18개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별로 10명씩을 표집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3개 집단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15개 집단, 151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귀납적 범주화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15개 생애주기-특성 집단에 대한 개별 범주화 분석결과와 전체 자료와 분석결과를 통합하는 주제 분석결과로 구성되었다. 통합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전 시민들의 복지욕구 관련 주제들은 ‘거리 두기’, ‘그럭저럭 괜찮은 생활, 약간의 불편함’, ‘저마다 다른 관심’, ‘불만은 가깝고, 개선은 멀다’, ‘그게 뭔데요?’, ‘꼭꼭 숨어있는 제도’, ‘나와는 상관없는 복지’, ‘어긋남’, ‘나는 그냥 대전에 사는 사람’ 등이었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전 시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과 실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지침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주의 정책이란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기존에 빈곤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게 지급되는 선별주의 수당 외에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주의 수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복지수준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체계를 기획할 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령이나 성별, 가구 특성 등에 따라 가장 욕구가 높은 서비스들을 하나씩만이라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그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을 새로 설립하려고 할 때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없더라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기 남녀, 장년기 남녀, 노년기 남녀에게 필요한 도서공급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들을 증가시켜 나가다 보면, 일반시민들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기 자신이 혜택을 돌려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납세나 다른 사회복지 공급활동에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보편주의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무료서비스나 저가의 유료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점차 아동수당 등 재정 부담이 큰 제도들로 확대해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대전지역만의 독특한 지역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미 대전에서도 많은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시민들은 그러한 축제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고, 참여도도 그리 높지 않으며, 충분히 즐기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전시 차원에서 축제들을 재조직화하고, 대전만의 독특한 특성을 부각시킬만한 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하위집단별, 이슈별 축제도 필요하지만, 모든 세대가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촘촘한 맥락’ 구축 전략을 제안한다. 이것은 기존의 주민조직화 사업이나 자원봉사활성화, 네트워킹, 반사회, 자치방법대, 복지만두레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전 시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치적인 시민 안전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둔 사회적 위험은 자살, 독거노인의 사고와 사망, 미혼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맞벌이부부 가정 아동의 방임과 학대 등이며, 안전망은 동 단위로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시민들이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유급봉사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재능기부나 재정후원도 포함된다. 공공조직은 재정을 투자하고, 민간조직은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시민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형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만두레가 이러한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로운 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면 복지만두레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재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복지만두레는 대전시의 독특한 복지지원체계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높지 않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더 촘촘한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계망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서서 실천하지는 않는 ‘잠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현재적’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별 시민들에게까지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곳에서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유성구 궁동에 거주하는 시민이 동구 신흥동에 있는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하러 가지 말고, 아파트 단지 옆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손가정 아동을 후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공식과 비공식,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를 포괄하는 공급주체들이 제공하고 있고, 제공할 수 있는 복지공급의 총량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전 시민들의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핵심

인물(준거집단과 같은)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전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행동화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전 시민의 포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을 제안한다. 즉, 이 포털사이트에만 가면 대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거나 연결될 수 있고, 관심분야별로 다양한 하위공동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형태다. 가능하다면 시민들 간의 베희시장 장터 기능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조직의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회원가입을 하여 활동하는 시민포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역 내에서 주거, 교육, 건강, 고용, 생활정보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사회들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지속적인 갱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화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가입 자체가 개별 시민들에게 인센티브가 되도록 구체적인 자원들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즉, 대전지역의 공공서비스, 문화여가시설, 영리 업체들과 제휴하여 가입시 다양한 장소에서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동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네이버의 파워블로거처럼 커뮤니티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사이트는 공공조직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복지를 포함하여 대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촉진 전략의 구축이 필요하다. 만약 앞서 제시한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면, 촉진 전략은 한결 쉬워질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SMS, SN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와 공공서비스들을 알리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여가/문화 시설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여가/문화 체계는 세대별, 하위집단별, 분야별 구성도 필요하고, 모든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전업주부들은 오전, 아동과 청소년들은 방과 후, 직장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저녁, 어르신들은 점심 시간을 전후로 한 낮 시간대, 가족은 주말에 여가시간을 갖게 되므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일련의 지역축제들을 통해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제언

본 조사는 대전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만족도와 현황 및 지역별·대상자별 복지관련 수급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욕구를 조사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전시 전체와 각 구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전략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책개발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총 1,351가구, 총 3,840명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앞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제시되었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적·실천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저소득시민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실시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대전 시민들의 대부분은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시민의 경우, 근로 중지로 인한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위기에 당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는 ‘긴급지원제도’라 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전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전비전 2020”에 따르면 대전시의 주요한 사회복지 관련 비전의 핵심 전략의 하나가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 이었는데, 본 조사를 통해 생활보장은 저소득시민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의 보장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지원 프로그램 역시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였는데 근로의 공백이 발생할 시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각 구별 차별화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5개 구가 각기 구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동구·중구·대덕구와 서구·유성구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 현황과 수요는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구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로 복지 수요자가 많은 동구·중구·대덕 구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복지 예산의 편성과 함께 사회복지인력의 추가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필요 시, 관련 기관이나 시설도 추가적으로 설립해야 할 것이며 서구·유성구에는 여가문화 시설의 확충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대전시의 특성화사업인 복지만두레(교육만두레 포함)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 시민들이 복지만두레에 대하여 인지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는 복지만두레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시민의 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의 복지지원과 협력이 중요한만큼 복지만두레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여 복지네트워킹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만두레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인 홍보뿐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서 복지만두레 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저출산·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통해 근로 능력과 근로 의지가 있는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 제도 등을 모르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자녀의 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대전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요자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제도를 홍보하고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전시와 각 구, 동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복지 수요자 뿐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2014년까지 장애인을 위해 설치 완료하기로 예정된 편의 시설의 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은 실효성에 있어 합치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초·중등학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업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 “시민과 함께하는 인간중심의 장애인복지도시 대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부록

## 〈부록 1〉 150개 표본 통, 반 리스트

순번	구	동	통반 (표본지점)	표본지점수
1	동구	가양1동	15통3반	1
2		가양1동	2통5반	1
3		가양2동	10통2반	1
4		가양2동	23통2반	1
5		가양2동	4통1반	1
6		대동	15통6반	1
7		산내동	24통2반	1
8		산내동	29통5반	1
9		삼성동	14통2반	1
10		삼성동	6통1반	1
11		성남동	2통3반	1
12		신인동	15통5반	1
13		용운동	14통4반	1
14		용운동	17통4반	1
15		용운동	25통5반	1
16		용전동	14통4반	1
17		용전동	25통1반	1
18		용전동	7통4반	1
19		자양동	12통5반	1
20		자양동	5통5반	1
21		중앙동	19통1반	1
22		판암1동	1통7반	1
23		판암2동	11통1반	1
24		판암2동	19통3반	1
25		홍도동	12통6반	1
26		홍도동	6통2반	1
27		효동	20통10반	1
28		효동	24통5반	1
29	중구	대시동	13통6반	1
30		대흥동	24통6반	1
31		목동	2통1반	1

순번	구	동	통반 (표본지점)	표본지점수	
32	중구	문창동	7통5반	1	
33		문화1동	15통2반	1	
34		문화1동	19통6반	1	
35		문화2동	11통3반	1	
36		문화2동	3통3반	1	
37		부사동	13통2반	1	
38		산성동	12통5반	1	
39		산성동	17통3반	1	
40		산성동	26통1반	1	
41		석교동	16통3반	1	
42		석교동	24통5반	1	
43		오류동	13통6반	1	
44		용두동	10통2반	1	
45		유천1동	4통3반	1	
46		유천2동	17통8반	1	
47		유천2동	8통3반	1	
48		은행선화동	18통5반	1	
49		은행선화동	31통3반	1	
50		중촌동	15통1반	1	
51		중촌동	3통1반	1	
52		태평1동	17통3반	1	
53		태평1동	6통8반	1	
54		태평2동	15통6반	1	
55		태평2동	19통2반	1	
56		태평2동	25통5반	1	
57		서구	가수원동	5통2반	1
58			가장동	16통6반	1
59			갈마1동	12통4반	1
60	갈마1동		27통4반	1	
61	갈마2동		1통5반	1	
62	갈마2동		20통1반	1	
63	갈마2동		32통5반	1	
64	관저1동		1통3반	1	
65	관저2동		20통6반	1	

순번	구	동	통반 (표본지점)	표본지점수
66	서구	관저2동	2통5반	1
67		괴정동	24통2반	1
68		괴정동	4통2반	1
69		내동	1통1반	1
70		내동	30통6반	1
71		도마1동	26통1반	1
72		도마1동	39통2반	1
73		도마2동	26통1반	1
74		도마2동	34통3반	1
75		둔산1동	1통5반	1
76		둔산2동	24통9반	1
77		둔산2동	40통5반	1
78		둔산2동	9통3반	1
79		둔산3동	2통1반	1
80		둔산3동	37통4반	1
81		만년동	4통2반	1
82		변동	22통2반	1
83		변동	31통1반	1
84		복수동	21통1반	1
85		복수동	25통3반	1
86		용문동	20통2반	1
87		월평1동	19통2반	1
88		월평1동	7통4반	1
89		월평2동	16통1반	1
90		월평2동	22통5반	1
91		월평3동	10통6반	1
92		월평3동	1통5반	1
93		정림동	2통1반	1
94		탄방동	1통4반	1
95		탄방동	32통4반	1
96		탄방동	9통1반	1
97	유성구	관평동	10통6반	1
98		관평동	16통6반	1
99		관평동	20통1반	1

순번	구	동	통반 (표본지점)	표본지점수
100	유성구	구즉동	10통6반	1
101		구즉동	22통7반	1
102		구즉동	38통3반	1
103		노은1동	16통3반	1
104		노은1동	25통4반	1
105		노은2동	15통5반	1
106		노은2동	23통4반	1
107		노은2동	29통6반	1
108		노은2동	33통5반	1
109		신성동	20통2반	1
110		신성동	22통6반	1
111		신성동	45통3반	1
112		온천1동	19통1반	1
113		온천1동	32통1반	1
114		온천1동	45통2반	1
115		온천1동	47통1반	1
116		온천2동	10통4반	1
117		온천2동	1통3반	1
118		온천2동	22통1반	1
119		온천2동	28통1반	1
120		온천2동	45통2반	1
121		전민동	24통4반	1
122		전민동	2통4반	1
123		진잠동	18통1반	1
124		진잠동	24통1반	1
125	진잠동	28통3반	1	
126	대덕구	대회동	15통2반	1
127		덕암동	11통6반	1
128		덕암동	7통1반	1
129		목상동	5통1반	1
130		법1동	18통2반	1
131		법1동	4통1반	1

순번	구	동	통반 (표본지점)	표본지점수
132	대덕구	법2동	16통7반	1
133		법2동	23통5반	1
134		비래동	18통1반	1
135		비래동	3통5반	1
136		석봉동	12통4반	1
137		송촌동	14통4반	1
138		송촌동	1통2반	1
139		송촌동	24통5반	1
140		송촌동	38통2반	1
141		신탄진동	11통2반	1
142		신탄진동	26통1반	1
143		오정동	26통1반	1
144		오정동	36통2반	1
145		오정동	6통4반	1
146		중리동	15통4반	1
147		중리동	19통2반	1
148		중리동	30통1반	1
149		회덕동	13통1반	1
150	회덕동	29통3반	1	

〈부록 2〉 구별, 동별로 조사된 가구 수 현황

동 구		중 구		서 구		대덕구		유성구	
용운동	24	태평1동	25	둔산동	28	송촌동	17	관평동	24
판암동	24	산성동	24	월평동	22	덕암동	16	구암동	24
가양동	21	유천동	20	갈마2동	21	법1동	16	지족동	24
가양2동	19	선화동	16	관저동	23	법2동	16	진잠동	24
가오동	16	문화동	15	괴정동	16	비래동	16	궁동	16
산내동	16	중촌동	18	복수동	16	신탄진동	16	신성동	16
삼성동	16	태평2동	16	월평3동	16	오정동	16	장대동	16
용전동	16	문화1동	17	탄방동	16	송촌동	13	전민동	15
자양동	16	석교동	10	내동	16	중리동	13	봉산동	12
홍도동	16	대시동	8	도마동	16	중리동	11	송강동	12
대동	8	대흥동	8	갈마1동	19	오정동	9	하기동	16
성남동	8	목동	8	변동	16	대화동	8	노은동	9
용전동	8	용두동	8	둔산3동	12	목상동	8	도룡동	8
중앙동	8	부시동	8	가장동	8	석봉동	8	봉명동	8
신인동	8	오류동	8	도마2동	8	와동	8	어은동	8
		문창동	8	둔산1동	8	읍내동	8		
		석교동	6	만년동	8				
		유천2동	5	용문동	8				
				탄방동	8				
				가수원동	8				
				도마1동	8				
				월평2동	10				
				정림동	8				
합계	224	합계	228	합계	319	합계	199	합계	232

〈부록 3〉 설문지

NO				
----	--	--	--	--

## 2012년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주소	시      구      동      통      번지
	아파트/빌라      동      호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 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	1차 방문자 성명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 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	2차 방문자 성명	
최종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 결과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미완	최종 방문자 성명	
가구주 연락처		가구주 성명			
조사원 연락처		조사원 성명		지도원 확인	

본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 ❖ 연구책임자: 이현주 042- 331-8927
- ❖ 연구보조원: 강수경 042- 331-8928

## 가구의 일반 사항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월일		교육 수준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으로 기입한 후 아래 <가구주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①남 ②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세요.						①미취학 ②무학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교 ⑦대학원(석) ⑧대학원(박) ①재학 ②휴학 ③중퇴 ④수로 ⑤졸업	
	가구주와의 관계	관계 코드				생년	월	일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 가구주와의 관계표 *	
1. 가구주 본인	2. 가구주의 배우자
3. 가구주의 어머니	4. 가구주의 아버지
5. 가구주 배우자의 어머니	6. 가구주 배우자의 아버지
7. 가구주의 조모	8. 가구주의 조부
9. 가구주 배우자의 조모	10. 가구주 배우자의 조부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12=둘째 자녀, 13=셋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22=둘째 자녀의 배우자, 23=셋째 자녀의 배우자...)	
31. 가구주의 첫째 형제/자매(32=둘째 형제/자매, 33=셋째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첫째 형제/자매(42=둘째 형제/자매, 43=셋째 형제/자매...)	
51. 가구주의 첫째 형제/자매의 배우자(52=둘째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첫째 형제/자매의 배우자(62=둘째 형제/자매의 배우자...)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112=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122=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2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212=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2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222=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500. 기타 친인척  
 600.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① 비장애인 ② 지체장애 ③ 뇌병변장애 ④ 시각장애 ⑤ 청각장애 ⑥ 언어장애 ⑦ 지적장애 ⑧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⑨ 정신장애 ⑩ 신장장애 ⑪ 심장장애 ⑫ 호흡기장애 ⑬ 간장애 ⑭ 안면장애 ⑮ 장루, 요루장애 ⑯ 간질장애 ⑰ 비등락장애인	① 비장애인 ② 1급 ③ 2급 ④ 3급 ⑤ 4급 ⑥ 5급 ⑦ 6급 ⑧ 비등락 장애인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사실혼	① 무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① 같이 살고 있음 ② (국내) 지방에 근무 ③ 해외 근무 ④ 학업을 위한 별거 (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군복무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선택하여 표시					
1					
2					
3					
4					
5					
6					
7					
8					
9					
10					

건강상태	만성질환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형태	건강검진
① 매우 건강 ② 건강한 편 ③ 보통 ④ 건강하지 않은 편 ⑤ 매우 안 좋음	① 해당없음 ② 해당 ※ ②의 경우, 옆 칸에 질환명 기입	투병 기간 기입 ※ 년, 월 로 기입 예) 3개월 2년 8개월	① 약국 ② 종합, 대학병원 ③ 병의원 ④ 한방 병의원 ⑤ 보건소 ⑥ 기타	1년 중 받은 건강검진 횟수
1				
2				
3				
4				
5				
6				
7				
8				
9				
10				

기초보장 수급형태	① 해당없음 ② 일반수급가구 ③ 조건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① 해당없음 ② 가족 전부 수급 ③ 가족 중 일부 수급	
	※ 가족 중 일부 수급의 경우, 옆 칸에 가족 코드 모두 기입	
의료급여 수급형태	① 해당없음 ② 의료급여1종 ③ 의료급여2종	
	① 해당없음 ② 가족 전부 급여 ③ 가족 중 일부 급여	
	※ 가족 중 일부 급여의 경우, 옆 칸에 가족 코드 모두 기입	

근로능력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 근로시간 형태		직업종류	근로지속가능성
① 해당없음 ② 근로가능 ③ 단순근로가능 ※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④ 단순근로미약자 ※ 집안 일만 가능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 활동이나 집안일을 할 수 없음 ※ 아래 추가 문항으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⑨ 비경제활동인구 ※ 아래 추가 문항으로	① 전일제 ② 시간제	주관식 기입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아래의 추가 문항으로	
1					
2					
3					
4					
5					
6					
7					
8					
9					
10					

근로무능력 사유	비경제활동 사유	근로지속불가능 이유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 ④ 기타	① 근로무능력 ⑥ 가사 ② 군복무 ⑦ 양육 ③ 학업 ⑧ 간병 ④ 진학준비 ⑨ 구직활동포기 ⑤ 취업준비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① 계약 만료 ② 업무의 종료 ③ 직장에서의 퇴직 권유(명예 퇴직이나 희망 퇴직 등) ④ 기타 ※ 기타의 경우 이유를 기입
1		
2		
3		
4		

5			
6			
7			
8			
9			
10			

* 용어해설 *		
경제 활동 인구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자활 및 공공 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 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어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가입종별	납부여부/이유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공적 연금	① 해당없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① 납부 중	개인 연금	① 비가입 ② 개인연금만 가입 ③ 종신보험만 가입 ④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② 국민연금		② 미납 중		
	③ 공무원연금		☞ 추가 문항으로		
	④ 사학연금		① 생활곤란 ②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③ 필요성을 못 느낌 ④ 기타		
⑤ 군인연금					
⑥ 별정직우체국연금					
⑦ 미가입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용어해설 \***

- 임의가입: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 임의계속가입: 60-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 개인연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중신보험: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 소득 및 고용

다음 문항부터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부분에 √ 체크해주세요.  
모든 질문과 답은 **2012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지난 1년 동안(2011년 8월-2012년 7월) 귀 닥의 소득과 지출은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소득	원	월평균 지출	원
--------	---	--------	---

2. 귀 닥의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가구주의 근로소득    | <input type="checkbox"/> 가구주 배우자의 소득 | <input type="checkbox"/> 동거가족 소득     |
|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금        | <input type="checkbox"/> 각종 후원금      | <input type="checkbox"/> 공격 연금       |
| <input type="checkbox"/> 사적 연금        | <input type="checkbox"/> 공공 근로/취로 사업 | <input type="checkbox"/>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 <input type="checkbox"/> 저축, 이자, 임대수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3. 귀 닥의 생활비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저축성 예금은 제외

- |                                       |                                     |  |
|---------------------------------------|-------------------------------------|--|
| <input type="checkbox"/> 자녀양육 및 교육비   | <input type="checkbox"/> 주택 임대료(월세) | <input type="checkbox"/> 세금, 보험료       |
| <input type="checkbox"/>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 <input type="checkbox"/> 생활용품 구입비      |
| <input type="checkbox"/>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비      | <input type="checkbox"/> 용자나 빚 등의 부채상환 |
| <input type="checkbox"/> 여가활동비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20. 귀하께서는 지난 1주일 간 다음과 같은 증상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①극히 드물었음	②가끔 느꼈음	③ 종종 그랬음	④ 대부분 그랬음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비교적 잘 지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상당히 우울했다		마음이 슬펐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잠을 설쳤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21. 귀 닥에 보건소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 가족이 계십니까? 이용한 가족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있음 ▶ 22번으로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없음 ▶ 24번으로

22. 보건소는 다음 중 무엇을 위해 이용하셨습니까? ▶ 23번으로

- |                                |                                |                               |                                  |
|--------------------------------|--------------------------------|-------------------------------|----------------------------------|
|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  | <input type="checkbox"/> 산전후관리 |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 <input type="checkbox"/> 각종 건강교실 |
|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 <input type="checkbox"/> 영양관리 | <input type="checkbox"/> 1차 진료   |
| <input type="checkbox"/> 치과진료  | <input type="checkbox"/> 한방진료  | <input type="checkbox"/> 물리치료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23.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5번으로

- |                                   |                                   |                                    |                                  |
|-----------------------------------|-----------------------------------|------------------------------------|----------------------------------|
| <input type="checkbox"/> 거리가 가까워서 |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저렴해서 | <input type="checkbox"/> 신뢰할 수 있어서 | <input type="checkbox"/> 시설이 좋아서 |
| <input type="checkbox"/> 직원이 친절해서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24.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교통이 불편해서                              | <input type="checkbox"/>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
| <input type="checkbox"/>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라서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혹은 낮을까봐) |
| <input type="checkbox"/> 직원이 불친절해서                             | <input type="checkbox"/>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 <input type="checkbox"/> 보건소는 특수한 사람(가난한 사람 등)이 이용하는 곳이라 생각되어서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31. 귀하께서 여가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행사 및 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낙후  
 불편한 교통       기타( )

32. 다음 중 귀하의 만족스러운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 확충 ▶ 33번으로       프로그램의 확대 ▶ 34번으로       비용 할인 ▶ 34번으로  
 교통 및 편의시설 증진 ▶ 34번으로       기타( ) ▶ 34번으로

33. 귀하께서는 다음 중 가장 확충이 시급한 여가 및 문화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극장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놀이 공원       체육 시설       문화교육센터       캠핑장  
 기타( )

34. 귀하께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배달강좌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안다.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잘 안다.

35.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배달강좌제도를 신청해보셨습니까? 신청해보셨다면 배달강좌제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있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하신 분 ▶ 36번으로

※ 보통, 만족하신 분 ▶ 37번으로

- 없음 ▶ 37번으로

36. 귀하께서 배달강좌제도에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해서       교육의 질이 낮아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강의료가 부담되어서

## 가족/ 자녀교육

37. 귀하께서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38. 귀 닥은 가족 내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문제정도	①전혀 심각하지	②별로 심각하지	③보통	④조금 심각	⑤매우 심각
	않음	않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알코올 및 약물		
가족의 취업 및 실업			가족 내 폭력		
자녀교육			가족의 건강		

39. 귀하께서는 우리 시가 귀 닥의 가족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가족상담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     | <input type="checkbox"/> 가족복지시설 자원 및 이용 확대 서비스  |
| <input type="checkbox"/> 가사 지원 서비스              | <input type="checkbox"/> 가정 내 폭력 관련 교육 및 상담, 치료 |
| <input type="checkbox"/> 생계비 지원                 | <input type="checkbox"/> 방과 후 자녀 보호 및 보육        |
|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지도 및 비행 청소년 선도, 교육 | <input type="checkbox"/> 가족부양지원서비스(노인, 장애인)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다음은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만 응답해주세요.

♣ 취학 전 영유아(1세-7세)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	40번-46번에 응답해주세요.
♣ 아동·청소년(8세-18세)을 양육하고 계시는 분	47번-53번에 응답해주세요.

### 취학 전 영유아의 부모

40. 지난 1년 동안(2011년 8월-2012년 7월) 귀 닥이 지불한 자녀의 보육비용은 월평균 얼마 정도이며 이는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어린이집 등에 지불하는 사교육 비용과 돌봄을 위해 가족(이웃, 유급 가사도우미 등)에게 지불하는 수고비만 기입

사교육비	원		수고비	원	
	매우 부담	조금 부담		보통	별로 부담안됨
교육비 부담정도					

41. 귀 닥의 자녀는 현재 어떤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43번으로  | <input type="checkbox"/> 놀이방▶ 43번으로        |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43번으로 | <input type="checkbox"/> 학원▶ 43번으로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43번으로 | <input type="checkbox"/> 이용하고 있지 않음▶ 42번으로 |                                     |                                    |

42.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44번으로

- 안심이 안 되어서
- 교육의 수준이 맞지 않아서
- 비용이 부담되어서
- 시설 환경 등이 안전하지 않아서
- 기타( )
- 집 근처에 없어서
-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영아나 장애아이기 때문)
- 시간이 맞지 않아서
- 교육 기관에 맡길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43. 귀하께서는 자녀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44번으로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교사의 자질					
급식 및 간식의 질					
교육 프로그램의 질					
시설, 설비 등 환경					

44. 귀하께서는 보육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육시설 확충 ▶ 45번으로
- 산전산후휴가 확대 ▶ 46번으로
- 보육비용 지원 ▶ 46번으로
- 보육을 위한 근로 시간 및 근로형태의 유연화(탄력근무제 등) ▶ 46번으로
- 기타( ) ▶ 46번으로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제도 확대 ▶ 46번으로
-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 46번으로
- 직장보육시설 확대 ▶ 46번으로

45.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어떤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6번으로

- 만 0-3세 미만의 영아전담 보육시설
-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
-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시설
-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 기타( )

46. 귀 닥에서는 다음의 영유아 관련 시설이나 기관, 복지사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기관이나 복지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인지여부		(인지한 경우) 이용여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	매우 만족
기 관	영유아보육지원센터									
	대전여린이회관									
	맞춤형특수 어린이집									
사 업	아이 돌보미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남편역할 변화교육									
	아빠 가사육아 참여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의 부모

47. 지난 1년 동안(2011년 8월-2012년 7월) 귀댁이 지불한 자녀의 보육비용은 월평균 얼마 정도이며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 비용과 돌봄을 위해 가족(이웃, 유급 가사도우미 등)에게 지불하는 수고비만 기입					
사교육비	원		수고비	원	
교육 및 양육비 부담정도	매우 부담	조금 부담	보통	별로 부담안됨	전혀 부담안됨

48. 귀하의 자녀가 방과 후 이용하고 있는 보육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부모와 함께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가사도우미, 이웃 등 비혈연에 위탁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종합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사교육 ▶ 49번으로 | <input type="checkbox"/> (외)조부모·친인척 등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학교의 방과 후 특기수업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아이 혼자 지냄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친구들과 함께 지냄 ▶ 50번으로<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

49. 귀 댁의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50번으로

- |   |   |   |
|---|---|---|
| <input type="checkbox"/> 교과 학원<br><input type="checkbox"/>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공부방 | <input type="checkbox"/> 과외<br><input type="checkbox"/> 기타( ) | <input type="checkbox"/>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체육, 연기 등) |
|---|---|---|

50. 귀하는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시설(학교)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교사의 자질					
급식 및 간식의 질					
교육의 질					
시설, 설비 등 환경					

51. 귀하께서는 다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조금 필요	매우 필요
저소득층 교육/보육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성폭력 예방사업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및 치료					
방과 후 보호사업					
정신건강(우울증, 자살 등) 예방, 치료					
자녀양육(부모교육 등) 지원					
학업 및 진로 지도					
성(性)/이성교제에 대한 상담					
문제 아동/청소년 지도 및 교육					

52. 귀 댁에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 복지사업의 지원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기관이나 복지 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인지여부		(인지한 경우) 이용여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불만	조금 만족	매우 만족
기관	어린이 체험 학습장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어린이복지관								
	어린이도서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전어린이회관								
사업	급식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53. 대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 안전관련 환경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잘 되어 있지 않음	보통	잘 되어 있음	매우 잘 되어 있음
자전거 전용도로					
어린이 안전구역 표지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놀이시설					

## 주거 및 지역사회

54. 현재 귀 댁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일반단독주택        | <input type="checkbox"/> 다가구용 단독주택    |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
|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빌라)      | <input type="checkbox"/> 일반아파트        |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아파트 |
| <input type="checkbox"/>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
| <input type="checkbox"/> 임시가건물         | <input type="checkbox"/> 공공(국민)임대주택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55. 현재 귀 댁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자가  | <input type="checkbox"/> 전세    |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 |
| <input type="checkbox"/> 사글세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56. 귀 닥에서는 다음의 주거복지관련 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인지여부		이용경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57.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2011년 8월-2012년 7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이사를 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공과금(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58. (201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귀 닥이 대전에 거주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59. 귀 닥께서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지역(동)에서 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장 또는 사업 때문에
- 자녀 교육 때문에
- 교통이 편리해서
- 집값이 저렴해서
- 자연환경이 쾌적해서
- 생활편의시설이 편리해서
- 오래 살았기 때문에
- 친인척(지인)이 가까워서
-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60.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대전					
해당 구					
해당 동					

61. 귀하께서는 우리 동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심각하지 않음	보통	조금 심각	매우 심각
미비한 교육 환경					
교통 문제					
여가·문화시설 부족					
환경 문제					
보건 의료시설의 부족					
사회복지기관의 부족					
범죄 등 치안 문제					

빈곤, 소득불평등 문제					
청소년 비행, 탈선문제					
주택 부족 및 집값 문제					

62. 귀하께서는 우리 시에서 다음의 사회복지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보육 사업 | <input type="checkbox"/>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사업 | <input type="checkbox"/> 노인 복지 사업    |
| <input type="checkbox"/> 여성 복지 사업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복지 사업      |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복지 사업 |
|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복지 사업  | <input type="checkbox"/> 빈곤 지원 사업       | <input type="checkbox"/> 가족복지 사업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63. 귀하께서는 다음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거의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전반적으로 나는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동네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이웃주민들의 집을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에게는 동네 주민들과의 친목과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동네에서 이사 나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만약) 지역주민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만약)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게 된다면 나는 우리 동네에 사는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비상시에 이웃주민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이웃주민들과 서로 물건을 빌리고 부탁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들과 함께 일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몇 년간 우리 동네의 거주자로 남아있을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이웃주민을 집으로 놀러오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이 나에게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용어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활동지원 서비스</li> <li>▫ 장애인활동보조지원: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보조 서비스</li> <li>▫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i> <li>▫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li> <li>▫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li> <li>▫ i 사랑 보육서비스: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li> <li>▫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청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li> </ul>

73. 귀하께서는 우리 시에서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알고 있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다음의 부분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응답해주세요.  
해당되지 않는 분은 다음의 질문 <장애인>으로 가십시오.**

74. 어르신께서는 현재 일(직업을 가지고)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음

▶ 75번으로

하지 않음 ▶ 어르신께서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 76번으로

아니오 ▶ 78번으로

75. 어르신께서는 현재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 79번으로

자영업

농업

자활사업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폐지 및 고물 수집

서비스직

청소, 파출부

경비, 관리

기타( )

76. 어르신께서 일을 하시고 싶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77번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타(무엇: )

77. (일을 하시고 싶은 경우) 어르신께서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중 참여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 79번으로

- |   |   |
|---|---|
| <input type="checkbox"/> 공익형(거리환경지킴이, 불법주차단속 등) | <input type="checkbox"/> 교육형(문화해설사, 교육강사 등) |
| <input type="checkbox"/> 복지형(독거노인, 장애인 보조)      | <input type="checkbox"/> 인력파견(공원관리원, 매표원 등) |
| <input type="checkbox"/> 시장형(간병인사업단, 택배사업단 등)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78. 어르신께서 일을 하시고 싶지 않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79번으로

- |                                      |   |
|--------------------------------------|---|
| <input type="checkbox"/> 건강이 좋지 않음   | <input type="checkbox"/> 여가를 즐기고 싶음       |
| <input type="checkbox"/> 가족들이 반대함    |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으로 넉넉함        |
| <input type="checkbox"/>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 | <input type="checkbox"/>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름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79. 현재 어르신께서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이웃 노인이나 친구들과 보냄 | <input type="checkbox"/> 경로당에 나감   |
| <input type="checkbox"/> 집안일이나 손자녀를 돌봄   | <input type="checkbox"/> 취미활동이나 운동 |
| <input type="checkbox"/>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을 이용  | <input type="checkbox"/> 종교 활동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80. 어르신께서는 향후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학습활동(영어, 한문, 교양강좌 등)   | <input type="checkbox"/> 시민단체 활동              |
| <input type="checkbox"/> 사회(자원)봉사활동             | <input type="checkbox"/>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주말농장 등) |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활동(수영, 댄스, 배드민턴 등) | <input type="checkbox"/> 사교활동 및 동호회 활동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81. 어르신께서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있음 ▶ 82번으로               | <input type="checkbox"/> 있음 ▶ 83번으로 | <input type="checkbox"/> 없음 ▶ 84번으로 |
| <input type="checkbox"/> 없음 ▶ 자원봉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

82. 어르신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자원 봉사 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85번으로

- |                                       |                                  |                                    |                                   |
|---------------------------------------|----------------------------------|------------------------------------|-----------------------------------|
|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봉사활동     | <input type="checkbox"/> 국제협력 분야 |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문화예술 | <input type="checkbox"/> 보건 의료 분야 |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83. (자원봉사를 원하신다면) 어르신께서는 어떤 영역 자원 봉사에 참여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 85번으로

- |                                    |                                       |                                       |
|------------------------------------|---------------------------------------|---------------------------------------|
|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봉사활동  | <input type="checkbox"/> 교통정리 및 환경 정비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
|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문화예술 | <input type="checkbox"/> 보건 의료 분야     | <input type="checkbox"/> 국제협력 분야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84. 어르신께서 자원 봉사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85번으로

- 시간이 없어서
- 건강이 좋지 않아서
- 봉사할 곳을 몰라서
-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 급여가 적거나 주지 않아서
- 봉사할 곳이 너무 멀어서
- 적성에 맞는 활동이 없어서
- 기타( )

85. 어르신께서는 다음의 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기관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인지여부		(인지한 경우) 이용여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단기, 주간)보호시설									
노인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경로식당									
치매상담센터									

※ 86번 질문은 노인복지 관련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86. (관련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88번으로

- 이용할 필요를 못 느껴서
- 관련 기관/시설이 있는지 모름
- 관련 기관/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음
- 관련 기관/시설이 너무 멀기 때문에
- 이용료가 비싸서
-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기타( )

※ 87번 질문은 **“한 기관”** 에라도 불만족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87. (관련기관을 이용하신 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88번으로

- 프로그램의 질이 형편없어서
- 관련 기관/시설의 직원이 불친절해서
- 이용료가 비싸서
- 관련 기관/시설이 너무 멀기 때문에
- 기타( )

88. 어르신께서는 향후 경로당이 어떤 기능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방
-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 장소
- 공동 작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
- 지역노인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장소
- 건강 관리의 장소
- 기타( )

89. 앞으로 우리 시가 노인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적 지원
- 치매 예방 및 치료 관리 강화
-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지원
- 여가활동 지원
- 기타( )
- 취업 및 부업 알선
- 노인 학대 예방 및 지원
- 노인교육 확대
- 노인복지시설 확충

90. 어르신께서는 우리 시에서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알고 계시며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인지 여부		이용여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기초노령연금 지원									
의료비 지원									
노인 무료 급식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교육서비스(한글교실 등)									
방문 건강 관리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경로 목욕권 지원									
유산균 음료배달									

\* 용어해설 \*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91. 어르신께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인지여부		이용여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방문요양(목욕, 옷 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주, 야간 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기타재가급여 (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등 복지용구)									
시설급여(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특별현금급여(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b>▶ 서비스제공기관 번호 ◀</b>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는 기관 하나만을 기입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복지관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 ( )									

<b>* 용어해설 *</b>
<p>▶ 행복나눔 푸드마켓: 복지 만두회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전달</p>

92. 어르신께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알고 있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



98. 다음의 문제를 귀하께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심각정도	①매우 심각	②조금 심각	③보통	④별로	⑤전혀 안 심각
병원비/수발비용 문제			장애인 시설 이용의 어려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장애인 취업 문제		
장애 치료/재활 시설 부족			장애인 차별 문제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부족			장애인(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미흡		

99. 귀하께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버스-택시가 불편함
-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함
- 전용 교통수단이 부족함
- 장애인용 자가용 보급, 운전면허증 취득의 어려움
- 기타( )

100.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출 시 도우미 지원
- 대중교통에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확대
-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확대 보급
- 보행환경 개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 교통 도우미 확대

101.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사회적인 차별 제거를 위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
- 학교에서의 인식 개선
- 고용에서의 인식 개선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장애인 문화장벽 제거 운동
-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
- 기타( )

102. 귀하께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이용 여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있음	없음	제공 기관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등)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서비스(장애인의료비 지원 포함)								
가정봉사 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장애아동(자녀) 보육비 및 프로그램 지원								
복지연계형 일자리지원								
<b>▣ 서비스제공기관 번호 ▣</b>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는 기관 하나만을 기입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건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복지관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 ( )								

103. 귀하께서는 다음의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 기관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인지여부		(인지한 경우) 이용여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평생교육원									
정신보건센터									
장애인공동작업장									

※ 104번 질문은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104. (관련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6번으로

- 이용할 필요를 못 느껴서
- 관련 기관/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음
- 이용료가 비싸서
- 기타( )
- 관련 기관/시설이 있는지 모름
- 관련 기관/시설이 너무 멀기 때문에
-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105번 질문은 **“한 기관”** 에라도 불만족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105. (관련기관을 이용하신 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6번으로

- 프로그램의 질이 형편없어서
- 이용료가 비싸서
- 기타( )
- 관련 기관/시설의 직원이 불친절해서
- 관련 기관/시설이 너무 멀기 때문에

106. 귀하께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가장 희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이용시간 및 회수의 보강          | <input type="checkbox"/> 이용료 인하            |
| <input type="checkbox"/>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 | <input type="checkbox"/>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
|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친절성) 보강   |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의견(욕구) 반영    |
|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확충                | <input type="checkbox"/> 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107. 장애의 예방을 위해 대전시는 향후 어떤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임신육아지침서의 발간 및 보급   | <input type="checkbox"/> 선천성 기형 진단 초음파 검사의 실시  |
| <input type="checkbox"/> 노인성 질환의 철저한 관리     | <input type="checkbox"/> 치매 전문 의료 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료재활센터 설치 및 확대 | <input type="checkbox"/> 응급의료체계 확충             |
|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 <input type="checkbox"/> 재해발생 고위험 직종의 특별관리     |
| <input type="checkbox"/>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

108.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의 확충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취업 지원 확충      |
|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확대 지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활동지원) 확대 |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교 확대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교육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및 활성화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가정(부모) 상담 및 지원   | <input type="checkbox"/> 여가, 문화 지원 활성화     |

♣ 자녀가 있는 여성	109번-116번에 응답해주세요.
♣ 여성 모두	113번-116번에 응답해주세요.

**다음의 부분은 성인 여성만 응답해주세요.**  
**해당되지 않는 가구는 다음의 질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십시오.**

109.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현재 하시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자녀 양육의 부담         | <input type="checkbox"/> 가사의 부담             |
| <input type="checkbox"/> 부부간의 공유(대화)시간 부족  | <input type="checkbox"/> 자녀와의 공유(대화)시간 부족   |
| <input type="checkbox"/> 육체적인 피로           | <input type="checkbox"/> 노부모의 부양 부담         |
| <input type="checkbox"/> 성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근로조건 | <input type="checkbox"/> 여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110.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에 산전산후 휴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시행되고 있음 ▶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input type="checkbox"/> 시행되지 않고 있음                       |                            |                              |

111.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에 육아 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음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 113번으로       아니오 ▶ 112번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112. 산전산후 휴가제도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 113번으로  
 장애 요인 없음       직장에서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 못함  
 휴직 후 복직 보장이 불투명해서       제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복직 후 직장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113. 귀하께서는 다음의 기관 및 시설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인지여부		(인지한 경우) 이용여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가정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관									
주부교실, 문화/여가프로그램									
여성회관									

※ 114번 질문은 여성복지 관련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114. (관련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6번으로  
 이용할 필요를 못 느껴서       관련 기관/시설이 있는지 모름  
 관련 기관/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음       관련 기관/시설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용료가 비싸서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기타( )

※ 115번 질문은 **“한 기관”** 에라도 불만족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

115. (관련기관을 이용하신 후 불만족한 경우)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6번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형편없어서       관련 기관/시설의 직원이 불친절해서  
 이용료가 비싸서       관련 기관/시설이 너무 멀기 때문에  
 기타( )



123. 귀하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 직업훈련
- 창업 지원을 위한 저리 융자
- 생계비 지원 확대
- 생필품 지원 확대
- 기타( )
- 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 일자리 제공
- 자녀의 교육 지원
- 방문간호나 간병

124. 귀하께서는 직업 훈련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있음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불만족하신 분 ▶ 125번으로

※ 보통, 만족하신 분 ▶ 127번으로

없음 ▶ 126번으로

125. 귀하께서 직업 훈련에 불만족하신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27번으로

- 훈련을 받는 동안 수입이 없음
- 훈련을 받는 동안 집안을 돌볼 수 없음
- 훈련 내용이 어려웠음
-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되지 않았음
- 받고 싶은 훈련이 부족함

126. 귀하께 직업 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유형의 훈련을 받고 싶으십니까? ▶ 127번으로

- 취업 가능성이 높은 훈련
-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훈련
- 근로와 병행이 가능한 훈련
- 기타( )

127. 귀하께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있음 ▶ 128번으로
- 없음 ▶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131번으로       아니오 ▶ 132번으로

128. 귀하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참여하신 자활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129번으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참여 의무자이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		<input type="checkbox"/> 창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input type="checkbox"/>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129. 귀하께서 참여하셨던 자활 사업은 무엇입니까? ▶ 130번으로

- 지역봉사(노인 및 장애인 간병, 노후주택 수리, 가사 지원 등)
-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풀베기, 화단 가꾸기, 거리청소 등)
-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공공기관, 복지관 도우미 등)
- 기타( )

130. 귀하께서는 향후에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원함 ▶ 131번으로
- 원하지 않음 ▶ 132번으로

131. (자활사업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사업 중 어떠한 종류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133번으로

- 지역봉사(노인 및 장애인 간병, 노후주택 수리, 가사 지원 등)
-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풀베기, 화단 가꾸기, 거리청소 등)
-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공공기관, 복지관 도우미 등)
- 기타( )

132.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33번으로

- 원하는 종류의 사업이 없음
-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자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
- 근로를 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 때문
- 기타( )

133. 귀하께서는 다음의 서비스와 고용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며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이용 여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있음	없음	제공 기관	매우 불만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서비스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프로그램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희망근로								

**\* 용어 해설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질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 용어 해설 \***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고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취업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기반으로  
서 자산형성 자원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134. 귀하께서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안다.
-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잘 안다.

135. 귀하께서는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여 개설하셨습니까?

- 참여 ▶ 136번으로
- 미참여 ▶ 종료

136. 귀하께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과 희망키움통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까?

- 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을 유지(적립)하고 있다.
- 중도에 탈수급하였으나 희망키움통장을 여전히 유지(적립)하고 있다.
- 중도에 탈수급하면서 희망키움통장을 포기(해지)하였다.
-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은 중도에 포기(해지)하였다.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2-2]

---

##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

발행일 : 2013년 5월

저자 : 이현주 외

발행인 : 김화중

발행처 : 대전복지재단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01-722)

전화 : 042-331-8909

팩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

ISBN 978-89-98568-01-6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